구원으로 가는 길

성 테오판 은둔자

목차:

서론 2

기독교 생활의 시작에 대하여 성세례 3

우리 안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3

세례 성사를 통해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7

회개를 통한 기독교 생활의 시작 26

고해 성사를 통해 기독교 생활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26

죄인의 상태 27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29

죄인의 죄의 잠에서 깨어남 30

죄인들을 죄의 잠에서 깨우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비범한 작용 31

자극적 은총의 선물을 얻는 일반적인 절차 38

죄를 버리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기까지의 여정 50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50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기 전 57

회개와 성찬의 성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무장함 60

회개하는 자에게 완전한 용서는 고해 성사 안에서 선포된다 60

회개하는 자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64

우리 안에서 기독교적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숙하며, 굳건해지는지에 대하여 66

우리 안에서 기독교적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숙하며, 굳건해지는가? 66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정신을 간직하는 것에 대하여 77

내면에 머무름 77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79

결심을 이끌어낸 감정 상태에 머무름 82

사람의 영적·육체적 힘을 선(善) 안에서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수행 지침 85

기독교적 삶의 정신에 따라 영적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수행들 88

새로운 생명의 영에 따른 육체의 절제 94

새로운 삶의 정신에 따른 외적 삶의 질서 96

영적 삶을 양육하고 굳건히 하는 은혜로운 수단 98

끊임없는 금식에의 접근 100

정욕과의 싸움에 관한 규칙, 또는 자기 저항의 원리 102

생생한 신과의 교감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114

하나님께로의 상승 115
생생한 신과의 교감은 침묵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무정(無情)으로 이끈다. 118

서론

『기독교 교리 개요』**에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감정과 태도가 묘사되어 있지만,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만 다뤄 보아도 얼마나 많은 의문점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지침이 필요한지, 게다가 거의 매 단계마다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책에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목표로 가는 길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계명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단지 "이것이 바로 그 길이다! 가라!"라는 말만 덧붙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니,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개는 가고자 하는 소망이 부족합니다. 어떤 정욕에 사로잡힌 영혼은 모든 강요와 부름을 완강히 거부하며,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마음에 들지 않으며, 그에 대해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말하자면, 영혼이 그 길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사람이 그 율법에 따라 행동할 때 억지스럽지 않고 자발적으로, 마치 그 율법이 그에게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치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 자체, 그리스도의 율법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단지 우리가 이를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필연적이고 성공적일 것인가? 아니다. 소망 외에도 행동할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 들어서거나, 은혜로운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미리 정해진 율법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에게는 필연적으로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구원받는다고 착각한 채 파멸에 이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림길은 회심한 자에게조차 남아 있는 죄악적인 충동과 힘의 혼란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사물은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져 사람을 유혹하고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탄의 아첨이 더해지는데, 사탄은 자신의 희생양과 마지못해 헤어지려 하며, 자기 영역에 있던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향할 때면 그 뒤를 쫓아가 온갖 올가미를 놓아 다시 붙잡으려 하고, 종종 실제로 붙잡기도 한다. 따라서 이미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도, 그 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탈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이에 대해 경고를 받고, 마주칠 위험을 미리 보며,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구원의 길에서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기독교 생활에 있어 특별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음 사항들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구원의 소망에 어떻게 도달하고 그 소망 안에 머물고자 하는 열정을 어떻게 품을지, 그리고 이 길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어떻게 무사히 하나님께로 나아갈지, 다시 말해: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살기 시작하고, 일단 시작했으면 그 길에 굳건히 서게 될 것인가. 이 지침은 사람을 하나님 밖에서 데려와 그분께로 돌리고, 그다음 그분 면전으로 인도해야 한다; 기독교인의 삶을 그 현상과 실제 행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즉, 그것이 어떻게 싹트고, 발전하고, 성숙하며, 충만함에 이르는지를 보여 주어야 하며, 또는 — 이는 같은 의미이다 — 각 기독교인의 활동적인 삶의 역사를 기록하여, 어떤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기독교적 삶의 시작과 발전은 자연적 삶의 시작과 발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기독교적

삶의 특별한 성격과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맺는 관계에 기인한다.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씨앗은 이미 뛰고 있는 마음의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손상되어 있으며 기독교의 요구와 정반대인 반면—예를 들어 식물에서 생명의 시작이 씨앗의 싹이 트는 것, 마치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는 것과 같은 것인 반면—사람 안에서 참된 기독교적 삶의 시작은 일종의 재창조이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의 부여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법으로 받아들여, 즉 기독교적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치자. 이 생명의 씨앗(결심)은 사람 안에서 그에게 유리한 요소들로 둘러싸이지 않는다; 게다가 사람 전체, 즉 그의 몸과 영혼은 새로운 삶에 적응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멍에에 복종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사람은 온전한 자기 자신과 모든 힘을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형성해 나가기 위한 땀 흘리는 수고를 시작하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식물의 성장이 힘의 점진적인 발달로서 가볍고 자연스러운 것인 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성장은 자기 자신과의 고된 투쟁—긴장되고 고통스러운—이며, 그는 자신의 힘이 향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힘을 조절해야 한다: 그는 마치 전사처럼, 비록 자신의 땅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양날의 검인 '자기 강제와 자기 저항'을 무기로 삼아 적들로부터 전쟁을 통해 빼앗아야 한다. 마침내, 오랜 수고와 노력 끝에 기독교적 시작은 승리를 거두게 되며, 저항 없이 지배하게 되며, 인간 본성의 전 영역에 스며들어 그 안에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요구와 욕망을 몰아내고, 그를 무욕과 순결의 상태로 이끌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복된 경지에 이르게 하여 — 그분과 지극히 진실한 교제 속에서 자기 내면의 하나님을 뵙게 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의 기독교적 삶의 모습이다. 기독교적 삶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를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둘째는 정화 또는 자기 수양, 셋째는 성화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가오실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마음의 성전을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화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에 거하시며 그와 함께 성찬을 나누십니다. 이 복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태야말로 모든 수고와 노력의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묘사하고 규칙으로 정립하는 것은 곧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에 대한 완전한 지침은 죄의 갈림길에 선 사람을 이끌어, 정화의 불길 같은 길을 지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맞춰 그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완결의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다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1) 우리 안에서 기독교적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2) 어떻게 완성되어 성숙하고 굳건해지는지, 그리고
3)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어떤 모습인지.

기독교 생활의 시작에 대하여

성세례

- 양육 기간 동안 이 은총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우리 안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스스로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그 삶의 시작이 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만일 놓여 있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그 시작을 놓아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칭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니...* (마태복음 7:21). 또한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다* (로마서 9:6). 기독교인의 수에 속해 있으면서도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가 기독교인답게 살기 시작하는, 매우 뚜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기독교적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능동적인 교제를 유지하려는 열심과 힘입니다. 기독교 생활의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으며, 이 교제는 처음에는 대개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숨겨져 있는 법이다. 반면, 이 교제가 우리 내면에서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증거는, 온전히 기독교적인 하나님 기쁘시게 하심에 대한 열정적인 열심이며, 완전한 자기 희생과 그에 반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이 열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독교적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며, 이 열심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특징적인 점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조금 더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내려놓으러 왔노라"*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시며, 그 불이 이미 타오르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눅 12:49).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며, 그 이유는 그 삶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불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이기 때문이다. 불이 스며든 물질을 태워 없애듯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열심도 그것을 받아들인 영혼을 태워 없애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재 때 불길이 건물 전체를 휩쓸듯이, 받아들여진 열정의 불길도 사람의 온 존재를 감싸고 채웁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불로 소금에 절여질 것이니..."*(막 9:4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열정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관통하는 성령의 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패하기 쉬운 물질 속으로 스며들어 썩는 것을 막아 주듯이, 열심의 영도 우리의 온 존재 속으로 스며들어, 영혼과 육체 모두에서 우리의 본성을 타락시키는 죄를, 그 가장 미세한 구석구석과 은신처에서까지 몰아내어, 우리를 도덕적 타락과 부패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살전 5:19)고 명령하며, *열심을 잃지 말라고, "영으로 불타오르라"*(롬 12:11)고 —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같이 명하시며, 영의 불타오름, 즉 게으르지 않은 열심이 그리스도인 삶의 필수적인 속성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구절에서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 뒤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소명의 영광을 향해 목표를 향해 힘쓰노라"*(빌 3:13-14);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리하여 상을 얻기 위해 달리라"*(고전 9:24)고 권면합니다. 즉, 기독교인의 삶에는 열렬한 열심의 결과로, 어떤 영적인 신속함과 활기가 있어,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착수하며, 자신을 짓밟고 아낌없이 온갖 수고를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보면, 교회의 규정을 냉담하게 이행하는 것이나, 계산적인 이성으로 정해진 일의 규칙성, 행동의 성실함, 품위, 정직함 등이 우리 안에 참된 기독교적 삶이 깃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지표는 아니라고 쉽게 결론지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좋지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생명의 영을 품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런 종류의 행위는 마치 영혼 없는 우상과 같을 것이다. 시계는 잘 돌아가고 있지만, 누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이름만 살아 있을 뿐,* 실상은 *죽은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계 3:1).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품행의 올바름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미혹하기 쉽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내면의 태도에 달려 있는데, 옳은 일을 행할 때에도 본질적인 진리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죄악된 일을 삼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것에 대한 애착이나 즐거움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오직 참된 열심만이 선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행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죄를 그 가장 미세한 뉘앙스까지 추적한다.

그 열정은 전자를 마치 생명의 양식처럼 갈구하며, 후자를 치명적인 적처럼 대한다. 적은 적을 그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지인, 심지어 그가 소유한 물건이나 그가 좋아하는 색깔, 말하자면 그를 조금이라도 연상시키는 모든 것을 미워한다. 진정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그 죄를 연상시키는 아주 사소한 단서나 암시에서도 쫓아냅니다. 이는 확고한 순결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불순함이 쌓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대한 열렬한 열망이 없다면, 과연 어떤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수고가 따르지 않는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일에 있어 더 큰 수고나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순간,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는 이유로 즉시 거부가 뒤따를 것이다. 그때는 선한 일을 하도록 스스로를 독려할 버팀목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연민은 모든 버팀목을 무너뜨릴 것이다. 만약 앞서 언급한 것 외에 다른 어떤 동기가 섞인다면, 그것은 선한 일조차도 악한 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모세 시대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순교자들은 내면의 불꽃에 타오르기에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 진정한 열성가는 합법적인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과 영혼에 은밀히 새겨지는 온갖 선한 영감도 실천한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 창의적이며, 오직 견고하고 참되며 영원한 단 하나의 선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다.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말하듯이, “열심과 영혼의 뜨거운 불꽃으로, 죽음 그 자체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제31강해).

경건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특히 초반에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할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즉 활기 넘치는 열정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상인, 전사, 판사, 학자들은 걱정과 수고가 많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고 속에서 무엇으로 힘을 얻는가? — 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다. 경건의 길에서도 이를 통해만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권태와 부담, 지루함,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느릿느릿 걷는 이도 걷기는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반면, 빠른 산양이나 민첩한 다람쥐에게는 움직임과 이동 자체가 즐거움이다. 열정적인 하나님 뵙기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정이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 거하는 죄에 맞서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습관이나 체면 차리기 위해,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게 되며, 게다가 아무런 회개도 없이 심지어 소홀히 한 점에 대한 기억조차 없이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가장 중요한 일처럼** 주의 깊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대충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 나태하고, 느슨하며, 생기 없고, 미지근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 그런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기 위해, 더러움이나 악덕,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것도 없이, 선한 일들을 향한 진정한 열심을 가진 자로 드러나도록 힘쓰자.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적극적인 열정의 불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 불꽃은 어떻게 타오르는가? 누가 그것을 일으키는가?

이러한 열정은 은혜의 작용으로 생겨나지만, 우리 자유의지 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자연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 시작, 즉 첫 번째 각성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씨앗 속에서 식물적 생명이 깨어나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싹에 수분과 온기가 스며들 때이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힘이 흘러들 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그곳에 영적인 생명의 씨앗을 심고, 어둡고 산산조각 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들을 정화하고 하나로 모아줄 때입니다. (외부적인 작용을 통해) 소망과 자유로운 탐구가 깨어나고, 그다음 (성사를 통해) 은혜가 내려와 자유와 결합하여 강력한 열정을 낳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스스로 그런 생명의 힘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힘에 대해 기도해야 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힘 있는 열정의 불꽃은 주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내려오시면, 그곳에서 단지 갉아먹는 열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열정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신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왜 하필 은총의 작용이 필요한가? 설마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이것저것 선한 일을 했다. 좀 더 살다가 또 무언가를 할 것이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런 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선행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중생, 새로운 삶, 구원에 이르는 삶 전체에 관한 것이다. 기회가 닿으면 이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 고의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선행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질서를 정하며 — 단 한 달이나 한 해가 아니라 평생 동안 — 그 질서 안에서 흔들림 없이 머물기로 다짐한 뒤,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힘을 자랑해도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기독교적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정립하려는 시도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그 모든 시도는 헛된 결과로 끝났고, 지금도 여전히 헛되이 끝나고 있다. 사람은 새로 정한 질서 속에서 잠시 버티다가 곧 포기해 버린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힘만이 끊임없는 세속적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변함없는 태도로 지탱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힘으로 충만해져야 하며, 이를 간구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그 힘이 우리를 들어 올려 이 일시적인 동요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다시 한 번 경험을 되돌아보십시오. 자만심에 찬 그런 생각이 언제 찾아오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그를 당황하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유혹하지 않으며 죄로 이끌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그는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욕의 움직임이나 유혹이 조금만 닥쳐도, 모든 서원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절제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에게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욕이 충족되고 나면 새로운 욕구가 솟아오르고, 그는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고 자존심을 거스르지 않을 때, 모욕을 참는 것에 대해 논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모욕감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말뿐만 아니라 눈빛 하나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이처럼 자만심에 빠져, 마음이 평온할 때는 더 높은 도움 없이도 스스로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꿈꿀 수 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악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휘몰아칠 때, 그때 비로소 누구나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생각 뒤를 잇고, 욕망이 욕망 뒤를 잇는—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나쁜—것들이 영혼을 괴롭히기 시작할 때, 그때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잊고 저절로 선지자와 함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내 영혼까지 미쳤도다. 내가 깊은 진창에 빠졌도다"*(시 68:2). *오, 주여, 구원하소서! 오, 주여, 서둘러 주십시오!* (시편 117:25).

자주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어떤 이는 선함 속에 머물겠다고 자신만만하게 꿈꾸곤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상상하는 순간, 욕망이 생겨나고 정욕이 불타오르며, 사람은 그 유혹에 휩쓸려 타락하고 만다. 그 후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흥의 기회가 찾아오면, 그는 다시금 자신을 잊을 준비가 되어 있다. 게다가 누군가 모욕을 주면, 욕설과 비난, 심판이 시작되고, 부당하지만 이득이 되는 거래가 나타나면 그것도 받아들인다. 한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세 번째 사람을 자리에서 밀어내는 등, 이 모든 일은 자신이 하늘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바로 그 후에 일어난다.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도다"*(마태복음 26:41). 선을 보고도 악을 행한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내게는 악이 깃들어 있도다"*(로마서 7:21). 우리는 포로 상태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향한 원수의 첫 번째 중상모략 중 하나는 자만심, 즉 은혜로운 도움의 필요성을 거부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원수는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려는 빛의 세계로 가지 마라! — 넌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해." 사람은 그렇게 안락함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사이 원수는 때로는 돌(시련)을 던지고, 때로는 미끄러운 곳(정욕의 유혹)으로 이끌며, 때로는 꽃으로 가린 올가미(화사한 분위기)를 놓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사람은 점점 더 멀리 나아가려 애쓰며, 자신이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마침내 악의 가장 깊은 곳— 지옥의 문턱—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럴 때 그에게, 첫 번째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들어갔느냐?"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 호소가 은혜의 역사이며, 죄인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독교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내려와 당신의 의지와 결합되는 그 순간이, 강하고 확고하며 풍성한 기독교적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시작하는 은혜를 어디서 찾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성사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거나, 하나님께 우리의 부정한 본성을 바치며, 그분은 당신의 역사로 그것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 참된 삶의 바로 시작에서 당신의 능력을 단순한 물질의 그늘 아래 감추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나, 온 기독교의 경험은 달리 될 수 없음을 증언합니다.

주로 기독교 생활의 시작과 관련된 성사는 두 가지, 즉 세례와 **고해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 생활의 시작에 관한 규칙 중 일부는 세례를 중심으로, 다른 일부는 고해성사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세례는 기독교에서 첫 번째 성사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사들을 통해 은총의 선물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세례 없이는 기독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으며, 교회의 일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지혜께서는 땅 위에 자신의 집을 지으셨는데, 이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세례 성사입니다. 이 문을 통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그 집에 걸맞은 옷을 입게 되며, 새로운 이름과 표식을 받게 되는데, 이 표식은 세례를 받는 이의 온 존재에 각인되어, 이를 통해 훗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들이 그를 알아보고 구별하게 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친다(고린도후서 5:17).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람은 세례반에서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빛이 어둠과 같고, 생명이 죽음과 같은 것처럼, 세례받은 자는 세례받지 않은 자와 정반대이다. 불법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세례를 받기 전까지 죄의 모든 독과 그 결과로 인한 모든 무거운 짐을 품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져 있으며, 본성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는 내면이 손상되고 혼란스러우며, 신체 각 부분과 힘의 균형이 깨져 주로 죄를 증식하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 자신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해 그 안에서 권세 있게 활동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이 모든 결과로 인해 그는 죽은 후 피할 수 없이 지옥의 노예가 되어, 그곳에서 자신의 군주와 그 추종자들, 그리고 하수인들과 함께 고통받아야 한다.

세례는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 구원해 줍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주를 풀어주고 축복을 되돌려 줍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상속자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들입니다*(롬 8:17). 천국은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세례 자체를 통해 이미 속해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며, 사탄은 이제 그에 대한 권세를 잃고 그 안에서 제멋대로 활동할 힘을 상실합니다. 피난처인 교회에 들어감으로써, 사탄은 새로 세례받은 자에게로 들어가는 길이 차단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마치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이며 외적인 혜택과 은사들이다.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죄로 인한 병과 상처의 치유이다. 은혜의 힘이 내면으로 스며들어, 그곳에서 신성한 질서를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고, 힘과 부분들의 구성 및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주된 방향,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행실을 더하는 데 있어서의 불균형까지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왜 중생, 즉 사람을 새롭게 된 상태로 이끄는 '새로운 탄생'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세례 받은 자들을 부활하신 구세주와 비교하며, 그들 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에게 드러난 것과 같은, 새롭게 된 빛나는 본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롬 6:4). 세례 받은 자의 삶의 방향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같은 사도의 다른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고린도후서 5:15). *그분이 죽으셨을 때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 죽으셨고, 살아 계실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기 때문입니다*(롬 6:10).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죽음에 묻혔으며*(롬 6:4),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폐하여지니,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롬 6:6). 이처럼 세례의 능력으로 사람의 모든 활동은 자기 자신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진리로 향하게 된다.

사도의 말씀이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롬 6:14). 이는 우리에게, 타락하여 뒤틀린 본성 속에서 죄로 이끄는 힘을 이루는 것이 세례를 통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가 그 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질 뿐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며 살아 움직이지만,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만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식적으로 그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영에게 속하게 된다. 성 디아도크는 세례의 능력을 설명하며, 세례 전에는 죄가 마음속에 거하고 은혜는 외부에서 작용하지만, 세례 후에는 은혜가 마음속에 거하고 죄는 외부에서 유혹한다고 말한다. 죄는 요새에서 적을 몰아내듯 마음에서 쫓겨나 몸의 각 부위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산발적으로 습격하며 활동합니다. 그렇기에 죄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더 이상 지배자는 아닙니다. 괴롭히고 불안하게 할 뿐, 명령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세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이때 인간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 혹은 어떻게 하여 세례를 통해 새롭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독교 교리 개요』, 특히 "기독교 생활의 규범"이라는 항목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를 반복하지 않는데, 세례를 받는 성인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선 죄인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짧지 않은 분량으로 다룰 것이며, 두 번째 장을 할애할 것이다. 그때면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이의 호기심이 충분히 충족될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유아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세례를 통해 기독교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독교 생활의 시작이 은혜와 자유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은혜가 자유로운 소망과 추구 위에 내려온다는 사실, 그리고 오직 이 둘의 상호 결합을 통해서만 은혜에 부합하고 자유로운 피조물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은혜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만, 사람이 그것을 구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를 요구하십니다. 회개와 성인 세례에서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에서는 어떻게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것일까요? 유아는 이성과 자유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기독교 생활의 시작을 위한 조건, 즉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망을 자신의 힘으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조건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유아 세례를 통한 생명의 시작은 몇 가지 특징적인 특이성을 띠게 됩니다.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은총은 갓난아기의 영혼에 내려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어 내는데, 마치 자유도 이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유일한 근거는, 아직 자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 갓난아기가 훗날 의식을 되찾았을 때, 스스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안에서 은혜의 작용을 발견하여 기꺼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은혜가 있음에 기뻐하고,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세례 받는 순간에 이성과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지금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른 것을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의 자유로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자유와 은혜의 조화를 위해, 신성한 은혜는 온전히 갓난아이에게 주어지며, 아이 자신 없이도 그 안에서 은혜가 본래 행해야 할 모든 일을 이루어 내는데, 이는 요구되는 소망과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일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 대부모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서약하며, 이 아기가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은혜를 위해 요구되는 바로 그 자유의 행사를 보일 것이며, 대부모로서 그 아기를 그 경지에 이르게 할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확신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세례를 통해 아기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그 안에 존재하지만, 그것은 아직 엄밀히 말해 아기의 것이 아니라, 그를 형성하는 힘으로서 작용한다. 세례의 은총으로 유아 안에 싹튼 영적 생명은, 그 사람이 의식을 되찾고 자유 의지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쁜 마음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 안에서 발견한 은총의 힘을 받아들일 때부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며, 은총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피조물로서의 속성과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 이전까지 그 안에서는 참된 기독교적 생명이 작용하고 있지만, 마치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작용할 뿐 아직은 마치 그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남아 있다. 그러나 의식을 깨닫고 선택의 순간부터 그 생명은 그의 것이 되며, 단순히 은총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 된다.

세례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 사이에 있는, 다소 긴 이 간격 때문에, 세례의 은총을 통한 유아들의 기독교적 도덕적 삶의 시작은, 말하자면, 불확정적인 시간의 영역으로 확장되는데, 그 기간 동안 유아는 성숙해지며 , 마치 이전에 어머니의 태 안에서 육체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처럼, 성스러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형성된다.

독자 여러분, 이 생각을 깊이 새기십시오. 이 생각은 성교회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세례받은 유아를 부모, 대부모, 양육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우리에게 지극히 필요할 것입니다.

아기가 세례를 받은 후 부모와 대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바로 세례받은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여, 아이가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은총의 힘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따르는 의무와 요구되는 삶의 방식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적 양육, 즉 세례의 은총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양육이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하며, 그 목적은 바로 이 은총을 보존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세례받은 유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더 명확해지도록, 앞서 언급한 생각, 즉 죄와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마음속에 있을 때 은혜가 그 마음을 감싸고 거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적극적으로 드러날 때, 그 밖의 모든 은혜의 선물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 즉 하나님의 호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사탄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것, 지옥에 정죄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등이 이어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마음과 정신의 태도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즉시, 죄가 다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며, 죄를 통해 사탄의 속박이 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유아 안에 있는 은혜는 죄를 누르고 잠재우지만, 죄에게 양식과 자유를 주면 다시 살아나 반기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세례반에서 받아들인 어린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지키어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이들의 모든 관심은, 죄가 다시 그 아이를 지배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죄를 억누르고 무력화시키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굳건히 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자라나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러한 마음가짐이, 비록 타인의 지도하에 있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나게 하여, 그가 점점 더 죄를 제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죄를 이겨내는 데 익숙해지게 하며, 영과 육의 힘을 죄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사용하도록 익숙해지게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거듭나고 세례를 받은 자가 온전히 미래의 씨앗이거나 씨앗으로 가득 찬 땅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세례의 은혜로 주입된 새로운 마음가짐은 단지 생각상의 것이거나 인위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이며, 즉 생명 자체의 씨앗이기도 하다. 만약 모든 씨앗이 그 본성에 따라 자라난다면, 세례받은 자 안의 은혜로운 생명의 씨앗도 자라날 수 있다. 그 안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다른 씨앗들처럼 그것도 자라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세례받은 유아에게 작용할 적절한 방법을 정해야 할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이 새로운 사람이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을 단순히 인간이자 이성과 자유를 지닌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의무를 맺은 존재로서, 그분의 영원한 운명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단순히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무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며, 그 방향으로 향하는 강한 끌림을 스스로 안에서 발견하는 데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세례받은 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혹은 —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모든 것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전체 사안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인 개관에 그치면서, 어떤 경우에 아이들의 선한 면을 어떻게 지지하고 강화하며, 악한 면을 어떻게 무력화하고 억제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능력도 깨어나기 전, 요람 속의 갓난아기에게 주목한다. 갓난아기는 살아 있으므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는 성사(聖事)가 적용되며, 그 뒤를 이어 모든 교회적 관습이 따르고, 이와 함께 부모의 믿음과 경건함도 작용한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갓난아기 주위에 구원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갓난아기 안에서 시작된 은총의 삶이 신비롭게 내재됩니다(영감을 받고, 심어집니다. *편집자 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사를 자주(가능한 한 자주라고 덧붙일 수 있다) 영접하는 것은, 주님의 지극히 순결한 몸과 피를 통해 주님의 새로운 지체를 주님과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며, 그 아이를 거룩하게 하고, 내면적으로 평온하게 하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행하는 이들은 아이에게 성체를 모시는 날, 아이가 깊은 평온에 잠기며, 모든 자연적 욕구—심지어 아이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조차—에 따른 격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때로는 기쁨과 영적인 장난으로 가득 차, 모든 이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기꺼이 안아주고 싶어 합니다. 성찬식은 종종 기적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한다. 성 안드레아 크리토스는 어린 시절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비통해하던 부모가 기도와 은총의 수단에 의지했을 때, 성찬식 중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총으로 혀의 묶임을 풀어 주셨고, 그 후 그는 교회에 달콤한 말솜씨와 지혜의 물줄기를 쏟아부었다. 한 의사는 자신의 관찰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소아 질환의 경우 아이들을 성체 성사에 데려가야 하며, 그 후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증언했다.

아이들을 자주 교회에 데려가고, 거룩한 십자가와 복음서, 성화에 손을 얹게 하며, 성수를 뿌려주는 일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집에서도 성화상 앞에 자주 모시고, 자주 십자 성호를 긋고, 성수로 뿌리고, 유향을 피우며, 요람과 음식,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것에 십자 성호를 긋고, 사제의 축복을 받고, 교회에서 가져온 성화상과 기도식을 집안에 모시는 것; 전반적으로, 모든 교회적 관습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아이의 은총 가득한 삶을 따뜻하게 하고 양육하며, 언제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뚫을 수 없는 울타리가 되어 줍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어디에서나 성장 중인 영혼에 침투(스며들고, 자라나기. *편집자 주*)하여 자신의 숨결로 그 영혼을 오염시키려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보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례받는 순간부터 아기 곁에 두신 수호천사입니다. 그는 아기를 지키며, 자신의 존재로 보이지 않게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극한 상황에 처한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견고한 울타리와 강력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들조차도, 부모의 불신과 부주의, 불경건함, 그리고 불선한 삶으로 인해 무너지고 아이가 그 혜택을 잃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수단이 아예 사용되지 않거나,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방식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적 영향 때문이다. 물론 주님께서는 특히 무고한 자들에게 자비로우시지만, 부모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 사이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으며, 우리는 전자가 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 또한 전자의 전염성 있는 영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이 후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영향이 중단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미리 준비된 원인들이 그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믿음과 경건한 정신은 자녀들의 은혜로운 삶을 보존하고, 양육하며, 공고히 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아기의 영혼은 태어난 지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은 마치 움직임이 없는 듯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전달하여 습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마음을 통해 영혼들이 소통하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감정을 통해 다른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마음으로 아기에게 온전히, 깊이 마음을 기울일수록 아기의 영혼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 속에서 사라지고, 흔히 말하듯 아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영혼이 경건함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이 본성상 아기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가 없다. 이때 가장 훌륭한 외적인 매개체는 시선이다. 다른 감각들에서는 영혼이 감춰져 있는 반면, 눈은 다른 이에게 그 영혼을 드러내 보인다. 이것이 한 영혼과 다른 영혼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니 이 창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혼이 거룩한 감정과 함께 아이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게 하라. 그들은 이 거룩한 기름으로 아이의 영혼을 기름부어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토록 자연스러운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의 품에 안긴 아이가 단순한 아이 그 이상이라는 믿음과, 이 보물을 은혜의 그릇처럼 그들에게 맡기신 분이, 그 아이를 지키기에 충분한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우러나는 희망으로 끊임없이 영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요람을 진심 어린 경건함의 정신으로 감싸 주고, 이때 한편으로는 수호천사가, 다른 한편으로는 성사들과 모든 교회적 전통이 겉과 속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렇게 하여 갓 싹트는 생명 주위에는 그 생명과 친화적인 영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마치 생명의 근원인 피가 그 성질상 주변 공기에 크게 좌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생명에게 그 특성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새로 만든 그릇은 그 당시 그 안에 부어 넣은 물질의 냄새를 항상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간직한다고들 한다. 아이들을 둘러싼 앞서 언급한 이러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아이의 형성되는 삶의 형태 속으로 은총과 구원의 힘을 담아 스며들어, 그 위에 자신의 인장을 찍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악의 영들의 영향력을 막아내는 뚫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

요람 시절부터 이러한 관행을 시작했으면, 이후로도 양육의 전 과정에 걸쳐—유년기, 사춘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교회, 교회적 삶, 그리고 성사들은 아이들을 위한 성막 과 같으며, 아이들은 그 아래에서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한다. 사뮤엘(예언자; 8월 20일 — *편집자 주*), 테오도르 시케오트(4월 22일) 등 여러 사례가 이것이 얼마나 구원을 주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지 보여준다. 심지어 이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양육 수단을 대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성공적으로 대체되고 있다. 고대의 교육 방식은 주로 여기에 그 핵심이 있었다.

아이에게서 힘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할 때, 부모와 양육자들은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수단의 인도 아래, 아이들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끌림이 자라나고 강해지며 그 힘을 이끌고 갈 때, 동시에 그들 안에 깃든 죄도 잠자고 있지 않고, 바로 그 힘을 장악하려 더욱 힘을 쏟기 때문이다. 이것의 피할 수 없는 결과는 내적 투쟁이다. 아이들은 스스로 이 투쟁을 벌일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그 자리를 현명하게 대신한다. 그러나 이 투쟁은 결국 아이들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모는 아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첫 징후를 엄격히 지켜보아야 하며, 첫 순간부터 아이들이 지향해야 할 주된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부모는 아이 안에 깃든 죄와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비록 이 죄는 발판을 잃었으나 여전히 활동하며, 무언가 견고한 것에 발을 디디기 위해 육체와 영혼의 힘을 장악하려 애쓴다.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마치 죄의 손아귀에서 힘을 빼앗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거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방식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행동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죄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으로 자양분을 얻고, 정확히 무엇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는지 스스로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죄로 이끄는 주요 원인은 마음속의 자만심(혹은 호기심), 의지 속의 제멋대로함, 감각 속의 자기 만족이다. 그러므로 발전해 가는 영혼과 육체의 힘을, 육체적 쾌락과 호기심, 제멋대로인 마음, 감각적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끌고 지도해야 한다. 이는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반대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 그것들을 제압하도록 훈련시켜, 그로써 가능한 한 그 힘을 약화시키고 무해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후 모든 교육은 이 원칙에 맞춰져야 한다.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몸, 영혼, 영의 주요 활동들을 다시 살펴보자.

무엇보다 먼저 깨어나고, 그 후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육체의 욕구이다. 따라서 이를 적절한 한도 내에 두고 습관으로 굳혀, 나중에 그로 인한 번거로움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여기서 육체적 삶에 있어 부정확한 행위는 바로 식사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식사는 육체의 죄악된 쾌락에 대한 정욕의 근원이자, 그 정욕이 발전하고 자양분을 얻는 장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육체적 생명을 발달시키고 강건함과 건강을 부여하면서도, 영혼 속에 육체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지 않도록 아이를 먹여야 한다.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어릴 때부터 거친 물질에 치우치기 쉬운 육체를 절제하도록 하고, 아이가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그래야 사춘기와 청년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욕구를 쉽고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다. 첫 번째 기초는 매우 중요하다. 어린 시절의 식습관에 따라 훗날의 삶이 크게 좌우된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식욕과 과식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탐식, 즉 몸과 영혼을 해치는 이 식습관에 기인한 성향이 자라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교육자들도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1) 양육 대상의 나이에 맞춰 건강하고 적절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식은 영아에게 적합하고, 다른 음식은 유아, 사춘기 아동, 청년에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2) 음식 섭취를 (다시 말해 연령에 맞춰) 정해진 규칙에 따르게 하여, 식사 시간, 양, 방법을 정하고, 3) 그런 다음 이렇게 정해진 규칙에서 불필요한 경우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는 먹고 싶을 때마다 음식을 요구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며;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첫 번째 연습이다. 아이가 울 때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마다 매번 먹여 주는 곳에서는 아이를 지나치게 나태하게 만들어, 나중에는 병에 걸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아이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조르거나 울음을 터뜨려 얻어내곤 하기 때문에 제멋대로인 성향에 익숙해집니다. 수면과 온도 조절, 그리고 영양 섭취에 자연스럽게 필요한 기타 편의 사항들도 같은 기준으로 다뤄야 하며,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지 않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양육 기간 내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 당연히 적용 방식은 유연하게 조정하되 본질은 변하지 않도록 — 양육받는 아이가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체득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신체의 두 번째 기능은 운동이며, 그 기관은 근육으로, 여기에는 신체의 힘과 강인함이 깃들어 있어 노동의 도구 역할을 한다. 영혼에 있어 이는 의지의 거처이며, 제멋대로인 성향을 키우기 매우 쉬운 부분이다. 이 기능을 절제 있고 현명하게 발달시키면, 신체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노동에 익숙해지게 하고 절제된 태도를 형성한다. 반대로, 비뚤어진 방식으로 방치된 발달은 어떤 에서는 과도한 활기와 산만함을, 다른 에서는 무기력함, 생기 없음, 나태함을 키운다. 전자는 제멋대로와 불복종을 강화하고 법칙으로 만들며, 이로 인해 과격함, 성급함, 욕망의 억제 불능이 따르게 된다. 후자는 육체에 빠져들게 하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게 만든다. 따라서 신체의 힘을 기르되, 그로 인해 제멋대로인 성향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고, 육체를 위해 영혼을 망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 규칙, 감독이다. 아이가 활기차게 놀게 하되, 지시받은 시간과 장소, 방식에 따라야 한다. 부모의 의지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물론 전반적인 차원에서, 관장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아이의 품성이 쉽게 비뚤어질 수 있다. 제멋대로 뛰어놀고 난 아이는 사소한 일이라도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는다. 이는 단 한 번의 일일 뿐인데, 이 부분이 완전히 소홀히 다뤄진다면 어찌 되겠는가? 제멋대로인 성향이 요새처럼 몸에 뿌리내리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근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목은 굽히지 않고,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으며, 눈조차 지시대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 반대로, 처음부터 움직임에 자유를 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떤 명령에도 매우 순종적으로 반응한다. 게다가 지시에 따라 몸을 긴장시키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데 더 잘 익숙해질 수는 없다.

신체의 세 번째 기능은 신경에 달려 있다. 감각 신경은 관찰의 도구이자 호기심의 양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신경의 또 다른 일반적인 역할, 즉 신체의 감각 중추로서, 혹은 신체에 유쾌하거나 불쾌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 점에서, 공기, 물, 온도 변화, 습기, 더위, 추위, 상처, 통증 등 온갖 종류의 외부 영향을 고통 없이 견딜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습관을 익힌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육체적 불편을 두려워하여 일을 미루거나,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육체가 괴로워할 만한 일에도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임한다. 그리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 육체에 대한 가장 큰 악은 더위를 좋아하고 육체를 아끼는 것이다. 이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모든 권세를 빼앗아 영혼을 육체의 노예로 만듭니다. 반대로, 육체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보에서 맹목적인 생명 사랑에서 비롯된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에 익숙해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여기에는 목욕, 산책의 시간과 장소, 옷차림에 관한 의학적 조언들이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단지 즐거운 자극만 받도록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을 주는 자극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는 몸을 나약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몸을 단련시킨다. 전자의 경우 아이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만, 후자의 경우 아이는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시작한 일을 인내심 있게 지속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신체 대우는 교육학에서 권장하는 바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조언들이 기독교적 삶의 발전에도 어떻게 적합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즉, 이를 열성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감각적 쾌락, 제멋대로인 행동, 육체 숭배, 또는 자기 연민과 같은 부적절한 요소들이 영혼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들과 정반대되는 성향을 형성하며, 전반적으로 몸을 하나의 기관으로 다스리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감각적 욕망과 육체의 모든 쾌락으로부터 초연한 기독교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신체 발달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처음부터 엄격한 규율 아래 두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그 아이를 기독교 생활에 이미 적응된 상태로, 기독교 생활에 적대적이지 않은 상태로 양육받는 아이 자신에게 맡길 수 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기독교인 부모는 이 은혜를 자녀에게 베풀기 위해 그 무엇도, 심지어 부모의 마음조차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후의 모든 사랑과 보살핌의 행위는 열매가 적거나 심지어 무익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는 정욕과 분노와 같은 가장 사나운 정욕들의 거처이다. 또한 육체는 악령들이 영혼에 침투하거나 그곳에 자리 잡는 통로이기도 하다. 당연히 이때 교회적 실천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육체에 적용할 수 있는 교회적 실천의 어떤 요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육체가 거룩해지고 탐욕스러운 동물적 본성이 누그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상세히 기술하지는 않고, 단지 육체에 대한 작용의 주요 방향만을 제시할 뿐이다. 세부 사항은 필요한 이에게 상황이 알려줄 것이다. 이 개요를 통해 삶의 나머지 모든 시간 동안 육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당연히 이해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육체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신체적 욕구가 드러남과 동시에, 영혼 속에서도 저급한 능력들이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라 지체 없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보라, 아이가 이 물건이나 저 물건에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에는 더 오래, 어떤 것에는 덜 오래 머무르니, 마치 하나는 더 마음에 들고 다른 하나는 덜 마음에 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감각을 사용하는 첫 번째 시작이며, 그 뒤를 이어 곧바로 상상력과 기억의 활동이 깨어납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신체 활동에서 정신 활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위치하며, 서로 협력하여 작용하므로, 한 쪽에서 이루어진 것이 즉시 다른 쪽으로 전달됩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이 능력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첫걸음을 신앙의 영역에 속한 대상들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인상은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혼은 순수한 힘 그 자체로 세상에 등장하며, 성장하고 내적 내용이 풍요로워지며 활동이 다양해지는 것은 그 이후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은 자신의 형성을 위한 첫 번째 재료, 첫 번째 양식을 외부에서, 즉 감각을 통해 상상력을 매개로 얻어갑니다. 형성되는 기독교적 삶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감각과 상상력의 첫 대상들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양식이 신체의 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혼이 접하는 첫 대상들도 영혼의 성격이나 삶의 기조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발달해 가는 감각은 상상력에 소재를 제공하며, 상상된 대상은 기억 속에 저장되어 말하자면 영혼의 내용을 구성한다. 감각이 신성한 대상들로부터 첫 인상을 받도록 하라: 눈에는 성화와 램프의 빛, 귀에는 성가 등이 그러하다. 아이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아직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눈과 귀는 이러한 대상들에 익숙해지며, 그것들이 마음을 먼저 차지함으로써 다른 대상들을 멀리 밀어낸다. 감각에 이어 상상력의 첫 연습도 신성해질 것이며, 아이는 다른 대상들보다 이러한 대상들을 상상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첫 번째 성향입니다. 그 후, 미래에는 감각과 상상력의 형태와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미(美)가, 오로지 신성한 형태를 띤 채로만 아이를 매료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 주변을 온갖 종류의 신성한 물건들로 둘러싸게 하되, 모범이나 그림, 사물 등을 통해 아이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치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 타락한 이미지들이 어떤 형태로든 영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눈을 감거나 혼자 남아 내면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수많은 부적절한 이미지들—헛되고, 유혹적이며, 정욕으로 가득 찬—에 짓눌리는 아이는 얼마나 불행한가. 이는 영혼에게 있어 머리에 맴도는 연기나 다름없다.

또한 이러한 힘들의 활동 양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감정의 역할은 보고, 듣고, 만지고, 전반적으로 체험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은 탐구심의 첫 번째 자극제이며, 이 탐구심은 감정을 위해 상상력과 기억으로 넘어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나면 영혼을 지배하는 꺾을 수 없는 폭군이 된다. 감정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오직 감정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탐구심도 피할 수 없는데, 이는 목적 없이 무엇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듣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성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탐구란 본질적으로 호기심 그 자체이다. 호기심은 필요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질서하고 목적 없이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감각을 행사할 때만 적어도 절제와 질서를 지키며, 필요에 따라 한 가지 필요한 것에만 감각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호기심이 자랄 여지가 없을 것이다; 즉, 아이에게 자신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만을 탐구하도록 훈련시켜야 하며, 그 외의 모든 것からは 자제하고 멀리해야 한다. 또한 탐구 행위 자체에서 점진성을 지켜야 한다. 즉, 대상에서 대상으로, 혹은 한 특징에서 다른 특징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씩 차례대로 검토하면서 그 대상을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상상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아이가 허용된 것들 속에서도 놀고 싶은 기분을 떨쳐내게 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게 하며, 이를 통해 상상력도 다스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는 필요 없이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옮겨 다니지 않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상에 빠지거나 이미지로 놀며, 방황하는 환상의 밀물과 썰물로 마음을 어지럽혀 영혼에 평안을 주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감정과 상상력을 다스리지 못하는 아이는 필연적으로 산만하고 변덕스러워지며, 호기심에 시달려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쉴 새 없이 옮겨 다니게 되어 결국 기력을 소진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능력과 동시에 아이에게 정욕이 생겨나며,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아이는 아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막 앉는 법과 장난감을 집는 법을 익혔을 뿐이지만, 이미 화를 내고, 질투하며,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 하고, 고집을 부리는 등, 전반적으로 정욕의 작용을 드러낸다. 동물적 본성에 뿌리를 둔 이러한 악은 해롭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 나타날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모든 것은 부모의 현명함에 달려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정서적*) 욕구의 발생을 온갖 방법으로 예방하고; 2) 그 후, 어떤 정욕이 드러났다면, 고안되고 검증된 수단으로 서둘러 이를 진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욕이 뿌리내리거나, 정욕에 대한 소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른 것보다 더 자주 드러나는 정욕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치료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이 삶의 지배자이자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열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혜로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믿음으로 의지해야 한다. 정열은 영혼의 현상이지만, 부모가 처음에는 영혼에 직접 작용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시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열성적인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유모에게 더 나아가 지침이 되어 줄 것은 경험일 것이다. 아이가 분별력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야 비로소 정욕을 억제하는 일반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방법으로 이러한 수단들을 익혀야 하며, 이후 양육 기간 내내 꾸준히 실천하여 아이가 이를 능숙하게 다루고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의 격렬한 공격은 생의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에 대한 규정된 행동 순서와 저차원적인 능력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영혼은 이를 통해 진정으로 선한 기질을 갖추기 위한 훌륭한 준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준비일 뿐이며, 기질 그 자체는 지성, 의지, 마음 등 모든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이성에 대하여. 아이들에게는 곧 지능이 드러난다. 이는 언어 능력과 동시에 나타나며, 언어

능력이 완성됨에 따라 함께 성장한다. 그러므로 이성의 교육을 언어 교육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아이가 마주치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모든 것에 대해 기독교적 원칙에 입각한 건전한 개념과 판단을 심어주는 것이다. 즉, 선과 악, 좋고 나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평범한 대화와 질문을 통해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귀를 기울이며 거의 항상 생각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투와 태도까지 흡수합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말할 때 사물을 항상 그 본래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비롯되는지, 즐거움이란 무엇인지, 이러저러한 관습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등등입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직접적으로 혹은 더 좋은 방법은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꾸미는 것이 좋은 일인지, 칭찬을 받는 것이 행복인지 등등에 대해 말입니다. 또는 아이들에게 이것저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 사물에 대한 건전한 판단의 기초를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평생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속적인 사색과 악하고 끝없는 호기심이 뿌리부터 억제될 것입니다. 진리는 마음을 채워줌으로써 마음을 묶어줍니다. 반면 세속적인 사색은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므로 오히려 호기심을 부추깁니다. 이를 없애줌으로써 아이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이들이 책을 접하기 전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타락한 개념이 담긴 책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거룩하고 신성한 건전함 속에서 온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가정 하에, 이런 식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헛된 일이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어린 기독교 아이가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은 경험이 증명해 주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순교 당시 어린 아이들은 주님 구세주에 대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 내세에 대해 등등을 논했습니다. 이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평범한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그에 대해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아이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아이들은 그 진리들을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 의지. 아이는 욕망이 많다. 모든 것이 아이의 관심을 끌고, 모든 것이 아이를 매료시키며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는 모든 것을 원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실행에 옮기려 한다. 방치된 아이는 제멋대로 행동하며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 정신 활동의 영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것을 적절한 한계 내에 가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이들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욕구가 생기면 부모에게 달려와 "이것이나 저것을 해도 되나요?"라고 묻게 하라. 자신이나 타인의 경험을 통해 허락 없이 욕망을 실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아이들이 심지어 자신의 의지조차 두려워하도록 마음을 다잡게 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자, 동시에 가장 쉽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래 자신의 무지와 약함을 자각하며 대부분 어른들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중요하게 부각시켜 그들에게 절대적인 법칙으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모든 일에서 부모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 많은 면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태도와 그에 대한 습관, 혹은 능력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서 자신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험에 기반한 확신이 생길 것이다. 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장 잘 이해하는 바인데, 즉 아이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만, 정작 그 원하는 것들이 자신의 몸과 영혼에 해롭다는 사실이다. 자기 의지를 버리게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길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는 스스로 선한 삶의 진정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즐거움이나 명예보다는 영혼의 구원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아이들에게 소개해야 한다. 아이들은 모방하기 좋아합니다. 얼마나 일찍부터 어머니나 아버지를 흉내 내는지요! 여기에는 에서 설명된 것처럼, 조율이 잘 된 악기들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것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아이들 스스로도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야 하며, 처음에는 명령으로 하게 한 다음, 점차 스스로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평범한 일들은 자선, 연민, 자비, 양보, 그리고 인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익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회는 수시로 찾아오니,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와 전반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법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에 대하여. 이러한 이성과 의지, 그리고 하급한 힘들의 작용 아래에서 마음은 저절로 건전하고 진실한 감정을 갖도록 조정될 것이며,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습관을 기르고, 달콤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영혼과 몸에 독을 주입하는 것에는 조금도 동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음이란 — 맛보고 만족감을 느끼는 능력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었을 때, 그는 신성한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것들에서 맛을 느꼈다. 타락한 후 그는 그 맛을 잃고 감각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세례의 은혜가 이를 끊어 주었으나, 감각적 욕망은 다시 마음을 채우려 한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마음속에 참된 취향을 길러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교회 생활이며, 양육받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 모든 신성한 것에 대한 공감, 그 가운데 머무는 달콤함, 고요함과 온기를 위해, 세속적인 허영으로 이끄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로부터의 단절은, 마음속에 더 잘 각인될 수 없다. 교회, 영적인 찬송, 성화는 내용과 힘 면에서 가장 우아한 대상들 중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취향에 따라 미래의 영원한 거처가 정해지며, 그곳에서 마음의 취향은 이곳에서 형성된 그대로일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극장, 서커스장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기독교인에게 부적합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처럼 온유하고 질서 정연하게 다듬어진 영혼은, 그 본성상 지닌 무질서함으로 인해 영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영은 영혼보다 더 쉽게 발전하며, 영혼보다 먼저 그 힘과 활동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경외심**(이성에 부합하는), **양심**(의지에 부합하는), 그리고 **기도**(감정에 부합하는)가 포함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기도를 낳고 양심을 깨우친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을 향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이에 대한 소질을 타고나 있어, 이러한 감정을 금세 내면화한다. 특히 기도는 매우 쉽게 몸에 배며,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꺼이, 지치지 않고 가정 기도와 교회 예배에 참여하며 이를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조금씩 우리 존재의 이 성소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찍 각인되고 기도가 일깨워질수록, 그 후의 모든 시간 동안 경건함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영이 드러나는 데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례를 통해 받은 은혜의 영은, 몸과 영혼의 잘못된 발달로 인해 꺼지지 않는 한, 우리 영을 소생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럴 때 그 힘이 드러나는 것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양심은 가장 가까운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건전한 개념과 부모의 선한 본보기, 그리고 선을 가르치는 다른 방법들, 그리고 기도는 양심을 밝게 비추고, 그 안에 향후 선한 활동을 위한 충분한 토대를 심어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안에 양심과 자각에 대한 마음가짐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각성은 삶에서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잠재우는 것도 그만큼 쉽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의 뜻은 양심의 법이자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모가 가진 분별력이 어느 정도이든,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되,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다면 가능한 한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서리가 꽃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모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다. 아이는 부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애정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며, 도망쳐서 혼자 있고 싶어 한다. 그러는 동안 영혼은 거칠어지고, 아이는 야생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미리 아이가 회개할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두려움 없이 신뢰와 눈물을 머금고 다가와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저, 제가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평범한 일들에 관한 것이겠지만, 여기서 미래의 꾸준하고 참된 종교적 성품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도 훌륭합니다. 넘어지면 즉시 다시 일어서고, 신속한 회개와 눈물로 자신을 정화하거나 새롭게 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아이가 이 안에서 자라게 하고, 그 안에 경건한 정신이 더욱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드러나는 모든 기력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칙이다. 아이의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시작하고,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며,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고르게, 차근차근, 급격한 변화 없이, 인내와 기대를 가지고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현명한 점진성을 지켜보며, 싹을 포착하고 이를 활용하며, 이처럼 중요한 일에서 어떤 것도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겠다. 이는 단지 양육의 주요 방향만을 제시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언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자각하고, 기독교인답게 살겠다는 독자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는 7세, 10세, 15세, 혹은 그 이후 등 시기가 제각각이다. 아마도 그 이전에 교육의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으며, 대개는 그렇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교육 기간 내내 기존의 모든 질서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질서가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의 본성과 기독교적 삶의 요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질서는 앞서 언급한 정신과 결코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형성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즉, 유아들처럼 학생인 아이들도 주변 모든 이들의 경건함과 교회 생활로 보호해야 한다. 성사를 통해 그들의 몸과 영혼, 그리고 정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교육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덧붙여야 한다. 교육이 무엇이 주된 것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한 생각은 학습 과목과 시간 배분을 통해 가장 쉽게 구체화할 수 있다. 신앙 학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건한 행위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며, 상충할 경우 경건한 행위가 학문적 지식보다 우선시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신앙과 선한 품성도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학문은 부수적인 자질이자 우연에 불과하며, 현세 생활 동안에만 유용한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학문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하게 포장하여, 그것이 모든 관심을 차지하고 모든 염려를 삼켜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적 삶의 정신에 있어 이 '과학성'과 그에 대한 지나친 집착만큼 유독하고 파멸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사람들을 냉담함으로 곧바로 몰아넣고, 그 후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물게 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에 유리한 상황이 닥치면 방탕함까지 더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주의해야 할 점은 가르침의 정신, 즉 교육 대상에 대한 관점이다. 기독교인에게 가르쳐지는 모든 학문이 기독교적, 나아가 정통 기독교적 원리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 불변의 법칙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모든 학문은 그럴 능력이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그 분야에서 진정한 학문이 될 수 있다. 기독교적 원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리이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이를 진리의 보편적인 잣대로 삼으라.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오해는, 신앙과 과학이 단호히 분리된 두 영역이라는 전제 하에, 참된 신앙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과학을 가르치며,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심지어 거짓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흠뻑 젖어들듯이, 과학도 받아들이고 그 원리들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그것들이 유리한 또는 불리한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진리의 영역도 하나입니다. 왜 이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 혹은 그 밝은 영역의 마당에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을 머릿속에 채워 넣어야 합니까?

만약 신앙과 신앙의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학습자들의 관심 속에서, 수업의 형태와 가르침의 정신에 있어서 모든 것 위에 우뚝 서도록 이러한 순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린 시절에 심어진 원리들이 단순히 보존될 뿐만 아니라 더욱 고양되고 공고해지며 적절한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순서로 인간을 양육한다면, 점차 그 앞에 자신의 삶이 가져야 할 본질이 드러날 것이며, 그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를 대신하여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고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에 점점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또한 다른 모든 일과 활동은 그보다 하찮으며, 오직 현세적 삶을 이어가는 데에만 적합하다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거처, 또 다른 조국이 있으며, 그곳으로 모든 생각과 소망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에 점점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본능적인 능력 발달 과정 속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에 은혜로운 기독교적 새로운 원리가 접목되어, 그의 능력이 깨어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장 첫 순간(세례)에, 그리고 그 후 이러한 능력들이 발전하는 모든 단계에서 이 새로운 원리가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항상 우세하여 모든 것에 형태를 부여해 주었다면, 사람은 자각에 이르렀을 때 동시에 자신이 기독교적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주된 목표이며, 그 결과로 사람이 스스로에게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자각에 이르러 그가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세주이자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의 삶에서 그분과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과의 복된 교제를 누릴 자격을 얻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립심이나 자기만의 이성적인 삶의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스스로 ' '를 지키고, 이전에 타인의 지도 아래 걸어왔던 경건한 정신을 되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식 속에서 기독교의 모든 의무를 의도적으로 새롭게 되새기고, 이를 불변의 법칙처럼 스스로에게 짊어져야 할 특별한 순간이 있어야 한다. 세례를 받을 때는 이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후에는 타인의 사고방식과 기분에 따라, 단순한 마음으로 지켜왔을 뿐이다. 이제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멍에를 지고, 기독교적인 삶을 선택해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그 후로 남은 생애 동안 열정을 다해 그분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은 스스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시작한다. 그 삶은 이전에도 그 안에 있었지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주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마치 자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빛은 그 안에 마치 첫날의 빛처럼, 중심이 없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빛이 태양이나 행성의 중심을 향해 끌려가 중심을 갖게 되어야 했던 것처럼, 이 빛 또한 우리 삶의 출발점, 즉 우리의 의식 주위에 마치 모이듯이 모여야 한다. 사람은 자기 인식과 이성적인 자립에 도달했을 때, 즉 자신의 생각과 행위의 완전한 주인이자 지배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 그는 어떤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 타인이 그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안에서조차 사람은 여전히 사람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는 이성적이어야 하며, 다만 이 이성을 거룩한 신앙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가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이 유일하게 올바른 구원의 길이며, 그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모든 길은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맹목적인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함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영광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선한 멍에를 의식적으로 짊어질 때 이 모든 것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오직 이때에야 비로소 그의 개인적인 신앙, 즉 신앙에 따른 선한 삶이 확고함과 흔들림 없음을 얻게 된다. 그는 타인의 본보기에 현혹되지도 않고, 헛된 생각에 휩쓸리지도 않을 것이니, 이미 확고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 의무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를 깨닫지 못했다면, 예전에는 선한 본보기가 그를 지금처럼 행동하도록 이끌었듯이, 이제는 악한 본보기가 그를 악한 쪽으로 이끌고 죄로 유혹할 수 있다. 또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선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쉽고 거역 없이 지배했듯이, 이제는 악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험상, 이전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자각하지 못했던 사람의 신앙 고백과 삶의 선함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알 수 있다. 유혹을 거의 만나지 않는 사람은 더 오랫동안 순수한 마음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유혹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세례의 은총을 간직한 모든 이들의 생애에서, 그들이 결연히 자신을 하느님께 바쳤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영으로 불타올랐다', '신성한 열망으로 불타올랐다'는 말로 표현된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각했거나,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제 이전 세대에서 물려받은 삶의 완전함과 순결함을, 다른 이들이 예전에 지켜왔던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해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그를 인도할 특별한 규칙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이 점에서 그는 회개한 자와 일치하는데, 회개한 자는 죄에서 떠나 기독교인답게 살겠다는 열정적인 결심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는 그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가 회개한 자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이제 청소년기, 특히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몇 가지, 그러나 매우 중요한 주의 사항을 제시할 뿐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교육 과정에서 기독교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구원에 이르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는 1) 그 나이의 특성상, 2) 그 시기에 끊임없이 닥치는 큰 유혹들로 인해 청소년이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중대한 위험들을 고려할 때 필수적입니다.

1. 우리 삶의 강은 파도치는 청춘의 띠에 가로막힌다. 이 시기는 육체적·영적 삶이 끓어오르는 때이다. 아이와 소년은 조용히 살아가고, 성인에게는 급한 충동이 거의 없으며, 위엄 있는 백발은 평온을 향해 기울어진다. 오직 청춘만이 생기로 넘쳐흐른다. 이 시기에 파도의 기세에 맞서 견뎌내려면 매우 확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 가장 무질서하고 충동적인 움직임이 위험하다. 그 자신의 첫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이는 그의 힘이 깨어나는 초기 단계이며, 그에게 모든 매력을 지닌다. 그 영향력의 힘으로 인해 이전에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았던 모든 것을 밀어낸다. 과거는 그에게 꿈이나 편견이 될 것이다. 오직 진정한 감정만이 진실하며, 오직 그것들만이 실재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러한 힘이 깨어나기 전에 기독교 신앙과 삶을 실천하겠다는 의무로 스스로를 묶어 두었다면, 그 모든 흥분은 이미 이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약해질 것이며, 첫 번째 요구에 더 쉽게 양보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더 오래되었고, 이미 시험을 거쳐 마음으로 선택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서약으로 굳건히 다져졌기 때문이다. 청년은 결연히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 기독교적 삶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들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경우 그는 울타리 없는 집처럼 약탈당하기 쉬운 존재이거나, 불에 타버릴 마른 나뭇가지와 같다. 청년의 제멋대로인 생각이 모든 것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울 때, 격정적인 욕망이 그를 심하게 괴롭힐 때, 온 영혼이 유혹적인 생각과 충동으로 가득 찰 때 — 그 청년은 불길 속에 있다. 마음속에서 진리와 선, 순결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그에게 시원함을 주는 이슬 한 방울을 주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는가? 그러나 그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자리 잡지 않는다면 그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조언조차 소용이 없다. 그때는 조언을 심을 대상조차 없기 때문이다. 조언과 설득은, 귀를 통해 마음에 스며들어 그곳에 이미 존재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감정을 일깨워줄 때 강력합니다. 다만 그 감정이 당장은 다른 것들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고, 우리 스스로는 그 감정을 해방시켜 본래의 힘을 발휘하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이 경우 조언은 조언자가 청년에게 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순수한 삶의 싹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청년은 스스로 살아가는데, 누가 그의 마음속 모든 움직임과 편차를 탐구하겠는가? 이는 마치 공중을 나는 새의 궤적이나 물 위를 달리는 배의 행로를 탐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신맛이 나는 액체의 발효나, 서로 다른 성질의 원소들이 섞일 때의 움직임, 바로 그것이 청년의 마음이다. 소위 '본성'이라 불리는 모든 욕구가 생생하게 요동치며, 각각 목소리를 높여 만족을 추구한다. 우리 본성 속에 불협화음이 도사리고 있듯이, 이러한 목소리들의 총합은 시끄러운 군중의 무질서한 외침과 다름없다. 만약 청년이 미리 자신의 행동을 일정한 질서 속에 담아두는 법을 익히지 못하고, 어떤 더 높은 요구 사항에 엄격히 복종하도록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만약 이러한 원리들이 초기 교육 과정에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그 후 의식적으로 규칙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동요는 마치 표면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날 뿐, 기초를 흔들지도 않고 영혼을 동요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청년기를 어떻게 마치는지는, 그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섰는지에 크게 좌우된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은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소용돌이치다가, 나중에는 여러 물길을 따라 조용히 흐른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폭포의 물처럼 빠져드는 청춘의 모습이다. 그곳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어떤 이들은 선함과 고귀함으로 빛나고, 다른 이들은 불경함과 방탕함으로 얼룩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선과 악이 뒤섞인 중간 계층으로, 불에서 나온 숯덩어리와 같아서 때로는 선으로, 때로는 악으로 기울어지는데, 마치 고장 난 시계가 때로는 정확하게 가고, 때로는 빨리 가거나 뒤처지는 것과 같다.

미리 스스로에게 서약을 한 사람은 마치 물이 스며들지 않는 튼튼한 작은 배에 몸을 숨기거나, 소용돌이 속을 지나갈 수 있는 평온한 수로를 마련한 것과 같다. 이것이 없다면, 훌륭한 교육조차 항상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누군가는 심한 악덕에 빠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을 단단히 다잡지 못한다면, 서약으로 모든 것에서 초연해지지 않은 그의 마음은 유혹에 찢겨버릴 것이며, 그는 필연적으로 청춘의 시절을 지나며 냉담해진 채,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춘 시절이 오기 전에 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서약으로 자신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결심한 자는 청춘 그 자체를 불처럼 두려워하고, 따라서 청춘이 쉽게 방종해지고 제멋대로 되는 모든 상황을 피해야 한다.

2. 청춘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하지만, 여기에 이 나이에 특유한 두 가지 욕구가 더해져, 그로 인해 청년기의 흥분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며 더 큰 힘과 위험성을 띠게 된다. 그것은 바로: 가) 자극에 대한 갈망과 나) 교제에 대한 성향이다. 따라서 청년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충동을 규칙에 복종시켜 선 대신 악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전에 자극받은 선한 성향은, 그것을 꺾거나 억누르지 않는다면 온전한 힘을 유지할 것이다.

A. **인상 갈망은** 청년의 행동에 일정한 박진감, 지속성, 그리고 다양성을 부여한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곳을 다녀보고 싶어 한다. 눈을 즐겁게 하는 광채, 귀를 즐겁게 하는 조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 그를 찾아보라. 그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항상 새롭고 따라서 다채로운 인상들의 흐름 속에 있고 싶어 한다. 그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지도, 한 자리에 머물지도,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하지도 않는다. 그의 본성은 오락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인상을 흡수하여 마치 자신의 것으로 옮겨온 듯이 느끼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또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체험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는 책으로 달려가 읽기 시작한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 권, 또 한 권을 훑어보곤 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작품이든 , 어떤 주제를 다루든 간에 소위 '효과'를 찾는 것이다. 새롭고, 생생하며, 날카로운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 책의 가장 훌륭한 추천사다. 여기서 가벼운 독서에 대한 성향이 드러나고 형성되는데, 이는 바로 그와 같은 인상 갈망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청년은 종종 현실적인 것, 즉 외부에서 마치 강요당하는 듯한 것들에 지루함을 느낀다. 이는 그를 옭아매고 지나치게 정해진 경계 안에 가두는 반면, 그는 일정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는 종종 현실에서 벗어나, 스스로 창조한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마음껏 활약하기 시작한다. 상상력은 그에게 온갖 이야기를 엮어내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개 그 자신이다. 청년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그 앞에는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미래가 펼쳐져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도 그곳에 있어야 할 텐데,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장막을 살짝 걷어 올려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 이 시기에 매우 활발한 상상력은 주저 없이 그 갈망을 충족시켜 준다. 바로 여기서 몽상적인 기질이 드러나며, 이러한 종류의 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꿈, 가벼운 독서, 오락,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격을 띤다 — 아이들은 감동을 갈망하고, 새롭고 다양한 것을 갈망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끼치는 해악도 똑같다. 젊은이의 마음에 미리 심겨진 선한 씨앗을 죽이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심어진 어린 묘목은 잠시 버티다가 말라 죽을 것이고, 자주 밟히는 풀은 자라지 않으며, 오랫동안 마찰을 받는 신체 부위는 감각이 무뎌진다. 꿈이나 무의미한 독서, 혹은 오락에 빠져들면 마음과 그 안에 깃든 선한 성향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오랫동안 바람, 특히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은 바람이 잦아든 곳에 들어서면 몸속의 모든 것이 마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산만해진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산만함에서 벗어나 다시 정신을 차린 청년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이 뒤틀린 순서로 놓여 있음을 발견한다. 무엇보다도, 어떤 망각의 장막이 모든 선한 것을 가려버리고, 인상만 남긴 유혹들만이 전면에 드러나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도 않고, 항상 그래야 할 모습도 아니다. 마음의 성향이 주도권을 바꿔 잡은 것이다. 왜 어떤 산만함에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영혼은 그리워하기 시작할까? 그것은 자신이 도둑맞았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산만해진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큰 길로 만들어 버렸고, 그 길을 따라 상상의 그림자처럼 유혹적인 대상들이 지나가며 영혼을 유인한다. 그러나 영혼이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마귀가 몰래 다가와 선한 씨앗을 훔쳐가고 악한 씨앗을 심는다. 구세주께서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누가 훔쳐가는지, 그리고 누가 온갖 가라지를 심는지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신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인간의 원수가 행하는 일이다.

그러니, 청년아! 어린 시절의 순결과 천진난만함, 혹은 흠잡을 데 없는 기독교적 삶의 서원을

지키고 싶은가? 힘과 분별력이 닿는 한, 오락과 무분별한 유혹적인 책 읽기, 그리고 — 공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이럴 때 엄격하고도 치밀한 규율을 따르며, 청년 시절 내내 지도 아래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청년들은 행복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청년은 자신이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기뻐해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는 분명히 이 지경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나, 집에서 일에 더 몰두하고, 공상에 빠지지 않으며, 쓸데없는 책을 읽지 말라는 조언을 따른다면 큰 지혜를 보여줄 것이다. 오락은 근면함으로, 몽상적인 성향은 지도 아래의 진지한 활동으로 물리쳐야 하며, 특히 독서는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책 선택과 읽는 방식 모두에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어쨌든, 누가 하든 간에, 그저 그렇게 하도록 하라. 열정, 의심, 열광은 바로 이처럼, 말하자면 청년의 마음이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시기에 불타오르기 마련이다.

B.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위험한 청년의 성향은 **사교에 대한 성향이다**. 이는 동료애, 우정, 사랑에 대한 욕구에서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훌륭하지만, 이를 올바른 질서에 배치하는 일은 청년 스스로가 해서는 안 된다.

청춘은 생생한 감정이 넘치는 시기이다. 그 감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마치 바다 기슭의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왔다 밀려간다. 모든 것이 그의 관심을 끌고, 모든 것이 그를 놀라게 한다. 자연과 사회는 그 앞에 자신의 보물을 펼쳐 보였다. 하지만 감정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청년은 그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즉 동료이자 친구가 필요하다. 고귀한 욕구이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 자신의 감정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주는 셈이 된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올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선한 사람은 당연히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에서는 멀어지는 법이다. 마음속에는 이에 대한 일정한 감별력이 있다. 하지만, 다시 말해, 순진한 마음이 교활함에 유혹당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그래서 모든 청년에게 친구를 선택할 때 신중하라는 조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친구를 시험해 보기 전까지는 우정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좋은 것은 첫 번째 친구로 아버지나, 여러모로 아버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경험 많고 선한 친척 중 한 명을 두는 것이다. 에 따라 기독교적으로 살기로 결심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친구는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께 비밀을 털어놓으며, 사물을 저울질하고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인도 아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또 다른 친구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정 자체보다는 동료 관계에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친구는 드물지만, 지인이나 동호인은 더 많다.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악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가! 매우 불건전한 규칙을 가진 동호회들이 있다. 그들에게 기울어지면, 마치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서 눈치채지 못한 채 악취를 마시게 되는 것처럼, 어느새 그들과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도 종종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자각을 잃고, 태연하게 무례하게 굴곤 한다. 설령 누군가에게 그 자각이 깨어난다 해도, 그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다. 누구나 그것을 밝히기를 두려워하며, 그 후 사방에서 비아냥거림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는 "그냥 내버려 두자, 어쩌면 지나가겠지."라고 말한다. *나쁜 교제는 선한 품성을 타락시킨다*(고린도전서 15:33). 주님, 모든 이를 이 사탄의 심연에서 구원해 주소서.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자에게는 오직 주님을 찾는 경건한 이들과의 교제만이 있을 뿐이며, 그 외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본을 따라 멀리 떨어져 진심으로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은 이성과의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초기 유혹에서는 청년이 단지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만 하지만, 여기서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처음 영적 각성을 경험할 때, 이 문제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뒤섞이게 되는데, 이 갈망은 각성이 시작된 시점부터 청년으로 하여금 만족을 찾게 만듭니다. 한편 아름다움은 서서히 그의 영혼 속에서 형상을 갖추기 시작하는데, 대개는 인간적인 형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이 청년의 머릿속을 맴돈다. 이때부터 그는 마치 아름다운 것, 즉 이상적이고 세속적이지 않은 것을 찾는 듯하지만, 정작 인간 여성을 만나 그녀에게 상처를 입는다. 청년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상처를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환자가 광기에 이를 때까지 병들고 싶어 할 정도로 위험한 병이기

때문이다.

이 상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상처를 입게 되는 그 길을 걷지 마라.

이 길은 어떤 심리학 서적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이 길에는 세 번의 전환점이 있다.

먼저 청년에게 무엇에 대한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슬픈 감정이 솟아오르는데, 특히 마치 자신이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을 동반한다. 이것이 바로 고독감이다. 이 감정에서 곧바로 또 다른 감정이 싹트는데, 바로 자신에 대한 일종의 연민과 다정함, 그리고 관심이다. 이전에는 마치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고, 자신을 살펴보며, 자신이 결코 못생긴 편도 아니고, 최하위도 아니며, 주목할 만한 인물임을 항상 깨닫게 된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몸매의 매력, 혹은 스스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유혹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난다. 이 시점부터 청년은 외부 세계로 시선을 돌린다.

이러한 외부 세계로의 진출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야 한다는 확신에 힘입는다. 이 확신 속에서 그는 대담하고 마치 승리를 거머쥔 듯이 활동의 무대로 나서며,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단정함, 청결함, 심지어 허세 수준에 이를 정도의 멋을 자신의 법칙으로 삼는다; 마치 뚜렷한 목적 없이, 그러나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의 은밀한 이끌림에 따라 방황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찾기 시작하며, 이때 지성과 유쾌한 말솜씨, 세심한 배려, 그리고 전반적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빛을 발하려 애쓴다. 동시에 그는 영혼의 교감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눈'에 온전히 자유를 부여한다.

이러한 기분 속에서 그는 불꽃 아래 놓인 화약과 같아서, 곧 자신의 병과 마주치게 된다. 눈빛이나 유난히 기분 좋은 목소리에 화살에 맞은 듯, 혹은 총에 맞은 듯, 그는 처음에는 다소 황홀함과 경직된 상태에 빠지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을 때, 자신의 관심과 마음이 한 대상에게 쏠려 있고, 극복할 수 없는 힘으로 그 대상에게 이끌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마음은 그리움에 갉아먹히기 시작한다. 청년은 침울해지고, 자기 내면에 파묻히며, 무언가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찾아 헤매며, 무엇을 하든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마치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잠도 잠도, 식사도 생각나지 않고, 평소의 일들은 잊혀져 제멋대로 흐트러지며, 그에게는 그 무엇도 소중하지 않다. 그는 심장을 찔러대고, 숨을 막히게 하며, 생명의 근원 자체를 말려버리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서서히 깊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재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청년이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는 저절로 알 수 있다. 그 길을 걷지 마라! 전조인 막연한 슬픔과 고독감을 쫓아내라. 그것에 맞서라: 슬퍼지면 딴생각을 하지 말고, 진지하게 무언가 집중해서 시작하라—그러면 지나갈 것이다.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자신의 훌륭함에 대한 느낌이 싹트기 시작하면,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어떤 엄격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함, 특히 머릿속에 스며드는 생각의 하찮음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그 망상을 떨쳐내라.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이 경우의 굴욕은 마치 불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이 감정을 억누르고 몰아내야 하는 데에는 특히 여기에 움직임의 시작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멈추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남에게 호감을 얻고 싶은 욕망도, 화려한 옷차림과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도,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이 터져 나오면 — 그것들과 싸워라. 이 경우 얼마나 든든한 방어벽인가 — 모든 면에서의 엄격한 규율, 육체적 노동, 그리고 더욱이 정신적 노동! 공부에 매진하고, 집에 머물며, 오락에 빠지지 마라. 밖에 나가야 한다면 —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을 피하며,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청소년기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위험들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첫째는, 이성적 지식이나 자기만의 통찰이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드는 기분이다. 청년은 모든 것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며, 자신의 이해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제쳐 둔다. 이것 하나만으로 그는 마음속에서 믿음과 교회의 모든 정서를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남게 된다. 버려진 것을 대체할 것을 찾다가, 계시된(하느님께서 계시하신 — *편집자 주)* 진리와는 무관하게 구축된 이론들에 매달리고, 그 이론들에 스스로 얽매여 믿음의 모든 진리를 자신의 마음에서 몰아낸다. 학교에서의 과학 교육이 그 계기가 되고, 그러한 정신이 그곳에서 지배적이 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호하고 공허하며 몽상적인, 대부분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아이디어들만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매료시키고 호기심 많은

청년에게는 우상이 되어 버린다. 둘째는 세속성이다. 비록 그것이 유익한 면을 지닐지라도, 청년에게서 그것이 우세해지는 것은 해롭다. 이는 감각적 인상에 따라 사는 삶, 즉 사람이 자기 내면에 머무는 시간이 적고 거의 모든 것이 외부, 즉 일이나 꿈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심경으로 인해 그들은 내면의 삶과, 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혐오한다. 그들에게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개념에 얽매인 신비주의자이거나 위선자 등으로 비친다. 진리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세속적 삶의 영역에서 팽배한 세상의 정신이며, 청년들은 이러한 세속적 삶과 아무런 제약 없이 접촉하도록 허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권장받기도 한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 세상은, 그 모든 타락한 개념과 관습을 품고, 이에 대해 미리 경계하거나 거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청년의 수용적인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마치 밀랍 위에 찍히듯 그 영혼에 각인되며, 청년은 무의식중에 세상의 자녀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속박과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시절의 청년들에게 닥치는 위험이다! 그리고 이를 견뎌내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잘 양육되어 청년 시절이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이에게는 그리 위험하지 않다. 조금만 참아내면, 그곳에는 가장 순수하고 복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 시기에도 오직 기독교적인 순결한 삶을 살겠다는 서약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거룩한 확고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시절을 무사히 지나온 사람은 마치 거친 강을 건너고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저주하기도 한다. 청춘 시절에 잃어버린 것은 결코 되찾을 수 없다. 넘어진 자가, 넘어지지 않은 자가 가진 것을 과연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통해, 세례의 은총을 간직하는 이들이 왜 그토록 드문지에 대한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이 모든 것의 원인이며, 선과 악 모두의 원인이다.

세례의 은총이 보존되지 않는 이유는, 그에 적용된 양육의 질서와 규칙, 법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교회와 교회의 은총의 수단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는 기독교 생활의 싹을 시들게 하여 그 근원과 단절시키고, 마치 어두운 곳에 놓인 꽃이 시들듯이 그 생명도 시들어 버린다. 나) 육체적 활동에 대한 무관심. 사람들은 육체가 영혼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온갖 방식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육체의 활동 속에는 정욕의 거처가 있으며, 이 정욕들은 육체의 발달과 함께 자라나 뿌리를 내리고 영혼을 지배하게 된다. 육체적 활동을 파고들어, 정욕들은 그 안에서 거처를 마련하거나, 그것들을 이용해 접근하기 어려운 요새를 구축함으로써, 이후 모든 시간에 걸쳐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한다. 가) 무분별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하지 않는 영혼의 힘의 발달. 앞에 있는 목표를 보지 못하면, 그곳으로 가는 길도 보지 못한다. 이 때문에, 아무리 현대적인 교육을 중시하더라도, 호기심과 제멋대로인 성향, 쾌락에 대한 갈망만을 부추길 뿐이다. d) 영에 대한 완전한 망각. 기도, 경외심, 양심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올바름만 있을 뿐, 그 내면의 상태들은 항상 전제되어 있으면서도 항상 스스로에게 맡겨진다. ε) 학습 기간 동안 — 가장 중요한 일을 부수적인 일들로 가리고, 그 **유일한 일을** 수많은 다른 일들로 가려버리는 것, ε) 마지막으로, 선한 기초와 기독교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미리 다지지 않은 채 청년기에 접어들고, 나아가 청년기의 충동을 적절한 질서 안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오락과 가벼운 독서를 통해 온갖 자극에 자신을 내맡기며, 꿈으로 인해 상상력이 과열되는 것, 동년배들, 특히 이성과의 무분별한 교제, 지나친 학문적 경향, 그리고 세상의 정신과 유행하는 사상, 규칙, 관습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이러한 것들은 결코 은혜로운 삶에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삶에 적대적으로 맞서며 이를 억누르려 한다.

이 원인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내면에서 은혜로운 삶을 소멸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대개는 이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며, 하나가 필연적으로 다른 하나를 불러오곤 한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영적 삶을 너무나도 철저히 짓누르기에, 때로는 그 흔적조차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 마치 그 사람이 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이를 위한 힘을 부여받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그 힘을 소생시키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왜 적절한 교육 방식이 지켜지지 않는가? 그 원인은 그러한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이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방치된 교육은 필연적으로 비뚤어지고, 그릇되며, 해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가정 생활에서, 그 다음에는 학습 과정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교육이 소홀히 이루어지지 않고 알려진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그 질서가 구축된 거짓된 사상과 원칙 때문에 종종 결실을 맺지 못하고 목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땅히 중시되어야 할 것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주된 목표로 삼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오로지 자연적인 능력의 완성, 직책에 대한 적응, 세속적인 삶에 대한 적합성 등—이 주된 목표로 삼아진다. 그러나 그 기초가 순수하지 않고 거짓이라면, 필연적으로 그 위에 세워진 것 또한 선으로 이끌 수 없다.

주요 일탈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은총의 수단을 배제하는 것. 이는 교육받는 자가 기독교인이며, 단지 자연적인 힘뿐만 아니라 은총의 힘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데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이 없다면, 기독교인은 울타리가 무너진 정원과 같아서, 배회하는 악마들이 짓밟고, 죄와 세상의 폭풍이 휩쓸어 가는데, 이를 제지하고 쫓아낼 사람도, 수단도 없는 상태가 된다. 2) 현세적 행복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게 하고, 영원에 대한 기억을 묻어버리는 것. 가정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실에서는 이를 논하며, 평범한 대화에서도 이것이 주된 주제로 다뤄진다. 3) 성직 수행을 포함해 모든 면에서 겉모습이 우세해지는 것.

가정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모든 것을 마땅히 봐야 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치 깨진 안경이나 거짓 안경을 통해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왜곡된 모습으로 상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궁극적인 진정한 목표에 대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듣기조차 원치 않는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부차적인 일이며, 마치 농담처럼 여겨진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나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필요한 것은: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체득하여, 무엇보다 먼저 가정에서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가정 교육은 그 이후의 모든 것의 뿌리이자 기초이다. 가정에서 올바르게 양육되고 바로잡힌 아이는, 그릇된 학교 교육으로도 쉽게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새롭고 참된 원칙에 따라 학교 교육을 재편하고, 그 안에 기독교적 요소를 도입하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교육받는 이가 성교회의 풍성한 영향력 아래 머물게 하는 것이다. 성교회는 그 모든 체제를 통해 영혼의 형성에 구원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죄악의 유혹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평화의 영을 북돋우며 심연의 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것을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이끌어야 하며, 교회의 자녀들, 즉 천국 왕국의 구성원들을 양육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3)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참된 교육을 아는 이들의 지도 아래 **교육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가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자들의 감독 아래 훈련받은 그들은 다시 자신의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할 것이며,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교육자는 기독교적 완전함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만, 훗날 활동 속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고, 교육 대상자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인내심 있게, 성공적으로, 강력하고, 결실 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가장 순결하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이들의 계층이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거룩한 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다.

선한 교육의 열매는 성세례의 은총을 보존하는 것이다. 후자는 전자에 대한 모든 수고를 넉넉히 보상해 준다. 왜냐하면 성세례의 은총을 보존하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하느님께 바친 이에게는 몇 가지 높은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1. 첫 번째 특권은, 마치 다른 모든 특권의 기초와도 같이, 본래부터 은총으로 충만한 본성의 온전함이다. 사람은 모든 복의 근원에서 그에게 쏟아질 준비가 된 비범하게 높은 힘들의 그릇이 되도록 정해져 있으니, 다만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 회개하는 자도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지만, 그는 타락하지 않은 자처럼 그 사실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하는 듯하며, 그 온전함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거나 그 결과로 생기는 담대함을 갖지 못한다.

2. 여기서 자연스럽게 선행의 생동감, 가벼움, 자연스러움이 흘러나온다. 그는 선 속에서 마치 자신에게 유일하게 친숙한 세상인 양 걸어간다. 회개하는 자는 이 선을 쉽게 행하기 위해 오랫동안 자신을 긴장시키고 이에 익숙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한 후에도 끊임없이 긴장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야 한다. 반면, 그는 마음의 단순함 속에서, 그를 위로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 즉 거짓 없는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

3. 그러면 그의 삶에는 일정한 균일함과 끊임없음이 자리 잡는다. 그에게는 돌발적인 충동도, 나태함도 없다. 우리의 호흡이 대부분 균일하게 이루어지듯이, 그의 선행도 그러하다. 회개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토록 완벽하게 나타나지도 않는다. 수리된 바퀴는 종종 결함을 드러내며, 수리된 시계는 수리되지 않은 새 시계만큼 정확하지 않다.

4. 결코 넘어지지 않는 어린아이. 그의 도덕적 성품에는 아직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아이의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첫 번째로 무죄함의 감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시절, 마치 악을 알지 못하는 듯한 상태가 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괴로운 동요를 끊어내 주는가! 그 다음으로는 비범한 친절함, 진실한 선함, 온유한 성품이 있다. 그 안에서는 사도가 언급한 성령의 열매들, 곧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자비, 믿음, 온유, 절제가* 온전히 드러난다(갈 5:22-23). 그는 마치 *자비, 선함,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듯하다(골 3:12). 또한 그는 가식 없는 명랑함, 즉 영적인 기쁨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에 대한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에게는 자신 안과 주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자신과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할 줄 아는 일정한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 그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품게 되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즉시 그에게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곧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안전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롬 8:35).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그를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든다. 그는 저절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그물을 대신한다. 마치 강력한 자석 주위에 수많은 톱밥이 모이거나, 강한 인격이 약한 이들을 끌어당기듯이, 그들 안에 거하는 성령의 힘은 모든 사람, 특히 영의 싹이 틔운 이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온다.

청춘 시절을 온전히 보존해 온 이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완성은, 일생 동안 미덕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함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집안에서 겪는 온갖 유혹과 사회 속의 민중적 소동 속에서도 굳건함을 유지한다. 요셉은 악한 형제들 사이에서, 펜테프리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영광 속에서도 똑같이 자신의 영혼을 흠 없이 지켰다. 실로,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은 복된 일이다*(애가 3:27). *내 아들아! 네 젊음부터 학문에 전념하라. 그리하면 흰 머리가 날 때까지 지혜를 얻으리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자처럼 지혜에 매진하고,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하라*(시라 6:18-20). 올바른 마음가짐은 마치 본성이 되어, 때로 다소 흐트러지더라도 곧 원래의 질서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체트-미네아흐에서 성인으로 꼽히는 이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도덕적 순결과 세례의 은총을 지켜온 이들이다.

게다가 순결을 지키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하느님께 바친 사람은:

1.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분께 가장 기쁜 제물을 바칩니다. — a)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의의 법칙에 따라 **첫 번째 것**, 즉 열매의 첫 열매와 사람 및 동물의 맏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청춘의 첫 해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b) 흠 없는 청춘이라는 순수한 제물이 바쳐지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모든 제물에서 주로 요구되던 바이기 때문이다; c) 특히 이 시기에 강하게 느끼는 쾌락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며, 내적·외적 상당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를 실천하기 때문이다.

2. 가장 현명한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만 한다. 오직 그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단, 절망에 빠진 사람은 예외일 뿐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를 깨달았던 그 첫 순간만큼 더 좋고 확실한 것은 없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설령 누군가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바치지 않고 더 오래 살기를 희망한다 해도, 그는 정반대의 삶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를 곤란하게 할 뿐이며, 나중에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설령 극복한다고 해도, 병들고,

쇠약해지며, 신체 일부가 손상되어 온전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제물이겠는가?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얼마나 드문 일인가! 순결을 잃은 자가 그것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드문가! 어린 시절부터 선한 삶을 알지 못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복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백록』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청소년 시절을," 그가 말하길, "나는 장난기와 무모한 행동, 심지어 용납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무관심하게 보냈다. 청년에 접어들면서 방탕한 생활이 시작되었고, 3년 만에 나는 그토록 타락해 버려, 그 후 12년 동안 계속해서 고치겠다는 의지는 품었지만 이를 실천할 힘을 찾지 못했다. 심지어 결연한 의지의 전환을 결심한 후에도, 나는 회개를 하루하루 미루며 두 해나 더 지체했다. 첫 번째 정욕들로 인해 의지가 그토록 나태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결연한 회개와 성세례를 통해 은총을 받아들인 후, 나는 나를 예전의 길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던 정욕들과 싸우며 많은 고난을 견뎌내야만 했다!"

청춘을 올바르게 보내지 못한 이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이토록 적다는 것이 놀랄 일인가?! 이 사례는 청춘기에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미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선하고 참된 기독교적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청춘의 시절을 보내며, 그 후에도 같은 정신으로 성년의 시절을 맞이하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

회개를 통한 기독교 생활의 시작

혹은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께로의 회심에 대하여

고해 성사를 통해 기독교 생활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은혜로운 기독교 생활의 시작은 세례에 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지키는 이는 드물며,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이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어떤 이들은 실제 생활에서 다소 타락해 있으며, 그들 안에 나쁜 기질이 허용되어 자라나 뿌리내린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어쩌면 선한 본성을 타고났을지 모르나, 젊은 시절 초기에 자신의 본능 때문이든 타인의 유혹 때문이든, 이를 잊어버리고 악한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여 결국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자신 안에 참된 기독교적 삶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다시 그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신앙은 이를 위해 고해 성사를 제시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요일 2:1).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네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다(예레미야 36:26). 다른 길은 더 이상 없다: 죄를 짓지 않거나, 회개하거나. 심지어 세례 후 넘어지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개가 우리에게 참된 기독교적 삶의 유일한 원천이 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고백 성사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받아들여져 그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은혜로운 삶의 은사가 단지 드러나고 활기를 띠게 될 뿐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이 삶의 시작만이 놓여지거나 이 삶이 다시 주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성사를 후자의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측면에서 볼 때, 회개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단호한 변화이자, 의지의 전환, 죄로부터의 회피와 하나님께로의 회심, 혹은 자기 자신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를 특징짓는 것은 고통스러운 의지의 전환입니다. 사람은 악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제는 마치 자신을 찢어내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이제 공정한 심판의 불길 속에서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회개하는 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마음의 감성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옥의 고통에 닿게 된다. 울부짖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는 *허물고 다시 세우며 심으라고* 명하셨다(예레미야 1:10). 그리고 주님께서는 슬픔에 찬 회개의

영을 땅에 보내셨으니,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영과 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어"*(히 4:12) 낡은 사람을 허물고 새로운 사람을 세울 기초를 놓게 하려 하심이라. 회개하는 자 안에서는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가벼운 희망, 때로는 고통, 때로는 가벼운 위로, 때로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공포, 때로는 자비의 기쁨이 서로 번갈아 나타나며, 그를 썩어가는 상태나 생명을 떠나는 상태에 놓거나 머물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소망을 품게 한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구원을 주는 것이며, 너무나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 이러한 고통스러운 전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회개를 통해 살아가기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될 희망은 없다. 죄에 대한 단호하고 생생한 저항은 오직 죄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되며, 죄에 대한 증오는 죄가 주는 악에 대한 느낌에서 비롯된다. 죄가 주는 악에 대한 느낌은 회개의 이 고통스러운 전환점에서 온전한 힘으로 체험된다. 오직 이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온 마음으로 죄가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깨닫게 되며, 그 후에야 지옥의 불처럼 죄를 피하게 될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없다면, 비록 누군가가 스스로를 정화하려 할지라도, 그저 겉핥기식으로, 내면보다는 겉모습을, 마음가짐보다는 행동을 더 중시하며 정화할 뿐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마치 재용해되지 않은 광석처럼 여전히 불결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사람이 스스로 손을 들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요 6:44). *"새 마음과 새 영"*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예레미야 36:26). 사람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육체와 죄와 하나가 되어, 그들과 일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를 둘로 나누고 자기 자신에 대항하도록 무장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외부에서 오는, 더 높은 힘뿐입니다.

이처럼 죄인의 변화는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자유로운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례에서 은혜는 우리에게 이 성사가 거행되는 순간 주어지지만, 자유 의지는 그 후에 찾아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인다. 반면 회개에서는 자유로운 의지가 변화의 행위 자체에 참여해야 한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 즉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은 마치 순식간이나 몇 분 만에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도 그러하곤 한다. 그러나 준비 과정으로서 그것은 자유와 은총의 결합을 의미하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은총은 자유를 지배하고 자유는 은총에 복종한다. 이는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단계들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빠르게 거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특히 우리에게 미치는 은총의 작용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은총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셀 수 없이 많을 때 말이다. 그러나 모든 다양성 속에서도 여기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공통된 변화의 순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자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을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자유와 은혜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이 순서를 묘사하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에 직면한 죄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그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명백한 타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열심이 결여되어 있으며, 모든 죄악에 대해 단호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 즉, 그들에게 경건함이 주요 관심사나 노력의 대상이 아니며, 다른 많은 일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자신의 구원에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 못하며, 선한 삶을 위해 애쓰지 않고, 비록 겉으로는 때때로 모범적이고 흠잡을 데 없이 보일지라도 신앙에 냉담한 삶을 살아간다는 점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자기 자신을 온 삶과 활동의 주된 목표로 삼는다. 이는 이미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충만함을 받았으나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비워져 버린 탓에, 어떻게든, 무엇으로든 자신을 채우려고 서두르고 애쓰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써 그 안에 생긴 공허함은, 그 안에서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데, 그 갈증은 불분명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진다. 사람은 끝없는 심연이 되어버렸고, 이 심연을 채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쓰지만, 채워짐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 그 때문에 그는 일생 내내 땀과 수고, 그리고 큰 고생 속에 지내며, 자신을 갉아먹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다양한 대상들에 몰두한다. 이러한 대상들은 그의 모든 관심과 시간, 그리고 모든 활동을 삼켜 버린다. 그것들은 그가 마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선이다. 이로부터 사람이 자신을 유일한 목표로 삼을 때, 결코 자기 안에 머물지 못하고 온전히 자기 밖, 즉 헛된 일로 창조되거나 발명된 사물들 속에만 머무르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만물의 충만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 자신은 텅 비어 있으며, 마치 끝없이 다양한 사물들에 흩어져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죄인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밖의 대상들, 즉 수많은 다양한 사물들에 대해 갈망하고, 염려하며, 분주해집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도 많은 것에 대해 염려하고,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참조: 눅 10:41) 죄악된 삶의 특징적인 이유입니다.

이 과도한 염려의 뉘앙스와 차이는 영혼 속에 형성된 공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것이신 유일한 분을 잊어버린 마음의 공허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염려, 탐구, 시도, 호기심을 낳는다. 모든 것이신 '유일하신 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의지의 공허함은 수많은 욕망,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열망을 낳아,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것이 바로 탐욕이다. 모든 것이신 '하나'로부터의 기쁨을 상실한 마음의 공허함은, 다양하고 수많은 쾌락에 대한 갈망, 혹은 내적·외적 감각의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무수한 대상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형성한다. 이처럼 죄인은 끊임없이 많은 지식, 많은 소유, 많은 쾌락에 대한 염려 속에서 즐거워하고, 지배하고, 탐닉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일생을 통틀어 맴도는 순환의 고리이다. 호기심이 유혹하고, 마음은 달콤함을 맛보기를 갈망하며 의지를 사로잡는다. 이것이 사실임을 누구나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 스스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순환 속에서 죄인은 홀로 남겨져 있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은 원래 그런 법이다. 그러나 이 순환은 죄인이 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천 배나 더 커지고 복잡해진다. 고문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재물을 모으는 일만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모든 행위를 체계화하고 법칙에 복종시키며, 자신들의 영역에 속한 모든 이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정립했다. 이들은 상호 연합을 맺고 필연적으로 서로 접촉하게 되며, 서로 마찰을 일으키며, 이러한 마찰 속에서 탐구심, 욕망, 자기 만족을 십 배, 백 배, 천 배로 증폭시키고, 그 분열 속에서 모든 행복, 황홀함, 그리고 삶을 찾아낸다. 이 **세상은 헛된** 곳으로, 그 활동, 관습, 규칙, 유대, 언어, 오락, 여가, 개념 등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모든 것이 앞서 언급된 그 세 가지 과잉 보호의 산물들의 정신으로 흠뻑 젖어 있으며, 이는 평화주의자들의 영혼을 절망적인 파멸로 몰아넣는다. 이 온 세상과 살아있는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죄인은 그 천 가닥으로 얽힌 그물에 휘말려, 그 속에 깊고도 깊게 갇혀 버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보이지 않게 된다. 무거운 짐이 세속을 사랑하는 죄인의 온 얼굴과 그 몸의 모든 부분에 짓누르고 있어, 세속적인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움직일 힘조차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마치 천 푸도나 되는 무게를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히 시도하지 않으며,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모두는 우연히 빠지게 된 그 궤도를 따라 살아갈 뿐이다.

더 큰 재앙은, 이 세상에 교활함과 악의, 그리고 유혹에 있어 가장 노련한 자기만의 왕이 있다는 것이다. 타락으로 인해 육체와 물질성과 뒤섞인 영혼을 통해, 그는 그 영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다가와서 그 안에서 호기심, 욕망,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 위안 등을 다방면으로 부추긴다; 그의 온갖 유혹으로 그들을 탈출할 수 없는 상태에 가두어 두고, 다양한 부추김으로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계획으로 이끌며, 그 후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돕거나, 더 강력한 다른 계획들을 제시하여 파탄에 이르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그들이 그 상태에 머무르는 시간을 연장하고 그 깊이를 더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신 세속적인 실패와 성공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유이다. 이 공작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악의 영들로 이루어진 온 무리의 하수인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들은 매 순간 거주 가능한 세계의 모든 경계를 빠르게 누비며, 이곳에는 이것을, 저곳에는 저것을 뿌리고, 죄의 그물에 얽힌 자들을 더욱 깊이 빠뜨리며, 느슨해지거나 끊어진 족쇄를 다시 조이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려는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한다. 이 마지막 경우, 그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 주위로 서둘러 몰려든다. 처음에는 한 명씩, 그다음에는 부대와 군단으로, 마지막에는 온 무리가 한꺼번에 — 그것도 다양한 모습과 수법으로 — 모든 탈출구를 막고, 끈과 그물을 다시 엮으며, 또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가파른 경사면을 타고 빠져나가기 시작한 자를 다시 심연으로 밀어 넣기 위함이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왕국에는 특별한 장소, 즉 왕좌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지시가 내려지며, 활동가들의 보고서가 승인이나 질책과 함께 접수된다. 이는 성 요한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탄의 심연이다. 지상에서, 인간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왕국 한가운데에서, 이러한 장소들은 악당들과 방탕한 자들, 특히 불신자이자 신성모독자들의 연합체이며, 이들은 행동과 말과 글로 곳곳에 죄의 어둠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빛을 가린다. 그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의지와 권력을 표현하는 수단은, 죄악의 기운으로 물들어 항상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속적 관습들의 집합체이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역의 구조다! 모든 죄인은 온전히 그 안에 빠져 있지만, 주로 한 가지에 집착한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겉보기에는 때때로 꽤 참을 만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사탄의 유일한 관심사는, 사람이 온전히 몰두하고 있는 것, 즉 그의 의식과 주의력, 마음이 향하는 곳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 외부의 무언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마음과 의지, 그리고 마음을 그 대상에 매달아, 그것을 하나님 대신 삼고 오직 그것만을 염려하며, 그것에 대해 탐구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며, 그것을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육체적·영적 정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학문, 예술, 세속적인 것들처럼 겉보기에는 선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사탄이 눈이 멀어버린 죄인들을 자신의 영역에 묶어두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죄인의 내적 심경과 상태를 살펴보면, 그는 때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분주하고 근심에 휩싸여 있지만,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무기력하고 안일하며; 비록 끊임없이 마음의 불안이나 기쁨을 경험하지만, 모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존재의 모든 힘은 죄로 인해 타격을 입었으며, 죄인 안에는 눈이 멀고, 게으르며, 무감각한 상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므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느끼지 못한다. 자신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므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변화하여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마땅한 지위에 있으며, 바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삶에 대한 어떤 충고도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어, 이를 기피하고 피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는 죄인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깊이 잠든 사람은 아무리 큰 위험이 닥쳐도, 제3자가 다가와 깨우지 않는 한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듯이, 죄의 잠에 빠져 있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도우러 오지 않는 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인해, 그 은혜는 모든 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이를 찾아다니며 각자에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엡 5:14).

이처럼 죄인들을 잠든 자들에 비유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즉, 잠든 자는 깨어나고, 일어나며, 일을 하러 갈 준비를 한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죄인은 죄로 인한 잠에서 **깨어나**, 변화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며(일어서고), 마침내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위한 **힘을 입게 됩니다**(일을 할 준비가 됨). 탕자의 비유에서 이러한 순간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정신을* 차리고"—깨달았다; *"일어나* 가리라"—이전의 삶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일어나 갔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며 회개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입혀 주시며(의롭다 하심과 죄 사함) 잔치를 차려 주십니다(성찬)(누가복음 15:11-32).

이처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1) 죄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 2)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결심하는 것; 3)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를 통해 이 일을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입는 것.

죄인의 죄의 잠에서 깨어남

죄인의 각성은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그 결과 그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처지의 위험성을 **느끼며**, 스스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이전에는 구원에 대해 눈이 멀고, 무감각하며, 안일했으나, 이제는 보고, 느끼고, 염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변화가 아니라, 단지 변화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부르심일 뿐이다. 은혜는 여기서 죄인에게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다. "네가 어디까지 빠져들었는지 보라. 그러니 구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은혜는 그저 그를 늘 얽매여 있던 속박에서 끌어내어, 그 밖으로 내놓고 그곳에 머물게 함으로써,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그에게 복이 될 것이요,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버려져, 다시금 똑같은 잠과 똑같은 파멸의 심연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헌신하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의 하찮음과 부끄러움을 그 사람의 의식과 감정에 드러냄으로써 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데까지"* (히브리서 4:12) 닿듯이, 은혜 또한 마음과 죄를 쪼개며, 그들의 불법적인 결합과 유대를 분해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온 존재를 다해, 원리, 개념, 판단, 규칙, 관습, 쾌락, 질서 등 — 그리고 인간이 예정된 참된 영적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모든 것이 있는 영역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곳으로 떨어진 죄인은 고립되거나 단절된 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에 스며들어 모든 것과 융합되며, 온전히 모든 것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당연히 그는 이 질서에 반하는 것을 알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공감도 갖지 않는다. 영적인 영역은 그에게 완전히 닫혀 있다. 이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회개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죄인의 의식 앞에서 영적 삶의 질서가 온전한 빛 속에서 드러나고, 단순히 드러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마음에 깊이 와닿을 때뿐이며, 죄악된 삶의 질서는 수치스럽게 드러나고, 배척당하며, 파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또한 그의 의식과 감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쪽을 떠나 저쪽으로 들어가려는 염원이 생겨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죄인을 향한 은혜로운 자극이라는 하나의 행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작용 방식에서 하나님의 자극하는 은혜는 항상 죄인이 얽매여 있는 속박뿐만 아니라, 죄인의 특별한 상태에도 맞춰집니다. 이 마지막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한 번도 자극받은 적이 없는 자들에게 작용할 때와 이미 그러한 자극을 경험한 자들에게 작용할 때, 은혜가 보여주는 작용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단 한 번도 자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마치 선물처럼, 보편적인 선행적 또는 부르는 은혜로서 주어진다. 그 사람 자신에게 미리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는 그의 온 마음이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각성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느꼈음에도 다시 죄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 각성이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도 미리 무언가가 요구된다. 그는 마치 그 은혜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그는 과거에 기독교의 올바른 질서 속에서 지냈던 시절을 회상하며 종종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릴 힘을 얻지 못한다. 고치고 싶어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이겨낼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절망적인 무력감 속에 빠져 있으며, 이전에 스스로 은사를 저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경멸"했기* 때문에(히브리서 10:29) 홀로 내버려진 상태이다. 이제 그에게 이 은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깨닫게 된다. 찾고 노력하며, 얻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라. 그런 사람은 다소 괴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갈망하지만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굶주리지만 배부르지 못하며, 찾지만 얻지 못하고, 애쓰지만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떤 이는 이 상태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마치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를 잊고 버리셨으며, 여러 번 내린 비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땅처럼 맹세를 저버리신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히브리서 6:7-8 참조). 그러나 구하는 자의 마음에 은혜가 닿는 것이 지체되는 것은 단지 시험을 위한 것일 뿐이다. 시험의 기간이 지나면, 그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 구한 대가로, 다른 이들에게는 공짜로*(편집자 주)* 내려오듯이, 그에게도 다시 자극하는 영이 내려온다. 구원의 은혜가 이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를 보여준다: 가) 죄인을 깨우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비범한 역사, 그리고 나) 깨우는 은혜의 선물을 얻는 일반적인 순서이다.

죄인들을 죄의 잠에서 깨우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비범한 작용

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역사들을 알아야 하며,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위로부터 오는 도움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 반면, 신성한 자비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이를 특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행위들 속에서 그 어디보다도 더 명확하게 은혜로운 자극의 속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잘 인식하고 명확히 이해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과연 은혜로운 자극인지, — 이미 누군가가 활동하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로운 감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열정에 의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참으로 기독교적인 삶은 은혜로운 삶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삶은, 아무리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기독교적 삶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해도, 결코 기독교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은 은혜로운 감동에 있으며, 이에 귀를 기울인 자는 그 감동의 속삭임에 충실하게 머무는 한, 그 후에도 언제나 은혜로운 인도와 교제를 잃지 않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로운 감동이 있는지, 혹은 있었는지를 스스로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비범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은혜로운 각성의 특성들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라. 왜냐하면 그 특성들은 비범한 상황에서도 평소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 더 밝고, 더 분명하며, 더 뚜렷하게 드러날 뿐이다.

은혜로운 각성이 일어날 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자기만족적인 죄악된 삶의 모든 질서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 앞에 또 다른, 더 나은 신성한 질서, 유일하고 참되며 기쁨을 주는 질서가 드러납니다. 이 질서를 간략히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로 숭배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를 돌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성교회의 인도와 보호 아래, 이 땅에서의 십자가와 시련이 따르는 삶을 통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어, 미래의 삶에서 영원하고 끝없는 행복으로 이끄십니다. 이 구절은 인물과 사건, 제도, 그리고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이 모든 질서는 은혜의 작용을 통해 죄인인 인간의 영에 생생하게 각인되며, 본래 그와 완벽한 조화와 유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 그 자신과 그의 심정, 그리고 그가 이전에 살아가고 즐기던 모든 것—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그를 경악하게 한다. 그의 모든 면모는 과거의 무지와 불성실함에 대한 고발과 질책을 드러내며, 동시에 영 안에서 경멸받을 만한 과거의 죄악된 질서의 하찮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강렬해진다. 이러한 작용 아래에서 마음은 과거의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서게 되며,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은혜로운 각성의 작용이 미치는 한계이다. 그것은 의식과 감정 속에서 모든 과거의 것—최악의 것—을 무너뜨리고, 오직 새로운 것—최선의 것—만을 생생하게 제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다시 옛것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겨둔다. 주목할 점은, 은혜로운 각성이 항상 충격과 일종의 공포를 동반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마치 불시에, 인생의 갈림길에 선 죄인을 범죄자처럼 붙잡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때문인지, 아니면 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질서가 그에게 완전히 새롭고 이전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 단지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전하며, 행복을 안겨주는 반면, 이전의 하찮은 질서에는 오직 마음의 갈망과 영의 절망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자극에 의한 모든 선한 행위의 출발점은 바로 이 새로운 신성한 질서에 대한 생생한 인식이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 은혜로운 작용에 관한 과거의 모든 경험을 상기해 보자. 존재와 삶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 때로는 그 질서 자체가,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형태로, 실제로 회개하는 죄인에게 드러나기도 하고; 나) 때로는 사람의 영이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 내면적으로 그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A.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회심하는 이의 의식 앞에, 우리 영이 반드시 살아가야 할 그분의 신성한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1)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종종** 사람이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 어떤 형상으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사도 바울에게, 콘스탄티누스 대제(5월 21일)에게, 에우스타티우스 플라키데스(9월 20일)에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네아니우스(대순교자 프로코피우스; 7월 8일)에게, 꿈속의 파테르무피우스(7월 9일)에게,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 **때로는** 저 세상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보내시기도 하는데, 역시 현현이나 꿈 속에서, 본래의 모습 그대로이거나 다른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모** 마리아께서는 홀로, 혹은 영원하신 아기 예수와 함께, 또는 한 분, 두 분, 혹은 많은 성인들이 동반한 모습으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를 들어, 대순교자 예카테리나(11월 24일)는 꿈속에서 영원하신 아기 예수와 함께 나타나신 성모 마리아의 현현을 통해 그분께 신부로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도 한 명씩 또는 무리를 지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성 안드레이 유로디비(10월 2일)에게는 꿈속에서 어둠의 세력 군단과 대조되는 온전한 성천사들의 세계가 나타났습니다. **성인들도**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성 미트로판은 루터교 의사, 병든 처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3) 때로는 그 세계 자체, 특히 그 질서와 말하자면 근본 원리들이 알지 못하는 의식 앞에 놀라운 어떤 형상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성 안드레이 유로디비 사례와, 인도 왕과 그의 형제에게 의인의 복된 거처가 나타난 사례, 성 사도 토마스(10월 6일)가 집을 짓기 위해 받은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후; 또는 이시키아 호리비투스(10월 3일, 프롤로그)에게처럼 죄인들의 끔찍한 고통; 혹은 빵을 굽는 베드로가 거지에게 빵 한 덩어리를 얼굴에 던진 사건처럼 사후 심판의 과정; 혹은 요아사프 왕자(11월 19일), 성 클리멘트(11월 25일), 그리고 죽어가는 아버지가 반드시 매일 저녁 자신이 죽어가는 방에 들르라고 유언한 방탕한 청년에게처럼, 죽음과 그 이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생각이 각인되기도 한다. 4) 때로는 눈에 보이는 힘과 현상들 가운데서 작용하지만, 그것들과는 현저히 구별되며 다른 세상에서 비롯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뚜렷이 느끼게 해 주기도 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기적이 포함되며, 그 기적을 통해 일어난 변화들을 셀 수조차 없다. 구세주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중 대부분은 그리스도 구세주 이후, 기독교 초기 시대에 사도들에 의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성스러운 순교자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이곳에 현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은 종종 마을과 도시 전체를 회심하게 만들었으며, 결코 완전히 헛된 결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참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리아 이집트녀(4월 1일)의 회심 때처럼 인간의 중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기도 했고, 성물, 성화, 성유해 등을 통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리테에서 유대인들의 회심은 주님의 십자가 처형 성화에 나타난 기적적인 현상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 속에서, 세상의 온갖 사물과 유혹에 얽매여 가시적이고 감각적이며 외적인 차원에 절망적으로 갇혀 있던 의식은, — 눈에 띄고, 뜻밖이며, 순간적인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 온 더 높은 존재들과 힘들이 그에게 나타나자,

그 의식은 순식간에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의 존재와 삶 속으로 밀려 들어가, 경악한 채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 여기서는 어떤 물체 내에서 다른 물체의 전기에 의해 전기가 유발될 때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후자는 전기를 물질의 속박에서 끌어내어 표면으로 끌어올린 뒤, 자기 앞에 고정시킨다.

B.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영은 수많은 장막에 가려져 있고 억눌려 있다. 그러나 그 본성상 그것은 신성한 질서를 바라보는 자이다. 그것을 향한 능력은, 그것을 묶고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즉시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 힘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고 신성한 질서를 관조하도록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는 a) 그에게 **직접** 작용하여 힘을 채워줌으로써 그를 묶고 있는 속박을 끊을 수 있게 하거나, b) **간접적으로** 그에게 덮인 장막과 그물을 떨쳐내어, 그로 하여금 본래의 질서 안에서 있을 자유를 부여한다.

1. 신성하고,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의 영에 **직접** 작용하여, 그 안에 모든 유한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비록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으나 더 나은 다른 세계로 향하게 하는 생각과 감정을 새겨 넣는다. 이러한 감동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불만과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다**.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게 되는데, 자신의 장점이나 소유한 것, 설령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이라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슬픔에 짓눌린 듯이 살아간다. 보이는 그 어떤 것에서도 위안을 찾지 못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돌아서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자신을 그 것에 맡깁니다. 많은 이들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고 어디로 이어질까"라는 의문을 품은 채 모든 것을 버리고, 감정과 행동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 바꾸곤 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불만이 주로 **지적인** 측면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 신성한 존재를 뵙는 빛을 주로 추구했던 유스티누스 철학자(6월 1일)의 경우처럼; 때로는 **심령적인** 측면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 주로 자신의 요동치는 마음에 평안을 찾았던 아우구스티누스(복자; 6월 15일 — *편집자 주*)처럼 주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기도 했으며; 때로는(대부분의 경우) 모세(무리나; 8월 28일 — *편집자 주*)와 다윗(예르모폴스키; 9월 6일 — *편집자 주*)의 강도들처럼 **양심이라는 실천적** 차원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갑자기 영혼의 내적 성전이 환하게 밝혀지고, 끌림이 싹트며 영혼을 다른 곳(다른 장소 — *편집자 주*)으로 향하게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다(요한복음 3:8). 종종 영은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깨어납니다. 아브라함 은둔자(10월 29일)의 조카딸 마리아와, 강도 생활로 생을 마감한 성 요한 신학자의 제자 테오필, 그리고 교회 관리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디선가 내면으로 들어와 양심에 또렷이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계 2:5) — 그리고 이 말은 자신을 잊고 있던 이를 강하게 일깨운다. 여기에는 청년 시절의 타락 이후의 모든 회심 사례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변화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미리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준비되며, 이는 은총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직접성'은 단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모든 은혜로운 자극이 이와 같은 영적 끌림과 각성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은혜는 비록 보이는 매개를 통해 나타나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에 닿아, 영을 괴롭히는 속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빛 속으로, 신성한 생명의 영역으로 이끌어 낸다.

이와 관련된 **모든 수단은** 영혼의 속박을 해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면, 영은 저절로 그 근원인 하나님께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영의 속박은 세 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자기 만족**, b) **세상**, c) **마귀**. 영을 일깨우는 은혜의 파괴적인 작용은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항하여 이루어진다.

영에 가장 가까운 속박은 우리의 동물적 영성 속에 자리 잡은 전방위적인 **자기만족의** 속박이다. 이 속박은 세상과 마귀로부터 비롯된 다른 속박들과 접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속박들을 끊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동물적 영혼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쪽의 속박은 동물적 영혼의 삶이 뻗어 나가는 만큼 그 공간에 걸쳐 넓게, 다양하고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박들이 어떻게 끊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삶이 무엇에 접해 있고, 무엇으로 양분을 얻으며, 주로 무엇으로 표현되는지가 그 삶에 있어 확고한 버팀목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버팀목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삶은 패배를 두려워하지도,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예술성이나 일상성, 혹은 학문성에 집착하여 그 중 어느 하나에 온전히 몰두하여 산다면, 그는 그 것에 의지하며 모든 힘과 생각, 희망을 그 안에 두게 된다. 이곳에서 영혼을 옭아매는 온갖 자기만족적인 삶이 비롯되므로, 이 자기만족의 버팀목은 자연스럽게 영혼에 가해지는 속박의 견고함과 강인함의 기초가 되며, 마치 그 속박들이 고정되는 지점처럼 작용한다. 따라서 반대로, 영을 자기만족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신성한 각성 은총은 대개 자기만족적인 자아가 의지하는 버팀목들을 무너뜨린다. 이 버팀목들의 기초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은총은 속박을 약화시키고, 고통받고 지친 영이 고개를 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의 자기만족을 지탱하는 버팀목은 많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존재, 즉 몸과 영혼 속에도 있고, 우리의 외부 생활 속에도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질서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 쾌락 추구, 즉 쾌락 추구, 사치, 정욕, 나태, 오락에 대한 열정, 세속적인 과도한 염려, 출세욕, 권력에 대한 집착,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 풍요로움, 호화로운 외적 생활, 인맥의 가치, 원만한 대인관계, 예술성, 학문, 사업 활동에 대한 집착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장 다양한 형태로 우리 자아의 확고한 버팀목을 이루며, 자아는 그 신뢰성과 견고함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위에 평온히 안주하고, 풍족하게 양분을 얻으며 날마다 성장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주로 한 가지 유형에서, 다른 이에게는 또 다른 유형에서 그러하다.

죄인을 잠에서 깨우기 위한 구원의 신성한 은총은, 누군가가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고 그 위에 안주하는 바로 그 버팀목을 무너뜨리는 데 그 힘을 쏟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한다.

육체의 쾌락에 얽매인 자를 병들게 하여 육체를 약화시킴으로써, 영에게 자유와 힘을 주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한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힘에 현혹된 자에게는 그 아름다움을 빼앗고 끊임없는 쇠약 속에 머물게 한다. 자신의 권력과 힘에 안주하는 자를 노예 상태와 굴욕에 빠뜨린다. 부유함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빼앗긴다. 자만하는 자는 무지한 자처럼 수치를 당한다. 견고한 유대 관계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관계가 끊어진다. 주변에 확립된 질서의 영원함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가까운 이들의 죽음이나 필요한 물건의 상실로 인해 그 질서가 무너진다. 외적인 행복에 안주하여 방심에 사로잡힌 자들을, 슬픔과 불행 외에 무엇이 깨우칠 수 있겠는가? 우리 삶의 전 과정이 재앙으로 가득 찬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냉철하게 지키시려는 뜻에 부응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종류의 안일한 방종에 대한 지주들이 무너지는 모든 일은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데, 그것들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닥치기 때문에 놀랍고도 구원적인 작용을 한다. 이 점에서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에 대한 감각이다. 이 감각은 모든 속박을 풀어주고 자아를 뿌리째 죽인다;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닌 것이 바로 궁핍한 처지나 온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느낌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사람을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겨두며, 그 사람은 가장 하찮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

영혼을 얽매는 **두 번째 속박은 세상으로부터** 비롯되며, 앞서 언급한 것들보다 더 표면적인 성격을 띤다. 세상은 그 개념과 원칙, 규칙, 그리고 불변의 법칙으로 승격된 모든 질서를 통해, 모든 자식들에게 무겁고 지배적인 손길을 얹는다. 그 결과 그들 중 누구도 세상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 권위를 거부할 생각조차 감히 하지 못한다. 모두가 그 앞에서 경외심을 품고, 일종의 두려움을 안고 그 규칙을 따르며,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마치 형사 범죄처럼 여긴다. 세상에는 실체로서의 모습이 없지만, 그 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머물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족쇄처럼 우리를 묶어 둔다. 분명히 그 권세는 실재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 속의, 상상의 것이다. 따라서 이 상상의 권세를 불식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매력에서 깨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작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그 섭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두 개의 다른 세계, 즉 거룩하고 신성한 세계를 제시하며, 그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더 나은 것을 주목하게 하고 심지어 체감하게 함으로써, 세속적인 삶 과 세속적인 희망의 공허함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들은 바로 보이는 자연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속의 안개에 휩싸인 마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조하거나 교회에 발을 들이면서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어떤 이는 겨울에 창문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정신을 차렸고, 또 다른 이는 시끌벅적한 대화를 나눈 뒤, 성전에서 마음의 평온함이 주는 달콤함을 느끼고, 예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했다. 눈에 보이는 자연과 하나님의 성전은 방심하고 죄 많은 기독교인들을 자주 깨우치고 정신을 차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기도 했다. 한 여인은 **'오산나'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 기독교인이 되었다. 우리 조상들의 회심은 성당이 그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해 확고히 자리 잡았다. 대순교녀 바르바라(12월 6일)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관조함으로써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성당의 힘과 영향력은, 세상의 허영에 지치고, 고갈되고, 기진맥진하며, 고통받는 영혼에게 더 낫고 가장 복된 삶의 질서를 생생하고 실감 나게 제시하며, 그 영혼에 이 생의 기쁨을 순식간에 쏟아부음으로써, 세상의 지배에 굴복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뿐이며, 행복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숨겨져 있고, 지금 세상과의 교제가 이토록 고통스럽다면, 그 후에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느냐는 점을 깨닫게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르심과 헛된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싹트며, 이는 때로는 강한 충동의 형태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영혼을 세상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다. 이처럼 자연과 교회는 헛되고 매혹적인 세상의 유혹을 쫓아내고, 흩어뜨리며, 지워버리는 존재들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이 둘을 우리와 이러한 관계 속에 두셨으니, 한 삶과 다른 삶의 대조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더 자주, 더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게 하시기 위함이다.

세상의 속박에서 은혜로 해방되는 두 번째 방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어떤 이에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삶이 실제로 눈앞에 드러나는 데 있다. 여기에는 특히 **순교를** 통한 모든 회심이 포함되며, 그에 대한 예는 셀 수 없이 많았다. 때로는 한 사람의 순교적 업적이 마을과 도시 전체를 회심시키기도 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온 도덕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 때로는 패배가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고문을 당하는 자는 패배하지 않은 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그 이유와 과정을 알지 못한다. 이를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이전 삶의 방식이 지닌 매력을 쫓아내 버린다. 여기에는 마우리키우스 황제가 한 강도를 회개시킨 일도 포함된다. 황제는 그를 처형하는 대신, 공로가 있는 사람처럼 자비롭게 대했다; 한 어머니가 죽은 외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한 창녀의 회심과, 또 다른 창녀의 회심도 여기에 속한다. 후자는 같은 집에서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을 때, 겸손하게 기도와 신학적 묵상에 몰두하고 있던 수도사들을 한 번 바라본 것만으로 회개에 이르렀다.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권면도 여기에 속한다. 그 효과의 힘은, 즐거움이나 안정을 주는 물건들을 풍족히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나 평안을 찾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만족스럽고 평온한 얼굴들을 직접 마주 보게 된다는 데 있다. 여기서 실망과 삶의 변화가 비롯된다.

세상에서 마음을 돌리는 세 번째 방법은 자녀들을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율리아누스(배교자 – *편집자 주*)는 모든 이 위에 우뚝 서서 기독교인들을 맹렬히 탄압하며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짓밟겠다고 위협했으나, 그 후 뜻밖에도 몰락하고 말았다. 이는 믿는 자들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을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했다. 성 마카리우스(이집트의 – *편집자 주*)*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반기를 들고, 그를 구타하고, 고문하며, 형벌을 가했다. 세상이 승리한 듯했으나, 그 후 진실이 드러나 모든 이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두를 경건함과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되돌려 놓았다. 여기에는 세상의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몰락과 뜻밖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훈계가 포함된다. 여기서 세상의 수치는 그 지지자들 앞에서 세상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그 무력함을 폭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맞설 용기를 준다.

마지막으로, 종종 세상은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즉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치를 안겨줌으로써 스스로를 몰아내고 쫓아내기도 한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세상에는 오직 영광과 명예, 권력, 부, 쾌락만이 있을 뿐인데, 이러한 것들은 추구하는 이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 분별력 있는 사람은 곧 그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세상의 헛됨과

반항적인 성격을 꿰뚫어 보고, 세상에서 멀어져 결연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 속의 탕자는 *"배고파 죽겠구나"*(눅 15:17)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속박은 사탄과 그의 영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속박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사탄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마음을 어둠 속에 가두는 '자기 만족'과 '세상'의 속박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서 직접 비롯되는 것도 있다. 그로부터 오는 모호한 두려움과 공포는 죄인의 영혼을 언제나 뒤흔들며, 특히 그가 선을 행하려 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는 마치 주인이 하인이 자신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게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 "라고 위협하는 것과 거의 같다. 사탄으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영적 아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이들에게는 타당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희망이 있어, 정신을 차리게 하기는커녕 죄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는 반대로 절망이 닥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의심과 불신; 저 사람에게는 모든 회개의 감정을 짓누르는 자만과 자기합리화가 있다. 그렇다, 많은 것, 아주 많은 것이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달려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든 죄악도 그 근원으로서 사탄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그는 죄악된 세상의 왕이기 때문이다. 그의 교활한 수법 중 하나는 자신을 숨기는 것, 즉 죄인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죄 많은 영혼 속에서 잔혹하게 제멋대로 행하며, 그들이 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게 하고, 마치 자연스러운 것을 금지하고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끌게 한다. 이성을 일깨워 주는 신성한 은혜는 종종 사탄을 수치스럽게 함으로써 죄인들을 지옥의 턱에서 구해내곤 했다. 그 은혜는 사탄을 망신시키고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교활한 계략을 폭로했다. 시몬 마법사와 키프리아노스 안티오키아 주교,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이들을 통해 그는 이처럼 수치스럽게 드러났다. 이러한 모든 사례는 눈이 멀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는 일과 함께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절, 불신과 의심의 근원이었던 악령들은 믿음의 전도자가 되었다. 또한 성스러운 순교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전 속의 우상들을 통해 거짓의 아버지들과 그 자식들이 진리를 말하도록 자주 강요하기도 했다. 이처럼 악마의 계략이 드러남으로써 죄인은 자신이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손에 잡혀 있으며,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속이고 있고, 어떤 음울한 길로 파멸로 이끌며 그 파멸을 기뻐하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안녕에 대한 두려움, 경계심, 의심, 그리고 교활한 자와 그의 발명품인 악덕과 정욕, 나아가 과거의 삶 전체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진리와 선, 그리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영에 작용하여,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의 속박에서 그를 끌어내고, 또 다른 더 나은 삶, 즉 그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눈앞에 보여주는 길과 방법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여, 마치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를 들어, 더 나은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겼지만, 그 '더 나은 것'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을까? 혹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뒤흔들었을 때,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다른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침묵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는 보완적이고 완성적인 방법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말씀, 즉 설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양한 형태를 통해, 앞서 제시된 모든 방법을 실제로 동반하며, 이를 설명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켜 줍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방법들은 사람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남겨두게 되며, 결과적으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현현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에게 모든 것을 완성하시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가 네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9:6). 저스틴 철학자, 대순교자 바르바라, 요아사프 왕자는 거짓을 보았으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특별한 인도자와 해석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곧 섭리자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게 하라는 법을 세우셨습니다(행 17:30).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롬 10:17).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 그들의 후계자들에 의해 지금 온 땅의 구석구석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포의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구원적인 질서에 대한 선포와, 깨달음을 얻은 자가 그

깨달음을 헛되이 잃지 않거나, 그 깨달음으로 인해 헛된 길로 방황하며 힘과 시간을 헛되이 소모하지 않도록, 해석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야 할 인물과 장소가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성입니다. 교리 교육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야 하며(실제로 들려지고 있다). 믿음에 굳건한 이들은 이를 통해 점점 더 굳건해질 것이며, 타락했거나 영적 각성을 경험한 이들은 즉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제들이 대개 추측에 불과한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에 의존하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할 의무는 얼마나 귀중한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언급된 모든 방법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더 완전하고 명확하게 마음을 일깨웁니다. 우리의 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은 내면으로 스며들어 영혼과 영이 분리되는 곳까지 이르며, 영을 소생시키고 영적 삶의 열매를 맺도록 씨를 뿌립니다(그래서 말씀은 **씨앗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자극하는 힘은 말씀이 한 번에 온전한 인간, 즉 그의 모든 구성 요소인 몸과 영혼과 영에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크다. 소리, 즉 단어의 음절은 청각을 자극하고, 생각은 영혼을 사로잡으며, 그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영을 건드린다. 영은, 만약 귀를 기울인다면, 말씀이 육체와 영혼이라는 거친 장벽들을 무사히 통과한 후에 자극을 받아 긴장 상태에 이르며, 자신을 묶고 있던 속박을 끊어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언급한 방식들로 사람을 자극합니다. 즉, 신성한 질서에 대한 가장 생생한 인식 을 의식 속에 심어주거나, 우리 영을 그 안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묶고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늙은 하인이 병든 주인에게 소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주인님,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를 회개로 이끌었다. 또 다른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형상 아래에서 "내가 너를 위해 이토록 행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읽고 잠에서 깨어났다. 성녀 펠라기아는 죽음과 심판, 그리고 죄인들의 쓰라린 운명에 대해 듣고는 죄 많은 삶에서 벗어났다. 사도와 동등한 공로자 블라디미르 대공은 세상의 창조부터 만물의 종말, 두려운 심판, 선인과 악인의 영원한 운명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신적 질서에 대한 묘사로 사람들을 깨우쳤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 사도들의 설교, 그리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는, 복잡한 사색 없이 진리를 단순하게 제시하는 데에 있었다. 성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말과 설교가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을 단순하게 전하는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고린도전서 2:24).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말을 통해 작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진리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지적인 고찰이나 특히 가능성에 대한 추측으로 이를 가리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영과 친화적이다. 단순하고 진솔하게 표현된 진리는 영을 찾아갈 것이나, 반면 비유로 둘러싸이고, 형상화되며, 꾸며진 진리는 환상 속에 머물게 될 것이며; 추론과 증거로 가득 찬 진리는 이성이나 영혼에 머무르며, 영에 닿지 못하고 영을 공허하게 남겨둘 것이다. 설교의 모든 무익함은 그것을 채우는 사색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를 단순하게 설명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밝혀내면 — 영은 정복될 것이다. 한 유대인이 복음을 읽었고 — 회심하였으니, 단순한 복음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많은 자유사상가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의 인도에 따라 신성한 것들에 대한 생생한 깨달음을 통해 회심하였다. 진리는 헛된 생각의 어둠을 걷어내고, 영혼을 상쾌하게 하며, 영을 비춘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되짚어 보기를 자주 활용한다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반면에, 말씀의 힘으로 종종 영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 안토니우스 대성인은 세상의 복이 하찮다는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렸다. 한 청년은 탕자에 대한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삶의 허무함을 묘사함으로써, 많은 성인들이 이미 혼인 생활 중에 있는 배우자들을 흠 없고 순결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편으로는 신성한 질서에 대한 인식과,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매력의 드러남은 영혼을 **구원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거나, 구원의 길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깨달음으로 채워주며, 이에 맞서 마음의 완고함이 버티기란 드문 일입니다. 매우 많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긴장감 있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무감각과 안일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모르거나 불완전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의 충만함은 승리하는 힘이니, 그때는 간사한 마음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죄인들의 각성을 위한 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땅 위를 두루 다니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귀에 닿습니다. 그 말씀은 성전에서, 모든 예배에서 끊임없이 들리며, 성전 밖에서도 모든 교회 의식 속에서 들립니다; 교회 찬송과 노래 속에 있으며, 성직자들의 설교와 모든 영혼에 유익한 책 속에 있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대화와 교훈적인 격언 속에 있으며, 학교와 그림, 그리고 영적 진리를 나타내는 모든 가시적인 대상 속에 있습니다. 이로부터 미루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여 있으며, 사방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 사방에서 죄의 요새를 여리고의 성벽처럼 무너뜨리기 위한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진다. 이 모든 형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인간의 마음 위에 승리하는 그 힘을 보여주었으며,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는 길이 보존되고 막히지 않도록, 즉 진실한 설교가 잠잠해지지 않도록, 예배가 규례에 따라 그리고 교화를 위해 거행되도록, 성화 제작이 건전하고 거룩하게 이루어지도록, 찬양이 절제되고 소박하며 경건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야 할 뿐이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제단을 섬기는 이들의 몫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강력한 도구들이다. 그들은 이를 자각하고 성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때로는 말로 하나님의 평화를 묘사하고, 때로는 영적·육체적 유령들이 우리 영을 현혹하는 방식을 밝혀내야 한다(이 분야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는 성 티혼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으신 듯합니다. 글쓰기와 말하기라는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죄인들을 깨우치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데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분의 거의 모든 글이 바로 그 방향으로 이끕니다. 모든 교회 설교와 모든 대화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극적 은총의 선물을 얻는 일반적인 절차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은총의 자극이 나타내는 다양한 작용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미 그러한 자극을 경험했으나 다시 죄로 떨어져 평소의 치명적인 죄로 단호하게 회귀한 죄인에 대해 은총이 발휘하는 작용 방식이다. 이러한 타락이 반복될수록 그 자극은 점점 약해지는데, 이는 마음이 마치 그 자극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며, 결국 그것은 영적 삶의 일상의 현상 중 하나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화와 함께, 현재 그 형태에서 특징지어지는 활기찬 감정에서 점점 더 멀어져 생각에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단순한 생각과 회상으로 변해 버린다. 이 생각은 한동안은 기꺼이 받아들여지다가, 나중에는 불쾌감은 없더라도 냉담하게, 별다른 관심 없이 그저 참아내게 되고, 그 후에는 성가신 것이 되어 서둘러 떨쳐버리려 하며, 마침내 그로부터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더 이상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며, 쫓아내고, 몰아낸다. 이에 따라 더 나은 영적 삶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도 약해진다. 처음에는 그 필요성이 단지 그럴듯해 보일 뿐이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의문이라는 형태로 의심에 가려지고, 더 나아가 그 필요성의 부재와 불필요함이 그 이상으로 그럴듯해진다. 마침내 내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 "살아가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쓸데없는 수고일 뿐이다." 여기서 사람은 악의 심연에 빠져 무기력해진다. 이는 단 한 번도 영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상태와 유사한 상태이다.

분명히, 후자의 구원은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크시나, 그러나 그 자비조차도, 마치 수없이 비를 맞았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해 *"쓸모없고 저주에 가까워진"* 땅처럼,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히브리서 6:8). 바로 이것이 은혜로운 감동이 요구하는 삶의 질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이며, 특히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이 점을 기억에 깊이 새겨야 한다. 물론, 신성한 은혜는 그 작용에 있어 이러한 기준이나 정의에 얽매이지 않지만, 때로는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구원의 가능성을 절망해서는 안 되지만, 선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그러한 약함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항상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감동을 받아들일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 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신성한 은총이 우리에게 작용할 모든 길을 막아버린 것은 아닐까? 이것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 삶의 추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그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온 마지막 기회인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이러한 부르심이 미약할 때일수록, 비록 이성적인 것이긴 하지만 온전한 결의를 가지고 서둘러 이를 활용해야 하며, 인간의 자유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 분명히, 이러한 노력은 바로 부름받고 갈망하는 은총을 향해 우리 자신을 열어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 열어가는 것이니, 이는 과거의 타락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완고해지며 은총에 대해 이쪽저쪽에서 문을 닫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부터 제시될, 최초로 자극받은 상태의 에너지에 이르는 상승의 길을 통해 자신을 은혜에 맡김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며, 잠들어 있는 영적 움직임을 자극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대상이 받아들여질수록 그 에너지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초로 각성된 자'에게는 모든 일이 열정적이고, 빠르며, 불타오르듯 이루어지는 반면, '마지막 자'에게는 일이 차갑고, 느리며, 매우 힘들게 진행된다. 마치 은총이 그를 스스로 내버려 두어, 부르시는 하느님께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느끼게 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함인 듯하다. 주님께서는 이때 소망을 지켜 주시되, 해방은 단번에 주지 않으시고, 사람을 중간에 머물게 하여 갈망 속에 두시며, 마치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하심으로써 열심을 시험하시고, 꾸준함을 향한 소망과 약속을 형성하게 하신다. 그런 다음 이미 시험을 거친 자를 해방시키신다.

이 몇 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두 가지 방식을 구별하고자 했는데, 그중 하나에 대해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계 3:20)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눅 11:9)*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미 설명했으니, 두 번째 방식에 관해서는 '어떻게 구해야 하며 어디를 두드리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비상한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예를 들어 사도 바울, 이집트의 마리아 및 그 밖의 인물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나 일반적인 회심의 과정에서는 대개 사람에게 단지 '삶을 바꾸고, 행실과 내면의 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 생각이 영혼을 지배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대개 이런 종류의 선한 생각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이는 그 생각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그 생각이 깃든 사람들의 부적절한 태도 때문이다.

그에 대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실수는, 그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날마다 미루는 것이다. 미루는 습관은 보편적인 병폐이며, 고쳐지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이다. 누구나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하며, 익숙한 나쁜 삶의 옛 방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자신을 바로잡겠다는 선한 생각이 들면 —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이 당신에게 전해진 목적을 위해 행동에 나서며, 이 목표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미루는 습관을 떨쳐내라.

1) **미루는 습관을 떨쳐내라**. "내일이나 언젠가 나중에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라. 건전한 이성을 무기로 삼고, 그 도움을 받아:

가) 미루는 것에서 오는 어리석음과 추악함, 그리고 위험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라. "나중에"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이를 행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 자신이 죄에 더 익숙해지고, 네 죄악적인 상황과 관계들이 더 얽히고설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얽혀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스스로를 얽어매면서, "나중에 풀면 지금처럼 쉬울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도대체 왜 망설이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지겨울 지경이었다"*(참조: 사 1:14)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너 자신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하기 위해 어떤 수고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피해야 할 재앙이다. 양심적인 생각이 이 모든 것을 선명하고 생생하게 그려내려고 애쓴다면, 영혼의 모든 주요 주체들은 미루는 태도를 멀리하게 될 것이며, 내면에는 그것을 옹호해 줄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그것이 너에게 적대적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너 자신도 그것을 반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b) 우리가 미루는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온 선한 생각이 아직 단지 생각으로만 남아 있을 뿐, 아직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욕망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다른 관심사들 사이에서

낯선 손님처럼 나타나 멀리서 유혹할 뿐,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 그 생각을 영혼 깊은 곳으로 더 이끌어내고, 그 가치와 매력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이제 네 몫이다. 그러니 그 생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옳음을 상상하며, 그것이 약속하는 기쁨과 고귀함을 보여주고, 실천하기 쉬울 것임을 스스로 확신하라. 선한 생각이 미약하게 작용하고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은, 머릿속에 다른 계획들이 있고, 이미 너를 사로잡은 욕망들이 가리키는 더 흥미로운 대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생각을 앞으로 불러내어 공평하게 비교해 보라. 선한 생각이 제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아주 먼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다. 선한 생각이 가리키는 것만이 남을 것이며, 유일하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서 우리를 끌어당길 것이다.

c) 우리가 미루는 습관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약해지도록 방치하고, 게으름과 무기력, 졸음, 우유부단함을 생각과 행동력 모두에서 용납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쪽 측면에서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다. 일상적인 일에서, 더구나 구원의 가장 시급한 일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생생하게 상상해 보라. 모든 일에서 활기차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며, 그 반대를 허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오늘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방법과 유사한 수단들로 미루는 습관을 몰아내라. 누가 어떻게 하든, 그저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실행을 미루지 않도록 스스로를 설득하고, 마음을 다잡아 그 지시에 따라 즉시 행동에 나서도록 하라. 일을 다음 날로 미룬 사람에게는 오늘 더 이상 조언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 선한 생각이 받아들여져 관심을 끌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서둘러 그 생각을,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쉽고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자극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생각이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자극을 위한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준비로서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사람을 죄 속에 묶어두는 그 미묘한 그물들, 혹은 그 마음가짐의 질서와 정반대여야 한다. 죄는 영혼을 수많은 그물로 얽어매거나 수많은 가면으로 영혼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데, 이는 죄 자체가 추악하여 첫눈에 사람을 밀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깊고 마음에 가장 가까운 가림막은 **자기기만**, **무감각**, 그리고 **안일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위쪽, 표면에 더 가까운 곳에는 산만함과 **지나친 근심거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은 죄와 죄악적인 관습 및 질서를 숨기고 키우는 주된 요인들이다. 가장 윗층의 덮개는 **육신의 우세**이며, 다른 것들보다 더 눈에 띄는 덮개이지만, 그 강도와 중요성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첫 번째 덮개는 본질적인 덮개이다. 이 덮개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바꾸고자 하지 않게 만든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것들은 그 죄악된 상태를 드러내고 유지할 뿐이다. 신성한 은총이 임하면, 그것은 *영혼과 영이 나뉘는 곳까지* 스며들어 첫 번째 가림막을 정면으로 강타하고 찢어 버린다. 그 작용 아래에서 죄인은 즉시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 자신의 의식 앞에 온갖 추악함을 드러낸 채 서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아직 스스로 은총의 감동을 찾고 있을 때는, 겉에서부터 행동을 시작하여 내면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니, 너를 사로잡은 불선한 삶의 변화를 위한 생각에 제대로 몰두하고 싶다면, 마치 땅의 층을 벗겨내어 그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듯이, 네 몸에서 죄의 가림막을 벗기기 시작하라.

가) 무엇보다 먼저 **육신을** 다스려라. 육신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거부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욕구조차도 제한하라. 깨어 있는 시간을 늘리고, 평소 식사량을 줄이며, 기존 노동에 새로운 노동을 더하라. 중요한 것은, 네가 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육체를 가볍게 하고, 그 뚱뚱함을 얇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혼은 물질과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유연해지고, 더 가벼워지며, 선한 인상에 더 잘 반응하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육체는 영혼을 압도함으로써 자신의 경직성과 냉담함을 전한다. 육체적인 노력은 이러한 속박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를 제거한다. 물론 모든 죄인이 절제 없이 살며 육체를 방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깃들었을 때 육체의 욕구를 거절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목적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행동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 예전에 습관적으로, 혹은 자신의 일을 위해 하던 일을, 이제 구원을 위해—물론 약간의 변화와 더

엄격함을 더해—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그 차이를 뚜렷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b) 육체는 영혼을 완전히 짓누른다. 근심과 **산만한 생각들이** 영혼을 내면에서 괴롭힌다. 육체가 이미 겸손해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장벽이 영혼을 그 자체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걱정거리들은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을 주지 않는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손에는 한 가지 일만 잡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일이 맴돈다. 그래서 걱정거리들은 사람을 끊임없이 앞으로만 몰아붙여,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 당분간 걱정거리들을, 예외 없이 모두, 잠시만 미루어 두라. 나중에 다시 평소의 일들을 처리하면 되니, 지금은 그만두고, 손에서 내려놓고, 생각에서도 떨쳐내라.

하지만 그때조차, 신경 쓰이는 일들이 멈췄음에도 혼란은 여전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 영혼은 산만해지고,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로 인해 자신 안에 어떤 견고하고 확고한 것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목자가 양 떼를 모으듯이, 혹은 유리가 흩어진 광선을 모으듯이, 네 흩어진 생각들을 한데 모아 네 자신에게로 돌리라.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자기 자신에 전념하고, 산만한 생각과 근심을 끊어내려는 소망은, 물론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한편으로는 고독을,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활동—생활적인 것과 직무적인 것 모두—을 중단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육체의 절제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에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삶의 변화를 꾀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어떤 금식 기간, 특히 대사순절 기간으로 여겨야 한다. 이때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사회에서도 모든 것이 그에 맞춰 준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회개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을 바꾸겠다는 선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실행을 금식기가 시작될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은 금식기 이외의 다른 어떤 때에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거룩한 금식기가 찾아왔을 때, 영혼의 구원을 돌보지 않고 이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다른 때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됩니다. 금식 기간이 아닌 때에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구원의 생각이 떠오르고, 이를 실천하는 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해가 있는 사람은, 잠시 어느 수도원으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더 수월합니다.

c) 자, 이제 너는 네 마음 앞에 서 있다. 네 눈앞에는 무심함과 무감각, 그리고 눈먼 상태에 빠져 깊은 잠에 든 네 내면의 사람이 있다. 그를 깨우기 시작하라. 떠오른 선한 생각이 이미 그를 조금은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니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사색에 온 힘을 기울이며,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다소 강렬하고 인상적인 온갖 종류의 상상을 스스로에게 불러일으키되, 이를 자신의 내적 상태에 적용해 보라.

무엇보다 먼저, 네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장막을 벗겨내어, **그로 인한 맹목에서** 벗어나게 하라.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죄로 인해 처한 위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눈이 열렸다면, 그는 불에 휩싸인 집에서 도망치듯 죄에서 도망쳤을 것이다. 이러한 눈멀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에서도 비롯된다. 사람은 결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자신과 자신의 도덕적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눈멀음은 자신에 대한 몇 가지 특정한 선입견에 의해 유지된다. 사람은 그 자체로 , 스스로를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사고의 그물을 형성한다. 비록 이러한 사고들이 거미줄 같은 그물일지라도, 단지 아주 희미한 가능성일지라도, 이성은 이를 명확하게 분별할 여유가 없다. 그런데 마음은 그 사실성과 진실성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이성의 일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리의 도덕적 오류나 편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주의에 더불어 지금 이 순간부터 교활한 마음의 모든 아첨을 물리치는 어느 정도의 냉정함을 더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이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면, 그것은 마치 앞서 나가듯이 스스로가 아니라 이성의 인식에 영향을 받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다시 이성을 조종하여 사물을 자기 방식대로 인식하게 만들고, 다시 이성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며, 다시 개념에 혼란을 일으켜, 깨달음 대신에 더 큰 맹목으로 빠뜨릴 것이다.

이제 스스로를 그런 위치에 두고, 너를 어둠 속에 가두는 온갖 생각들을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엄격하고 위선 없는 심판을 내리도록 하라.

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며, 그 사실만으로 안도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첨이다. 즉,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자신 안에 뿌리내리려는 노력 없이 기독교의 특권과 약속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오직 힘과 내적 품격 위에만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름을 단순히 차용하는 것이다. 이름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에게 설명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며, 그 약속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약속을 철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명확히 깨닫고, 자신을 그 이상과 비교해 보라. 그러면 네가 눈이 멀게 된 이 버팀목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될 것이다.

b) **"우리는 뒤처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토론에 나서면 충분히 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무턱대고 또는 예의 없이 일을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적 완덕에 현혹된다. 반대로 다른 이들에게는 육체적 완덕—힘, 아름다움, 가문—이 눈에 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서 있을수록, 이 두 부류 모두는 그만큼 더 심하게 눈이 멀게 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확신하라:

1) 타고난 탁월함은 도덕적 가치가 전혀 없으니, 그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독교에서는 타락으로 인해 본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모든 타고난 것은 가치가 없다.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삶으로 네 선함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때서야 그것을 선함으로 바라보라.

2) 다시 말해, 네 재능에 따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했는가? 네게 더 많이 주어졌으므로, 네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있다. 그 능력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보여라. 얻은 이득이 들인 노력에 상응하는가?

3) 육체적인 이점이나 우연한 이점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성 자토우스트는 한 구절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외모가 훌륭하고, 체격이 좋고, 부유하며,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훌륭하게 단장된 말을 타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칭찬한 뒤,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네가 말한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다."

4)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하게 두어라. 각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너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둔 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만을 판단하라. 아니면 굳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다면, 성인과 경건한 이들과 비교하라. 그들은 살아있는 기독교의 법이자, 구원받는 이들의 살아있는 본보기이다. 그들을 기준으로 너 자신을 판단한다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c) **"우리는 아직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기에 무례하게 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존경과 관심을 거두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인사들이다." 외적인 행동과 대외적 관계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시야를 가리는, 그야말로 가장 짙은 어둠의 장막이여!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새겨라. 겉으로 바른 행동은 잎사귀요, 내면의 선한 마음은 열매이다.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로 열매를 약속했으나, 구세주께서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시고 저주하셨다. 그분 앞에서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으나 진실로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고 주님께서 지혜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잠언 23:26). 마음에서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악한 것이 나온다. 네 마음이 어떤지, 주님 앞에서도 그와 같다. 네 마음이 교만하다면, 겉으로 아무리 겸손하게 행동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너를 교만한 자로 보신다.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타인의 평가는 속임수 같은 아첨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예의라는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뿐이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의 나쁜 점을 보면서도, 그들 나름의 이유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암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또한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고도 오히려 그것을 칭찬함으로써, 악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 일종의 무모한 기세를 부추기는 경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분별력 없는 추종자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깊이

악과 결함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자만심을 품고 악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평가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

다) "하지만 내 안에 악이 있다 해도 — **마치 나만 그런 것처럼**?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심지어 저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찾아보라,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테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만연한 죄의 평범함에 눈이 멀어 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있다고 해서 진리의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수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모두가 죄를 지었더라도, 모두를 벌하실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지, 그러나 여덟 영혼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도시는 하늘에서 내린 불에 휩싸여, 롯과 그의 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고 해서 그 고통이 덜해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로 인해 각 개인의 고통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통해, 너를 눈멀게 하고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편견의 어둠을 서둘러 몰아내라. 이 첫 번째 자기 성찰의 목표로, 자신의 상태가 안전한지에 대해 스스로 의구심과 망설임을 품도록 하라. 너는 우리의 눈먼 상태를 거짓으로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고, 자신이나 자신의 어떤 것에 대한 헛된 희망을 조금씩 무너뜨리며, *죄에 대한 변명을 지어내는 습관,* (시 140:4) 즉, 언제나 모든 일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성향을 말이다. 자신에게 확신시켜라. 네가 악하다면 네 기독교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네 완전함은 너를 정당화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이 폭로할 것이며,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겉으로 보이는 네 올바름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위선일 뿐이며, 타인의 칭찬이나 악행에 동참하는 동료들의 너그러움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너를 숨겨주지 못할 것임을. 조금씩 생각 속에서 고립되어, 마음과 양심의 시선 앞에서 홀로 서게 될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과 자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네가 본래의 모습에서 멀리 뒤처져 있음을 깨닫게 되면, 양심은 너를 향해 강력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 결과, 네 의식이 스스로에게 거짓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네 자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치 모든 것에서 단절된 듯하고 모든 버팀목을 잃은 채, 너는 절망감과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눈먼 상태에 대한 앞서 언급한 성찰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바로 이 지점까지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러한 감정의 부활은 언제나 죄악으로부터의 도피를 앞둔 전조이며, 마치 전쟁에서 적군의 대열이 흔들리는 것이 그들이 곧 도망칠 징조인 것과 같다.

1. 이처럼 자신의 죄성 및 그 속에 머무르는 위험에 대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일기 시작하면, 더욱 깊이 자기 내면으로 파고들어, 더 큰 정신적 긴장을 기울여 어떤 무시무시하고 정신을 번뜩이게 하는 상상들로 스스로를 강타하라. **무감각해진** 네 **마음을** 그것들로 뒤흔들고 부드럽게 하라. 마치 무거운 망치가 단단한 돌을 부드럽게 하듯이 말이다.

가) 네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라. 스스로에게 말하라. "아아, 곧 **죽음이** 닥치리라." 주변에서 이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죽는다. 이제 곧 네 시간도 다가올 것이다. 죽음의 시간을 멀리 미루지 말고, 이미 죽음의 천사가 보내져 오고 있으며, 가까이 다가왔다고 스스로에게 심어라. 아니면 머리 위에 자신을 베어 버릴 준비가 된 칼이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라. 그런 다음 죽음과 사후에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생하게 그려보라. *심판이 문 앞에 있다.* 네 은밀한 죄들이 천사들과 모든 성자들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곳에서, 모든 이의 면전에서, 너는 네 행실과 단둘이 서게 될 것이다. 그 행실들로 인해 너는 정죄받거나, 아니면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란** 무엇이며, **지옥이란** 무엇인가? 천국에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 있고, 지옥에는 위안도 끝도 없는 고통이 있으며, 그곳에는 하느님의 단호한 배척의 인장이 찍혀 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두려움과 **공포가** 너를 가득 채울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도록 스스로를 다그쳐 보아라.

b) 그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수많은 죄로 더럽혀지고 무거운 짐을 진 너 자신을,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면전 앞에 세워 보라! 아직도 네 죄로 물든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을 모욕할 것인가? 아직도 너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께 비열하게 등을 돌릴 것인가? 아직도 너를 자비롭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막을 것인가? 아직도 너를

받아들이기 위해 뻗어 오시는 그 손을 외면할 것인가? 이 부조화를 깊이 깨닫고, 네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연민과 슬픔을** 일깨우고 굳건히 하도록 서둘러라.

c) 또한 네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세례의 물로 씻김을 받았으며,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그분의 육체와 피를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를 파멸로 이끄는 죄로 인해 네가 짓밟아버린 것이다! 마음으로 골고다에 올라가 네 죄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깨달아라… 과연 앞으로도 네 죄의 가시관으로 주님의 머리를 찔러 상처 입힐 것인가? 앞으로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갈비뼈를 찌르며,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할 것인가? 혹시 네가 죄를 지음으로써 구세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대가로 박해자들의 운명을 함께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만약 죄를 버리고 회개한다면 그분의 죽음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는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인가.

d) 또한 네가 그토록 집착하는 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것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비참한 악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리며, 양심의 고통에 빠뜨리고, 생전과 사후, 그리고 사후에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며, 지옥으로 내몰아 천국을 영원히 닫아버린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괴물은 과연 무엇인가! 죄로 인한 모든 악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혐오하며 멀리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라.

다) 마지막으로, 죄를 그 첫 번째 창조자이자 확산자인 마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네가 죄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너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않는다. 마귀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죄로 너를 괴롭힐 뿐인데, 너는 기꺼이 지칠 줄 모르고 그를 위해 일하고 있다. 너는 죄를 통해 그와 친분을 쌓지만, 그는 죄를 통해 너에게 악의를 품는다. 죄가 주는 달콤함을 약속하며 너를 유혹하고, 죄에 빠진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 여기서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속삭이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것을 중요한 증거로 내세워 우리를 정죄할 것이다. 누군가 죄의 그물에 걸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악의에 찬 기쁨으로 몸을 떨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인간을 증오하는 자와 그의 행위에 대한 혐오감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라.

이처럼 가슴 속에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 때로는 슬픔과 연민, 때로는 혐오와 증오와 같은 마음을 하나씩 차례로 채워 넣다 보면, 마음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이완되어 있던 의지 또한 움직이기 시작하고 긴장될 것이다. 마치 전류가 몸에 일정한 긴장감과 흥분을 불어넣거나, 아침의 맑고 상쾌한 공기가 일정한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듯이, 이러한 감정들이 영혼을 가득 채우면 잠들어 있던 에너지를 일깨우고,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의 충동과 준비 태세를 되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구원을 위한 적극적인 돌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단호하게 서둘러라.

2) **안일함의 잠을** 쫓아내라. 죄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선을 향한 의지가 느슨해졌다면, — 이제 그 주위에 보통 에너지를 북돋우는 생각들을 모아라: 선의 편에서 구원의 가치, 고귀함, 보편성, 실천의 용이함과 장애물의 제거,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성'을 상상하라; 반면 죄의 편에는 이 모든 것의 정반대가 있음을 상기하라. 스스로를 자극하여 즉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된 활기찬 긴장 상태로 이끌 때까지, 이 점을 더 오래, 더 진솔하게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라. 네 영혼에게 말하라:

가) 결국 둘 중 하나다: 지금 이대로 남아 있다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거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주님과 그분의 계명께로 돌아서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망설이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다. 조심하라, 죽음은 문 앞에 와 있다.

b) 그리 힘든 일인가?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모든 도움을 준비해 두셨다.

c) 얼마나 큰 복인가! 이 짐과 얽매임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에 들어설 것이다.

d) 왜 마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낮이나 밤이나 평안을 찾지 못한다. 사방이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마음속에서 단 한 번만 방향을 바꾸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을 보게 될 것이다.

e) 보라, 모두가 이미 주님께로 갔으니… 이 사람도 돌아섰고, 저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너는 왜 서 있느냐? 가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쁠 것이 무엇이냐?

e) 네 주변의 모든 것이 살아 있으며, 모든 것이 너를 삶으로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도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라. 가서 생수의 샘에서 마시라.

이완된 의지의 에너지는 사람이 '죽을 것인가, 삶을 바꿀 것인가'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자신을 놓을 때 언제나 자극받는다. 자기 보존 본능이 즉시 행동으로 이끌기 시작할 것이다. 그 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때 얼마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리고 네가 그에 얼마나 적합하고 부름받았는지, 또한 모든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밝혀라;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선한 이들이 기뻐하며 너와 교제하고, 너를 품에 안아 줄 것이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의 공동체 생활에 기쁨이 넘칠 것임을 —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약해진 의지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풀려 있던 네 무릎이 곧게 펴질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를 단련함으로써, 네 눈먼 마음과 무감각함, 그리고 안일함을 더욱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라, 결코 게을리하지 말고. 죄 많은 영혼 속에는 구원의 일을 위한 수고를 온갖 방법으로 회피하려는 교활함이 있다. 와서 그것을 붙들고 이끌어 가라. 그것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스스로 수고하기를 원치 않을 뿐이다. 네 내면에서는 너 자신 외에는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다. 스스로 네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꺾고, 타격하고, 깨우쳐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를 달래고 설득하라.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길에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말하자면, 그곳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다. 설령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를 대신해 그 일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네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상상하며, 이것저것 깊이 파고들어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죄인의 타락이 아직 그 안에서 진리를 아는 빛을 완전히 꺼버리지 못했다면, 이는 죄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품성이 타락했더라도, 감정이 불순하더라도, 마음속에 건전한 개념이 남아 있다면, 구원을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의지할 것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 사라지고, 이성마저 타락하여 — 의심의 늪에 빠지거나 확신을 잃거나, 혹은 완전히 뒤틀린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 그때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며, 그때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다만,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이르는 자들 중에서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범하고 놀라운 역사로 인해 회개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죄인들은 믿음을 잃거나, 사도의 말대로 '건전한 교리'를 잃지는 않고, 단지 도덕적으로 타락할 뿐이다. 그런 이들에게는 무관심과 모든 선에 대한 소홀함으로 인해 무뎌진 개념을 다시 일깨우고, 약해진 확신을 굳건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리에 앉아 신앙고백과 주님의 계명에 따라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지 스스로 샅샅이 살펴보라. 어려움이 있다면 교리문답을 살펴보라. 그것조차 할 수 없다면 누군가와 상의하라. 무엇보다도 네 영적 지도자와 이야기하라. 이 일을 마치면, 왕 같은 진리가 네 안에서 승리를 거두며 일어날 것이며, 너를 지배하고 있는 행실과 성향, 감정의 거짓을 권능으로 몰아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네 이성은 자신의 눈먼 점을 드러내고, 무감각함을 타격하며, 안일함을 쫓아내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스스로와 함께 성찰해야 할 주제가 이토록 많이 제시되었을 때, 이를 오직 학자들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원에 관한 자기 성찰은 누구나,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할 수 있다. 이는 학문적인 성찰과는 다르다.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진리는 그 자체로 즉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일깨워 준다. 오직 성실하기만 하고, 진리의 지침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을 되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와 논해야 할 모든 주제가 명확하고 강력하게 밝혀진 영혼을 구원하는 책들을 곁에 두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다. 이 점에서 성 티호노의 저술 중 죄, 눈멀음,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용서, 그리고 수도원 서신에 관한 글들은 그 가치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을 돕기 위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성부들의 저술 모음집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목적, 즉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자극을 주는 데 부합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 사색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머리로만 따지지 말고, 주제를 명확히 파악한 뒤, 가장 깊은 감동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을 마음에 새기고, 그 관점에서 깊이 묵상하라.

b)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마라. 이는 마음을 모으기보다는 오히려 흩뜨리고, 영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태양이 지구의 표면을 순식간에 스쳐 지나간다면, 땅 위의 그 어떤 생명체도 따뜻하게 데워주지 못할 것이다. 이러저러한 사안에 대한 논리의 척도는 공감이어야 한다. 모든 생각을 감정으로 이끌어 내고, 그것이 마음에 스며들 때까지는 그 생각에서 물러서지 마라.

c) 가능하다면, 생각을 말하자면 순수한 이성적 형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어떤 형상으로 입혀서 그 형상을 머릿속에 지속적인 자극제로 간직하라. 가능하다면 하나의 형상에 몇 가지 강렬한 이미지를 집중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 성 티혼은 죄인의 마음에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생각을 각인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머리 위에는 진리의 칼이, 네 발 아래에는 너를 삼키려 하는 지옥이, 앞에는 죽음이, 뒤에는 수많은 죄가, 오른쪽과 왼쪽에는 악의에 찬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그런데도 네가 안일함에 빠져 있을 수 있겠느냐?" 이미지는 더 쉽게 떠올리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으며, 더 강력하고 인상 깊게 작용한다.

다)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간결하지만 강력한 명언들을 골라, 마음속으로 또는 입 밖으로 더 자주 되뇌어 보라. 예를 들어,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거늘*(사 1:3), 너는 어떠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고 있느냐?" 그러나 네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향해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롬 2:5-6).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는 주님께서 어느 때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마 24:42). 내 앞에 무덤이 있고,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도다.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으며, 주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리요?* (시 138:7). *범한 죄는 죽음을 낳느니라* (약 1:15).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느니라* (벧전 5:8). *네 청지기 직분에 대해 보고하라* (누가복음 16:2).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다* (누가복음 12:48).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심하게 매를 맞을 것이다* (누가복음 12:47).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계 2:5), " " 등등. 이러한 말씀들을 모아 기억하고, 그것으로 네 마음을 채우라. 어쩌면 그중 어떤 말씀이 너를 찌르고 불을 지피는 불화살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묵상에만 머물지 말고, 기도와 번갈아 가며 실천하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치 땅에 깊이 박힌 나무를 뽑아내려고 할 때와 같다. 다가가서 흔들어 보며, 자기 자신과의 논증과 설득, 확신에 힘을 쏟는다. 흔들어 보지만 뽑아낼 수는 없다. 뿌리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그 힘을 갖지 못했고, 그 뿌리를 잘라낼 힘도 없다. 그러니 도움을 구하라!

a) 사색 중에 어떤 감정이 마음에 스치거나 어떤 감동이 일면 —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네가 돌처럼 굳어진 네 마음을 다스리는 수고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네 생각 중 어떤 것이라도 파괴하고 창조하는 힘을 주시기를, 혹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찔러 주시기를 기도하라.

나) 이 기도에서 스스로 기도하라;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네 피 같은 절박함을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고, 간결한 말로, 더 나아가 말 없이도, 그분께 아픈 마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려라.

c) 머리로 따지거나 기도를 지어내지 마라. 병자가 의사에게, 묶인 자가 해방자에게, 마비된 자가 회복자에게 나아가듯, 오직 자신의 한 가지 필요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나아갈지니, 자신의 연약함과 스스로를 이겨낼 힘이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자신을 하느님의 전능하신 섭리에 맡겨라.

d) 엎드려 절을 하라 — 수없이, 수없이, 가슴을 치며. 그리고 기도가 흐르는 동안은 기도에서 떠나지 마라. 기도가 식으면 다시 묵상에 몰두하고, 거기서 다시 기도로 돌아가라.

e) 기도할 때도 묵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드리는 간결한 호소를 준비하여 더 자주 반복하라: *"주님, 당신의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오, 주님, 구원하소서! 오, 주님, 축복하소서!"* 교회에서 부르는 신나는 찬송가를 떠올리며 노래하라: *"신랑이 오시니..." "내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생각하며, 저주받은 자로서 나는 두려운 심판의 날을 떨고 있노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거라, 왜 자고 있느냐!"* —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

그렇게 노력하며,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리라.

수고하며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일깨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잘 알려진 매개체들을 선택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은혜의 비범한 작용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된 바와 같다. 그러니 이 매개체들을 네게 적용하고, 그 보호와 영향 아래서 걸어가라. 너와 같은 다른 죄인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어떤 은혜의 광선이 너에게도 내리지 않겠느냐?

a)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예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도 교회에 가서 인내심 있게, 주의 깊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라. 교회의 모습과 구조, 예배 순서, 찬송과 성경 낭독 —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빈손으로 교회에 들어갔다가, 구원의 영을 품고 그곳을 나서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b)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작용했다. 너도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읽어 보라. 어쩌면, 신약성경을 펼쳤을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시선이 닿은 구절이 그를 강타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구절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c) 다른 죄인들의 마음은 경건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누그러지기도 했다. 가서 너도 대화를 나눠 보아라. 대화 속에서 오가는 말들 중에, 너의 영혼과 영을 갈라놓을 만큼 깊이 스며들어, **마음속의 생각과 염려를 심판하게 할 만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 어쩌면 사랑으로 따뜻해진 생명의 말씀이 네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그곳에 굳게 자리 잡은 죄의 요새를 뒤흔들지도 모른다.

d) 가난한 자들의 기도는 강력했다. 가서 너도 자선을 베풀고, 불행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가능하다면 파산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거지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아 하늘의 하늘을 관통한다. 그 기도가 코르넬리우스 백부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도 수호천사를 보내 주지 않겠는가?

이러한 일들과 그와 유사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다 보면, 너는 은혜의 그릇과 전달자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그 생명의 이슬이 너에게도 떨어질지 모르니, 그것이 네 안에 얼어붙은 영적 생명의 싹을 되살려 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삶과 성품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미루는 마음을 떨쳐내고 육체적 수행으로 육신을 단련하고 가볍게 하며, 평소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은둔함으로써 근심과 오락을 떨쳐낸 다음, 내면에 주의를 집중하여, 다양한 구원의 생각들로 스스로와 대화하거나 영혼과 대화를 나누며, 맹목과 무감각, 안일함을 떨쳐내도록 힘쓰라. 이를 기도와 번갈아 가며, 신성한 은총이 이미 죄인들의 영혼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매개체로 선택한 상황들의 영향 아래 자신을 두도록 하라.

수고하고, 애쓰고, 찾으라 — 그러면 얻을 것이며, 두드리라 —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력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고들은 단지 우리가 은혜를 끌어들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시도일 뿐, 우리가 아직 찾고 있는 그 일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것, 즉 은혜로운 감동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사색하든, 기도하든, 혹은 다른 일을 하든, 마치 낯선 무언가를 억지로 우리 마음속에 밀어 넣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매우 두드러진다. 때로는 집중하는 힘에 따라 이러한 노력에서 비롯된 어떤 영향이 마음의 어느 깊이까지 스며들기도 하지만, 그 후 다시 거기서 튕겨 나옵니다. 마치 물속에 수직으로 잠긴 막대기가 튕겨 나오듯이, 굴복하지 않고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마음의 탄력성 때문이죠. 그 직후 다시 마음속에 냉담함과 무감각함이 찾아오는데, 이는 여기에 은혜로운 영향이 없었고 오직 우리의 수고와 노력뿐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징후이다. 그러므로 이 일들만으로 안주하거나, 마치 그것들이 바로 네가 찾아야 할 것인 양 그것들에 의지하여 쉬지 말라. 이는 위험한 착각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고 속에 은혜가 반드시 내려져야 할 공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일 뿐이며, 은혜 그 자체는 전적으로 베푸시는 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된 모든 수단을 신중하게

활용하더라도, 구하는 자는 여전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우리의 뜻대로 오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활기 넘치는 은총이 임할 때 비로소 삶과 품성의 진정한 내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 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실패한 시도들만 반복될 뿐이다. 이를 증명하는 이가 바로 복자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씨름하다가 은총이 그에게 내려졌을 때 비로소 자신을 이겨냈다. 확실한 희망을 품고 기다리며 수고하십시오. 그 은혜가 오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과연 은총에 의한 각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인인 인간을 어떤 상태로 이끄는가? 그리고 그 상태는 다른 유사한 상태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 감동의 특징을 알아야만, 그것을 헛되이 지나치지 않고, 그 대신 어떤 자연적인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은총으로 감동받은 영혼의 상태는 죄로 인해 무감각해진 영혼의 상태와 대조되어 정의된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로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주인을 도망친 제멋대로인 노예처럼 살아간다. 이제 이 장벽이 무너진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감이 되살아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전적인 복종과 그분 앞에서 지는 완전한 책임을 생생하게 자각합니다. 이전에는 하늘이 그에게 놋쇠처럼 무거웠고 마치 짙은 장막처럼 그의 머리 위로 드리워져 있었으나, 이제는 어떤 광선이 이 어두운 장막을 뚫고 지나가며 그에게 하나님, 주님이시자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가리켜 줍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모든 완전함에 대한 **감정이** 강력하게 일깨워지며, 영혼 속에 거부할 수 없이 자리 잡아 온전히 채워진다. 여기에야말로 미래의 은혜로운 영적 삶의 토대와 가능성이 있다.

죄는 이전에 인간을 맹목과 무감각, 안일함으로 감싸고 있었다. 은혜가 작용하는 순간, 이 세 겹의 굳어진 비늘이 그에 얽매여 있던 영혼에서 벗겨진다. 사람은 이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추악함을** 분명히 **보게** 되며, 단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기도 한다**.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스스로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혼에 두려움이 스며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공포와 고뇌, 분통, 수치심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기 시작한다. **양심이 그를 갉아먹는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에게 하나님 안에서 오는 삶의 달콤함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 죄 많은 삶의 온갖 부도덕함을 느끼고, 마치 악의 바다와 같은 그 삶에 혐오감을 품으면서도, 그는 이제 자신의 영적 눈앞에 펼쳐진 선의 영역 속에 기쁨과 위안이 숨겨져 있음을 예감한다. 그곳은 그에게 약속의 땅처럼, 모든 근심으로부터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곳으로 보인다. 바로 이 예감이야말로 죄 많은 영혼 안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이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그분의 권능 안에 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영을 그분의 보물창고로 인도하시고, 그곳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

영혼을 죄의 영역에서 해방시키는 길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이 작용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주목하라. 은혜로운 감동을 일으키는 목적과 그 힘은, 그것이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끌어내어 선과 악을 가리지 않는 지점에 서게 한다는 데 있다. 이리저리 기울어지던 우리 의지의 저울은 이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죄인에게 선의 달콤함을 미리 맛보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미 경험해 본 죄의 달콤함이 선보다 그를 더 강하게 끌어당길 것이며, 선택은 언제나 후자의 편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이는 은혜로운 자극 없이 삶을 바꾸려는 결심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는 보편적인 법칙이니, ‘ignoti nulla cupido’, 즉 알지 못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로운 감흥 속에서 그에게 선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면, 그것 또한 이미 경험하고 알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저울은 균형을 이룬다. 사람의 손에는 완전한 행동의 자유가 있다.

이처럼, 은혜로운 각성 속에서 번개의 섬광처럼 인간 안과 주변의 모든 것이 환히 밝혀진다. 그는 이제 마음속으로, 단 한 순간 동안, 죄로 인해 쫓겨났던 그 질서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며, 창조의 사슬 속에서 죄로 인해 제멋대로 끊어졌던 그 연결고리에 다시 끼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작용은 거의

항상 공포와 순간적인 충격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생각에 잠겨 서둘러 걷던 사람이 갑자기 들리는 "멈춰!"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영의 각성입니다. 사실, 우리 영에게는 신성과 어떤 더 높은 세계 혹은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고, 인간을 모든 감각적 영역 위로 끌어올려 순수한 영적 영역으로 인도하는 본성이 있다. 그러나 죄된 상태에서 우리 영은 그 힘을 잃고 영혼과, 나아가 영혼을 통해 감각과 뒤섞여 마치 그 안에 사라져 버리는 지경에 이른다. 이제 은혜로 인해 영은 그곳에서 끌어내어져, 마치 등잔대 위에 놓인 것처럼 우리 내면의 성전에 자리 잡고,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거기서 보이는 모든 것을 비추게 된다.

은총의 고양 상태에서 영혼이 놓이게 되는 그 상태는 많은 자연적 상태와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은총의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다소 괴롭고 슬픈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이것이 지루함과 같은 것은 아니다. 지루함에는 명확한 대상이 없다. 지루함 속에서 사람은 이유도, 대상도 모른 채 무너지고 슬퍼한다. 반면, 은총의 각성 상태에는 슬픔의 명확한 대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더럽힌 것이다. 저것은 정서적인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저것은 고통스럽고, 어둡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기에 "고뇌가 숨을 막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생명을 불어넣고 자극한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는 이러한 불분명한 애타는 마음이 적지 않게 나타나며, 각각은 저마다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하늘의 고향을 향한 그리움, 피조물에 대한 불만, 영적 굶주림의 감정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중 하나이다. 점차 정욕이 잠잠해지면, 영혼은 자신을 억압하고 비천한 상태에 가두는 것에 대해, 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양육하지 않고 굶주림으로 괴롭히는지,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절규를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며, 사도가 온 피조물 안에서 들었던 탄식이다(롬 8:22). 그러나 이것조차도 은혜로운 각성과는 다르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나 작용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미약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은혜로운 감동이 그에게 임하여 명료함과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은혜로운 감동이 있을 때 영이 무너지고 양심의 가책이 깨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일상에서 더 적거나 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는 평범한 자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스스로를 망신시킨 모든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심지어 이때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지만 이것은 지금 영혼 속에서 들리는 양심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전자의 경우 사람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일시적인 관계만을 염두에 두지만, 후자의 경우 반대로 자신과 모든 일시적인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 한 분과 자신의 영원한 관계가 무너진 것만을 보게 된다. 저기서는 자신이랑 인간의 규칙을 옹호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옹호한다. 저기서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을 슬퍼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한 것을 슬퍼하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게다가 저기서의 슬픔은 위안이 없지만, 여기서의 슬픔은 약간의 위안으로 녹아내린다. 왜냐하면 저편에서는 그의 모든 지지가 자신과 타인에게 달려 있어, 그 기반이 무너지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의지한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양심 작용은 참된 양심의 작용을 흉내 낸다. 그것들도 양심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지 왜곡되고 본래의 위상에서 전락한 것일 뿐이다. 영과 함께 양심도 그 고유의 높이인 영적 영역에서 떨어져 나와, 영적·육체적 영역의 손아귀와 권세 아래로 떨어졌으며, 오직 세속적인 목적만을 섬기게 되었고,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인간의 모욕을 더 강하게 느끼는 세속적인 양심이 되어 버렸다.

은총이 일깨워질 때, 마음은 또 다른, 더 나은, 더 완전하고 더 기쁜 삶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밝은 충동과 가장 고귀한 열망(이데아의 움직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의 각성을 느끼는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현상들은 평범한 사물의 질서 위로 고양시키고,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방향과 목적에서는 크게 다르다. 후자는 어떤 모호한 영역을 지향하는 반면, 전자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가리키며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한다. 전자의 목적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인 반면, 후자의 경우 물론 언제나 위대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무언가"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 둘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후자는 단절되고 개별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한 사람에게는 이쪽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저쪽 면에서 영이 깨어날 뿐이다. 반면 전자는 영 전체를 다방면으로 포용하며, 영을 목적지에 이르게 함으로써 만족을 주거나, 이 과정에서 완전한 만족을 미리 맛보게 한다. 영의 가장 높은 열망의 충동은 인간 안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 즉 산산조각 난 형상이므로, 마치 산산조각 나고 흩어진 광선들처럼 드러난다. 이 광선들을 하나로 모으고, 마치 집중시키듯이 해야 하며, 그러면 초점에 불타오르는 광선이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그 자체로는 하나이지만 다분한 영혼 속에서 산산조각 난 영의 광선들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이를 자극하는 은총이 영적 생명의 불을 지피어, 사람을 차가운 관조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명을 주는 타오름 속으로 이끈다. 이러한 영의 통합은 신성에 대한 감각 속에서 하나로 수렴되며, 바로 여기에 생명의 싹이 있다. 자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힘이 분산되어 작용하는 한 생명은 나타나지 않지만, 지고하신 힘이 그 힘을 하나로 모으는 즉시, 예를 들어 식물과 같은 살아있는 존재가 나타난다. 영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의 열망이 분산되어 터져 나올 때 — 이쪽은 이쪽, 저쪽은 저쪽, 하나는 한 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다른 방향으로 —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지고하고 신성한 은총의 힘이 동시에 영을 감싸며, 그의 모든 열망을 하나로 모으고 그 통일된 상태 안에 유지할 때, 비로소 영적 생명의 불꽃이 타오른다.

이러한 징후들을 통해 은총으로 인한 각성 상태를 인간의 영적 삶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자신의 사전 노력 없이도, 또한 특별한 힘 없이도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흥분된 상태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렀다가 다시 영혼과 육체의 평범한 순환으로 돌아갈 수는 있다. 이 흥분은 죄인의 회개 과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고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매우 복잡한 수고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자유의 두 가지 전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움직임이고, 그다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잃어버렸던 권세를 되찾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바로 자유의 전소 제물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는 죄를 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 평생 오직 그분께만 속하겠다고 서약한다.

죄를 버리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기까지의 여정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은총이 스스로 누군가를 찾아오든, 누군가가 그것을 구하여 얻든 간에, 은총이 사람에게 미치는 첫 번째 작용으로 인해 사람을 이끄는 상태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하다. 자극을 받은 사람은 은총에 의해 죄와 미덕 사이의 중간 상태로 놓이게 된다. 은총은 그를 죄의 속박에서 끌어내어, 마치 의지에 반하는 것처럼 그를 행동으로 이끄는 죄의 권세를 박탈하지만, 그를 선의 편으로 옮기지는 않고, 단지 선의 우월성과 기쁨을 느끼게 하며, 선의 편에 서야 할 의무감을 심어줄 뿐이다. 사람은 이제 정확히 두 갈래 길의 기로에 서 있으며, 그에게는 단호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는, 그에게(사람에게) 임하는 은총이 결코 "강제적인 힘으로 그의 의지를 얽매지 않으며,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를 선에서 변함없이 만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대로, 사람 안에 내재한 하나님의 능력은 자유를

허용하여, 사람의 의지가 은혜와 조화를 이루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한다"고 말씀하신다(『말씀 1. 마음 지키기에 관하여』, 12장). 이 순간부터 자유와 은혜의 결합이 시작된다. 은혜는 전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전적으로 존재한다. 은혜는 내면으로 들어와 영의 각 부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마치 사람이 자신의 소망으로 은혜가 자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거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입을 벌리는 것과 다름없다.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은총 의 도움으로 준비되어 있다. 사람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자기 안에 확립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원하며 애쓴다. 그리고 바로 이 행위를 위해 은총은 사람이 원하는 선을 그 사람 안에 굳건히 다져준다. 선과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 수양이라는 이 노력에서 해야 할 일, 즉 결심을 내리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계획을 결심할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과 동일하다. 보통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후,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장애물을 제거한 뒤 결심하게 된다. 기독교적 삶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이 필요합니다: 가) 그 삶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나) 결심을 형성하는 데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비록 은혜의 작용이 영을 고무된 상태로 이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라는 그 은혜의 속삭임은 단지 생각일 뿐이며, 비록 다소 생생하긴 하지만: "죄를 그만두지 않을까," 또는 "그만둬야겠다." 잠에서 깬 사람은 이제 일어나야 할 때이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신체의 여러 부위를 움직여야 한다. 그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몸을 덮고 있던 것을 벗어던진 뒤 일어난다.

그러니, 자신 안에서 은혜로운 감동을 느꼈다면, 서둘러 그 요구에 자신의 의지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없고 부정결한 네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지금 당장** 이를 시작해야 한다는 그 감동의 속삭임에 동의하라**.**

은혜로운 도움을 구했고 이제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 그 소망은 이미 앞서 언급된 모든 수고에서 그를 이끌어 왔지만, 여기서는 그 구성이나 완성도에 무언가가 더해진다. 마음속의 소망이 있다. 이성이 요구하고, 사람은 스스로를 다그친다. 이러한 소망이 준비 단계의 수고를 주도한다.

공감적인 소망이 있다. 그것은 은혜로운 자극의 작용 아래서 싹트게 된다. 마지막으로, 활동적인 소망이 있다. 바로 넘어짐에서 일어나기 위한 일에 지금 당장 착수하겠다는 의지의 동의이다. 이 소망은 이제 은혜로운 자극에 따라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극을 받은 자가 그 자극에 따라 행하는 첫 번째 일이다.

모든 자극받은 사람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마치 잠에서 깬 사람 모두가 즉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몇 번이나 다시 잠들기도 하는 것과 같다.

은총 어린 각성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편안하고 생동감 넘치는 상태로 이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꽤 부담스러운 요구를 제기한다. 지금 첫 번째 측면에 더 치우치는 사람은 생각에 넋을 잃고, 마치 이미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삶의 기쁨에 너무 일찍 빠져들 수 있다. 자신에게 허락한 이러한 여유로움은 일어난 일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며, 그와 동반된 내면의 산만함은 곧 열정을 식게 할 것이고, 그리하여 유리한 시기와 상태 모두를 놓치게 된다. 다시 평소의 무감각함이 찾아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두 번째 측면에 더 가까워진 사람은, 마치 아이가 치료용 반창고가 붙은 상처의 붕대를 단지 조여 온다는 이유만으로 떼어내듯이, 이 억압에서 자신을 다소 해방시킬 수 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어둡게 느껴지는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겉보기에는 무해한 오락—대화나 독서—에 몰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생겨난 그 답답한 감정을 연구하여, 그것이 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파헤치려 한다. 저쪽에는 외부적인 인상들이, 이쪽에는 탐구의 해체적인 작용이 내면에서 일어난 구원의 변화를 지워버린다. 이로 인해 이 사람도 결국 평범하고 변함없는 무감각함 속으로 빠져든다.

이럴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이유는 은혜로운 자극들이 각기 다른 정도를 띠고, 그 자극이 찾아오는 상황이 내면의 현상의 중요성과 가치를 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우신

은혜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은혜로운 감동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며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서둘러 네 의지를 그 감동의 이끄심에 따르게 하라. 이를 위해:

a)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당신께 부르시고, 너 안에서 구원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친히 네게 다가오셨음을 믿어라.

b) 믿게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마저 헛되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직 이 감동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이겨낼 힘을 준다. 그것이 사라지면, 스스로를 이겨낼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올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이 자비가 네게 찾아오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 후 너는 완고한 상태에 빠지고, 거기서 다시 절망과 비탄으로 떨어질 것이다.

c) 네가 놓여 있는 그 구원의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라. 가연성 물질이 불 앞에 오랫동안 놓여 있으면 단순히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을 수도 있듯이, 은혜의 작용 아래에서 자신을 조금 더 오래 머물게 한다면 은혜로운 삶을 향한 소망도 자연스럽게 타오를 수 있다.

d) 그러므로 막 싹트기 시작한 이 불꽃을 꺼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그 불꽃을 키우고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신을 둘러싸라. 한적한 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깊이 성찰하라.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 은혜를 구하며 스스로를 다잡아 실천해 온 그 삶의 질서와 활동, 수고는 그 은혜가 네 안에서 시작된 작용을 지속시키는 데 가장 유리한 것이다. 이 경우 그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은 은둔, 기도, 그리고 성찰이다. 은둔을 통해 마음은 더욱 집중되고, 기도는 더 깊어지며, 성찰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며, 이전에 맹목과 무감각, 그리고 게으름을 떨쳐내려고 모았던 모든 생각들을 샅샅이 훑어보라. 비록 이제 그 세 가지가 더 이상 없더라도, 너에게는 열망을 불태우고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모든 행동을 이에 집중하라. 이제 너 자신과의 대화는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자극이 없으면 대개는 일반적인 주제로 흐르곤 했지만, 반면 이제 은총을 본받고 그 인도하에, 그것은 어떤 변명이나 회피 없이 모든 것을 바로 너 자신에게 직접 연결시킬 것이며, 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통해 사물들을 너에게로 돌릴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이 경우 너는 사색하기보다는 감각에서 감각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은혜의 도움을 받아 네 자신을 다스리는 노력 속에서, 마침내 마음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네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울려 퍼질 것이다. “이제야말로 해야겠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이것이 결론임이 분명하지만, 어떤 법칙에 따라, 어떤 전제에서 도출되는지는 그 어떤 학문도 규정할 수 없다. 앞서 논의된 모든 주제는 명확히 파악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결론은 없을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 모든 주제를 말로 너무나 강력하게 설명하여, 그 영향으로 수십, 수백 명이 그 결론에 도달하지만, 정작 그 자신에게는 마음속에서 그 결론이 울려 퍼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작용하는 주체가 은혜인지 자유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는데, 은혜의 작용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자유의 모든 노력이 헛되이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되지만, 각자는 여전히 자신의 본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유가 자신을 내어주고(전하며, 바치며 — *편집자 주*), 은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스며든다. 여기서 ‘자, 이제 일을 시작하자’는 소망의 힘이 나온다.

드디어 사람은 선의 편으로 기울어, 이 거룩한 길에 들어설 준비가 되었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실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 숨어 있던 온갖 악의 심연이 먼지처럼 휘몰아치며 다시 온 영혼을 뒤덮으려 한다. 흥분과 마음이 기울어지는 순간, 죄는 마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침묵한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 죄를 짓밟으려 할 때, 성 레스비치크가 ‘천 개의 머리를 가진 자’라고 부르는 죄는, 이를 꾀하는 사람에게 수천 번의 비명을 내지른다. 마치 잠에서 깬 사람이 아직 일어나기만 할 생각일 때는 온몸이 평온한 것과 같다. 그러나 막상 일어나려고 결심하고 근육을 조금만 긴장시키는 순간, 그때까지 신경 쓰이지 않았던 온몸의 통증들이 이제야 그 존재를 알리며 불평을 쏟아낸다. 마찬가지로, 은혜로운 부르심에 마음을 기울인 자에게도 죄로 인한 고통은 그가 그 마음의 기울임에 이르기까지 잠잠하지만, 막상 행동에 나서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 모든 연약함들이 강렬하고 혼란스러운 불안을 일으킨다. 생각이 생각으로, 움직임이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가련한 사람을

덮쳐 뒤로 끌어당기는데, 아무런 질서 없이 사방에서 닥쳐와 영혼을 휩싸고 자신의 동요 속으로 빠뜨린다. 사람의 모든 선함은 마치 머리카락 한 올에 매달린 듯하고, 그 자신도 매 순간 그 버팀목에서 떨어져 나가, 벗어나고자 했던 바로 그 환경 속으로 다시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를 구해 주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그 흥분된 순간에 맛볼 수 있었던 그 달콤함과 안도감, 그리고 기쁨,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느꼈던 그 확고함이다. 연기 속에서 작은 불꽃이 이리저리 흩날리면서도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나, 나무의 작은 조각이 요동치는 물줄기에 실려 위아래, 좌우로 휩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바로 이 순간 인간의 선한 소망에 일어나는 일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만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피가 요동치며, 심지어 귀에는 소음이 들리고 눈에는 안개가 끼기도 한다. 이러한 반란이 단지 마음속에 깃든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죄의 근원인 마귀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마귀는 자신의 왕국에 이러한 소란을 일으키는 자가 나타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 티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기를 내어 회개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유혹이 그를 맞이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면, 사탄이 그 뒤를 쫓아(추격하고, 괴롭히며 — *편집자 주*) 그리스도에게서 주의를 돌리고, 걸림돌을 놓으며 온갖 올가미를 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령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보물을 찾기 위해 어떤 꽃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마주치는 무섭기도 하고 매혹적이기도 한 유령들입니다. 이 심리적 신화는 사람이 값진 구슬 을 사거나 시골에 숨겨진 보물을 얻으려는 선한 의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악마의 온갖 술책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투쟁, 마치 죄와의 총력전과도 같은 싸움을 치러야 한다. 여기서 그는 단호하게 적을 사로잡고 타격해야 하며, 이 뱀을 짓밟고 묶어 그 모든 힘을 고갈시켜야 한다. 여기서 죄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에, 이후 그가 겪는 개별적인 반란들에서 죄를 이겨내는 모든 희망과 현실성이 기반을 둔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등장인물의 다양성 때문에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싸움의 주요 지점이나 전개를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이는 지식의 차원보다는 오히려 투쟁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 더 목적이 있다.

분명히 영혼 속에는 발 디딜 곳이 없는 듯하다: 영혼은 흔들리고 방황하지만*(편집자 주),* 여전히 온전하며, 선한 의지가 꺾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녀를 지탱해 줄 것이며, 누가 그녀를 굳건히 세워 줄 것인가?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녀에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치듯,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원수가 붙잡아 삼키려 하니, 고래 뱃속의 요나나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부르짖으라. 주님께서는 네 궁핍과 수고를 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전투에 나서는 전사답게 너를 지탱하고 굳건히 세워 주실 것이다.

바로 여기에 버팀목이 있다! 영혼이 스스로 안에서 그 버팀목을 찾으려 할 때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그때 영혼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악이 다시 그녀를 압도하고, 아직 약한 그 빛을 가리며, 간신히 타오르기 시작한 이 불꽃을 꺼버릴 것이다. 영혼은 혼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무로** 돌리도록 하라. 그러면 전능하신 은혜가 **이 무에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것이다. 궁극적인 자멸의 자세로 자신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자는, 자비로우신 그분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며, 그분의 힘으로 강해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하로 인해 영적 나태함에 빠지거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동시에 무기력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행동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자신의 힘껏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신성한 도움이 닿을 곳이 생기고, 신성한 힘이 덮어줄 대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은총은 이미 내재해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움직임에 뒤이어 작용하며, 그 무력함을 자신의 힘으로 채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겸손한 기도의 자세로 굳건히 서서, 스스로도 게을리하지 말고 행동하라.

죄 전반에 맞서 싸우되, 특히 그 뿌리가 되는 유발 요인들에 맞서 싸우라. 영혼 속이 온통 요동치고, 생각들이 마치 유령처럼 서서 영혼을 감싸며 사방에서 화살을 심장 깊숙이 쏘아댈 때, 말하자면 악의 주된 선동자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수많은 하급 전사들 뒤, 가장 깊은 곳에는 명령을 내리고 모든

작전과 전쟁의 전개를 총괄하는 주된 지휘관들이 서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유발자들이다. 그들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그들을 상대로 직접 무장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소멸시켜야 한다. 그들이 패배하면, 하급 전사들은 저절로 흩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의 주요 원인과 죄를 옹호하는 주요 세력들인데,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실 때 이를 지적하셨습니다(막 8:34-38).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며, 마치 낯선 사람처럼 여기고, 관심과 동정심을 받을 가치가 없으며, 옹호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 이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태도, 즉 **자기 연민이** 끊임없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실제로도 그렇다. 죄인인 사람은 마치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자녀를 대하듯 자신을 대한다. 무언가에서 자신을 거절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안타깝고, 무언가에서 자신에게 손을 대는 것을 이겨낼 수 없다. 또한 구세주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8:36). 세상은 우리 외부의 사물들, 즉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것들의 총체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의무는 사람의 마음속에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경향,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탐닉, 오직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것으로만 자신을 채우고 즐거움을 얻으려는 일정한 열망을 전제하고 있다. 실제로, 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감각적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취향이 없으며, 모든 감각적인 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이미 지겹도록 경험해 본 것입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이러한 간음적이고 죄 많은 행실 속에서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선과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로 그렇다. 사람은 대개 주변에 정립된 질서나 확립된 관계의 불변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므로, 이를 흔들기를 주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반항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곤경에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양심을 굽히는 편을 택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아첨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이것이 죄의 가장 예민한 얽힘일 것이다. 그 얽힘을 끊기 위해, 그는 이 수치심 으로 인해 만인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이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막 8:38)." 다가올 세상에 대한 이 마지막 호소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내세에 대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마치 그에게는 내세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현세에만 몰두해 있음을 시사한다. 바로 그렇다. 사람은 대개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며, 미래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오직 세상의 행복만을 알고, 모든 목표는 '여기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라는 한 가지로 귀결되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연민, 감각적 욕망, 남의 눈치 보기**, 그리고 **세속성**(삶이란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뿐이라는 생각)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의 특징적인 속성이며, 결과적으로 죄의 근본적인 유발자이자 죄를 위해 싸우는 주된 세력이다. 우리 죄인들 스스로는 이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을 것이며, 구세주께서 이를 지적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드러난 지금, 보아하니 과연 그래야만 했던 것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섰고, 자기 연민이라는 벌을 받았다. 이는 타락의 주된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타락한 자는 자기 내면에서 혼란에 빠졌고, 영에서 육신으로 추락하여 감각적 욕망 속에서 괴로워한다. 죄가 드러나고 횡행하는 주된 무대는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사회이며, 그곳의 질서와 상호 관계는 죄를 양육하고 지탱해 준다. 이 모든 죄의 굴레 속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의 흐름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가능할 뿐, 미래의 세상은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므로, 그에 대한 생각조차 없다. 그것은 머릿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마음속에서 공감을 얻지도 못한다.

바로 이 죄의 뿌리들이, 사람이 죄의 영역에서 선의 편으로 나아가려 할 때 그를 향해 솟아오르는 모든 생각의 원동력이 되며,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며, 가로막는 유혹적인 생각들의 무리를 일으킨다. **자기 연민은** 외친다. "이게 무슨 삶이냐?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된 노동과 괴로움, 슬픔, 결핍만이 보인다. 마치 가시덤불 속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매 순간 상처만 입는다!" **육욕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도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그만두고, 저것도 그만두어라. 한마디로, 내가 즐거움을 느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라! 그건 추상적이고, 건조하고, 영양가 없고, 생기가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상하다고 여기고 멀리할 거야; 그런데, 이 관계도 저 관계도 끊어야 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게다가 이쪽에서는 적대감까지 예상해야 해.” 이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심정의** 절규다. 반면, **세속적인 심정의** 절규는 이렇다. “미래는 물론 있을 것이다—누가 그걸 부정하겠는가—하지만 아직 멀었으니,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다른 이들도 살아왔잖아…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알지만, 저쪽은 어떨까? 이쪽은 손에 잡히지만, 저쪽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 사람이 주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소리쳐 닥칠 것이다. 설령 그것이 가벼운 생각 정도라면 모를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마치 누군가 젖꼭지를 살아있는 몸에 걸어 당기는 것처럼 마음을 찔러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긴다. 이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도움이 가까이 있다… 네가 단지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 노력을 올바르게 기울여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기도에 힘입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모든 역사에 온전히 맡긴 상태에서 확고히 서야 한다: a) 서둘러 이 모든 생각을 영혼에서 몰아내라. 특별한 자기 노력의 긴장감으로 의식에서 그 생각들을 밀어내고, 다시 그 생각들이 나왔던 그 은밀한 곳으로 밀어 넣은 뒤, 마음에 평안을 되찾아라. 왜냐하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그 생각들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설령 평화로운 대화가 아니더라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마라. 무지한 무리들은 처음부터 엄하게 대하면 금세 흩어지지만, 한 명, 두 명, 세 명에게 관대한 말을 건네면 그들은 용기를 얻어 자신들의 요구를 더욱 끈질기게 내세우게 된다. 마찬가지로 유혹적인 생각들의 무리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머무르게 내버려 두면, 더구나 그들과 협상에까지 들어가면 더욱 집요해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한 의지의 힘과 거부, 그리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태도로 그들을 밀어내면, 그들은 즉시 물러나고 영혼의 분위기를 깨끗하게 남겨둘 것입니다.

b) 비록 이 음울한 악한 생각들의 무리가 쫓겨나고, 마음이 다시 평온해지며 영혼이 밝아졌다고 해도, 아직 자신의 사명을 위해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적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들은 단지 주의에서 밀려났을 뿐이며, 어쩌면 유리한 시기에 기습 공격을 가해 더욱 확실하게 승리를 되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여기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도, 성공도 없을 것이다. 그들을 죽이고, 유인하여 자기 희생의 제단 위에 바쳐야 한다.

그러니 다시금 기도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맡기는 것을 확고히 한 뒤, 죄를 부추기는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불러내어, 마음에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돌리도록 노력하라. — 이를 통해 그것들은 마음에서 잘려 나가고 결국 죽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건전한 이성에 자유를 주고, 그 이성의 발자취를 따라 마음도 이끌어 가라. 진리로 깨달음을 얻고 은밀히 작용하는 은혜의 도움을 받는 네 이성은: a) 먼저 이, 말하자면 지옥의 괴물들인 것들의 모든 추악함을 떠올리게 하라. 너는 네 마음이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도록 자극하라; b) 그다음 그들이 빠뜨리는 위험을 생생하게 묘사하게 하고, 그들 속에서 가장 사악한 적들을 지적하게 하라. 너는 네 마음이 그들에 대한 **증오를** 품도록 자극하라; c) 그다음, 그들이 방해하는 삶의 모든 아름다움과 달콤함, 그리고 이 폭군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자유의 모든 매력을 네 눈앞에 더 생생하게 그려내게 하라. 그러면 이미 그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품은 네 마음은, 마치 사슴이 물샘을 향해 달려가듯, 그들로부터 벗어나 그 자유로 향**하도록** 힘써라. 이를 통해 요구되는 바가 달성될 것이다. 간단한 계획이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리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단지 추론이 집중해야 할 측면들만 명시되어 있을 뿐, 추론 자체의 흐름을 이끌고 목표에 도달시키는 일은 각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각자의 추론에 따라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다만, 추론은 지렛대에 불과하며, 진정한 핵심은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음속에 언급된 변화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목표에 도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노력은 의지를 꺾는 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마음이

이러한 전환을 통해 최후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 최후의 경지란 바로 죄악적인 충동에 대한 **반발**, 즉 죄가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 연민**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자비함과 가차 없음이 되살아나고, 고통에 대한 갈망과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몸과 영혼을 지치게 하고 싶은 욕구가 느껴질 때까지, 모두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 **타인의 환심을** 사려는 마음 대신, 한편으로는 모든 불선한 관습과 유대 관계에 대한 **혐오와**, 어느 정도 적대적이며 짜증을 동반한 저항이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불의와 사람들의 모욕을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가 형성될 때까지; 오직 물질적이고, 감각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취향** 대신, 그것들에 대한 **무미건조함과** 혐오감이 깃들고, 오직 영적이고, 순수하며, 신성한 것만을 추구하고 갈망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세속성과** 삶과 행복이 오직 땅에만 국한되는 대신, 하늘의 조국을 향한 유일한 열망과 함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에 대한**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이러한 마음가짐이 형성될 때, 그때 비로소 죄의 모든 버팀목은 무너질 것이다. 죄는 견고함과 결정적인 권세를 잃게 될 것이며, 그 권세는 이제 인간 자신에게로 넘어간다. 죄는 쫓겨나 외부로 밀려나게 된다. 이 순간부터 죄는 더 이상 결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혹하는 존재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제 쌓아둔 죄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를 쫓아낼 수 있다. 이로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노력이 얼마나 큰 중요성을 지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내면에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악을 단호히 혐오하고 선을 향하는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며, 의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우리 안의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를 갖추게 된다.

보라, 한 사람이 이미 죄의 영역 가장자리에 서 있다. 그를 빛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땅으로부터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얽매이던 족쇄가 풀려 마음이 가볍고 기쁘며, 영혼은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원수의 교활함은 아직 다 소진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아껴 둔 화살이 하나 더 남아 있다. 영혼이 방종한 죄의 영역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힘을 모으는 바로 그 순간, "하루만 더 있으면 충분해, 내일 이 경계를 넘을 거야."라는 애처로운 외침이 그 주의를 사로잡는다. 이전 투쟁으로 인해 영혼이 지쳐 휴식을 요구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죄의 법칙이 원래 그런 탓인지, 오직 이 목소리만이 들려온다. 여기에는 선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단지 이미 쌓아 올린 긴장감을 조금만 완화해 달라는 간청일 뿐이다. 이 비명은 가장 유혹적이다. 마치 원수가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애원하는 듯하지만, 이 비명과 유혹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는 순간,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어떤 비밀스러운 길을 통해 쫓겨났던 그 죄의 선동자들이 마음속으로 몰래 스며들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간통을 저지르며 — 계획했던 모든 것을 느슨하게 만들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정신을 차린 사람은 마치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냉담함과 둔중함, 그리고 경직됨이 다시 그를 압도하며, 이미 지나온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사소해 보이는 요구를 경시하지 마라. 겉보기에는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악을 줄여주는 것이며, 자유의 형태로 위장된 노예 상태의 매혹적인 모습이자, 화해할 수 없는 적을 숨기고 있는 아첨하는 우정이다.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증오하고, 눈치채자마자 — 그것은 번개처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니 — 그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서둘러 지워버려라. 다시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그 내적·외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영원히 그 상태를 지키기로 결심하라. 이 적마저 물리친다면, 너는 단호한 승자로서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스스로의 완전한 주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은총의 각성 이후, 인간의 자유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는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며, 이는 세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다: 가) 선의 편으로 기울어지며 — 선을 선택하고; b)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람을 죄 속에 묶어두던 속박을 끊으며, 마음속에서 **자기 연민, 남의 눈치 보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경향**, **세속성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자비함, 감각적 쾌락에 대한 무감각, 온갖 수치에 자신을 내맡기는 태도, 그리고 이곳에서의 나그네 의식을 품고 마음으로 미래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불러일으킴; c)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조금도 느슨하게 하지 않고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지금 당장 선한 길로 들어서겠다는 의욕을 불태운다. 이처럼 영혼 속의 모든 것이 가라앉는다. 모든 속박에서 해방된 그는 완전한 각오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가리라."*

이 순간부터 영혼의 **또 다른 움직임**, 즉 **하느님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며, 자유를 되찾은 그는 이제 온전히 자신을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 즉, 일은 아직 절반밖에 끝나지 않은 것이다.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기 전

죄를 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행동만 남았다면,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물론, 행동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활동이 될 것이며, 그 안에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겠는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만약 그가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행동에 나선다면, 비록 도덕적인 차원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이교적인 도덕성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선으로서 행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거나, 달리 행동하는 것이 비고귀하고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든 행자들은 그들 내면의 도덕적 인간에 대한 형성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을 그분께 제물로 바치지도 않았으니, 즉 반쯤만 나아간 채 멈춰 선 것이다. 인간 자유의 목적은 자유 그 자체나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신성한 권능의 일부를 양보하셨으나,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그 권능을 가장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네가 자기 자신을 이겼다면, 이제 가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네가 죄를 지었을 때, 너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던 것이다.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네 자신을 이겨낸 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겉보기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도, 마치 서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일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은 그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마치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분께 다가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주인에게 돌아오는 도망친 종과 같고, 재판관인 왕의 면전에 서는 유죄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세상의 관례에 따르면, 주인은 종을 받아들이고 왕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는데, 이는 그들에게 나아갈 때 각자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뉘우치며, 앞으로는 완전히 올바르게 살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을 할 때이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a) 자신의 죄를 깨닫고, b) 그 죄를 회개하며, c)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서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다시 하나 되는 데 필수적인 행위들이며, 새로운 삶에서의 확고함, 그 삶 속의 완전함, 그리고 그 삶의 요구에 따라 변함없이 행동할 수 있는 신뢰성은 바로 이 행위들에 달려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겠나이다. 죄를 지었나이다"* — 죄를 자각하는 것; *"저는 합당하지 못하나이다"* —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 *"저를 당신의 품에 있는 일꾼 중 하나로 받아 주십시오"* — 일하겠다고 서약하는 것(눅 15:18-19).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라.** 죄를 버리겠다는 결심을 품을 때, 너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삶의 변화를 꾀해야 하겠는가? 그러나 그 당시 이 죄성은 모호한 모습으로만 드러났다. 이제 무엇이 정확히 죄이며 어느 정도 죄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즉, 자신의 죄를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 행위의 죄성을 줄이거나 늘리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여 — 명확하고 개별적으로, 마치 수치화하듯이 파악해야 한다. 엄격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자신의 온 삶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쪽에는 자신의 삶을 놓고, 둘이 어떤 점에서 닮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라. 자신의 행실을 꺼내어 율법에 대조하여 그것이 합법적인지 살펴보거나, 율법을 꺼내어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실천되었는지 살펴보라. 이 중요한 일에서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으려면, 일정한 순서를 따르라. 앉아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에 대한 네 모든 의무를 되새긴 다음, 이 모든 측면에서 네 삶을 되돌아보아라. 또는 십계명과 팔복의 계명을 하나씩, 그 모든 적용 사항과 함께 살펴보고, 네 삶이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아라. 아니면 — 구세주께서 기독교 고유의 율법을 설명하시는

마태복음의 장들과, 또한 성 야고보 사도의 서신, 성 바울 사도의 서신 중 마지막 장들을 읽어보라. 그 안에는 기독교인에게 필수적인 행실들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부터, 에베소서 4장부터, 그 밖의 구절들. 특히 이 구절들은 기독교적 삶의 정신을 명확히 설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정신은 성 요한 신학자의 첫 번째 서신에서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읽고, 자신의 삶이 과연 그런지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면, 마지막으로 고해성사 절차를 따르며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보십시오. 자신의 삶과 행실을 단순히 한 사람의 일로만 보지 말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일로, 게다가 특정한 직분과 신분 속에서 행한 일로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삶의 재검토를 통해, 있어서는 안 될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와 말, 생각, 감정, 욕망이 드러날 것이며, 해야 했으나 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발견될 것이다. 게다가 율법에 따라 행한 일들 중에서도 동기의 불순함으로 인해 더럽혀진 것들이 적지 않게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무수히 쌓이게 될 것이며, 어쩌면 인생 전체가 온통 악한 행위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이 첫 단계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행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다. 복무 기록이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작성되듯이, 각자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한 일들의 목록을 시간, 장소, 인물, 장애물 등 모든 상황을 포함하여 똑같이 명확하게 그려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자기 성찰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지 일반적인 개요만 살펴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소한 점들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죄의 길을 더 나아가거나 죄 많은 마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행위, 말, 사적인 생각, 소망, 감정 아래에는 우리의 특징을 이루는 변함없는 마음의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어떤 행위는 우연히 터져 나왔고, 어떤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녔으며, 또 어떤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마치 법칙처럼 굳어졌습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행위의 원인이 숨어 있으며, 거기서 비롯된 지속적인 충동을 낳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적인 성향의 본질이다. 이를 밝혀냄으로써 우리는 우리 마음의 구조와 그 안에 있는 성향들의 수 및 상호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된 정욕도 숨을 수 없게 된다. 모든 죄의 뿌리는 자만심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만심에서 교만, 이기심, 쾌락 추구가 나오며, 이로부터 다른 모든 정욕이 비롯되는데, 그중에서도 주된 것은 여덟 가지로 여겨지고, 그 외의 파생된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모든 죄인에게는 모든 정욕이 있다—어떤 것은 실제로 드러나고, 어떤 것은 싹만 틔운 채로—왜냐하면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의 일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만심, 즉 모든 정욕이나 죄악적인 성향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서 이 정욕들이 똑같은 정도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 우세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쾌락 추구,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기심이 우세하다. 교만한 사람도 감각적 쾌락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때로는 이익을 위해 비굴하게 행동해야 한다 해도 개의치 않는다. 쾌락주의자는 유혹에 약하지만, 쾌락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해도 상관없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하나의 주된 정서가 있다. 다른 모든 정서는 그늘에 머물며 주된 정서에 종속되어 그에 의해 지배받으며, 주된 정서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행동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사람이 이미 자기 안에서 발견한 모든 성향과 악한 습관은 어떤 하나의 정욕에 의해 부각되고, 그 정욕에 의해 고무된다. 그것은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인 자만심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구현되는 것이다. 이를 깨닫는 것으로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는 과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자신의 죄성의 뿌리와, 그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된 결과물인 성향들, 그리고 더 나아가 수많은 행위들까지 깨닫게 될 것이며, 자신의 죄악에 대한 전체 역사를 상상하고 마치 그림처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b)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을 때, 냉담한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구원을 주는 **진심 어린 회개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라**.** 겉보기에는 죄를 깨닫는 순간 그 감정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솟아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마음은 죄로 인해 거칠어집니다. 육체 노동자가 자신의 일로 인해 거칠어지듯이, 죄인인 인간도 죄라는 육체 노동에 자신을 팔아넘겨 — 뿔을 파내고 그것으로 연명하는 — 만큼 거칠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회개의 감정을 일깨우기 위해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으로 넘어가는 길은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에 대한 무책임함이라는 감정을 거쳐야 한다. 죄책감은 죄를 깨닫는 것과 회개의 감정 사이의 중간 지점에 서 있으며, **스스로를 책망함으로써** 중재된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하라 — 그리고 책망하라. 주의를 흩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전지전능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과 단둘이 남으라. 네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했던 것들을 털어놓아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둘 수 있었으나, 네 자신의 자유 의지를 네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이성과 양심 모두 반대했고, 분명히 장애물들도 있었으나, 너는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해 버렸다. 모든 죄에 대해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모든 죄가 자발적으로, 그 죄악성을 인식한 채, 심지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까지 기울여 저질러졌음을 알게 될 것이며, 양심은 네가 아무런 변명 없이 죄를 시인하도록 만들 것이다. 죄 많은 마음의 교활함이 어쩌면 변명을 꾸며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본성의 연약함을, 때로는 기질의 강함을, 때로는 우연한 상황을, 때로는 세속적인 관계의 압박을 핑계로 삼겠지만, 그 말을 듣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죄에 대한 유혹을 강화할 수는 있었겠지만, 죄를 저지르기로 동의하는 것은 그 누구도 결코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자유 의지의 문제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유혹은 끝난다! 이러한 *죄에 대한 죄책감의 회피를* 거스르며, 네 개인적인 상황을 더 철저히 파헤쳐 보라: 네가 누구이며, 어디서, 언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바로 네게 있어, 네 상황 속에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변명의 여지가 아니라, 네 죄책감을 더욱 키우는 순간들만을 보게 될 것이다. 자기 고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달해야 할 극한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책감이다. 즉, 마음속에서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양심의 책망 과정에서 사람은 하나하나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며, "이것에도 죄가 있고, 저것에도, 또 다른 것에도, 모든 것, 모든 것에 죄가 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게 되고, 그 죄들이 온전한 무게로 자신에게 짓누르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죄들이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양심의 책망 속에서 죄들은 바로 우리 내면에 드러나며 우리를 짓누르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죄인이 **"나는 저주받았다!** 이것도 좋지 않고, 저것도 나쁘다.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마음속으로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자마자,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회개의 감정이 하나씩 차례로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는 그런 비열한 일에 빠진 것이 **부끄럽고**, 자신을 방종하여 악한 욕망에 굴복한 것이 **분하며**, 스스로를 그런 도덕적 타락의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시간적으로나 영원히나 자신을 그런 위험한 처지에 빠뜨린 것이 **두렵다**. 이러한 감정들이 서로 뒤이어 밀려오며, 사람은 마치 불길 속에 있는 것처럼 그 감정들 속에서 타오른다. 그는 자신이 심연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감정 속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상태로 내려간다. 절망적인 고뇌는 희망 없음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때때로 죄인인 인간을 절망의 악마가 사로잡아, *"네 죄가* 클수록 *네게 남은 길은 없다"고* 속삭인다.

모든 죄인은 크든 작든 이러한 감정을 경험한다.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런 감정이 있기를, 그리고 더 강해지기를 바랄 필요가 있다. 사람이 그 감정에 휩싸일수록, 그 불타오름이 강할수록, 구원에 더 가까워진다. 이 불타오름의 힘 속에야말로 미래의 회개의 토대가 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은 죄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깨닫게 되며, 이를 통해 죄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게 된다.

c) 회개의 감정은 분명히 부패시키는 작용을 한다. 어떤 말씀이 영혼과 영, 지체와 뇌를 갈라놓을 정도로 깊이 파고들어,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심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목적은 단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옛것을 파괴함으로써 새것을 창조하기 위함이다. 이 새로운 것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기운으로 씨앗을 뿌린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기회가 있다. 단지 행동에 나서기만 하면 된다. 회개의 감정에서 "그러므로 나는 죄를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섬기겠다고 서약한다"는 서약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을 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과거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원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도움을 받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주님을 섬기겠다는 서약은 용서와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향한 확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구세주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증서를 찢어 버리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베드로후서 1:3). 이 믿음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소망이 없다면, 참을 수 없는 회개의 감정에 시달리는 사람은 유다의 길을 걷게 된다. 바로 그때, 구세주의 십자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닻이 된다! 심연 위에 서 있는 듯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회개 속에 잠겨 있는 그는 십자가를 유일한 구원자로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의 온 힘을 다해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서약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그곳에서 얻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나무를 꽉 붙잡듯이,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이제 더 이상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느낍니다. 보통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이 고통스러운 죄에 대한 회개를 겪은 사람은 그것을 체감하게 되는데, 이는 그것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의 감정에 시달리고 이미 절망감에 흔들리고 있는 자는, 소망하는 서원을 향해 나아가며:

가) 먼저 구세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되살리도록 서둘러라.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따라서 네 죄도 마찬가지다. 이 확신을 되살리면, 네 마음에 기쁨이 불어올 것이며, 이 믿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즉시 희망이 솟아날 것이다.

b) 여기에 더해, 성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서원을 이행할 힘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더하라. 성사에서는 누구에게도 거절당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성사를 얻으신 것은 바로 이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이 확신은 네 자신의 힘도 긴장하게 만들 것이며, 그러한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할 준비를 낳을 것이다. 하늘의 도움에 대한 확신 없이는 서원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반대로, 서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확신이 찾아올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상호작용이 있다.

c) 그리고 네 마음속에서 이러한 확신과 준비가 조화를 이룰 때, 서원을 하라—즉, 네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이 마음의 서원은, 영혼을 감싸고 있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네 내면의 모든 실타래와 외적인 삶의 모든 질서를 비추게 될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마음의 언약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 행위를 통해 이전의 결심은 참된 기독교적 성격을 띠게 된다.

회개와 성찬의 성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무장함

서약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죄인의 주님께로의 여정은 마무리된다. 이제 그는 자신을 맞이하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몇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된다.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는 그의 목에 안기며 입맞춤으로 온전한 용서를 표했고, 그 후 그를 마땅히 입혀 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a) 하나님께서는 고해 성사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온전한 용서를 선포하시며, b) 성체 성사에서 그에게 힘을 입히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완전한 용서는 고해 성사 안에서 선포된다

죄인인 사람이 이제부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에 이르렀다면, 그는 서둘러 고해 성사에 나아가야 한다. 이것의 필요성은 너무나 커서, 이 성사 없이는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이

미완성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아무 가치 없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 성사 안에서만 그 모든 무게와 의미,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 성사가 없는 곳에는 참으로 기독교적으로 사는 이들도 없습니다.

a) 이 성사를 필수적으로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내적 활동 전반에 내재된 일정한 불안정성, 즉 그 활동의 불확실성과 흔들림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은 아직 머릿속에 있을 때, 그 흐름이 변덕스럽고, 질서가 무질서하며, 움직임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는 대상이 아직 명확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단 종이에 적어내면, 생각들은 질서가 잡힐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명확해지고 확고해진다. 마찬가지로, 내면에서만 구상된 삶의 변화는 그 자체로는 우유부단하고 확고하지 않으며, 이때 그려진 삶의 형태는 흔들리고 불확실하다. 그것들은 고해 성사 안에서 비로소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때 죄인은 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올바르게 살겠다는 서약을 확고히 한다. 녹아내린 밀랍은 불규칙하게 흘러넘치지만, 그것을 틀에 부어 넣거나 도장을 찍으면 그로부터 어떤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내면의 사람 역시 명확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의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이는 고해 성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신성한 은총이 그에게 인장을 찍어줍니다.

b)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삶을 얻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영에 따른 삶을 맺어 나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있어 성령은 그동안 외부에서 작용해 왔습니다. 즉, 외부에서 그를 일깨우고, 내면의 모든 회개하는 움직임을 지켜보며 이를 돕고 계셨지만, 아직 내면 깊숙이 스며들거나 거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고해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며(주님께 처음 돌아온 자의 경우 세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갈증에 시달리던 이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시원함과 활력을 느끼는 것처럼, 회개의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자도 고해 성사 안에서 마침내 자신의 슬픔을 달래주고 동시에 힘을 북돋워 주는 힘을 얻습니다.

c) 회개의 성사를 특히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의 속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양심의 속성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의 흔적이 우리 밖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죄는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도 —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특히 하늘에서 신성한 정의의 판결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지은 자가 어떤 존재가 될지가 그곳에서 결정됩니다. 생명의 책에 그는 정죄받은 자들의 명단에 기록되며, 하늘에서 묶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가 정죄받은 자들의 명단에서 지워지고, 그곳에서 해방을 얻기 전까지는 신성한 은총이 그에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의 해방, 즉 정죄받은 자들의 명단에서 하늘에 의해 지워지는 것을, 땅에서 죄로 묶인 자들의 해방에 종속시키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 회개의 성사를 받아, 온전한 용서를 얻고 내면에 은총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라. 이제 정화되어 도덕적 질서에 대한 섬세함과 감수성을 되찾은 양심은, 우리가 용서를 단호히 확신하기 전까지는 평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양심의 모습이다. 우리가 모욕한 사람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양심은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얼굴을 들게조차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심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비록 사람이 단호한 서원을 할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거슬리지 않는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 확신은 자기 자신의 것이며 견고할 수 없어 곧 의심이 그 확신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이건 자만일 뿐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내면에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그 불안은 다시 나태함으로 이어진다. 이러면 삶은 단단함도, 질서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느님의 입에서 오는 완전한 용서를 들어야만,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으로 마침내 마음을 진정시킨 뒤, 그 확신 안에서 더 단호하고 확고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 가서 고해성사를 보라. 그러면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주는 고해성사를 위해서는 마땅히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거친 사람은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니 경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가) 이 성사의 필요성을 확고히 확신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 마치 네 삶의 변화를 위한 부수적인 요소나 단순한 관습처럼 대하지 말고, 죄인인 너에게 이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구원의 길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성사를 거르면, 너는 정죄받은 자들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어떤 자비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이 치유의 전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영혼의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예전처럼 병들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게 될 것임을; 회개의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을 것임을.

b) 이러한 확신으로 이 성사의 소망을 다시 일깨우라. 이를 도살장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의 원천으로 여기며 나아가라.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 안에 맺히는 그 열매를 생생히 상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고해성사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투성이인 채로 그곳으로 가지만, 거기서 돌아올 때는 온몸이 건강해지고, 생기 넘치며, 튼튼해지며, 미래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그에게 얹혀 있어 그를 괴롭히고 모든 평안을 빼앗아가지만, 그곳에서 돌아올 때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에 차 있으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환해집니다.

c) 수치심과 두려움이 솟아오를지라도 — 그러게 하라! 이 성사가 수치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야말로 갈망해야 할 이유이며, 수치심과 두려움이 클수록 구원에 더 가까워진다. 이 성사를 원한다면, 더 큰 수치심과 더 큰 경외심을 원하라. 치료를 결심하는 사람은 치료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알고 있다. 그러나 치료를 결심함으로써, 그는 동시에 회복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와 수반되는 고통도 감수하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너도 한때 너를 사로잡은 회개의 감정에 시달리며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을 때,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직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네 소망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지금 네게 닥친 수치심과 두려움이 너를 당황하게 하지 말라. 그것들은 네 선을 위해 이 성사와 함께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겪어내면, 네 도덕성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너는 이미 여러 번 회개의 불길 속에서 타올랐으니, 다시 한 번 타올라 보아라. 그때는 너 혼자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타올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인 앞에서 타올라라. 그것은 그 은밀한 타오름의 진실함을 증언하기 위함이며, 어쩌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며, 그날에는 절망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해성사 때의 수치심과 두려움은 그때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속죄해 준다. 그때의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 고해성사의 고통을 견뎌내라. 게다가 항상 그렇듯이, 고해자가 겪는 불안의 정도에 비례하여, 고해성사 후의 위로도 그만큼 풍성해진다. 바로 여기서 구세주께서는 진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위로자로 나타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한 자는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마음으로 이 진리를 압니다.

다) 그 다음,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시 떠올리고, 이미 네 안에서 성숙해진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서약( )을 새롭게 다짐한 뒤, 네 고백을 받아주시는 주님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생생한 믿음을 품고, 양심이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으라. 만약 네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려는 마음으로 고해에 임했다면, 자신을 감추지 말고 죄에 대한 탐닉 속에서 네가 겪은 수치심을 가능한 한 온전히 드러내라. 이는 네가 찢어진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한 모든 죄는 마음에서 쫓겨나지만, 숨긴 죄는 마음속에 남아 더 큰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안고 죄인은 만병을 고치시는 의사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죄를 숨김으로써 그는 상처를 가렸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난을 겪었던 복녀 테오도라의 이야기에는, 그녀를 악의적으로 고발한 자들이 자신들의 기록에서 그녀가 고백한 죄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천사들은 나중에 그녀에게 고백이 죄가 기록된 모든 곳에서 그 죄를 지워버린다고 설명해 주었다. 양심의 책에도, 생명의 책에도, 그리고 그 사악한 파멸자들 앞에서도 그 죄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 고해성사가 그 기록들을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아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 도달해야 할 한계는, 영적 지도자가 너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게 하여, 그가 너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를 용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들이 범한 죄를 사해 주소서"라고 말할 때, — 그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당신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 속에 머물렀다가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준비하며, 미리 영적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죄 많은 삶의 전말을 털어놓는 이들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해성사 중 혼란

속에서 무언가를 잊거나 빠뜨릴 위험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드러내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면하는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와 고백을 조건으로 하셨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영적 지도자가 "용서하고 사면하노라"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러나 나는 정죄하노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

다) 이제 고해성사가 끝났다. 영적 지도자는 에피트라킬을 들어 회개자의 머리를 덮고,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모든 죄에 대한 사면을 선포하며, 머리에 십자가 성호를 그어 이를 인치신다. 이 순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은총의 흐름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흘러들어와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서도, 사면해 주시는 분에게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영혼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신비입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서 장차 행할 일을 위해 힘을 얻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어떤 신성한 말씀을 또렷이 듣기도 한다. 이는 마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분의 깃발 아래 싸우는 자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시는 영적인 무기와도 같다.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을 얻은 자는, 그 말씀을 위로와 격려의 말로 간직해야 한다. 위로의 말인 것은,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와 마치 대화를 나누시듯 하실 때 고백이 받아들여졌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며, 격려의 말인 것은, 유혹의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올리기만 해도 어디서 힘이 솟아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싸우는 전사들은 무엇으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겠는가? — 지휘관의 연설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 한 마디 말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다.

e)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자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십자가와 복음서를 입맞추며 서약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명시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서에 묘사된 대로 구세주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선한 멍에 아래, 이제 막 스스로 짊어진 그 멍에 아래서, 그리스도 구세주를 따르겠다는 서약의 표시로 십자가와 복음서를 입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마친 후, 반드시 약속한 대로 행동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평안히 떠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에 대한 심판은 오직 당신의 말에서 비롯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서약을 했다면 지키십시오; 성사로 그 서약을 확증했다면, 더욱더 그 서약에 충실하여 다시는 은혜를 짓밟는 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g) 영적 지도자가 너에게 참회를 부과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만일 영적 지도자가 부과하지 않았다면, 부과해 달라고 청하라. 이는 네가 발을 내딛는 선한 길에 대한 격려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서 네게 닥칠 외부로부터의 적대적인 행동들로부터의 보호와 방패가 될 것이다. 콘스탄티노플의 성하 총대주교(예레미야 — 편집자 주)께서 『루터교도들에게 보내는 답변』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타당한 이유로 죄 사함에 참회를 동반합니다. 첫째, 죄인이 이곳에서 자발적인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저 세상, 즉 내세에서 겪게 될 무거운 비자발적 형벌에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는 고통, 특히 자발적인 고통만큼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 그레고리우스도 눈물에는 인류애로 보답된다고 말한다. 둘째, 죄인 안에서 죄를 낳는 육체의 욕망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반대되는 것은 반대되는 것으로 치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참회가 마치 영혼을 묶는 밧줄이나 고삐처럼 작용하여, 에서 이제 막 정화되고 있는 바로 그 악한 일들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수고와 인내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함이다. 미덕은 수고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회개하는 자가 죄를 완전히 미워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영적 치유의 과정을 마땅히 밟으며, 무엇보다도 숨김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마치 사형 선고 대신 사면과 범죄의 용서를 선고받은 유죄자들이 법정에서 돌아오듯, 하나님의 집에서 돌아오며, — 우리 영혼의 구세주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남은 생애를 그분께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극심한 혐오, 그리고 과거의 불선한 삶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을 안고 돌아오는 것이다. 사면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음을, 어떤 특별한 힘이 자신을 찾아왔음을 내면에서 느낍니다. 지금까지 그저 외부에서 작용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를 돕기만 했던 신성한 은총이, 이제 "용서하고 허락하노라"는

말과 함께 내면으로 들어와 그의 영과 하나가 되어, 그를 불타는 열정과 기세 넘치는 기백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이제 그 열정과 기백을 품고 생의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사명과 일을 수행해 나간다.

회개하는 자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고, 그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표시로 아들의 얼굴을 핥아 준 뒤,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밝고 기쁜 만찬을 준비하라고 명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자신과의 화해를 더욱 확고히 확신시켜 주고, 그토록 슬픈 이별 끝에 다시 만난 기쁨을 더욱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떤 죄인이 전적인 용서를 받은 후에 그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라, 그는 주님의 만찬에도 초대받았으니, 그곳에서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자신의 살을 먹게 하시고 피를 마시게 하신다. 이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관대함의 정점이자, 결코 과잉이 아니라 주님과의 재결합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입으며 그분으로 살아간다. 세례 후 타락한 자는 이 은혜를 잃게 되지만, 타락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 그 은혜를 입게 되며, 성찬식을 통해 이를 얻게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요 6:56). 여기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시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5:46 참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믿는 자들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외에는 참된 생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나무에 접붙여져, 그 나무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받아 그것으로 양분을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접붙임은 성찬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완전한 회개로 인도하실 때는 단지 마음의 문만 두드리셨지만, 그 문이 통회와 회개로 열리면, 주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찬을 받는 이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삶이 시작됩니다. 삶은 양식 없이는 지속될 수 없으며, 게다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양식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종류의 양식이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으로 먹을 것이요, 내 피는 참으로 마실 것이니라"* (요 6:55).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는 바로 그것으로 이 삶을 양육해야 한다. 더욱이 새로운 삶의 첫걸음, 말하자면 첫 움직임에서 이 양식을 맛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 양식은 육체적 삶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이후에는 육체의 지속적인 필요로 자리 잡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회개한 자의 삶의 성향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입니다. 그의 지속적인 필요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필요입니다. 그러니 이 삶의 첫걸음에서 서둘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맛보아,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는 삶의 기초를 다지고, 이 맛을 통해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에 대한 생생한 갈망을 싹틔우도록 합시다. 이 하늘의 만나의 달콤함을 맛본 자는, 그 후로는 이 성찬을 점점 더 갈망하고 목말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자비와 온전한 용서를 받은 후, 내면의 사람을 온전히 소생시키기 위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를 위해 특별한 준비 규칙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이미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며, 그는 자연스럽게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고백한 자는 이 위대한 성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도 그 이상으로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고린도전서 11:28)고 말할 뿐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라"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말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관례에 따르면, 고해성사 후 성체성사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녁, 아침, 그리고 성찬예식뿐입니다. 이 시간 동안 고해성사 후 성전에서 가져온 선한 마음을 간직하고, 이를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과 교감하는 데 적용해야 합니다.

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라. 산만함과 혼란스러운 근심을 경계하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들어가, 곧 당신에게 오실 주님에 대한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머무르십시오. 모든 생각의 움직임을 떨쳐내고, 오직 한 분 주님을 묵상하며, 산만하지 않은 진심 어린 기도로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b) 생각이 이 한 가지에 머물 수 없다면, 성체성사 그 자체에 대한 묵상을 생각의 주제로 삼게 하라. 그리고 생각이 너무 방황하지 않도록, 이 성사에 관한 주님과 성사도들의 말씀으로 생각을 묶어 두어라.

c) 주님이나 성도 사도들의 어떤 말씀에 대해 묵상할 때,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통회하는 기도에 마음을 기울이라. 기도가 찾아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가 지속되는 동안 기도에서 물러서지 말라.

d) 잠이 눈을 감게 할 때까지 이 일들로 저녁 시간을 보내라. 아침이 올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오늘 하루가 네게 얼마나 위대한 날인지에 대한 인식을 되살려라. 그러나 허둥대지 말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너에게 그리고 네 안에서 일어날 일만을 염두에 두어라. 경계하라! 원수는 영혼을 불선한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유혹할 것이며, 생각을 흩뜨리거나, 무언가에 대한 근심을 일으키거나, 무언가에 대한 불만을 품게 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려 할 것이다. 주님께 기도하며 스스로를 잘 살피면, 이러한 걸림돌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d) 성전에 들어섰을 때, 마치 주님께서 성도인 사도들에게 성찬을 베푸셨던 시온의 다락방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찬송과 성경 봉독이 있을 때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직접 너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만찬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집중하라.

e) 이와 함께 성사 안에서 주님이자 구세주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 믿음에서 출발하여, 마치 이미 네게 오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겸손히** 이렇게 부르짖으라.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처소에 들어오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마태복음 8:8)." 자신을 낮추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절제력을 가져다주는 아들의 **경외심으로** 넘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초대하시며 나아가라고 명하시니, *물샘을 찾는 사슴처럼* 소망과 **갈망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감추어진 삶의 모든 보화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라. 이 부끄럽지 않을 소망을 품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마음의 **통회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비록 이를 위해 죽어야 한다 해도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서약을** 되새기라.

g) 전체 전례 동안 서서, 이러한 감정들 사이를 오가며, 이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마침내 주님의 성배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배를 바라보며 당신께 오시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입과 마음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며, 사도 토마스와 함께 겸손하고 경건하게 외치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요한복음 20:28). 영광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영광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영광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배에 다가갔다가 물러날 때, 네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낄 것이다: 참으로 그 말씀은… 신성한 성찬의 은총을 받는 자로서,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태양처럼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신 나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있도다. 이때부터 너는 네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다. 그러니 그분을 온갖 방법으로 위로하고 네 안에 머물게 하도록 부지런히 힘쓰라.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다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너를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다.

이로써 타락 후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아선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적 삶의 형성이 완성된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전 과정이다! 여기서는 자유와 은혜가 상호작용할 때, 회심자가 바라는 모든 변화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긴 이야기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앞서 말한 모든 일은 모든 회심자에게 일어나지만, 그 방식과 정도는 각자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이에게는 회개 과정이 몇 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 사이 그는 감동을 받고, 회개하며, 결심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현상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회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면의 변화 자체는 순간적이지만, 그 변화에 이르는 과정은 항상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며, 때로는 꽤 오랜 자기 수련 끝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떤 이에게는

그 때문에 완전한 회심이 수년에 걸쳐 이어지기도 한다. 정체되는 주요 지점은 자존심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곳, 예를 들어 죄의 장애물이나 유혹을 극복할 때, 고해성사 등을 할 때이다. 도달해야 할 최종 단계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초연해지고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하고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여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각자가 자신을 다스리려는 열의와,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확신에 달려 있다. — 지금이든 나중이든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지금 하는 편이 낫다 — 하고 생각하며 실천에 나서면, 곧 안정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안정되는 것이 회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안에서 기독교적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숙하며, 굳건해지는지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의 순서에 대하여

우리 안에서 기독교적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숙하며, 굳건해지는가?

사람이 방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며, 아직 한 걸음도 내디디지 않은 새로운 길에 막 들어섰지만, 그러나 시작한 일을 굳건히 지키고, 그를 하나님과 구세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파멸로 이끌었던 예전의 지배자들에게 다시 굴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이제 묻는 바는,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올바르고 곧게,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회개한 자가 온 주의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목표는 바로 인간과 구원의 집 짓기의 궁극적인 목표, 즉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합, 그리고 그분의 내주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구하고 갈망하는 영은 하나님을 얻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으로 만족할 때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첫 번째 계명은 *"주님과 그분의 능력을 찾으라,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시 104:4)는 것이다. 이 복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 인간 스스로는 그런 높은 경지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지위를 부여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인간이 불신과 무관심, 생각에서 소홀히 함, 심지어 수고하는 중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그들 안에 거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모든 위격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고린도후서 6:16).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믿고 사랑하는 자)*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삼으리라"*(요한복음 14:23). *오직* 한 분이신 주님에 대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리라"*(계 3:20); 그리고 더욱 명확하게: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며,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요 14:20). 사도는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롬 8:9).

이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단지 인간의 관점에서 신을 묵상할 때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상의 것이 아니라, 생생하고 생명력 있는 것이며, 전자는 단지 그 수단으로만 여겨져야 함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성과 마음의 열망은 사람이 진리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며; 이는 인간의 힘과 인격을 삼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의지와 행동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연합이다(빌 2:13); 그리고 사도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갈 2:20 참조).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기도 하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 자유로운

피조물들은 스스로에게 맡겨졌으나, 이는 최종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왕국을 이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미 세례나 회개의 성사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존재하거나 주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또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갈 3:27)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3:3)라고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 각자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 우리가 그분을 찾지 못할 리가 없겠는가*(참조: 사도행전 17:27). 또한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거하시기를 기꺼이 원하신다. 오직 한 가지, 즉 원치 않음과 무관심, 죄성만이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킬 뿐이다. 이제 회개한 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겠는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부터 시작되며,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로 향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총과 도우심, 보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사람 밖에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어, 서로 닿지 않으며 상호 침투할 수 없습니다. 세례나 고해 성사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총으로 사람의 내면에 들어오시어 그와 생생하게 교감하시며, 그에게 신성의 모든 달콤함을 완전한 자들에게 어울리는 것처럼 풍성하고 실감 나게 맛보게 하시지만, 그 후 다시금 이 교제의 현현을 감추시고, 때때로만 그것을 재개하시며 — 그것도 마치 반영처럼 가볍게, 실체가 아닌 — 지혜로운 인도하심에 따라 정해진 나이 또는 양육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과 그분께서 그 안에 거하심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것을 뚜렷이 드러내시며, 그 사람은 그때 그를 가득 채우시는 삼위일체 신성의 성전이 된다.

따라서 신과의 교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회심 기간에 일어나는 '생각 속의 교제'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실제적인 교제'인데, 그중 하나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고 본인조차 알 수 없는 '은밀한 교제'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에게도 명백히 드러나는 '공개된 교제'이다. 첫 번째 유형의 교제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보편적인 것으로, 두 번째 단계와 심지어 세 번째 단계에서도 멈추지 않는데, 이는 영적인 삶이 지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들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특성상 뚜렷이 구별되는데, 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영적 삶은 사고 속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실재적이고, 생생하며,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드러나는 교제로의 전환에 있다.

우리는 회개한 사람, 즉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섰으나 아직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우며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가 완전하고, 느껴지며, 만져질 수 있는 교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더 정확하게 정의하고 확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회개한 자의 구원을 향한 모든 활동은 바로 이러한 개념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회개의 성사(혹은 세례)에서 영에게 뚜렷이 느껴지는 은총이 내려오지만, 그 후에는 의식에서는 숨겨지기는 해도 실제로는 떠나지 않는다는 점 — 그리고 이는 마음이 정화되어 은총이 눈에 띄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재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 일에서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부들뿐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성 디아도코스, 포티키의 주교와 성 마카리오스 이집트인만큼 이를 잘 묘사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에 대한 그들의 증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은총은 성사를 받는 순간부터 사람 안에 거하게 되며 그와 함께 머무릅니다. "은총은," 성 디아도크가 말하길, "우리가 세례(혹은 고해)를 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는다…" 또한: "신성한 은총은 거룩한 세례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사랑,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징들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될 것을 보증한다." 성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은 끊임없이 사람과 함께하며, 어릴 적부터 그와 결합하여 뿌리내리고, 마치 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고 분리될 수 없는 무언가처럼, 그와 마치 하나의 존재가 된 것처럼 됩니다."

이 은총은 성사를 통해 처음 내재할 때,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복락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성 디아도크가 말하길, "완성에 이르는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열렬히 사랑한다면, 영혼이 온전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달콤함을 충분히 맛보게 하십니다. 이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고의 궁극적인 상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은총은 처음에 대개 그 빛으로 영혼을 비추어, 영혼이 그 빛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은총의 비춤은 처음에 세례를 받는 이들이 7일 동안 입는 흰 옷으로 비유된다. 이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님은 회심한 성인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빛이 입혀지고, 다른 이에게는 비둘기가 내려오며, 또 다른 이에게는 얼굴이 환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간 모든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어머니와 그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엘리사벳의 태 안에서 주님의 선구자가 뛰놀았던 것과 유사한, 자신의 영이 뛰노는 듯한 느낌으로 이를 체험했다. 시메온과 요한(7월 21일)의 행적에는, 그들이 세례를 받고 수도자의 모습을 취한 형제 곁에서 빛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빛은 7일 동안 지속되었다. 수녀 서원을 받은 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작용을 느낀 그들은 이를 영원히 간직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즉시 은둔의 삶으로 물러났는데, 이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행 방식이었다.

그 후 은총은 구원받는 자에게서 그 모습을 감추는데, 비록 그 안에 머물며 작용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며, 심지어 종종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하고 있다고 여길 정도여서, 그로 인해 슬픔과 탄식, 심지어 약간의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성 디아도크스는 앞서 인용한 구절들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후 오랫동안 이 생명을 주는 선물의 귀중함을 숨기시니, 이는 우리가 비록 모든 미덕을 온전히 실천하더라도, 아직 성스러운 사랑을 마치 습관처럼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하려 하심이며, "그러나 수행을 계속하는 동안, 신학을 탐구하는 영혼 안에서 그 영혼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은밀한 작용을 일으키시니, 첫째로는 무지에서 지식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기쁨으로 신성한 관상의 길로 인도하시고, 둘째로는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의 지식을 허영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함이다." 다른 곳에서는 은총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한다. "은총은 먼저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영혼의 자발적인 반응을 기다리며,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으로 마음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다시 영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 사이 악마의 화살이 영혼의 깊은 감정에 닿도록 내버려 두어, 영혼이 가장 열렬한 의지와 가장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은혜가 영혼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더라도, 적들에게 승리가 오로지 영혼에게만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은밀한 방식으로 영혼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로 그 때문에 영혼은 그때 낙담과 슬픔, 비천함, 심지어 적당한 절망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는 "사람 안에 머무르는(이미 주어지고 은사된) 하나님의 은총의 힘과, 신실한 영혼이 큰 수고를 통해 받아들일 자격을 얻게 되는 성령의 은사는 — 오랜 기다림과 인내, 유혹과 시련을 통해 얻어진다"고 말하며,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바는 은총을 처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내재와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은총은 큰 오래 참음과 지혜, 그리고 신비로운 마음의 시험을 통해, 이미 오랫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수련해 온 사람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말한 대목에서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는데, 이들은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그 후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채 고통받아야 했으며,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은밀함과 감지할 수 없음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위로로 인해 희미해지기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위로들이 나중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주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말이다.

마침내, 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날 때—그 지속 여부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인도하는 지혜에 달려 있는—**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 안에 거하시며**, 눈에 띄게 그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와 연합하며 교제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수행과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든 준비, 나아가 태어나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현세에서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 마카리우스에 따르면, 오랜 시련 끝에 은혜의 역사가 마침내 온전히 드러나며, 영혼은 성령의 완전한 입양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마음에 맡기시며,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디아도쿠스에 따르면, 시련을 겪은 사람은 이미 온전히 성령의 거처가

됩니다. 은혜는 어떤 지극히 깊은 감정 속에서 그의 온 존재를 비춥니다. 이 작용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거나 수반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지혜'에 대해 말하며, 지극히 지혜로운 시라크가 아름답게 묘사하고 설명하였다: *"처음에는 그와 함께 굽이진 길을 걷다가,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인도하심으로 그를 괴롭힐 것이니, 이는 그의 영혼이 확신을 얻고 그분의 규례로 시험을 받을 때까지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곧은 길로 그에게 나아가 그를 기쁘게 하고, 그분의 비밀을 그에게 드러내실 것이다."* (시라 4:18-21).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녀가 그와 함께 굽이진 길을 걸을 것이기 때문이다 — 즉, 가혹하고, 엄격하며, 자비 없이, 마치 어느 정도 사랑이 없는 듯이 말이다.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 하느님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과 언제나 닥칠 준비가 된 사나운 적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또한 디아도쿠스에 따르면, 은총은 아이에게서 몸을 숨기는 어머니와 같이 작용하는데, 아이는 그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찾기 시작하고, 특히 낯선 얼굴들이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를 괴롭히실 것이며 — 오랫동안 그를 이 은밀하고 엄격한 훈련 속에 머물게 하실 것이다. 성 마카리오에 따르면, "은총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리고 사람의 유익에 맞춰 모든 것을 주재하시며, 그를 수많은 유혹과 신비로운 마음의 시험 등에 처하게 하신다.

그의 영혼이 확신을 얻고, 그분의 법칙들로 그를 시험할 때까지—즉, 그를 검증되고 충실한 자로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할 때까지 말이다. 성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지가 수많은 유혹을 겪은 후 성령께 기쁨을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인내롭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영혼이 어떤 일로도 성령을 모욕하지 않고, 은혜로 모든 계명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께서 다시 그에게로 곧장 돌아오시니,* 즉 공개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마치 이별과 오랜 만남의 공백 끝에 다시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때, 성 마카리오에 따르면, 그 안에 은혜의 일 이 온전히 드러나며, 그는 완전한 양자로 받아들여진다; 혹은 디아도쿠스에 따르면, 은혜가 어떤 깊은 감정 속에서 그의 온 존재를 비추며, 그는 온전히 성령의 거처가 된다: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친다(시 4:7);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안에 거처를 마련하신다(참조: 요 14:23).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의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요한복음 16:22).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로마서 14:17). 성 마카리우스는 사람 안에서 빛나는 빛이 온 내면을 꿰뚫어, 그가 온전히 이 달콤함과 기쁜 감정에 잠기게 되어, 넘쳐흐르는 사랑과 스스로 관상하는 은밀한 성사들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영혼은 불타오르며," 성 디아도크가 말하듯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사랑으로 육신을 떠나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며, 마치 이 세상의 삶을 전혀 모르는 듯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비밀들—신성한 지혜의 비밀, 경배받으실 삼위일체, 구원의 건축과 그 실현, 죄와 미덕의 신비, 이성적·물질적 피조물에 대한 섭리,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신성한 질서에 대한 신비들을 그에게 열어 보이시리니, 이는 성 이삭 시리아인이 시메온에게 보낸 서신에서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거룩해지면… 그때 비로소 피조물에 대한 영적 인식이 느껴지며, 그 안에서 성 삼위일체의 신비와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경외할 만한 시선의 신비가 빛나고, 그때 그는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얻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배우지도, 탐구하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관상하며, 새 세상의 신비를 관상하는 기쁨을 만끽한다. 이러한 완전한 깨달음은 성령을 영접함으로써 오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그 세계, 질서, 혹은 관조의 영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영혼의 베일을 벗기시고, 그 영혼을 그 영원한 세상으로 끌어올리시며, 그곳의 모든 경이로운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해지니, 성사를 통해 회심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그와 하나가 되어, 처음에는 그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온전한 달콤함을 맛보게 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임재를 그에게서 감추어, 마치 혼자서처럼 수고와 땀, 당혹감, 심지어 넘어짐 속에서도 행동하게 내버려 둔다; 마침내 이

시련의 기간이 지나면, 그 안에 분명하고, 실효성 있게, 강력하고, 실감 나게 임재하신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한 번에 온전히 내주하지 않는 이유, 혹은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교제의 승리가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만 그에 대항하여 더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은총의 완전한 내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 회심한 사람의 내적 구조로 눈을 돌려보자. 죄는 사람을 지배하고, 그의 주의력과 모든 열망, 그리고 모든 힘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 죄의 영향 아래 행동하는 사람은 온 존재를 죄로 물들이고, 자신의 존재 모든 부분과 모든 힘을 죄가 속삭이는 대로 활동하도록 길들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강요된 이 활동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이미 본성적인 것으로 변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게 되며, 따라서 변함없고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허세는 지성과, 이기심은 욕망과, 정욕은 마음과, 모든 시도에는 자기중심성과 타인에 대한 일정한 적대감이 서로 얽혀 버린다. 이처럼 자신의 의식과 의지, 영혼의 능력인 이성·의지·감정, 신체의 모든 기능, 모든 외적 행위, 행동, 대인관계, 규칙 및 관습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온전히 죄, 즉 자기중심성, 정욕, 자기만족에 휩싸여 있다. 성 마카리우스에 따르면, 타락으로 인해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마치 인간의 온전한 형상을 지닌 것처럼 묘사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외적인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이며, 따라서 죄는 자신의 각 부분으로 우리 본성의 해당 부분을 입혀 놓았다: 이성은 이성으로, 의지는 의지로 하는 식으로, 우리 본연의 힘들의 활동을 억누르고는 그 대신 자신의 비자연적인 활동을 본연의 활동인 양 가장하며, 그 사이 인간을 '바로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확신 속에 가두어 둔다. 이 어둠 속에서, 죄의 압제 아래, 사탄의 영역에는 회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머물러 있다.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 처음에는 각성을 통해, 그다음에는 회심의 과정을 통해 — 사람을 두 부분으로 갈라놓고, 이 이중성을 깨닫게 하며, 부자연스러운 것과 자연스러워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여, 신과 같은 본성이 온전한 빛 속에서 드러나도록 모든 부자연스러운 것을 배척하거나 정화하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이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결심 속에서 사람은 아직 의식과 의지에 의해서만, 그 안에 자리 잡은 비자연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그것을 거부하고, 기대하며 갈망하는 자연성에 매달렸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전한 존재로서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즉 죄로 물든 상태이며, 영혼에서는 온 힘을 다해, 육체에서는 모든 기능을 통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욕이 작용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 욕망과 쾌락을 동반하며 원하고 선택되고 행해졌으나, 지금은 원하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혐오하고 짓밟고 쫓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사람은 마치 악취 나는 시체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자신의 어느 부분이 정욕적인 악취를 풍기는지 지켜보며, 때로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내뿜는 온갖 악취를 맡아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에 이른다.

이처럼, 사람 안의 참된 은혜로운 삶은 처음에는 단지 씨앗이자 불꽃일 뿐이다. 그러나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 사방에서 재로 덮여 있는 불꽃… 그것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촛불과 같다. 의식과 자유의지를 통해 사람은 하느님께 매달렸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시어, 성 안토니우스와 마카리오스 대성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자의식적이고 자유의지적인 힘, 즉 이성과 영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선하고, 구원받았으며,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 밖의 모든 부분은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으며, 새로운 삶의 요구에 순종하기를 원치도 못하고 아직 순종할 수도 없다. 이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할 줄 모르고, 여전히 옛 방식대로 사고하며; 의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원할 줄 모르고, 여전히 옛 방식대로 원하며; 마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느낄 줄 모르고, 여전히 옛 방식대로 느낀다. 몸도 마찬가지이며, 그 모든 기능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의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힘, 즉 이성이나 영으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몸 전체가 여전히 부정하다.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하시며 이 유일한 부분과 연합하시지만, 그 외의 모든 부분은 불결한 채로 그분 밖에 남아 그분과 분리되어 있다. 비록 그분이 온전한 인간을 온전히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인간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다가 그가

정화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분의 완전한 내주하심을 드러내신다. 성 그레고리 시나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우리의 본성이 성령을 통해 더러움으로부터 보존되지 못하고, 예전처럼 순수해지지 않는다면,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그리스도와 한 몸과 한 영으로 연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성령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결합하는 힘이, 은혜의 새 옷에 낡은 정욕의 누더기를 덧대어 채우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없으니, 거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혜가 온전히 그 안에 부어질 수 없으니, 그 그릇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 보물을 헛되이 낭비하고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빛과 어둠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어떤 조화가 있겠는가?* (고린도후서 6:14-15).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계명 준수를 제시하십니다. — 물론 모든 계명을 말하는 것이며, 달리 말하면 모든 면에서 올바른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올바른 힘을 갖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올바른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힘에 스며든 불의함을 배척하거나, 죄성과 정욕을 떨쳐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포함시킬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된다*"(요일 1:6-7). 이 어둠은 정욕의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성 요한은 같은 구절들에서 이 어둠 대신 '사랑이 없음'과 '세 가지 정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요한일서 2:10-11, 16). 반면 빛은 미덕의 빛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후 요한은 '빛'을 '미덕'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정욕의 어둠이 쫓겨나고 덕행의 빛이 비추었을 때, 즉 덕행이 우리 존재에 깊이 각인되어 마치 우리 본성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힘을 감싸고 스며들어 정욕을 쫓아내고 밀어내어 더 이상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 이전까지는 신과의 교감이 너무나 은밀하고 알려지지 않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없고, 우유부단하며, 불완전하거나, 자기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의 영과 연합하셨을 때, 갑자기 그 영을 온전히 채우시거나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신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즉 우리 본성의 힘과 뒤섞여 아직 그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고 반대되는 미덕으로 대체되지 않은 정욕들에 달려 있습니다. "죄악된 정욕은," 성 안토니우스 대성인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선행에 대한 사랑』 제1권. 선한 도덕과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 제150장). 만약 회개자가 지향해야 할 주된 목표가 완전한, 빛을 발하는, 복된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며 작용하는 정욕들, 미덕의 각인 부족, 그리고 힘의 그릇됨이라면, 회개자가 회심과 참회 직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정욕을 근절하고 미덕을 각인하는 것, 즉 한마디로 자기 수양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모든 그릇된 것을 제거하고 옳은 것을 받아들이거나 심으며, 죄악된 정욕과 습관, 결점—심지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들까지—그리고 다른 그릇된 것들—마치 용서받을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까지—쫓아내고, 미덕과 선한 품성, 규칙,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올바름을 내면화하되, 그러나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정욕에 맞서 온 힘을 다해 행동하되, 그와 동시에 마음의 눈을 하느님께 향하게 하는 것 —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든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 원리이며 , 이를 통해 고안된 규칙과 행해지는 업적의 올바름과 그릇됨을 가늠해야 한다. 이 점을 가능한 한 완전히 확신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실천적 오류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 의도는 성 이삭 시리아인이 성 시메온 기둥수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온전히 묘사되어 있다. 성 마카리오스 대성인의 제1 및 제2 담화에서도 이를 참조하라). 이 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이들은 수행과 수련의 겉모습에만 머물고, 다른 이들은 선한 행실과 그에 대한 숙련에만 그치며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며, 또 다른 이들은 곧바로 관상(默觀)으로 향한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에는 제 순서가 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씨앗 속에 들어 있다가, 나중에는 전적으로가 아니라 주로 이쪽이나 저쪽 부분으로 발전하지만, 그럼에도 점진성은 피할 수 없다. 즉, 외적인 수행에서 내적인 수행으로, 그리고 그 양쪽에서 관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이 점을 확신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한 지침, 즉 수도 생활의 정신과 체계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조금 뒤로 돌아가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언제나 모든 일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며 진정으로 선한 행실로 풍성해지겠다고 서원한 사람 앞에 다시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 보자. 이를 결심한 그가,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어느 부분도 그럴 능력이 없는데, 이 분야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죄는 영으로는 미워하지만, 육체와 영혼은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 죄에 동조하고 집착한다. 선이나 하나님의 뜻은 영으로는 사랑하지만, 육체와 영혼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이를 외면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행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열정으로 드린 서약에 충실하기로 결심하고, 자각한 필요성에 따라 선을 행하기로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모든 선한 일(그에게는 악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에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요구에 저항해야 하며,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은 그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는 악한 일에서 자신에게 저항하고 선을 행하도록 자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기 저항과 자기 강요**는 열정 속에서 다시 태어난 두 가지 양상으로, 마치 수행의 정형화된 시작과도 같다. 이 둘은 모두 인간이 자기 자신과 벌이는 투쟁, 즉 위업을 이룬다.

따라서 회개하여 돌아선 사람은 새로운 삶의 첫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위업과 투쟁, 수고에 들어서며,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는 그토록 본질적인 문제여서, 모든 성인들이 미덕으로 가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로 인정하는 것은 그 고통스러움과 어려움이며, 이와 반대되는 안락함은 거짓된 길의 징표이다: *천국은 힘으로 빼앗는 자들이 차지하며, 애쓰는 자들이 그것을 얻는다*(마태복음 11:12). 투쟁 속에 있지 않고, 고행 속에 있지 않은 자는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견디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히브리서 12:78).

*그러*므로 열심 있는 자는 자기 수양과 자기 저항을 통해 자기 개선을 이루거나, 태초의 순결함으로 자신을 되돌려, 이를 통해 더 빨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자격을 얻고자 열심을 냅니다. 분명히, 그가 이를 더 열정적으로, 더 꼼꼼하게, 더 박진감 있게 실천할수록, 자신의 목표를 더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된다. 이는 곧, 자신을 향해 더 증오하고 적대적으로 맞서며, 더 가혹하고 단호하게 행동할수록, 더 빨리 순결의 경지에 이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적 완전함의 높은 경지에 오른 모든 성인들이 회심 직후, 가장 엄격한 자기 희생의 수행—금식, 철야 기도, 땅에 엎드려 눕기(*편집자 주),* 은둔 등—을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의식적으로 선택되고 은총에 의해 고무된 조치로, 더 빠른 성숙을 위해 취해진 것이었으며, 실제로 성숙은 곧 찾아왔다. 반대로, 안일함, 멈춤, 자기 연민은 비록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영적 성숙의 과정을 늦추었고, 언제나 늦추고 있다.

그러니 결심한 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열심을 내고, 더욱 단호하게 위업을 수행하라. 또한 그 위업은 가장 단호하고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위업들 중에서도 어떤 것은 정욕을 죽이고 미덕을 심는 데 더 크게 기여하고, 어떤 것은 덜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고통스러운 상태가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면, 하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 일을 질질 끌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우유부단함, 부주의, 나태함은 큰 걸림돌이다.

결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힘써라; 이는 인간으로서의 태도이다. 그러나 이때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비록 자기 자신에 대한 무자비한 열정이 회심한 자에게 구원이 되기는 하지만, 그 노력과 업적의 성공과 결실, 즉 정욕을 정화하고 참된 선한 성품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용기의 열매는 그 용기 아래서 씨를 뿌리고 익어가지만, 그것 자체나 그것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내가 심었고 아폴로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린도전서 3:6).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듯이, 오직 그 은혜로만 보존되고 성숙할 수 있다. 사도는 " "라고 말하듯이, *"너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참조: 빌 1:6). 새로운 생명의 첫 씨앗은 자유와 은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성숙은 바로 이 두 요소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서약하며 회개하는 자가 "오직 주님께서 저를 굳건히 하시고 확고히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후의 모든 시간 동안에도 그는 매 순간 기도를 통해 말하자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주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식과 의지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원하시는 바와 행하시는 바를 모두 주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이루시게 하시기 위함이다(빌 2:13). 사람이 스스로 자신 위에나 자신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그 순간은, 참되고 영적이며 은혜로운 생명이 소멸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엄청난 수고를 기울여도 참된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보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결과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그것들은 정체와 일탈이며, 종종 악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허영과 자만, 즉 마귀가 심어 놓고 그와 동화되게 하는 마귀의 씨앗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 안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섞여 들어와 그것을 훼손하므로, 정신을 차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은혜는 먼저 자기 의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정화하고 가라지를 거르게(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 — 편집자 주) 될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시 너희가 무지하기 때문이냐?"*(고린도후서 13:5 참조)라고 가르칩니다. 회개의 성사나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며, 만물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한복음 15, 5).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믿고 간구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정욕에서 정화하시고, 우리 안에 미덕을 새기시며, 치유되는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본질적인 마음가짐이다. "주님, *주님께서 정하신 운명으로*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저는 수고하며, 위선 없이, 일탈이나 왜곡 없이, 깨끗한 양심에 따라 제가 깨닫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겠나이다!" 내면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자를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왕처럼 역사하신다. 그에게 스승은 하나님이시며, 기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원하시는 분이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나무의 씨앗이자 심장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반드시 물질적이면서도 영적인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이 울타리는 지도자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개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 즉시 그분의 직접적인 인도 아래 들어가 그분께 받아들여진다. 누가 처음부터 이를 마땅히 행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속하고, 차분하며, 믿음직스럽게 완전함으로 인도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이들은 매우 적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결심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겼고, 그분께 받아들여져 인도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마리아, 피베의 바울, 프라키아의 마르코 등이 그러합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단호하게 맡긴 한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마리아는 정욕과의 모든 치열한 투쟁 속에서 자신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정욕은 그 고행 덕분에 사라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는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행했다. 예를 들어, 깨달음을 구하면 그것을 얻곤 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속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다른 이들은 모두 경험 많은 스승들의 눈에 보이는 지도 아래서 성숙해 간다. 오직 하나님만이 회개하는 자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믿음에 서 있는 회개자는,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도자 신부에게 자신을 맡겨야 한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일이 없기 때문이며, 이는 대다수가 지닌 결점이다.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성숙해져야 하며, 그 경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닿을 지점이 없다. 마치 붙잡을 수 있는 매듭이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조건 없이는 구원의 일을 스스로 시작하려는 초보자는 필연적으로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이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치게 한다. 성 안토니우스 대성인은 자신의 규칙이 옳은지 의문이 들자마자 즉시 "주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소서," — 하고 외쳤으며, 확신을 얻은 뒤 비로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영적 삶에 발을 들여놓는 이는 마치 평범한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주하는 것은 자만일 것입니다… 아니요, 여기서는 지위나 학식—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극도의 필요도 없이,

지도자를 구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직접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만입니다. 실로, 완전함으로 이끄는 일은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느님께 속하지만, 영적 지도자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들려지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순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치시며, 정화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홀로 남겨진 사람은 극심한 위험에 처하게 되며, 더 나아가 거의 아무런 결실도 없이 한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며 방황하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 수행과 훈련, 그리고 그 순서를 알지 못하면, 그는 단지 을 반복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고쳐만 할 뿐이다. 종종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들이 정체되고, 냉담해지며, 열정을 잃는다. 그러나 그에게 닥치는 가장 큰 위험은 내면의 혼란과 사탄의 유혹에서 비롯된다. 영적 여정을 시작한 이의 내면에는 악취 나는 증기처럼, 정욕과 잘못된 자기 발로, 타락한 힘에서 비롯된 안개가 자욱하다. 이는 누구에게나, 이전에 겪은 타락의 정도에 따라 더 짙거나 옅게 존재한다. 그런데 이 안개 속에서 어떻게 사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안개 속을 헤매는 이에게는 종종 작은 풀밭 한 줄기도 숲이나 마을로 보일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영적 활동을 막 시작한 이에게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많은 것이 보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눈뿐이다. 게다가 그는 환자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질식시킬 것입니다. 의사들조차 자신의 몸은 스스로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큰 위험은 사탄에게서 온다. 사탄 자신도 주로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자이므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이성을 따르는 자들을 더 좋아한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사탄은 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파멸로 이끈다. 그리고 이 점 하나만으로도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거나,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을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이성과 마음을 믿지 않고, 반대로 감정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타인의 판단에 맡기는 사람은, 설령 악마가 위험하고 파멸적인 것을 심어놓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의 경험과 이성이 그 유혹을 간파하고 경고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를 두고 그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그래야만 끊임없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계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오직 자신만을 믿거나 자신의 이성만을 의지하고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 사탄은 상상력이나 몽상하는 힘을 통해 각인된 온갖 그럴듯한 유혹으로 그런 사람을 온갖 궤도로 이끌다가, 마침내 완전히 파멸시켜 버린다.

이처럼 매우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고려할 때, 신앙의 초보자는 지도자를 두기로 동의하고, 그를 선택하여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지도자 아래에서는 마치 지붕과 울타리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 지도자는 신실하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언제나 참된 지도자가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도자는 누구든, 지도받는 자가 온 마음과 믿음으로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간, 항상 정확하고 올바른 지도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러한 헌신자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 그러면 주님께서 지도자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당신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결심을 굳힌 회개자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것은 규칙이다. 규칙이란 어떤 활동—내적이든 외적이든—에 대한 정의나 방법, 양식, 그리고 제도이다. 규칙은 방향을 제시하고 활동의 전 과정—시작, 시간, 장소, 진행 방식, 끝—을 정해 준다. 예를 들어, 독서는 수행의 한 형태이다. 규칙을 통해 어떤 책을 읽을지, 언제 읽을지, 얼마나 읽을지, 어떻게 준비할지, 어떻게 시작하고 계속하며 끝낼지, 읽은 내용을 어떻게 다룰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 기도, 묵상 및 기타 활동들도 마찬가지이다. 분명히 규칙은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마치 몸과 같이 그 행위의 외피를 구성한다. 규칙은 우리의 모든 힘과 활동의 모든 결과에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행동도 그에 해당하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의 필요성은 그 자체로 명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힘이 익숙하지 않은 완전히 새롭고 색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행동에 자신을 익숙하게 하고 그 안에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마치 신병에게 자세를 취하는 법이나 총을 잡는 법 등을 가르쳐 주듯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규칙 없이는 힘이 길러지지 않을 것이며, 올바른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도에 대한 규칙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고, 금식에 대한 규칙이 없는 사람은 금식할 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도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할 줄 모를 것이며, 결과적으로 수고와 땀을 흘려도 그 삶은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우리의 활동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규칙 없는 삶은 평탄하고, 차근차근하며, 질서 있게 발전할 수 없다. 아이가 기형이나 혹이 생기지 않도록 포대기로 감싸듯이, 모든 영적 활동 역시 규칙으로 감싸여야 한다. 그래야만 온 삶이 그 규칙 아래에서 균형 있고 질서 정연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어떤 활동도 무지 때문에 다른 것들과 동떨어져 전체 질서를 해치는 방향으로 흐르거나, 예를 들어 금식처럼 그 자체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린 식물은 똑바로 서서 자라도록 받쳐 주거나 튼튼한 나무에 묶어 줍니다. 규칙 없이 제멋대로 자라는 것은 훈련받지 못하고 서툴러, 어떤 일은 할 줄 모르고, 어떤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며, 또 어떤 일은 제대로 하더라도 때와 장소에 맞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도 적지 않다. 규칙이 없으면 버팀목이 없는 것과 같아, 필연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게 된다. 그런 사람의 모든 활동은 기지, 판단력, 그리고 의지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 원칙들에 의지할 수 있을까? 기지를 항상 유지할 수는 없고, 판단력은 훈련되어야 하며, 게다가 항상 민첩하고 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 무뎌지기도 한다; 욕망은 또 누가 끊임없이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규칙이 없으면 누락, 실수, 멈춤이 불가피하다. 반면 규칙이 있으면 한 가지뿐이다. 하고 싶든 싫든 정해진 대로 행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멈춤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제멋대로인 성향과 제멋대로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성향—을 달리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처럼 규칙을 따르고 아버지의 지도 아래, 열심을 내며 자기 절제와 자기 저항에 힘쓰거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투쟁 속에 머무는 자는, 자신의 정욕을 뿌리 뽑고 미덕을 쌓음으로써 날마다 완전함에 다다르고 순결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 완전함으로의 상승은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땀 흘려 수고하지만 마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총은 은밀히 그 일을 이루어 간다. 인간의 시각, 즉 눈은 선한 것을 갉아먹는다. 인간 자신에게 남는 몫은 오직 하나, 곧 자신의 타락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완벽을 향한 길은, 내가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자각으로 향하는 길이며, 이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영의 통회, 즉 자신의 불순함에 대한 병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혹은 그와 같은 끊임없는 회개이다. 회개의 감정은 진정한 수행의 뚜렷한 표징이다. 이를 외면하고 피하는 자는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에는 회개가 있었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회개는 함께해야 하며 성장과 함께 성숙해져야 한다. 성숙해가는 이는 자신의 타락과 죄성을 깨닫는 데서 성숙해지며, 통회하는 회개의 감정에 더욱 깊이 빠져든다. 눈물은 성장의 척도이며, 끊임없는 눈물은 조만간 정화될 징표이다. 이것이 마땅한 일임은, 우리가 타락 속에 있고, 추방당해 고향의 화로에서 멀어져 있으며, 게다가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추방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고 탄식하듯이, 정화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자도 슬퍼하고 탄식하며, 눈물 속에서 순결의 낙원으로의 귀환을 찾아야 한다. 게다가 수련하는 자는 매 순간 게으름과 반항심, 생각과 욕망, 정욕과 죄(비록 의도치 않았더라도)와의 투쟁 속에 있다. 이 모든 것이 매 순간 그의 마음의 순수함을 흐리게 하며, 그 안에 오직 불순함과 죄악, 하나님께 거슬리는 것만이 담겨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는 자신을 눈앞에 누워 있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후각을 괴롭히는 악취 나는 시체와 같다고 여긴다. “네 죄를 네 앞에 두어라,”라고 안토니우스 대성인은 말한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 하느님을 바라보아라.”(스키트 수도원 성자전) 마지막으로, 초심자들이 경험 부족, 무지, 미숙함,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 자주 겪는 넘어짐과 실수는 무거운 짐처럼 그의 양심에 짓누르며, 어쩌면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방심 속에서 저지르는 죄는 더 크기 때문이다. 그는 걷는 법을 배우다 넘어지는 아이와 같다. 그리고 넘어짐은 정화를 요구하므로, 결과적으로 통회와 회개, 눈물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매일, 심지어 매 순간마다 회개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수행자의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초심자는 불타는 열정과 빠른 열의를 가지고 가장 단호한 수행에 매진하지만,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힘과 도움에서 기대하며, 성공을 기대하되 그 성공을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에, 아버지의 지도 아래 규칙을 지키며 항상 가장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러한 정신과 체제 속에서 수행자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 즉 정욕을 뿌리 뽑는 일, 혹은 자신의 본성에서 부자연스러운 정욕의 불순물을 정화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죽음처럼 굳건한 **열정이** 있지만**,** 아무리 강한 열정이라도 정해진 목표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 설명에는 수행에 착수하는 이를 위한 모든 규칙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그 필요성이 밝혀진 바로 그 규칙들을 정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를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할 사람은 전체 이론을 이끄는 지도자이며, 지도받는 개인에게 적용함에 있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규칙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회개자이자 수행자의 상태에 대한 사고를 확립할 것이다. 그 안의 영은 성사 안에서 받아들인 은총의 작용으로 부활하고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영은 오직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치유된 일부일 뿐이다. 이는 온전히 썩어가는 신체의 일부가 치유제를 받아들인 것과 같다. 그에 반해, 겉으로는 그의 영혼이 모든 능력에서, 육신이 모든 활동에서, 그리고 사람 자신이 모든 대외적 관계에서, 죽은 정욕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작용하는 살아있는 정욕으로 넘쳐흐르고 흠뻑 젖어 있다. 이 저작들의 주된 과제는 정욕을 그 모든 뉘앙스에서 죽이고, 본성을 본래의 순수함으로 회복시켜, 정화되는 과정에 따라 내면의 은총이 마치 지혜로운 점진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사람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스며들듯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곧바로 수립되어야 할 규칙들의 전체적인 체계가 드러나며, 이를 이끌고 그려내는 데 필요한 기준선이 보인다. 따라서:

1)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수고를 기울일 대상도, 그 수고를 감당할 수단도 없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끄*지 말라. 열심을 내면 더 큰 일에 열심을 내라. 주어진 것과 얻은 것을 지키라. 이 얻은 것이야말로 보물을 사기 위한 화폐이다. 그것이 사라지면 모든 일도 사라질 것이다. 전쟁 중에 자신의 진지를 온갖 방법으로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러해야 한다.

2) 우리 본성의 힘과 서로 얽혀 융합된 정욕을 떼어내야 한다. 이 융합은 화학 성분들의 결합과 유사하므로, 이를 분리하는 방법도 화학적 분해 방법에 적용해야 한다. 바로, 한 원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되어 강제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제3의, 제3자적인, 외부의 원소와 접촉하게 하는데, 이 원소와는 이전의 원소보다 훨씬 더 강한 친화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것을 묶고 있던 원소는 사라지고, 이 새로운 원소와 결합하여 그와 함께 새로운 모습을 얻게 된다. 이를 적용하여, 정욕에 사로잡혀 억압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갇혀 있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활동에, 그것들이 가장 밀접한 친화력과 본성적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접목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에 접목되고 마치 그것에 스며들듯이, 그에 비례하여 정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자연스러운 존재의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힘들에 부과되는 행위나 활동의 원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수행하면서, 그 실천들과 우리 본성의 힘들과 친화적인 그 내면의 은총의 영을 간직할 때, 사람은 점점 더 그 영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그 영의 불꽃은 이러한 방식으로 내면으로 들어갈 자유를 더 많이 얻음에 따라, 자연스러움이 더 넓게 펼쳐질수록 불순물을 더 빨리 태워버릴 것이다.

3) 이 두 가지 요점은 수행자의 긍정적 행위의 체계, 즉 자기 절제의 수행을 모두 아우른다. 만약 선을 위해 경멸하고 버려진 정욕이 우리 본성 안에서 가만히 있거나 평화롭게 사라진다면,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욕은, 부분적으로는 죄의 본성적인 완고함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죄의 강력한 뒷받침—그 근원인 마귀로부터든, 마귀와 동질적인 세상의 원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부터든—때문인지, 평화롭고 유순한 복종을 용납하지 않으며, 심지어 떨어져 나가 마치 분리된 것처럼 보일 때조차 다시 일어나 자신의 원래 자리, 지배적이고 구속적인 그 자리를 되찾으려

하므로, 그 활동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는 결코 없으며, 반드시 그와 병행하여 정욕들에 맞서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정면으로부터 대항하며, 그들 자신과 그 근원 및 조력자들 안에서 싸워 이겨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칙들을 정립하는 것은 내적, 즉 영적 투쟁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될 것이며, 이는 전체적인 개요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저항의 위업이다.

따라서 모든 규칙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기본 원칙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즉, 내면의 생명력을 지키고, 열정과 열의를 유지하며, 한편으로는 쇠약해진 힘을 되살리는 데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욕을 죽이거나 억누르는 행위나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음 세 가지 요점으로 요약되어야 한다:

1. 내면의 열정의 정신을 지키는 규칙,
2. 선한 일에 힘을 발휘하는 규칙, 즉 자기 절제, 그리고
3. 정욕과의 싸움, 즉 자기 저항을 위한 수련.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정신을 간직하는 것에 대하여

계명을 지켜야 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를 위한 자연스러운 소망도, 열정도, 열심도 없습니다. 회개 속에서, 상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서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 안에 이 불이 타오릅니다. 바로 이 불이 계명을 실천하는 힘이며, 오직 이 불만이 이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기초라면, 열심의 영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힘입니다. 그 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향한 부지런함, 열의, 준비성, 활기가 있습니다. 그 영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멈추고 무너집니다. 영의 생명이 없으면, 영은 식어가고 죽어갑니다. 거기서 선한 행실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들은 겉모습만 선할 뿐, 힘과 영으로는 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불을 지피러 오신 그 불이며, 불의 혀 모양으로 내려오신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피시는 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열심의 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내려놓으러 왔노라"*(눅 12:49). 사도는 *그 영을 끄지 말라고* 명하시며(살전 5:19), 자신에 대해 *"열심을 다하여 좇아가노라"*(빌 3:14)고 증언합니다. 또한 성부들 은 이를 '추구', '제안', '열심', '정성', '영의 온기', '불타오름', 그리고 단순히 '열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열심의 지대한 중요성과 큰 의미를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 수행자의 최우선 과제는 경건한 삶의 원천인 이 열심과 정성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방법과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열정은 그것이 생겨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하여 마음속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열망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의 내적이며 보이지 않는 상승은 은혜로운 **각성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는 단호한 서약으로 끝을 맺었다. 이 상승 과정에서는 가장 엄격한 점진성이 지켜졌다. 온전히 외부에 살며, 그 때문에 **'외적인'** 사람이라 불리는 죄인은 임한 은혜로 인해 자기 **내면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목격하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계기이며, 그 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통해 그는 조금씩 첫 번째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며, 그의 왕이자 주님 앞에 엎드려 영원히 그분의 종이 되겠다는 맹세를 드린다. 그러므로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간직하고자 하는 자는: 가) 내면에 머물러야 하고, 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며, 다) 마치 사다리의 계단을 오르듯 주님의 보좌 기슭까지 올라간 그 감정과 생각 속에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수행자가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수련이자, 위업이며, 행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면에 머무름

암탉이 곡식을 발견하고 새끼들에게 이를 알리면, 새끼들은 어디에 있든 날아가 어미에게로 모여들어, 부리가 있는 그 지점을 향해 부리를 모읍니다. 마찬가지로, 신성한 은총이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할 때, 그의 영은 의식을 통해 그곳으로 스며들고, 그 뒤를 따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힘이 따라갑니다. 여기서 '내면 머무름'의 법칙이 도출된다: 자신의 의식을 마음속에 두며, 집중을 통해 영혼과 육체의 모든 힘을 그곳으로 모으라. 내면 머무름은 본질적으로 의식을 마음속에 가두는 것이며, 마음과 영혼의 힘을 그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수단, 즉 실천이자 위업이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를 낳고 전제하므로,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마음속에 갇힌 자는 집중된 자이며, 집중된 자는 마음속에 있는 자이다.

마음속의 의식을 중심으로 모든 힘—지성과 의지, 감성—을 집중시켜야 한다. 지성을 마음에 집중시키는 것은 **주의력이며**, 의지를 집중시키는 것은 **경각심이고**, 감성을 집중시키는 **것은 명료함이다**. 주의, 명료함, 절제 — 이 세 가지 내적 행위는 자기 수렴을 이루고 내적 머무름을 작용하게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은 내면에 머물고,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외부에 머문다. 이러한 정신적 활동에 이어, 이에 상응하는 신체 기관들도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즉, 주의력에는 **눈의 시선을 안쪽으로** 돌리는 것이, 명료함에는 온몸의 근육을 **가슴** 쪽으로 긴장시키는 것이, 절제에는 니키포르가 표현한 대로 체액에 의한, 일종의 이완을 유발하는 움직임이 하체에서 심장으로 올라오는 것을 억제하고, 육체의 쾌락과 안식을 억제하는 것이 따른다. 이러한 신체적 행위는 정신적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로 작용하며, 정신적 수단을 돕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이 수단 없이는 정신적 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 수양을 통한 내적 머무름의 모든 실천은 다음과 같다. 잠에서 깨어난 첫 순간, 자신을 자각하는 즉시 내면으로 **내려가** 심장, 즉 이 가슴 속으로 들어가라. 그 후, 마음의 주의력을 집중하고, 시선을 그곳으로 돌리며, 의지의 경각심, 근육의 긴장, 감각의 명료함, 육체의 쾌락과 안식을 억제하며, 의식이 마치 제자리인 듯 그곳에 자리 잡고, 끈적거리는 것이 튼튼한 벽에 달라붙듯 굳게 붙을 때까지 이를 **계속하라**; 그리고 나서 의식을 사용하는 동안 그곳에 끊임없이 머물러라. 자주 같은 집중 수행을 반복하여 이를 재개하고 공고히 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매 순간 이완되거나 깨지기 때문이다.

이 내적 머무름과 집중은 사색 시의 심화나 생각('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록 그것과 매우 닮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후자는 오직 마음의 근원에 머물러 다른 힘들은 방치된 채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반면, 전자는 마음의 중심, 즉 모든 움직임의 근원인 심장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보다 더 낮고 깊은 곳에 있다. 또는 모든 것이 이미 그 위에서, 그 눈앞에서 이루어지며, 때로는 허용되고 때로는 금지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부터 저절로 명백한 것은, 내면적 거주( )가 그 진정한 모습 그대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는 조건이며, 따라서 진정한 자유와 이성, 나아가 진정한 영적 삶의 조건이라는 점이다. 이는 마치 외부 세계에서 요새를 점령한 자가 도시의 지배자로 여겨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 행함과 모든 종류의 위업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이지 않고, 수행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눅 17:21)고 하셨으며, 이어서 한 가지 영적 실천에 대해 *이렇게* 명하셨다. *"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마 6:6). 이는 모든 성부들의 해석에 따르면 마음의 성소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영적인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 수련하는 사람은 **'내적인' 사람이라** 불립니다**.**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질투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1) 결집된 자는 불타오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인데, 마치 흩어진 광선들이 한 지점으로 모이면 강한 열기를 발산하며 불을 붙이듯이 말이다. 실제로 결집에는 언제나 열기가 동반된다. 니키포르가 말했듯이, 여기서 영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기쁨에 차서 춤춘다.

2) 정신을 집중한 사람은 잘 조직된 군대나 묶인 연약한 갈대 다발과 같이 강하다. 이는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할 준비와 힘을 의미한다. 정신을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약하여 쓰러지거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3) 정신을 집중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바라본다. 중심에 있는 자는 모든 반경 방향으로 바라보며, 원 안의 모든 것을 균등하게, 마치 한 번에 보는 것처럼 보지만, 중심에서 벗어난 자는 오직 하나의 반경 방향으로만 본다. 정확히 마찬가지로, 내면으로 정신을 집중한 자는 자신의 **힘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또한 다스릴 수 있다. 영의 불타오름은 힘이자 통찰력이며, 이 둘이 결합하여 진정한 열심의 영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직 내면에 머물기만 하면, 열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면에 머무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그러니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많은 탐구를 거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로 꼽히는 이유는 영적 삶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 완성도는 이를 낳는 세 가지 정신적 행위와 세 가지 육체적 행위의 완성도에 달려 있는데, 바로 눈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는 마음의 집중, 몸을 긴장시키는 의지의 경각, 그리고 육체의 쾌락과 안식을 물리치는 마음의 절제이다. 마음은 잡념으로부터, 의지는 욕망으로부터, 심장은 편애와 정욕으로부터 정화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비록 불완전하고 미숙하며 끊임없이 지속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내면 머무름이다.

이로부터 저절로 명백해지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내적 머무름을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혹은 더 정확히 말해 단 하나의 수단이다: 앞서 언급된 세 가지 행위를 그 이중적 결합 속에서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 또는 영혼의 힘을 외부로 돌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육체의 활동을 제거하라. 즉, 마음과 감각, 의지와 근육, 마음과 육체를 제거하라. 감각은 외부의 인상들로 산만해지고, 이성은 생각들로, 근육은 사지의 이완으로, 의지는 욕망으로, 육체는 안식으로, 심장은 무언가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함으로써 산만해진다. 따라서, 마음을 생각 없이, 감각을 산만함 없이, 의지를 욕망 없이, 근육을 이완 없이, 심장을 사로잡힘 없이, 육체를 쾌락과 안식 없이 유지하라. 따라서 내면 머무름을 위한 조건이자 동시에 수단은, 영혼에서는 생각과 욕망, 그리고 마음의 사로잡힘과 싸우는 것이며, 육체에서는 이를 묶어두는 것이고, 그 뒤를 이어 외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자아를 죽이는 데로 향할 모든 후속 수행들 역시 내적 안주에 이르는 수단이다.

바로 이 때문에 성부들의 가르침(절제론, 마음 지키기)에서 내적 삶은 항상 수행적 투쟁과 뗄 수 없는 연관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명상은 투쟁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는 특별한 영적 실천이며,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 영적 투쟁, 성경 읽기, 신에 대한 묵상, 기도 등이 모두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수행자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항상 내면으로 들어가 거기서부터 행동하십시오.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네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 이삭 시리아인이 말합니다. 실제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간 자는 보이지 않고 상상조차 할 수 없으나 의식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는, 광대한 성전과도 같은 또 다른 어떤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잠잠해져야 하며, 실제로 잠잠해지기 때문이다. 부르는 은총의 첫 번째 충동과 함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도 인간과 무관하게,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린다. 그 후 그의 시각은, 내면에 머무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에 맡겨지며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인간이 결단력과 열정을 향해 상승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를 재현하는 것과 같으며, 열정을 보존하고 불태우는 두 번째 수단이다.

이는 영적 세계의 모든 구조를 의식과 감각 속에 담아두는 데 있다. 마치 방에 들어선 사람이 그 방의 전체적인 배치와 함께 방 전체를 의식 속에 간직할 때 그 방을 '보는' 사람이라 불리는 것처럼, 자기 내면이라는 문턱에 들어선 사람도 그 구조 전체를 자신의 의식에 각인시킬 때 다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마음이 영적 세계의 구조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의식에 각인시키거나, 의식을 통해 그 안에 잠기어, 그곳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머물 때 이루어질 것이다.

영적이며, 보이지 않고, 사고의 세계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하는 이 세계의 모든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될 수 있다: 삼위일체로 경배받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탱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신 후 그들을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시며, 이는 모든 것이 성취될 때, 즉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부활과 심판 후에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니, 어떤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다른 이들은 낙원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28).

이것은 진정으로 존재하고, 현재 일어나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틀이다. 여기에는 신적 계시의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가능한 모든 것과 실재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며, 여기에 존재한다. 이것이 또한 신앙고백문의 내용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전능, 구원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 네 가지—죽음, 심판, 천국, 지옥. 바로 이 주제들을 그리스도의 성자 티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아기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명한다.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구조를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며, 즉 의식의 밝은 명료함까지 도달하거나, 그 구조 속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그것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 마치 자신에게 강요된 것처럼 만들어야 하며, — 그 구조와 완전히 융합하여, 자신의 내면이나 몸에서 그것을 느끼지 않고서는 의식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는 것, 마치 공기를 흔들지 않고는 손을 움직일 수 없거나, 빛의 자극을 받지 않고는 눈을 뜰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은, 마치 자신을 둘러보는 시선이 자신을 주변의 모든 사물과 알려진 규칙적인 비율 속에 자리 잡은 채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 구조 속에 자신을 확립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오른손 안에 확립되어, 그분께 붙들려 있음을 느끼는 것, 그분께 꿰뚫어 보이며 드러나 있음을 느끼는 것, 혹은 바실리우스 대교황이 말하듯, 네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구원의 집 짓기에 참여하는 교회 일원으로서 자리 잡는 것 — 샬롬의 말에 따르면, 네가 그리스도의 전사이며 그 도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 심판의 죽음 속에 확고히 서며, 시선을 때로는 천국으로, 때로는 지옥으로 돌리는 것.

이러한 확립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목표이다. 이를 추구하고,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신적인 수고로, 매우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복잡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모든 것은 이 대상들을 마음으로 단순하면서도 집중하여 바라보는 데 있다. 자신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이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자,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 죽음 속에서 심판대에 서 있는 자로 바라보라. 그 결과로 천국을 얻거나 지옥에 삼켜질 것이다. 모든 노력은 처음에는 오로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데만 집중된다. 한 번이라도 이를 꿰뚫어 보는 데 성공한 사람은 그 후로 더 쉽고 자주 보게 될 것이며, 이를 끊임없이, 더 집중적으로, 더 부지런히 실천할수록, 끊임없이 보는 경지, 즉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죽음과 심판의 순간에, 지옥이나 낙원의 문턱에 서 있는 상태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인 세계에 서 있는 것, 즉 그 안에서 자신을 체감하는 것과 같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느낌으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마치 신하가 왕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태; 구원의 **가정을 세우심에** 대하여, 마치 군인이 대열에 서 있거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거나, 장인이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동료처럼, 혹은 가족 안에서 한 식구처럼 있는 것과 같은 상태;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마치 매 순간 선고를 기다리는 범죄자처럼; 천국과 **지옥** 앞에서, 한쪽에는 불길로 끓어오르는 심연이, 다른 쪽에는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진, 아주 좁은 널빤지 위에 서 있는 자처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이 세상에서 떠나 의식과 마음으로 다른 세상에 머물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거나 그 나라를 자기 안에 받아들였다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간절한 탐구의 대상이다.

그 조건은 당연히 내면 안에서의 머무름이며, 이와 끊을 수 없는 연결 속에서 ‘ ’가 시작되고, 성숙하며, 완성되므로, 끊어지지 않는 내면 안에서의 머무름이 형성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에 서 있는 상태도 형성된다; 반대로, 다른 세계에서의 서임이 공고해질 때에만 내재적 머무름이 확실해진다.

실천 자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대상들을 가능한 한 자주 응시하도록 스스로를 독려하고,

끊임없이 바라보려는 열망을 갖는 데 있다. 의식이 깨어나는 첫 순간부터 내면으로 들어가, 온갖 노력을 다해 이 질서와 체계 속에 자신을 녹여내라. 처음에는 어떤 한 대상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이 각인될 때까지 응시한 다음, 다른 대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모든 대상을 차례로 훑어보면, 그때서야 그 전체 구조를 한 순간에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이들은 이 수행을 날짜별로 나누고, 어떤 이들은 하루 중 시간대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명상은 점심 식사 후에 하는 등, 각자가 편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정신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인식하는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법칙만은 지켜야 합니다. 자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바꾸면 이 수행의 모든 결실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변화하는 관점이 단지 수단일 뿐이며, 목표는 그 전체 구조 속에서 변함없이 머무르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를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길에서 멈춰 선 것이며, 방금 막 나아가기 시작했거나 지향하기 시작한 것을 이미 얻었다고 상상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에 익숙해지면, 항상 그것을 통해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는 수고로 얻은 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 다른 것을 더 빨리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색이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 없는 통찰, 즉 그 대상에 대한 믿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반면, 사색으로 향하는 마음의 움직임은 의도치 않은 우발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수는 있으나, 권장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자각하는 즉시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이 일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골라 하루 종일 또는 그 이상 끊임없이 되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디로 가리요?* (시 138:7);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법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히 9:27); *"진노의 날을 위해 진노를 쌓고 있다..."*(롬 2:5);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나니"*(행 4:12) 등; 죽음, 십자가, 또는 최후의 심판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준비하여, 가능한 한 자주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 이러한 주제들을 강렬하게 묘사한 책과 기사를 골라 읽고, 기회가 닿으면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주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이지 않고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심판, 죽음에 이르는 사건들, 죽은 친척들과 그들의 상태를 더 자주 떠올리고, 자신이 임종에 임한 모습을 상상하며, 장례식을 지켜보는 것. 기도 중에 이러한 주제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영혼에 더욱 강렬하게 작용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순서를 따를 때, 인상은 매우 빠르게 각인된다. 다만 기도 중에 각인된 주제를 나중에 내버려 두지 말고, 가능한 한—비록 며칠에 불과하더라도—그 주제를 마음에 품고 다니며, 때로는 성경을 쓰거나, 때로는 읽거나, 때로는 대화를 나누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들로 그 인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각인시키기 위해 마음속으로 집중하여, 한 순간에 모두를 바라보거나, 적어도 한 번에 하나씩 차례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자주 '신조'를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모든 진리를 한 순간에 훑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고와 집중, 노력은 곧 소망하는 목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다만 느슨해지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비록 결실이나 능력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실천해야 한다. 결실 없이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그리스도 왕국의 포도원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이에게는, 그의 꾸준한 수고와 인내심 있는 열정 덕분에 단 한 순간에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다른 세상에 대한 통찰은, 열정적인 영혼에게 진정한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그 열정의 불꽃을 지피고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너는 이곳 사람이 아니라,"라고 황금입이 말하길, "다른 세상에서 온 자이니, 따라서 마치 그 세상에서 활동하듯이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반면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치 어떤 기준이나 본보기를 눈앞에 끊임없이 두고 있는 것과 같아서, 길을 벗어나거나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누군가 지성으로만 이 대상들을 바라볼 때에도 유익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대상들을 감각으로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그것들은 순식간에 그 사람의 열정을 극도로 고조시킵니다. 모든 성부들은 이를 "미래의 가시(독침, 바늘 — *편집자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감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죄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시라흐가 가르치기를, *"네 마지막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영원토록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시라흐 7:39)*고 한다.* 선지자 다윗은 *"나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두었으니, 흔들리지 않으리라"*(시 15:8)*고* 증언한다. 마카리오스 대성인은 그가 직접 말하듯, 지옥의

불을 기억하며 마음이 메말라 있었고, 다른 이들은 죽음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울었다. 그리고 성부들께서 이러한 주제들과, 그것들이 인간의 영을 얼마나 강하게 긴장시키고 열정을 불태우는지와 관련하여 남기신 말씀이 수없이 많다. 이를 깨달은 자는 자신이 큰 곤경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극한 상황에서는 긴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결심을 이끌어낸 감정 상태에 머무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질투심을 불태우기 위한 준비와 조건, 수단에 불과하다. 가장 단호한 질투심과 확고한 열정을 되살리는 것은, 처음에 죄악의 잠에서 깨어난 후 그 경지에 이르렀던 바로 그 감정과 생각을 재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깨어났을 때, 너는 자신이 극심한 위험에 처해 죽어가고 있으며, 큰 궁핍과 고통 속에 있음을 보았으니, 이제 그와 같은 위험과 절박함을 다시 불러일으켜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려움 속에 머물며, 마치 모든 것이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고 안심하지 않도록 하라.

그때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경멸하며, 감각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다른 선들을 선택했으니, 지금도 모든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여라. 그것을 바라보고 사랑하기 위해 힘써라.

그때 네가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을 버렸으니, 지금도 스스로를 누구보다 낮게 여기라. 온갖 경멸과 모욕을 받을 각오를 하라.

그때 네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으니, 지금도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마라; 모든 것을 버리고 헐벗은 채로 남을 각오를 하라.

그때 너는 자기 연민을 짓밟았으니, 지금도 가장 가혹한 십자가를 지고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도록 자신을 고양시키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라.

그때 네 삶을 되돌아보았으니,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 인식을 깊이 하라; 복음의 계명을 깊이 헤아리고 네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보라; 그곳에 씨앗이 심겨졌으니, 이제 그것을 키워 나가라.

그때, 죄 많은 삶을 깨닫고 네가 스스로를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자로 여기며 통회했으니,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변명할 여지 없이 서 있는 것을 멈추지 마라; 어떤 변명이나 아첨하는 회피도 없이 항상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네 의지와 욕망과 이성을 미워하라; 수치심과 절망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라; 자신을 심연 위에 매달려 있는,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보라. 그때 네가 영적으로 일어나 주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며,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기 고문까지 감수하며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서약했으니, 이제 이렇게 부르짖으라: “나는 모든 정죄와 고통을 받을 만하나,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조차 아끼지 않으신 그분께, 나는 나의 구원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제게 생애 내내 주님께 구원을 구하며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인들의 중보 덕분에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그분들의 중보를 통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그분들의 중보로 제 운명을 다스리시어, 저를 구원하소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영적 생명 활동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감정이 있을 때야말로 영적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며, 약해져 가는 영적 생명을 다시 불태워야 할 때는 이 감정들 중 어느 하나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부들은 모두 이 감정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전체를 통틀어, 때로는 부분별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떤 감정 속에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는 일반적인 조언이자 계명이다. 이 감정들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찾지 않거나, 그 부재를 안타까워하지 않는 자는 냉담해진 자이며, 따라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는 멈춰 서 있으며, 어쩌면 영원히 그 상태, 즉 죽음 속에 머물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면으로 들어간 후,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확고히 하고 영적 삶의 활동을 불태우기 시작하거나, 우선 생각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감각을 통해 드러나는 상태들을 체험하도록 하라. 이 모든 것이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올바른 태도이다. 이를 위한 본질적이고 불가피한 준비는 내면으로

머무름과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전자는 사람을 영적 세계로 인도하고, 후자는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기에 유리한 영적 분위기 속에 사람을 놓아준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준비 작업을 수행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굳어졌다"고 불평한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에 익숙해지지도 않으며,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자리 잡지도 못하고, 마음의 자리를 알지도 못한다면 — 어떻게 올바른 생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마음을 제자리에서 밀어내고 생명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영적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을 세우는 사람은 불안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다른 감정들을 새겨 넣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이를 위한 지침으로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저러한 상태를 간결하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주여, 주의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상처들이 썩고 썩어 들어갔나이다..."* (시 37:6); *"만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롬 8:32); *"그가 심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등등 — 이를 활용하여,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같은 내용을 자주 반복합니다.

모든 감정이 항상 쉽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나, 때로는 이 감정이, 때로는 저 감정이 솟아나며, 이러한 감정이 빨리 솟아오르도록 그러한 마음의 기세를 활용해야 한다. 그것은 아침 시간에 쉽게 드러나거나, 그 시간에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그래야 그 후 하루 종일 그 감정과 함께할 수 있다. 마음을 열고 기도를 드리며,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바가 무엇이든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라. 그 감정을 성경 말씀으로 감싸고 반복하라. 이렇게 행하면 항상 그 감정에 머물게 될 것이며, 곧 영적인 행위에 익숙해질 것이다. 다만,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때로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행동해야 하고, 때로는 어떤 감정이 있을 때 다른 감정으로 그것을 밀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에 따라 때로는 한 가지 감정에 더 기울여야 하고, 때로는 다른 감정에 주로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거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영적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영적 삶의 완성을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누군가 기도에 임할 때마다, 내면을 가다듬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선 후, 그것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재현하기 시작해야 한다. 처음에는 적어도 마음속으로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말이다. 이를 위해 그 모든 것이 담긴 어떤 기도를 선택하여 확고히 하고, 자주 주의 깊게 다시 읽어보는 것이 좋다. 시편에는 기도가 무수히 많으므로,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딱 한 가지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들은 성 골로티우스의 열두 가지 낮 기도와 열두 가지 밤 기도에 간결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들을 마음에 새기는 데 있어,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열심의 불꽃을 지피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자명하다. 단 하나만 있어도 그 불꽃은 이미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는 각각의 감정이 열심의 구성 요소이며 그 안에서 각자의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투의 영은 단순하고 단일하지만, 모든 것을 아우른다. 시작되는 감정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며, 끝나는 감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낮추어 맡기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는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비롯되고, 후자는 믿음에 따라 뒤따르는 모든 것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감정이 어떤 것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과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들께서도 이에 대해 다양한 지침을 주시거나 서로 다른 설명을 하십니다. 대부분은 단편적인 권고 형태로 제시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라(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라 — 편집자 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모든 일에서 자신을 책망하라, 자신의 죄를 직시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의지하라. 이 모든 것의 총체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님께서 정하신 운명에 따라 저를 구원하소서. 저는 제 힘껏 수고하겠나이다"라는 말과 함께 하느님께 매달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영적으로 스스로를 그러한 감정에 두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이미 준비된 안전한 피난처를 가진 것입니다.

어떤 감정에 머무르는 것은 영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을 가진 자는 이미 자기

내면, 곧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항상 주의력을 활동하는 부분에 두고 있으며, 그것이 마음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자기 내면에 있는 자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내면에 머무르며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감정을 일깨우는 조건인 것처럼, 반대로 영적 감정은 내면 머무름을 전제로 하며, 그 탄생으로 인해 내면 머무름을 불러일으킨다. 이 둘의 종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적 삶이 성숙해진다. 어떤 감정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그 감정에 묶여 있고, 감정이 없는 사람은 공중에 맴돈다. 그러므로 내면에 더 성공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비록 긴장된 자기 몰입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감각으로 서둘러 나아가라. 그렇기에 오직 정신적 집중만으로 머물고자 하는 자는 헛수고를 하는 것이다: 단 1분만 지나도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린다. 이 후로 학자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았어도 끊임없이 몽상에 빠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그들이 오직 머리만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각 감각의 규칙과 특성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는 개별적인 가르침과 성찰, 독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부들(성인들)의 글에서는 그것들이 대부분 단편적으로, 격언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그들이 추구했고 조언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이룬 자에게는 단 하나의 규칙만이 남는다: 내면에 머물며, 마음속에 은밀한 교훈을 간직하라. 그들이 말하는 은밀한 교훈이란, 영적 세계의 어떤 대상을 뵙는 것, 혹은 성경의 말씀이나 교부들의 말씀, 또는 기도의 말씀을 통해 영적 감각이 일깨워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하나님의 기억, 죽음의 기억, 죄의 기억, 자기 절제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 즉, 이 대상을 인식하고 내면에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 말하라. 예를 들어: *"내가 어디로 가리요?* (시 138:7) 또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와 같도다"*(시 21:7). 이와 같은 것, 즉 주의와 감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은밀한 교훈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나 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성된 후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마음속의 제자리에 서서, 삶의 모든 영적 활동을 훑어보고, 그중 한 가지에 머물러 그곳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 혹은 더 간결하게 말하자면: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속에서 은밀한 교훈을 실천하라.

이 방법을 통해 주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열심의 영은 그 진정한 구조 속에서 유지되며 때로는 은은하게 타오르고 때로는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길이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곧은 길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반대로, 비록 모든 일을 다 한다 해도 이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열매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내면이나 이 영적 수행을 향하지 않는 자는 그저 일을 질질 끌 뿐입니다. 물론 이 수행은 특히 초반에 지극히 어렵지만, 그만큼 직설적이고 결실이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지도하는 사제는 가능한 한 빨리 제자들을 이 수행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심지어 이 수행에 먼저 외적인 것을 도입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와 함께 모든 면에서 병행해야 하며,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는 이 수행의 씨앗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회심'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지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외적인 모든 것도 기꺼이, 신속하게, 성숙하게 진행될 것이다. 반대로, 이것이 없다면 썩은 실처럼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해야 한다는 규칙을 명심하라. 이 과정에는 큰 제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질이 담긴 이 내적 행위가 아니라 외적 규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외부에서 내부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서 열정의 불을 지피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으로 남아야 한다.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면 오랫동안 땀을 흘려도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육체적 활동의 특성 때문이다. 육체적 활동은 더 쉬우므로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내적 활동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밀어낸다. 그러나 전자를 물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집착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점차 물질화되어 차가워지고, 더 경직되며, 결과적으로 내적 활동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결국 처음에는 마치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내적인 것을 잠시 미루게 되지만 — 때가 오리라 생각하며 — 나중에 뒤돌아보니 그 시기를 놓쳤음을 깨닫고, 준비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전혀 대처할 수 없게 되어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외적인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적인 것의 버팀목이며, 둘은 함께 나아가야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선권이 첫 번째에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으로 해야 하며,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마땅하다 — 편집자 주). 이 둘은 각자의 고유한 가치에 따라 상호 복종해야 하며, 서로를 억압하거나 강제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영적·육체적 힘을 선(善) 안에서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수행 지침

이처럼 내면, 즉 영 안에서 은혜로운 생명이 타오르고 더욱 활활 불타오를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의 열정과 성실함으로 인해, 은혜는 그를 감싸고 그 성화시키는 힘으로 스며들어, 점점 더 그를 자기 안으로 흡수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으며, 멈춰서도 안 된다. 이것은 아직 씨앗이자 발판일 뿐이다. 이 생명의 빛이 더 멀리 퍼져 나가, 영혼과 육체의 본성을 스며들어 그 본질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흡수함으로써, 들어온 비자연적인 정욕을 떨쳐내고 그들을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즉, 그 빛이 자신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힘에 퍼져 나가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힘들은 모두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물들어 있으므로, 마음에 들어온 가장 순수한 은총의 영은 그 불순함으로 인해 가로막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그 힘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영과, 그 영이 그 힘들을 통해 흘러 들어가 마치 병든 부위에 붙인 반창고처럼 그 힘들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매개체를 확립해야 한다. 분명히, 이 모든 매개체들은 한편으로는 신성하거나 천상의 기원을 가진 성격과 속성을 지녀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연스러운 구조와 목적에 있어 우리의 힘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그들을 통해 흘러가지 못할 것이며, 힘들도 그들로부터 치유력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수단들은 그 기원과 내적 성질에 있어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체로 볼 때, 그것들은 행동, 수행, 수고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으니, 이는 그것들이 '행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들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혹은 그분 이후 성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영적 힘들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순결과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행위와 수행을 선택하시고 지시하셨는지 찾아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수행과 행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지 에서 수련한 성인들의 행적을 몇 가지 훑어보기만 하면, 그것들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금식, 노동, 기도, 은둔, 세상으로부터의 은거, 감정을 다스리는 것, 성경과 성부들의 저서 읽기, 교회 출석, 잦은 고해와 성체성사, 서원과 그 밖의 경건함과 선행의 행위들 — 이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때로는 특정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며, 거의 모든 성부들의 행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공통된 이름인 '수행'은 다소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 즉 그 유익함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이 수행과 수련 각각에 적절한 위치를 지정하고, 어떤 강도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수행을 적용해야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행동, 나아가 모든 활동의 흐름을 보여 주겠다. 모든 행동은 자유로우며, 의식과 자유, 즉 영 안에서 싹트어 영혼으로 내려와 그 힘—이성, 의지, 감정—을 통해 실행을 준비한 뒤, 정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다른 외부적 상황에서 육체의 힘을 통해 실행된다. 외부적인 행위는 대부분 반복되지 않고, 주목받지 않으며, 타인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흔적 없이 지나간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마치 법과도 같이 영구적인 규칙, 풍속, 관습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관습들의 총체는 그러한 관습들이 확립된 사회나 사람들의 집단의 정신을 구성한다. 그 기원이 선하다면 관습도 선하고 사회도 선하다. 기원이 나쁘다면 관습도 나쁘고 사회도 나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이 관습과 풍속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인 자는 필연적으로 그 노예가 되며, 노예 생활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말 한 마디 없이 복종한다.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관습과 정신에 아부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낯선 채로 들어온 자조차도 필연적으로 그 정신에 물들게 되어 곧 다른 이들과 동화되어 버리니, 이는 이러한 관습들이 우리 안에 죄악적이고, 정욕적이며, 신을 대적하는 정신을 형성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관습들 자체가 바로 살아 움직이는 정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정화하고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성한 은총은 무엇보다 먼저 그 모든 활동의 근원을 제시하는데, 즉 의식과 자유를 하나님께로 돌림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치유를 이끌어내고, 이미 치유되고

거룩해진 근원에서 비롯된, 그들에게 주어진 또는 그들 안에서 일깨워진 그들 자신의 활동을 통해 온 힘을 다해 치유를 이루어 나가게 한다. 이 근원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보존되는지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된 의미에서 치유하는 힘을 지닌 어떤 행동들이 그 근원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행동들을 제멋대로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들이 강요받지 않은 의식과 자유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뜻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부터 기대되는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면의 모든 구조와 함께 열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이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부들의 저술에 명시된 수행들을 정해야 한다. 먼저 영혼의 능력들을 위해—이는 영의 성소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의 가장 가까운 수용자이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육체의 능력과 기능을 위해—이는 영혼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의 수용자이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모든 내적 활동의 총체적 배출구이자 그 활동의 무대이자 통합된 형태인 외적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이 모든 수행은 내적 구조 전반과 함께 열정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달구어 주도록 지향되어야 한다.

영혼 안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 이성, 의지, 마음, 혹은 성부들이 말하듯, 이성적 힘, 욕망적 힘, 감정적 힘이다. 성스러운 수행자들은 이 각각에 대해, 그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은총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치유적 수행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이론에 따라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검증된 수행법 중에서 어떤 것이 어떤 힘에 해당하는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성에 대해서는:
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부들의 저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인들의 행적을 읽고 듣는 것.
b)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진리를 간결한 요약본(교리문답)으로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c)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연로한 이들에게 질문하기.
d) 상호 대화와 우호적인 협의.

의지에 관하여:
가) 현재 규정된 모든 수행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
b) 모든 교회 규약에 복종할 것.
c) 시민적·직무적·가족적 질서에 복종할 것. 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 자신의 삶의 운명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e) 선행을 행할 때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
e) 서원을 이행하는 데 열심인 영에 대한 순종.

마음에 새길 것:
가) 거룩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나) 교회에서 정한 기도 — 가정 기도 규칙.
c) 성십자가, 성화 및 기타 성스러운 물품과 사물을 사용하는 것.
d) 교회가 제정하고 항상 권고하는 신성한 관습을 준수하는 것.

몸은 본성상 순수하다. 그러므로 그 욕구에서 부자연스러운 것을 제거하고, 본성에 맞는 것을 굳건히 다지거나, 다시 말해 본성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 외에도 육체는 영혼의 조력자이자 영원한 친구가 되어야 하므로, 본성의 경계로 돌아가는 것 외에도,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영혼과 정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육체의 각 기능에 맞는 특정한 수행이 정해지는데, 이는 우리 육신의 치유를 위한 수단이자 영적 유익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포함된다:
a) 감각에 관해: 감각 전반, 특히 청각과 시각(신경

기능);
b) 입과 혀의 관리 (근육적);
c) 노동과 수공업을 통한 육체의 활력(근육 기능);
d) 절제와 단식(복부);
e) 수면과 깨어 있는 시간의 절제 (복부);
e) 신체의 청결 (복부);

전반적으로 신체와 관련하여: **피로**(근육적), **분노**(신경적), 그리고 **쇠약**(복부적).

이러한 수련을 통해 몸이 서서히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가, 활기차고 튼튼해지며(근육적), 맑고 깨끗해지며(신경적), 가볍고 자유로워져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적합한 도구이자 성령을 모실 합당한 성전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우리의 외적 존재는 우리 행위의 흐름이자 그 활동의 무대이며, 동시에 그 시작과 끝을 이끄는 계기이자 지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역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며 심지어 통치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내면의 힘이나 성품의 활동 양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그것들이 변화함에 따라 외적인 모습 또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그 활동의 무대는 가족, 직책, 인간관계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모든 의무적인 규칙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악한 관습을 예외 없이 모두 버리는 것;

b) 그 다음으로, 유익한 것은 남기고 해로운 것은 제거하여 인간관계를 정화하고, 사람들과의 행동이나 대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

c) 새로운 질서에 따라 직무에 따른 업무를 재배분하거나, 해당 업무가 있다면 새로 제정하는 것;

d) 가정 업무의 질서를 정하거나, 더 나아가 가정을 영적 생활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

모든 외적인 것들, 즉 사물, 사람, 일들이 마치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수행과 고행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며, 마치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붙인 반창고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장 순수하고 완전하며 엄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가장 적합한 장소는 바로 **금식입니다**. 이는 성사(聖事)를 통해 우리의 정화와 성화를 위해 정해진, 성교회(聖教會)의 가장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이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성사 영접을 위한 준비로서 모든 영적 수행을 완전한 형태로 실천하는 것;

2) 고해 성사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영하는 성사 자체를 받는 것.

이는 온전한 인간을 아우르며, 영과 혼과 육체를 모두 양육하는 수행입니다. 이를 **영적 삶을 함양하고 강화하는 은총의 수단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모든 수행과 수련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고찰을** 제시한다. 모든 수행자와 수련자는 이러한 수행과 수련을 자신에게 특별히 적용된 형태로 실천해야 하는데, 이는 그 자체 로 볼 때 그것들은 아직 규칙을 위한 재료이자 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규칙은 시간, 장소, 인물, 상황 등에 따라 이를 적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는 모든 수행자가 스스로, 혹은 지도자나 영적 아버지의 지도에 따라 모든 수행에 대해 수행해야 하며, 그 후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제자리를 부여하는 포괄적인 **영적 수행** 또는 **영적 실천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이 체계는 규칙과 마찬가지로, 서면 지침서에서는 기초적인 내용 외에는 충분히 명시될 수 없다. 여기서는 각 수행을 설명하고, 그 목적과 일반적인 실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모든 위업과 수행이 내적 활동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로 신체적 구조와 관련된 외적 행동의 규칙들이 내적 안주와 영적 의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경건한 수행은 영적 생명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영적 삶에서 내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수행들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 성부들은 이를 육체적·물질적 활동, 혹은 활동적인 삶이라고 부르며, 내적인 것은 관조적인 삶, 또한 영적·지적인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내적인 것이 비록

외적인 것이 그에 맞추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내적인 것을 잊거나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외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도 옳지 않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나아가야 하며, 따라서 모든 일을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영적 의식에 이른 뒤, 생명 활동, 즉 영적 체계를 일깨우고, 그 후 네가 세운 수행의 질서대로 나아가라.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수행과 위업, 행동이 비록 영적 삶을 보존하고 형성하며 본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 본질적으로 필요하고 완전히 적합하더라도, 그 힘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그것들이 영을 창조하거나 본성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흐르며 마치 우리 힘으로 향하는 통로를 얻는 우리의 힘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세심함과 열정, 끈기를 다해 실천하되, 네 자신의 성장은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여 그 실천들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원하시고 아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내시게 하라. 수행에 임할 때, 그 수행 자체에 주의와 마음을 두지 말고, 마치 부수적인 것인 양 그것을 지나쳐 버리라. — 준비된 그릇처럼,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라. 성 그레고리 시나이트는 "은총을 얻는 자는 믿음과 근면함을 통해 얻지, 근면함만으로는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고 은총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참된 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영을 세우고 바리새인을 만들어 냅니다. 은총은 그들의 영혼이다. 그들은 자기 비하와 통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키우고 간직하는 만큼 진실하다. 그것들로부터 오는 포만감과 만족감은 은총을 거짓으로 사용하거나 무지한 태도를 나타내는 징표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급한 긍정적 실천, 즉 자기 절제의 원리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이다. 이제 각각을 개별적으로, 비록 대략적인 윤곽만이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 삶의 정신에 따라 영적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수행들

힘은 세 가지이다: 이성, 의지, 감정. 이에 따라 수련법도 나뉘어진다. 이 수련법들은 직접적으로 힘의 함양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로 인해 영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타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후자는 전자의 척도가 되며 절제 역할을 하는데, 전자는 후자에 복종하여 침묵 속의 순종에 이르거나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이어진다.

가) 지성을 형성하는 수련, 영적 활력과 생명의 고취

기독교적 마음의 형성은 모든 신앙의 진리를 그 마음속에 그토록 깊이 각인시켜, 그것들이 그 마음의 본질을 이루게 하거나, 그 마음이 오로지 그것들로만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이 무언가에 대해 사유할 때, 모든 인식 가능한 것을 그 진리들에 비추어 판단하거나 검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그것들 없이는 사소한 움직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를 '건전한 말씀의 본'이라 칭하였다(딤후 1:13).

이와 관련된 수행이나 실천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부들의 저술, 성부들의 행적을 읽고 듣는 것, 그리고 경험 많은 이들과의 상호 대화와 질문이다.

읽거나 듣는 것도 좋지만, 서로 대화하는 것이 더 좋고, 가장 경험이 풍부한 이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다음은 교부들의 저술과 성인들의 행전이다. 그러나 행전은 초보자에게, 교부들의 저술은 중급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자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원천이자 진리를 얻는 방법으로서, 분명히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열정의 정신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종종 한 구절만으로도 하루가 아니라 오랫동안 영을 뜨겁게 달구기도 합니다. 어떤 성인의 행전들은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열정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며, 성부들의 글 중에는 마음을 크게 일깨워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좋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적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영을 북돋우기 위해 간직해 두는 것이다.

종종 내적, 외적 실천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서둘러 무엇이든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달려가 대화를 나누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대화는 거의 항상 결실을 맺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독서가 있다. 하나는 평범하고 거의 기계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필요에 따라, 조언을 받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방식도 무익하지는 않다. 다만, 그것은 이미 확고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더 적합하며, 그들은 마치 단지 반복할 뿐, 새롭게 배우지는 않는다.

영적인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과감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면 더 좋고, 많아야 두 명 정도면 됩니다. 반면,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헛된 대화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야 합니다. 독서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기 전에 마음속의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 읽는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은 갈망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읽는 내용을 주의 깊게 따라가며 모든 것을 열린 마음에 담아두어야 한다;

— 마음에 닿지 않은 부분은, 닿을 때까지 그 대목에서 멈춰야 한다;

— 당연히 읽는 속도는 매우 느려야 한다;

— 영혼이 더 이상 독서를 통해 양분을 얻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즉 배부르다고 느낄 때 독서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어떤 구절이 영혼을 깊이 감동시킨다면, 그 구절에 머물러 더 이상 읽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고, 성인의 행적을 다룬 책은 점심 식사 후, 성부들의 저서는 잠들기 직전이 가장 좋다. 따라서 매일 조금씩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이러한 독서를 할 때는 항상 마음속에 주된 목표, 즉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영을 일깨우는 것을 간직해야 한다. 만약 독서나 대화를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단지 미각과 청각을 헛되이 자극하는 것일 뿐, 공허한 수다에 불과하다. 이것이 지혜롭게 이루어진다면, 진리는 마음에 새겨지고 영을 북돋우며, 서로를 돕게 되지만, 올바른 방식에서 벗어나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리는 모래처럼 머릿속에 채워질 뿐이고, 영은 식어 굳어지며, 자만하고 허세를 부리게 된다.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진리를 연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서는 오직 한 가지만 요구된다.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논증이나 제한 없이, 오직 진리의 단일한 모습만이 마음과 하나가 될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다음을 정당하게 여길 수 있다. 모든 진리는 교리문답에 있다. 매일 아침 거기서 진리 하나를 골라 명확히 이해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영혼이 양분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하루, 이틀, 혹은 그 이상 그 진리로 양육하라. 다른 진리에도 똑같이 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어가라. 이 방법은 쉽고 널리 통용되는 것이다.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진리 하나를 묻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

분명히 이 법칙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 진리를 마음을 일깨우도록 새겨라.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리를 각인시키지도 않고 영혼을 자극하지도 않는 독서, 청취, 대화는 그릇된 것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오로지 호기심만으로 지나치게 많이 읽는 병으로, 머리로만 읽는 내용을 쫓을 뿐, 마음까지 닿게 하지 않고 마음의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는 창조하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파멸시키며, 언제나 허영으로 이끄는 '꿈꾸는 기술'이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야 한다. 진리를 명확히 깨닫고, 마음이 그 맛을 느낄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라. 성부들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억하라, 마음에 간직하라, 눈앞에 두라.

b) 의지를 단련하고 영을 북돋우기 위한 수행

의지를 단련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선한 성향, 즉 미덕들을 각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 온유, 인내, 절제, 양보, 봉사 정신 등 — 이 미덕들이 의지와 조화를 이루거나 의지와 하나가 되어 마치 의지의

본성을 이루게 하고, 의지로 무언가를 행할 때 그 미덕들의 자극에 따라 그리고 그 미덕들의 정신에 따라 행해지도록 하여, 즉 그 미덕들이 우리의 행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우리 행실 위에 군림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의 태도는 안전하고 견고하지만, 죄악된 태도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를 얻는 데는 수고와 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행위들 은 주로 의지의 주요한 약점, 즉 제멋대로인 태도, 불복종, 멍에를 견디지 못하는 성향에 대항하도록 지향됩니다.

이 병은 자신의 의지와 그 밖의 모든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치유된다.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형태의 순종 속에서 드러난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각자의 직분이나 지위에 따라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회의 규약, 시민적·가족적 질서의 요구, 섭리의 뜻에서 비롯된 상황의 요구, 열심 있는 영의 요구를 모두 분별과 조언을 바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로운 행위의 영역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것도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러니 단지 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의지를 형성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네가 처한 위치와 지위, 상황에서 네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의로운 일의 총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라.

모든 것을 명확히 파악한 후, 행해지는 모든 일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의 전반적인 개요와 순서를 정하되, 이 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모든 일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행하라.

그러므로 매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처리해야 할 일들을 나열해 보는 것이 좋다.

올바른 행위에 익숙한 이들은 결코 아무것도 미리 정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행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다.

이 모든 것은, 어쨌든, 단지 일일 뿐이다. 그 일들을 수행함으로써만 올바르게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선행의 정신을 굳게 지켜야 하며, 즉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한다. 자만심에 사로잡혀, 대담함을 넘어 건방짐에 이르러, 자기 만족이나 남의 눈치를 보며 행하는 자는, 비록 옳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의로움과 허세, 바리새주의라는 악한 영을 자신 안에 형성하게 된다.

올바른 정신을 품고 있다면, 법칙들, 특히 점진성과 지속성의 법칙을 명심해야 한다. 즉,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일단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다는 **당혹감**, 이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생각**, 이는 단계에 끝이 없기 때문이다; **오만한** 진취성,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위업.

최후의 경지는 선행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으로, 이때는 **법칙이** 더 이상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 경지에 가장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사람은 덕을 갖추고 실천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은총을 얻은 자이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더욱 성공적일 것이다. 무지나 미숙함으로 인해 저지른 실수를 다시 반복하거나 고쳐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흔히 말하듯, 책을 읽거나 깊이 생각하지 말고 경건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즉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모든 미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성격, 처지를 고려하여 주로 한 가지 덕행을 선택하고 그것을 변함없이 고수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탕이 되는 캔버스처럼 견고한 토대가 되어, 이를 바탕으로 다른 덕행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이는 의지가 약해질 때 구원이 되는 일로, 강하게 상기시켜 주고 곧바로 의욕을 북돋아 줍니다. 그 무엇보다도 왕께로 이끄는 자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하지만 이는 오직 행위에만 해당될 뿐, 마음가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음가짐은 영에 기초한 자체적인 내적 질서를 가져야 하며, 어떤 면에서는 의식과 자유로부터 독립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성인들이 인정하듯이,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며, 끝은 사랑이다. 그 중간에는 모든 미덕이 서로 연결되어 세워지는데, 비록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겸손하고 통회하는 회개와 죄에 대한 깊은 슬픔 위에 세워진다. 이것이 바로 미덕의 생명수이다. 각 미덕의 모습, 그 속성, 실천, 완성의 단계, 일탈 등은 별도의 서적과 교부들의 가르침에서 다루는 주제이다. 이 모든 것을 독서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선행은 의지를 직접 형성하고 그 안에 미덕을 각인시키지만, 동시에 영을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유지시킵니다. 마찰로 열이 발생하듯이, 선한 행실로 열의가 달아오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선한 영도 식어 사라집니다. 이것은 대개 무위(無爲)에 머무르는 사람들, 즉 악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데 그치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일이다. 아니, 선한 행위들도 정하고 선택해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분주한 실천가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때문에 너무 빨리 지쳐서 정신을 흩어지게 한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정도가 있다.

c) 마음의 함양

마음을 함양한다는 것은, 그 안에 거룩하고 신성하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취향을 길러, 그것들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자신의 본연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 안에서 달콤함을 느끼며 행복을 누리되,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취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혐오감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모든 영적 활동은 마음으로 수렴된다: 진리가 그 안에 각인되고, 선한 마음가짐도 그 안에 스며들지만, 마음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는 바로 우리가 언급한 그 취향이다. 이성이 영적 세계의 모든 구조와 그 다양한 대상들을 바라보거나, 의지 속에서 다양한 선한 계획들이 솟아날 때, 마음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달콤함을 느끼고 온기를 발산해야 한다. 이러한 영적 기쁨은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첫 번째 징후이다. 그러므로 이를 형성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조차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이를 향한 실천은 모든 형태의 우리의 성직 활동, 즉 공적인 것, 사적인 것, 가정에서의 것, 교회에서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기도의 영을 모두 포함한다.

성직 활동, 즉 모든 일일 예배와 성전의 모든 배치, 성화상, 양초, 향 피우기, 찬송, 성경 낭독, 의식 수행은 물론 다양한 필요에 따른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의 예배 역시 성물—성별된 성화상, 성유, 양초, 성수, 십자가, 향— 이 모든 신성한 사물들의 총체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모든 감각에 작용하며, 죽은 영혼의 감각을 **닦아내는** 강력하고 유일하게 참된 수단이다. 영혼은 그 안에 살아 있는 죄를 통해 감싸는 세상의 영으로 인해 죽어 있다. 우리 예배의 전체 구조는 그 형태와 의미, 믿음의 힘, 그리고 특히 그 안에 감춰진 은총을 통해 세상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극복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영혼을 그 짓누르는 영향력에서 해방시켜 마치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이 영적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게 한다. 성전에 들어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서게 되며, 그곳의 영향을 받아 그에 따라 변화합니다. 자신을 성스러운 물건들로 둘러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동을 자주 접할수록 그 감동이 더 빨리 내면으로 스며들어 마음의 변화를 더 빨리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1) 성당에서 열리는 예배, 특히 아침 예배, 성찬식, 저녁 예배에 가능한 한 자주 참석해야 한다. 이를 갈망하며, 첫 번째 기회가 닿는 대로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가능하다면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의 성당은 지상의 낙원, 곧 하늘과 같다. 성당이 하나님의 거처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더 빨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믿음으로 서둘러 성당으로 가십시오. 성당에 머무는 동안,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경외심과 경건함을 가지고, 인내심 있게 서서 절을 올리고, 예배 전반에 주의를 기울이며, 생각이 산만해지거나 의지가 약해지거나 부주의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행해지는 다른 사적 예배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규정을 따르는 가정 기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단지 교회 예배를 보완하는 것이지,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사도는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예배의 모든 힘이 공동 예배에 있음을 알려주었다(히브리서 10:25 참조).

3) 모든 교회적 축제, 예식, 관습, 즉 전반적인 규정을 실천하고,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이를 따르며, 마치 어떤 특별한 분위기 속에 끊임없이 머무르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는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질서이다.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 사역에 힘을 주는 것은 기도의 정신이다. 기도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무이자 모든 일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기도를 통해 신앙의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고, 선한 품성이 의지에 뿌리내리며, 무엇보다도 마음이 그 감정 속에서 살아나게 된다. 이 한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앞의 두 가지도 서둘러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수양은 무엇보다 먼저 시작되어야 하며,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허락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바로 회심에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과 영혼이 하느님을 향하는 열망이며, 이것이 바로 회심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주의나 무지 때문에 우리 안의 이 불씨를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즉시 기도하는 마음을 불태우기 위한 일정한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예배 수행과 참여 외에도, 여기에는 장소와 방식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기도가 더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저녁, 아침, 낮 기도 순서를 정하십시오.

2) 처음에는 규칙을 짧게 정하여, 이 일과 수고에 익숙하지 않은 마음이 싫증을 내지 않도록 하라.

3) 그러나 이를 행할 때는 언제나 경외심과 정성, 그리고 온전한 집중력을 다해야 한다.

4) 여기에는 서 있기, 절하기, 무릎 꿇기, 십자 성호 긋기, 성경 읽기, 때로는 노래 부르기가 포함됩니다.

5) 이런 기도를 할수록 더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 시간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양은 적지만 빈도는 더 높습니다.

6) 어떤 기도를 읽을지는 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도에 익숙해져서, 그 기도를 시작하면 즉시 영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기도 규칙은 간단합니다. 기도에 임할 때, 경외심과 떨림으로 마치 하느님의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영의 움직임에 따라 십자성호, 절, 엎드림을 곁들여야 합니다.

8) 정해진 규칙은 반드시 항상 지켜야 하지만, 이는 마음의 요구에 따라 기도 내용을 더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9) 소리 내어 읽거나, 속삭이거나,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니,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 방법으로, 때로는 저 방법으로 기도 전체를 드리는 것이 더 낫다.

10) 기도의 끝을 마음속에 확고히 간직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저를 심판하시되, 저를 구원하소서*'라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마무리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이다.

11) 기도에는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육체적인 기도로서, 주로 읽기와 서 있기, 절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의력이 흩어지고, 마음이 느끼지 못하며, 의욕이 없다. 이때는 인내와 수고, 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정하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실천적인 기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주의 깊은 기도이다. 마음이 기도 시간에 집중하는 데 익숙해져, 산만해지지 않고 온전히 의식을 집중하여 기도를 다 외운다. 주의력은 기록된 말씀과 하나가 되어 마치 자신의 말처럼 흘러나온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의 기도이다. 주의력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면, 생각 속에 있던 것이 여기서는 감정으로 변한다. 저기서는 통회하는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통회 그 자체이며; 저기서는 간구이지만, 여기서는 필요와 갈망의 감정이다. 감정의 단계로 넘어간 자는 말 없이 기도하니,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기도 수양의 극치이다. 기도에 임하여, 한 감정에서 다른 감정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때 독경도 멈출 수 있고, 생각도 멈출 수 있으며, 오직 알려진 기도 징후들과 함께 그 감정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기도는 처음에는 조금씩 찾아온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기도하는 감정이 밀려오면… 그리고 성인들이 주는 공통된 조언은, 이를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 있을 때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 사다리꾼은 "천사가 너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기도의 수양이 완성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수양이야말로 핵심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자신이 기도에 있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도 규칙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지시된 대로 실천해야 하고, 항상 활동적인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이 기도와 함께 이성적인 기도가 따라야 하며, 그 뒤를 이어 마음의 기도도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마음의 기도는 길을 잃게 되고,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영적인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며,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마지막 단계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기도, 즉 의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성 이삭 시리아인의 말대로)도 있다고 말한다.

기도의 끊임없음에 이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 기도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자기 안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영적 삶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이들, 곧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들은, 모든 영적 행위와 영적 수행 생활 전반에 걸쳐 영을 굳건히 세우는 이 하나뿐인 단순하면서도 전능한 수단을 발견했으며, 그들의 가르침 속에 이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남겼습니다.

수고하고 수행하며, 우리는 마음의 정화와 영의 회복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한 두 가지 길이 있다: 활동적인 길, 즉 앞서 언급된 수행들을 실천하는 것과, 관조적인 길 —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는 것이다. 전자는 영혼이 정화되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길이며, 후자는 눈에 보이는 하느님께서 온갖 불순물을 태워 없애시고 정화된 영혼 안에 거하시러 오시는 길이다. 이 마지막 내용을 예수 기도 한 가지에 요약하며, 그레고리 시나이트는 "우리는 행함과 수고로,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술적으로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얻는다"고 말하며, 이어서 첫 번째 길은 두 번째 길보다 더 오래 걸리지만, 두 번째 길은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덧붙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이들은 모든 영적 수행 중에서 예수 기도에 가장 우선적인 자리를 부여했다. 이 기도는 깨우치고, 굳건하게 하며, 생기를 불어넣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원수를 이겨내며,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린다. 이토록 전능하고 모든 일에 효력을 발휘하는 기도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영적 복과 힘, 그리고 생명의 보물이다.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바는, 회개한 자나 주님을 찾기 시작한 자라면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예수 기도에 대한 완전한 지도를 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모든 기도에도 자연스럽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 더 빨리 굳건해질 수 있고, 더 빨리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어 내면의 평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부, 혹은 대다수는 육체적 및 영적 수행에 머무르며, 수고와 시간을 거의 헛되이 허비하고 있다.

이 수행을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식과 주의를 마음에 두며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떠한 형상이나 모습도 없이, 주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귀 기울이신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일에 확고히 서기 위해서는 아침이나 저녁에 15분, 30분, 혹은 그 이상, 각자의 상황에 맞춰 이 기도만을 드리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아침과 저녁 기도 후에, 서 있거나 앉은 자세로 행합니다. 이를 통해 습관의 기초가 다져질 것입니다.

그 후 낮에는 무엇을 하든 간에 매 순간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점점 더 습관이 굳어지면, 마치 저절로 이루어지듯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활동에 몰두하든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단호하게 임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더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식을 심장에 집중해야 하며, 기도하는 동안 긴장감을 나타내기 위해 숨을 살짝 참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귀에 대고 기도를 드려라.

이 습관은 영혼에 온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깨달음을 주며, 그 후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때로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가 다른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단지 행동적인 것에 그치다가, 나중에는 지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마침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든다.

이 기도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잘 아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 오해는 주로 주의가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에 따라 더 많이 발생한다.

마음에 주의를 두는 사람은 안전하다. 매 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안전하다.

성부들은 이 수행에 관한 가르침을 상세히 설명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착수한 자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들의 글을 읽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이시히오스(예루살렘의 — *편집자 주*), 장로 바실레이오스의 서문, 파이시오스의 생애(몰다비아의 장로 파이시오스 벨리치코프스키의 행적과 저술에 성 그레고리오스 시나이타, 필로페오 시나이, 이시히아 장로, 닐 소르스키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그의 친구이자 동행자인 장로 바실리 폴야네메룰스키가 지은 것으로, 현명한 절제와 기도에 관한 내용이다. 코젤스카야 브베덴스카야 옵티나 푸스티니 출판. 모스크바, 1892. (편집자 주); 그레고리 시나이타, 필로페이 시나이, 테올립토스(필라델피아 대주교 — *편집자 주*), 시메온 신학자, 닐 소르스키, 성직 수도사 도로페이(러시아인)의 저서들.

이것을 익히고 앞서 제시된 모든 단계를 거치는 자는 바로 기독교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 정화와 기독교적 완전함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소망하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혼의 힘을 위한 수행이며, 이를 영의 움직임과 조화롭게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실천이 영의 삶, 즉 영적 감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실천들은 또한 내면 거주의 기초적 조건을 강화하는 데로 이끄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성의 실천은 주의 집중으로, 의지의 실천은 경각심으로, 마음의 실천은 절제로 이끈다. 기도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하나로 통합합니다. 심지어 그 과정 자체도 앞서 설명된 내적 활동에 다름 아닙니다.

이 모든 행위는 새로운 삶의 정신에 따라 영혼의 힘을 기르기 위해 정해져 있다. 이는 곧 영혼을 영성화하거나, 영혼을 영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그와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타락 속에서 이 둘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회심을 통해 영은 회복되었으나, 영혼은 영과 영적인 것에 대한 완고한 불복종과 거부라는 잔혹한 속박 속에 남아 있었다. 영적인 요소들로 스며든 이러한 행위들은 영혼을 영과 친화시키고 하나로 녹아들게 한다. 이로부터 이 행위들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필수적인지, 그리고 이를 소홀히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가 명백해진다. 그들 스스로가 수고가 열매 없이 끝나는 원인이 되는데, 땀을 흘리지만 열매를 보지 못하고, 곧 열정이 식어버려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열매가 열심과 구함의 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은혜의 회복하는 힘을 전달하시고,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으신다. 그분 없이는 이 모든 행위가 텅 비고, 차갑고, 생명이 없으며, 메마르게 된다. 내면의 영이 없을 때, 성경 읽기, 경배, 예배 및 그 밖의 모든 것은 열매가 적다. 이러한 행위는 허영과 바리새주의를 가르칠 수 있으며, 그것들만으로 지탱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영을 갖지 못한 이가 역경을 만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 게다가 그 행위들 자체만으로도 지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영은 영혼에게 힘을 전해 주는데, 그 힘으로 인해 영혼은 이러한 행위들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오직 그것들만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실을 할 때, 우리 구주이신 하느님께 겸손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의지하며 생명의 영이 타오르도록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기도와 기도의 행실을 통해 가장 잘 양육되고 보존됩니다. 다만 그것들만으로는 그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혼에게도 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만 머물다 보면 영혼은 풍요로워지더라도 영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 읽기와, 더 넓게는 진리를 깨닫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가장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영에 따른 육체의 절제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은 육체를 절제하는 것이다. 육체를 절제한다는 것은 정욕에 따라 육체를 만족시켜 주지 않거나, 쾌락을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도, 음료도, 수면도, 움직임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 밖의 감각이나 인상도 마치 그것이 선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무관심한 무언가인 양,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전이나 후에도, 심지어 더 나아가 — 어느 정도의 결핍을 감수하며,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성과 선한 의도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 몸에 필요한 것을 약간의 절제를 곁들여 주고, 그것을 제쳐 둔 채 온전히 영혼을 향하라. 성부들은 이를 '육체의 안식을 피하는 것'이라 부르는데, 이는 가장 위험하고 하나님께 거스르는 병이다. 육체를 아끼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다. 그리고 부주의와 나태함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육체의 쾌락은 영을 식게 만든다. 하물며 육체적 쾌락이 법칙이 되어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겠는가? 영에게 있어 육체의 안식은 불에게 물과 같다. 육체는 모든 정욕의 근원지인데, 이는 카시안(요한 카시안 로마인 — *편집자 주*)이 가르친 바이며 누구나 경험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절제하는 것은 정욕을 말리는 것이다. 사소한 일이라도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내면에 머물 수 없다. 그는 육신이 만족하는 것에 빠져 있으므로 정신이 집중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냉담해진다. 육신적인 것에 몰두한 영혼은 그것과 하나가 되어 버린다. 그로 인해 무거워지고 땅으로 끌려가며, 정신으로 영적인 것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육체를 절제한 이의 시야는 얼마나 맑은지, 그가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의 정욕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뚜렷이 살아나는지! *이 외적인 몸이 쇠퇴할수록, 내적인 몸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참조: 고린도후서 4:16). 육신이 강해지면, 그것은 영을 희생시켜서 강해지는 것이며, 영이 성숙해지면, 그것은 오직 육신의 안식을 희생시켜서 성숙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떤 성인에게서도 안락한 삶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 엄격하게, 육체의 억압과 쇠약, 고갈, 그리고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 이삭 시리아인에게는 육체의 억압이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육체를 아끼는 자는 매혹적이고, 미끄럽고, 기만적이며, 의심스러운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그 모든 부분과 지체, 기능에 걸쳐 억제해야만, 그 모든 지체를 진리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우리 육체적 삶의 지체들 중 일부는 동물적·영적인 것으로, 영적 활동의 가장 직접적인 도구이며, 다른 일부는 순전히 동물적인 것으로, 동물적 생리, 영양 섭취 및 성장의 도구이다. 전자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덜 구속되어 있으며, 후자는 더 구속적이고 육체적이며 거칠다.

전자의 범주에는 감각, 언어, 움직임이 포함되며, 후자의 범주에는 영양 섭취, 수면, 성기능 및 온기, 냉기, 부드러움 등과 같은 다양한 피부 감각이 포함된다.

여기서 육체의 제약을 위한 다음과 같은 규칙이 도출된다:

1. 감각, 특히 시각과 청각을 다스리고, 움직임을 억제하며, 말을 삼가라. 이 세 가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의 내면은 약탈당하고, 이완되며, 포로가 되어, 심지어 내면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영혼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통로, 즉 내면의 온기를 식히는 창문들이기 때문이다.

2. 이 감각들에 대한 지배력을, 지금 유익한 대상들로 강제로 이끌음으로써 표현하라. 이전에는 이 감각들이 자아와 더 중요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억제할 수 없이 치닫곤 했다. 이제 이 감각들을 영혼을 고양시키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

3. 육체에 필요한 음식을, 단순하고 건강한 것으로, 분량과 무게를 재고, 질과 시간을 정해라. 그리고 그 점에 대해 평온을 유지하라. 수면도 마찬가지로 처리하라. 육체를 고갈시켜 성적인 행위를 죽여라. 또한 육체를 일종의 분노 상태, 차갑고 가혹한 상태 등에 두어, 부드러움이 없도록 하라.

4. 이 모든 것을 정립한 뒤, 육체가 순종할 때까지 싸워라. 그리하여 이 검소하고 가혹한 상태에 익숙해지면, 육체는 소리 없이 복종하는 종이 될 것이다. 육체의 굴복은 마침내 이루어진다. 이를 염두에 두고, 수고의 보상처럼 그것을 향해 힘써야 한다. 육체적인 수고를 통해 육체적 미덕들이 길러진다: 은둔, 침묵, 금식, 기도, 노동, 결핍 속의 인내, 순결, 동정.

5. 그러나 이 동행자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짓누르고(억압하고, 공격하고 — *편집자 주*) 있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육체를 믿지 마라. 그것은 교활하다." 그리고 오직 그 육체의 굴복을 기대하며 방심하는 순간, 그것은 즉시 너를 붙잡아 제압할 것이다. 그녀와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만, 처음에는 가장 힘들다가 점차 쉬워지고, 마침내 육체의 충동을 가볍게 느끼며 질서만을 지켜나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6. 가장 확고한 성공을 위해서는, 특히 육체적인 수행에서 점진성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조언이다. 먼저 육체의 모든 부분을 절제의 법칙 안에 두되, 모든 주의를 내면의 활동에 집중하라. 정욕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마음에 온기가 솟아오르면, 내면의 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육체의 욕구들은 저절로 약해지고, 마치 자연스럽게 위대한 육체적 수행이 시작될 것이다.

7. 육체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육체적 수행은 금식, 기도, 노동, 순결이다. 그중에서도 순결은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순결은 기독교적 완전함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것 없이는 그 어떤 굳건함도, 그 어떤 은사도 사람이 얻을 수 없다. 다만 육체적 순결 외에도 영적 순결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 육체적 순결을 죽음까지 지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순결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 영적 순결은 육체적 순결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부도 어느 정도까지는 영적 순결을 통해 순결한 이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고자에게는 은혜가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들 중에서도 영적 완전함을 지닌 이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정신에 따른 외적 삶의 질서

새로운 삶의 정신에 따른 외적 삶의 질서와 관련된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혹은 우리 외적 삶의 모든 흐름에서 세속적인 정신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니,* 곧 너희를 분리해 냈노라" —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다(요한복음 15:19). 주님께서는 신성한 은총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행하시니, 곧 그들의 영을 세상에서 분리해 내시는 것이다. 그리고 회심 그 자체도 헛된 세상으로부터 의식을 돌리고, 그 앞에 다른 세상, 즉 영적인 세상을 열어 보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영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 것은, 그 후 삶 속에서 행위로 실천되어야 하며, 변함없는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사적인 삶,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 스며들어 그곳에서 관습과 규칙이 되어버린 모든 정욕적이고, 헛되며, 죄악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의 영과 완전히 상반되는 풍속, 관습, 규칙, 습관, 요구 사항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 생활과 가족 생활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므로, 이를 저버리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며, 그 본질적인 번영에 속한 모든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스며든 모든 정욕적이고 열정적인 것들은, 마치 그들을 해치고 왜곡하는 종양과 같으므로, 경멸하고 배척해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한다는 것은 참된 가정적 삶과 시민적 삶에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의 모든 것은 마치 우리 것이 아니며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대하는 것이다. *"세상을 누리는 자도 마치 누리지 않는 자와 같아야* 한다"(고린도전서 7:31).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그 자체로 명백하다. 헛되고 정욕으로 물든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영혼에 똑같은 것을 전달하며, 정욕을 자극하거나 심어준다. 그을음 주위를 걷는 자가 검게 물들거나 불에 닿는 자가 타는 것처럼, 세속적인 일에 참여하는 자는 정욕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물들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회개한 자는 다시 넘어지고, 죄 없는 자는 타락하게 된다. 이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즉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망각이 생겨나며, 약해지고, 사로잡히고, 약탈당하게 되며, 거기서부터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그 뒤를 이어 정욕과 죄악이 뒤따르니, 사람은 타락한 것이다. 그 증거는 모든 타락의 역사들이며,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피할 수 없고 필수적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는, 마치 불을 피하듯 이러한 모든 관습을 멀리하는 회개한 모든 이들이다.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는 우리의 경전보다 경험이 더 잘 가르쳐 준다.

법칙은 이렇다: 새로운 삶에 위험하고, 정욕을 부추기며, 헛된 분주함을 초래하고, 영을 꺾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 모든 것에는 얼마나 다양한 형태가 있는가! 이를 가늠하는 척도는, 겉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교활함 없이 구원을 찾는 각자의 마음이어야 한다. 현재 극장, 무도회, 춤, 음악, 노래, 여행, 산책, 사교, 농담, 재치 있는 말, 웃음, 한가로운 시간 보내기, 심지어 기상 시간, 수면 시간, 식사 시간 등도 모두 없애고 바꿔야 한다.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다. 삶에 해롭고 위험하며, 영을 꺾는 것은 버려라.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일까? 어떤 이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유명한 장소를 유명한 사람과 함께 산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6:12).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모든 외적 삶을 정화하고, 그 안에서 모든 정욕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영적 삶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순수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 즉 가정생활, 사생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집 안팎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때의 외적 행동 양식을 전반적으로 확립하는 것; 새로운 삶의 영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집안의 모든 부분에 질서를 세우며, 직무상의 질서, 누구와 언제 어떻게 교류하고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하되, 영적 지도자나 신뢰하는 이의 지도와 조언에 따라 판단하여 실천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를 단번에 실행하며, 겉보기에는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들은 서서히 실천한다. 다만 첫 순간부터 모든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며,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로부터 즐거움을 얻지도 않아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요한일서 2:15). 이러한 내적인 세상 버림에 이어, 외적인 세상 버림도 갑작스럽게 혹은 서서히 뒤따를 수 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지속적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한 채 나태해져 넘어지고 말 것이다. 특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그것이 제2의 본성이 되어 버린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모든 것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와, 죄 속에 빠져 있던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 열정이 강한 사람은 비록 서서히일지라도 견뎌낼 수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회심의 첫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형태가 정착될 때까지 죄악된 세상과 모든 세속적인 것과의 모든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마치 이식된 나무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으니, 그 나무는 뿌리가 아직 약하여 약한 바람에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답게 살면서도 세상과 세속성을 고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되고 기만적인 생각이다. 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바리새주의와 허울뿐인 삶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며, 즉 자기 생각 속에서는 기독교인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한 손으로 다른 손으로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니, 즉 세상과 거리를 두고 모은 것이 세상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다시 흩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곧바로 생각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마음에서 잃어버린 것은 여전히 기억과 상상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제, 예전이 어땠는지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사람은 그것이 실제로도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은 사라지고 기억 속에 그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누가복음 8:18). 그리고 견해에서 바리새주의로 가는 길은 한 걸음에 불과하다. 굳어진 바리새주의는 끔찍한 상태이다. 그러나 두렵다. 세상을 등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는 겉으로만 무서운 것이지, 내면에서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곧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즉시 분노와 슬픔, 상실이 따르겠지만, 어쩌겠는가? 인내로 마음을 다잡아라. 무엇이 더 소중한가? 세상인가, 영혼인가? 시간인가, 영원인가? 작은 것을 내어주고, 모든 척도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얻어라.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거센 압박이 처음에만 있을 뿐, 나중에는 점차 가라앉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평온을 얻게 되기도 한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한동안 수군거리다가, 이내 잊어버릴 것이다. 세상을 떠난 자들은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세상의 허영과 교만, 즉 세상이 눈앞의 것만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린다는 점 때문에 세상의 적대감을 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세상은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다. 오직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관심을 두거나 그들을 붙잡아 둘 뿐,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처럼, 때로는 영혼의 힘을 키우는 데 전념하고, 때로는 육체의 모든 부분, 특히 영혼과 가장 가까운 기관들을 절제하며, 때로는 외적인 질서를 정돈함으로써, 선하고 견고한 보루를 찾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은둔 속에서 육체를 절제하며 첫 번째 영적·정신적 수행을 통해 내면을 굳건히 다진 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족이나 시민, 또는 공동체와 관련된 일, 즉 순수하고 구원에 이르는 일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적어도 흩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끊임없이 보고 듣는 것들, 즉 세속적인 것이든 단순한 것이든,

단지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주의를 끌어내어 영혼을 훔쳐가는 것들이다. 만약 이러한 통로들까지 막아버린다면, 내면의 평온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호한 수단은 감각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이는 누구에게나 가능하거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부들은 구원의 수단을 고안해 냈다. 즉, 외부 사물의 인상에 영향을 받되, 그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영을 가꾸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물, 보이는 것과 들리는 모든 것에 영적인 상징을 부여하고, 그 영적인 상징에 대한 생각에 깊이 뿌리내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상징이 의식에 닿도록 하는 데 있다. 마주치는 모든 것에 대해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다… 빛과 어둠, 사람과 짐승, 돌과 식물, 집과 들판 — 모든 것 ,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다만 스스로 해석하고 그 안에 굳건히 서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얼마나 구원을 주는 일인가! "왜 울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아름답게 차려입은 여인을 본 장로에게 물었다. "울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이성 있는 피조물이 멸망하는 것과, 그녀가 육신을 파멸로 이끄는 데 쏟는 열정만큼이나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런 열정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 다른 이는 무덤 앞에서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말했다. "그렇게 기독교인은 자신의 죄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영적 삶을 양육하고 굳건히 하는 은혜로운 수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개하는 과정에서 영혼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외적 행실이 새로운 생명의 영에 따라 형성되는 과정이며, 결심과 서약에 이르러 성사들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인치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이, 성사를 통해 은총으로 인치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안정한지,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모든 시간 동안에도,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라는 신성한 성사를 통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열정은 흔들리고, 열심은 무력해지며, 의지는 약해지고, 삶은 빈약해진다. 열심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인의 삶은 은총이 넘치는 삶입니다. 따라서 그 삶을 보존하고, 양육하며, 활기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신성한 은총을 끌어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삶을 양육하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 삶을 양육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사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삶을 양육하고 고양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것이 성체와 성혈의 성사입니다. *"나는 살아 있는 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으로 먹을 것이요, 내 피는 참으로 마실 것이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한복음 6:51-58). 영적인 삶은 주님과의 교제의 결과입니다. 그분 밖에서는, 그분 없이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6:56-57): 즉, 주님과의 교제는 그분의 몸과 피를 성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된 영적 생명은 강하고, 다방면에 걸쳐 활동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 15:5). 이 모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을 것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요 6:51-53).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삶을 보존하고 굳건하게 하는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참된 경건의 열심가들은 잦은 성찬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 왔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어디에서나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도와 떡 떼기에 전념하고 있었으니, 곧 성찬을 거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실리우스 대교부는 카이사르에게 보낸 서신에서 매일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영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주일에 네 번 성찬을 영합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찬 없이는 구원이 없고, 빈번한 성찬 없이는 삶에서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성인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체를 영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동시에 삼켜 버리는 불이시기도 하다. 합당하게 성체를 영하는 자는 생명을 맛보지만, 합당하지 않게 영하는 자는 죽음을 맛본다. 비록 이 죽음이 눈에 보이게 닥치지는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사람의 영과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받는 자는 마치 불에서 나온 숯덩어리나 철 찌꺼기처럼 떠나갑니다. 몸 안에 죽음의 씨앗이 심어지거나, 사도의 지적(고린도전서 29-30절)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즉시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는 경외심과 떨림,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임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자신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화하는 데 있다. 사도는 *사람이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가르치며, *그렇게 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한다*(고린도전서 11:28). 죄를 미워하고 온갖 방법으로 죄에서 멀어지겠다고 서약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영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듭니다. 결단력과 서약은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는 장소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깨끗할 뿐, 우리 안의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스스로 합당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써 통회하는 고백과 서약을 바탕으로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요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합당하게 고백하라 — 그러면 합당한 성찬 참여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고백 그 자체가 성사로서 합당한 준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행동과 감정,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이는 단번에 완성되거나 드러날 수 없고, 시간과 어느 정도는 그것에만 전념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해성사는 항상 정해진 예식에 따라, 이를 준비하는 사전 행함과 수행을 동반하여 거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때로는 죄를 더 잘 깨닫게 하고, 때로는 죄에 대한 참회 를 불러일으키고 드러내게 하며, 때로는 서원의 굳건함을 지키도록 돕는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고해 준비 기간을** 이룬다.

따라서 성사를 통해 은총의 삶을 고양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포함한 모든 필수 요소를 갖춘 금식 기간을 정해야 하며, 고해성사를 받고 이러한 준비를 마친 뒤 성스러운 성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한다. 즉, 금식 기간을 정해야 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우리 성교회에 의해 제정된 금식 기간을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네 번의 대금식 기간은 경건함을 갈망하는 이들이 그 기간 동안 금식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일 년에 네 번, 모든 대금식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정교회 신앙고백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더 자주, 심지어 끊임없이 금식하려는 열심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이들에게 멍에처럼 강요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일 년에 네 번 금식하기 위해 자신에게 달려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신도들에게 있어 네 번은 소박하고 적당한 기준이며, 경험상 매우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그들을 뛰어넘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사순절과 성탄절 사순절에는 각각 두 번씩—시작과 끝—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여섯 번의 금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식은 단식, 즉 교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로 단식을 지키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는 금식의 일부이지만, 음식과 수면에 있어 더 엄격하다는 점과, 항상 다음과 같은 다른 경건한 활동들과 결합된다는 점에서 금식과 구별됩니다. 즉, 일상적인 걱정과 일을 가능한 한 중단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성서를 읽으며, 정해진 예배 시간에 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전적으로 경건한 활동에 바쳐지며, 이 모든 활동은 회개와 고해성사를 마땅히 행하고 그 후 성찬을 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처럼, 금식 기간 전체를 통해 삶의 모든 면을 정화하고, 삶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목표를 재확인하고, 주님과 다시 교제하며, 영과 우리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검게 변한 옷을 세탁하거나, 먼 길을 온 후 목욕탕에서 몸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여정 중에 있으며, 아무리 조심해도 먼지—즉 정욕적인 생각과 죄로 인한 얼룩—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불결함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눈에 들어간 먼지나 시계 속의 모래알과 같아서, 눈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계는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도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얼마나 구원에 이르는 일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한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입니다! 금식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양육하고, 따뜻하게 하고, 보존하는 수단이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삶과 실족, 그 원인을 꼼꼼히 되돌아보고 이를 피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통회와 혐오로 마음에서 내쫓으며, 서약과 함께 고해성사로 씻어낼 때, 비로소 그 그릇은 준비된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합당한 이의 영과 교제하시는데, 그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금식에의 접근

금식은 일회성이지만, 금식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작용하는 상태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마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금식에는 금식, 고해, 성체 영성체라는 세 가지 성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세 가지를 가능한 한 끊임없이, 혹은 가능한 한 빈번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가) 금식에 관하여

1. 모든 대금식(며칠 동안 지속되는 — *편집자 주*)을 지키거나, 금식 기간을 금욕으로 보내야 한다. 즉, 단순히 절제하는 것을 넘어 육체 자체가 결핍과 부족, 약간의 고통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금식 기간에는 정해진 일수의 금식이 지정되며, 이때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오로지 양심의 정화에 전념한다; 금욕 기간에는 일상 업무가 평소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금식은 완화되고 다른 활동은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쾌락을 중단하고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애도하는 시기에 걸맞게 때로는 영혼을 가볍게 하고, 때로는 하느님의 자비를 이끌어낸다. 이것이야말로 영성을 키우는 데 얼마나 강력한 수단인가!

2.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지키는 것. 이는 때때로 사람에게 자신이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강하게 상기시켜 주고, 감정의 넘침을 다스리며, 정신을 맑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는 마치 격한 말을 고삐와 재갈로 잠시 동안 제지하는 것과 같다.

3. 또한, 관례대로 다른 날, 특히 월요일에 자발적으로 금식을 정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특정 종류의 음식을 삼가고 꾸준히 금식 음식을 섭취하며, 어떤 이들은 격일로 금식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금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모두 유익하므로 각자의 힘과 열성에 따라 실천할 것을 권한다.

b) 고해성사에 관하여

1. 양심을 짓누르는 모든 죄는, 정해진 금식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회개를 통해 씻어내야 한다. 하루라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것이 좋고, 한 시간도 품지 않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죄는 은혜를 쫓아내고, 담대함과 기도를 빼앗으며, 오래 품을수록 마음을 굳게 하고 냉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내쫓은 죄는 가슴을 울리는 눈물의 이슬을 남깁니다.

2.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주님께 개인적인 고백을 드려야 한다. 그 고백 속에서 생각, 소망, 감정, 정욕적인 움직임에 담긴 모든 죄악은 물론, 의로운 행실 속의 모든 불결함까지도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러내야 한다. 비록 겉보기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존재하며, 하나님 앞과 우리 자신의 순결과 완전함에 대한 감각 앞에서 우리를 부정하고 부적절하게 만드는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 잠자리에 들 때는 마치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과 같다. 고백은 이를 준비시켜 준다. 잠자는 동안 낮에 쌓인 것들이 우리 본성으로 스며들게 되니, 이를 깨끗이 씻어내고 부적절한 것은 통회하며 버려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3. 매 순간 고해성사를 행하라. 즉, 모든 사색과 소망, 감정, 그리고 부도덕하고 불결한 모든 움직임을, 깨닫는 즉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에 대한 용서와 앞으로 피할 수 있는 힘을 청하며, 그 순간 바로 그 더러움에서 정화되어야 한다. 이 행위는 매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먼지를 맞으며 걸을 때 눈을 닦는 것과 같으며, 마음의 엄격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사람은 언제나 부지런하고 열심입니다. 반대로, 생각과 소망을 회개와 통회로 털어내지 않고 방치하면,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눈에 띄지

않은 채 남아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병이 스며드는지! 그 후에 냉담함과 타락이 찾아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아 욕망을 쉽게 불러일으키고,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아 동의를 이끌어내며, 거기서 이미 내면의 간음과 타락이 시작된다. 그러나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정화하고 자신의 길을 뚫어 나간다.

4. 깨달음을 얻었을 때, 즉 어떤 의문이나 당혹감, 혹은 새로운 통찰이 생기면, 이를 같은 마음을 가진 동료나 영적 아버지에게 털어놓아, 그분이 그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며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체와 일탈을 피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며, 결과적으로 때때로 헛된 공상에 낭비되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끊이지 않는 안전감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생기며, 이는 의지의 확고함과 행동의 견고함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행위를 통해 고백은 진정으로 끊임없는 것이 된다. 영은 통회와 감격, 자학, 기도로 엎드림 속에 머물러 있으니, 곧 살아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행위 중에서 열정의 영과 열심의 불꽃을 간직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므로,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과 타인을 위한 모든 행위가 단 한 가지로 제한되기도 했다. 즉, 매 순간 회개하고 죄를 위해 울어야 한다는 것이다.

c) 성찬에 관하여

1. 가능한 한 자주 성찬식에 참석하고, 그 예식이 거행되는 동안 그때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확고하고 밝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 성체와 성혈의 성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성한 양식이며 제사이다. 성찬식에서 모든 사람이 항상 성체를 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진다. 바로 그 이유로 모든 이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 믿음과 죄에 대한 깊은 회개, 그리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어린 양처럼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희생 제물로 드리시는 — *편집자 주*)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성사의 생생한 묵상 하나만으로도 영을 크게 소생시키고 북돋아 준다. 믿음과 통회는 언제나 죄의 정화를 가져오며, 종종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은밀히 닿아 그 마음을 달래고 소생시키는, 마치 영적인 성찬과도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접촉은 꿀과 벌집보다 더 달콤하며, 모든 영적 강장제보다 더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를 베풀어 주실지는 오직 주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를 경외심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주어지면 기뻐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애쓰거나 방법을 고안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혹은 일어나는 것이 과연 그것인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는 허영을 피하고 미혹을 막기 위함이다.

2. 성전에 있을 수 없다면, 신성하고 신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을 탄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기도 자세를 취하고 몇 번 절을 하라. 자연의 무서운 현상들은 모든 피조물을 떨게 만든다. 예를 들어 천둥, 지진, 폭풍우 등이다. 신성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순간, 성전에서는 땅과 하늘에서 가장 위엄 있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식으로,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거룩한 천사들, 하늘 교회의 온 무리, 그리고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믿음의 눈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실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순간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순간들을 기억할 때, 바로 그 기억 자체로 영이 달아오르고 하나님께로 이끌리며, 이를 통해 은혜가 끌어당겨진다.

이처럼 금식 실천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여, 내면의 실천과 함께 지속적인 긴장과 힘으로 열정의 불꽃과 탐구하는 영을 유지하며, 그 도움으로 모든 영적·육체적 노력을 우리 내면의 사람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침의 일반적인 순서이다. 삶의 본질에 기초를 둔 이 순서는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본질적으로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규칙의 원리, 정신, 힘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육체에 관해서는 모든 육체적 활동에서 육신의 욕망을 거스르는 것, 혹은 외적 생활에 관해서는 정욕의 정신으로 가득 찬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온 힘을 다해 영혼을 다스리며, 은혜로운 수단의 영향 아래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행 활동의 핵심적인 요점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상태가 제각각이므로 그 적용 방식도 다양해야 하며, 이 경우에 대해 단일한 규칙을 정할 수는

결코 없다. 예를 들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그 안에 신성한 진리를 새겨 넣어야 한다. 이는 읽기, 듣기,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교부들의 가르침, 성인들의 행적, 설교에서 얻을 수 있다. 영적 지도자는 이미 누구에게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외적인 수행은 끝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다양한 관용과 특혜로 열심의 불꽃을 꺼뜨리거나, 냉담함에 빠져 있는 이들을 달래고 잠들게 하는 영적 지도자는 영혼의 파멸자이자 살인자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직 한 가지 길, 즉 좁고 고통스러운 길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수도 생활에 있다. 이는 수도 생활의 요구를,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훌륭하고 순수하며 완전한 형태로 실현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어렵고 회개하는 삶이며, 항상 지도하는 자와 지도받는 자로 이루어져 있다; 본질적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 육체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다; 수행, 독서, 예배, 기도, 순종의 실천을 위한 가장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특히 정욕을 적극적으로 근절하는 데 적합하며, 전반적으로는 무소유, 엄격함, 불안, 자기 부정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지도자의 인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의 깊은 수도자에게는 곧 하나님에 대한 내적 끌림이 싹트는데, 이는 가장 단호한 자기 희생과 모든 것からの 초탈을 위해서이며, 자기 내면에 머무를 더 큰 기회를 얻기 위해서이며, 기도의 영으로 풍성히 양육받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주의 깊은 자는 이곳에서 곧 침묵과 마음의 고독으로 올라가, 은둔지나 폐쇄된 곳으로 물러나 평안을 찾는다.

정욕과의 싸움에 관한 규칙, 또는 자기 저항의 원리

이 지침에 따라 머무르는 것은 정욕을 근절하고, 우리 자신을 정화하며 바로잡는 강력하고 위대한 수단이다. 의식과 자유를 가지고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마치 정욕을 한쪽으로 제쳐두는 것처럼 함으로써, 정욕에 양분을 주지 않거나, 자신의 모든 힘과 활동의 전 과정에서 제시된 규칙들로 마치 멍에처럼 그것을 덮어씌움으로써 정욕을 파괴한다. 이처럼 억눌린 정욕은 그릇 아래에 놓인 촛불처럼 꺼져 버린다. 그러나 이 하나의 긍정적인 활동만으로 그칠 수는 결코 없다. 정욕에 물들고 타락한 힘을 치유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규칙들이 제정된다. **악에** 작용하던 바로 그 힘으로, 이제는 **선을** 위해 작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힘의 첫 움직임 속에서 활동이 시작되고 싹트는 가장 초기에 악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다.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고, 우리에게 악의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선이 요구된다면, 모든 일에서 악을 몰아내어 순수한 선을 시작하고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와 끊임없이 연결된 힘의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활동 뒤에는 항상 간접적인 활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악과 정욕을 몰아내는 것, 즉 **정욕과 욕망과의 투쟁을** 향한 것이다. 이러한 위업 속에서 자신을 확립하고 그에 익숙해지는 것은 투쟁과 싸움을 통해, 유혹과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이루어진다. 누가 배와 싸우지 않고 금식한 자가 있었으며, 자만심과 자기 과시를 극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는 어떤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그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긍정적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진다. 어디를 보나 투쟁이 있기에, 앞서 제시된 질서는 힘과 본성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끊임없는 영적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힘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을 이겨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들어설 것이며, 악을 물리치고 배척하면 선을 보게 될 것이다. 수행은 끊임없는 승리이다.

모든 내적 승리의 가능성, 기초, 조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첫 번째 승리, 즉 의지의 전환과 모든 죄악을 적대적으로 배척하며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데 있다. 여기서 정욕에 대한 혐오, 증오, 반감이 싹트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력이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온 군대를 대신한다. 그것이 없는 곳에서는 싸움 없이도 승리가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반대로, 그것이 있는 곳에서는 승리가 종종 싸움 없이도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긍정적 활동의 출발점이 우리의 가장 내면인 것처럼,

그것은 또한 싸움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단지 방향이 다를 뿐이다. 의식과 의지, 즉 선의 편으로의 전환과 선에 대한 사랑은 모든 악과 모든 정욕, 게다가 바로 자신의 정욕을 증오로 타격한다. 이것이 바로 전환이자 분기점이다. 그러므로 정욕과 싸우는 힘은 또한 의식과 자유를 지닌 이성, 즉 은총에 의해 지탱되고 강화되는 영이기도 하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를 통해 치유하는 힘이 위업을 통해 다른 힘들로 흘러들어가고, 또한 이를 통해 타격하고 파괴하는 힘이 투쟁 속에서 정욕들로 흘러들어간다. 반대로, 정욕들이 반기를 들면, 그들은 곧바로 이성이나 영, 즉 의식과 자유를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것들은 우리 내면의 성소에 있으며, 적군은 정욕을 통해 마치 매복에서처럼 영적·육체적 영역에서 뿜어낸 불타는 화살을 그곳으로 쏘아댑니다. 그리고 의식과 자유가 온전할 때, 즉 선의 편에 서 있을 때, 아무리 큰 공격이 닥치더라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승리의 모든 힘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근원을 보여줄 뿐이다. 싸움의 지렛대는 우리의 회복된 영이며, 정욕을 이기고 파괴하는 힘은 은혜이다. 은혜는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은 세우고, 다른 것은 무너뜨리는데, 이는 다시 말해 영, 즉 의식과 의지를 통해서이다. 외치며 싸우는 자는 원수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쳐부수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 16:33).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는 고백합니다(빌 4:13). — 마치 그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스스로 이기려 하는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이 싸우는 그 정욕에 빠지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정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승리를 얻는 것과 같다. 이는 다시 말해 자신의 저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이나 승리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으며,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온갖 방법으로 대항하고 싸우되, "악한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네 모든 슬픔을 맡기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그렇다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정욕을 정복하는 데 어떤 방법이 적합한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욕의 모든 적들을 살펴보고 지적해야 하며, 또한 그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활동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과 싸우는 방식도 저절로 결정될 것이다. 싸움에서의 성공은 그 전체 구도를 꿰뚫어 보는 데 크게 달려 있다.

선(善) 안에서 우리의 성장은 결코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욕들이 여전히 살아 있으며, 눈앞에 펼쳐진 헛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안에서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선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움직임들의 근원이다.

사람은 회심하기 전까지 온전히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회심 후, 영은 열정으로 충만해져 순수해진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는 여전히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의 정화와 치유가 시작되면, 그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며, 자신들을 쫓아내는 영을 향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기를 든다. 이러한 반란은 주로 육체적·영적 힘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힘이 영에 스며들수록 영을 타격한다. 그러나 영을 직접 겨냥하는 움직임들도 있다. 이는 원수가 육체와 영혼의 매복처에서, 자신의 폭정에서 벗어난 포로에게 쏘아대는 불타는 화살들이다. 따라서 우리 안에 치유된 부분이나 온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정욕의 반항은 우리 존재의 전 영역에 걸쳐 드러나고 느껴진다.

1. **육체에서**: 이들의 근원은 육체적 쾌락, 즉 육체의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육체적 삶의 활기와 감각적 쾌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있는 곳에는 음탕한 정욕, 폭식, 쾌락 추구, 게으름, 나약함, 감각의 방황, 수다스러움, 산만함, 안절부절함, 모든 것에 대한 제멋대로임, 우스꽝스러운 행동, 헛소리, 졸음, 눈의 나른함, 쾌락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욕 속에서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온갖 종류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2. **영혼 속에서:** 가) **지적인 부분에서는** — 자기 중심적 사고, 오직 자신의 지성만을 믿는 태도, 반항,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 의심, 오만(거만 — *편집자 주*)과 허세, 호기심, 지성의 낭비, 생각의 방황; b) **욕망의 영역** — 제멋대로인 태도, 불복종, 권력에 대한 집착, 잔인함, 과감한 기질, 자만, 자기 소유화, 배은망덕, 소유욕, 탐욕; c) **감정의 영역** — 마음의 평온과 평화를 뒤흔드는 정욕, 혹은 온갖 종류의 기쁨과

고통: 분노, 시기, 증오, 악의, 복수, 비난, 경멸, 명예심, 허영, 교만, 갈망, 슬픔, 비탄, 낙담, 기쁨, 즐거움, 두려움, 희망, 기대.

이 모든 영적·육체적 정욕의 근원은 자아애, 즉 '자아'인데, 이는 비록 처음에는 정복되거나 배척되었지만, 종종 다시 일어나 어떤 정욕을 겉옷으로 두르고 영과 싸움을 벌인다. 이렇게 남아 있는 '자아'는 온갖 정욕의 군대와 함께, 이제 타들어 가는 육적인 인간을 이루며,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롬 7:23) *'지체 안에 있는 법' 그 자체*이며, 이로부터 항상 영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무언가가 일어나곤 한다. 성부들은 영적 투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인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정욕을 그 근원으로 환원하여 투쟁하는 자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 명확히 보도록 노력했다. 이를 위해 근원인 '자아' 주변에 세 가지, 즉 쾌락, 탐욕, 교만을 배치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다섯 가지를 추가로 제시했다. 이것에 국한하여, 그들은 이러한 정욕들의 발현을 묘사하고 싸우는 방법을 제시했다. 누가 쾌락을 자기 혐오로, 탐욕을 무소유로, 교만을 겸손으로 잘라내면, 그 사람은 자아를 이긴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 자체를 근절하는 것보다 그 자식들 속에서 근절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영혼과 육신에 해당한다. 그러나 살아난,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살아나고 있는 영도 병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러한 병폐들은 생명의 근원과 관련되어 있고 그 미묘함과 깊이 때문에 종종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영혼과 육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적 영적 삶의 전체 구성에 대항하여 그것을 몰아내고 가리는 일련의 반대되는 움직임과 상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종종 내적 머무름과 침착함 대신에 —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분출, 감각으로의 도피가 일어나며; 내면 머무름의 세 가지 행위인 주의, 경각, 절제 대신에 — 정신의 산만함, 내적 혼란, 허영, 나태, 방종, 자기 방기, 제멋대로, 건방짐, 속박, 집착, 마음의 상처;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 대신에 — 하나님과 죽음, 심판,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한 망각이 찾아온다.

영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머무름에 기초를 둔 의식이며, 그것이 무너질 때 생명 활동도 함께 무너진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께 대한 의존감 대신에 두려움 없는 태도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소중히 여기는 대신에 그것에 대한 무관심이, 모든 것에서 초연해지는 대신에 자기 안주(왜 스스로를 괴롭히겠는가!)가, 회개의 감정 대신 무감각과 마음의 굳어짐이, 주님에 대한 믿음 대신 자기합리화가, 열정 대신 냉담과 무기력, 무감각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 대신 자기만족이 자리 잡는다.

이러한 감정 중 하나가 의식이나 자유를 침범하면, 우리의 영적 삶의 원천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축소시켜 극심한 위험에 빠뜨린다. 바로 이때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유혹적인 움직임은 때로 사람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가장 미묘한 생각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영적·육체적 정욕은 더 명백하고 거칠지만, 그 안에도 예를 들어 육체의 안락함이나 자만심, 불순종과 같은 미묘한 것들이 있다. 말로는 분명하지만, 행동에서는 종종 숨겨져 있다.

이것이 바로 매 순간 우리의 새로운 삶을 꺾어버리려 하는 죄의 반란 군단이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타고 땅 위를 마치 진창 위를 걷듯, 어느 순간이라도 빠질 준비가 되어 있다. 걸을 때는 조심스럽게 걸어가라. 그래야 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과 질서의 압박 아래, 영의 활동 속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이 모든 그릇된 움직임들은 그 곁에 있는 그들의 부모인 세상과 악마들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이토록 사나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상은 실현된 정욕의 세계이거나, 얼굴과 관습, 행실 속에 살아 숨 쉬는 정욕들이다. 그것의 어떤 부분에라도 닿게 되면, 그 유사성과 기질의 일치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상응하는 상처, 즉 정욕을 뒤흔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살아 있는 정욕 을 매개로 하여, 여러 계기와 유혹을 통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러나 세상 그 자체에 속한 몇 가지 자극들이 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세상의 매혹적인 모습과 모든 면에서의 성공,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힘 —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느끼는 버림받음과 고독, 모든 일에서 마주하는 장애물, 비아냥, 조롱, 경멸, 무관심,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고통. 그 뒤를 이어 박해, 핍박, 악의, 박탈, 온갖 종류의 슬픔이 뒤따른다.

그리고 온갖 악의 근원인 악령들은 무리를 지어 사방에서 사람들을 에워싸고, 육체를 통해, 특히 감각과 영혼과 악령들 자체가 속한 그 원소를 통해 작용하며, 그들에게 온갖 죄를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정욕과 온갖 죄악적인 반란은 그들에게서 비롯된 원인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죄의 고리 속에는 오직 악령들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본성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신성모독적인 생각들—의심, 불신, 비정상적인 혐오, 정신의 혼탁, 각종 미혹,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욕적이고 타락한 유혹들, 예를 들면: 억누를 수 없는 음탕한 정욕,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완고한 증오 등입니다. 이러한 악마들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투쟁 외에도, 육체를 통해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공격들이 있다. 이는 온갖 종류의 유령 현상으로, 심지어 육체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까지 미친다. 악마들의 모든 교활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니폰트, 스피리도노스 등의 전기를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이 바로 내면과 외면에서 새로운 사람을 대적하는 모든 것입니다. 주의 깊은 이들은 이 움직임들 중 어느 하나라도 침투하지 않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인격을 갈망하는 내면이 사방에서 적대적인 무리에 둘러싸여, 마치 바다에 잠긴 것처럼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적들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 외에도,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격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자. 그 마음은 내면, 즉 다른 세상에 있으며, 그곳에서는 다른 존재가 서 있고 활동하고 있다. 그의 생각에는 영적인 대상들이 있고, 의도에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 즉, 그는 정욕적이고 죄악된 것에서 벗어난 것이다. 나중에 선의 발전을 돕는 질서가 규칙 속에 확립되면, 그가 온전히 영적이고 거룩한 빛의 영역에 서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죄악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주의에서 배제되어 규칙의 억압 아래 놓여 있다. 그것은 가끔, 때때로 튀어나왔다가 다시 도망가며, 주의를 끌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것은 오직 내면의 눈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을 상기시키고, 단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되새기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적대적인 것이 나타나는 주된 형태는 **바로 '생각'이다**. 원수가 나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는 이미 무익한 것이 아니라 종종 승리를 거둘 수도 있는데, 이는 생각에 곧 욕망이 기울어질 수 있고, 욕망 뒤에는 결단과 행동이 따르기 때문이며, 이는 이미 죄이자 타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했던 성부들은 정욕의 분출과 그에 대한 사로잡힘의 형태와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생각의 침입, 속마음, 쾌락, 욕망, 정욕, 끌림, 결심,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행동. 그들이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때로는 하나씩 차례로 점진적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때로는 각 단계가 순서와 무관하게 따로 나타나기도 한다. 단, **결심은** 예외로, 이는 결코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항상 숙고와 자유 의지의 기울어짐이 선행되는 행위이다. 결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순결이 온전하고 양심도 깨끗하다. 그러므로 그 이전의 모든 행위는 한 단어로 지칭된다: **'생각'** — 단순하게 혹은 수식어를 붙여, 단순한 생각, 열정적인 생각, 음탕한 생각;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단순히 '생각'으로서, 즉 죄악된 대상에 대한 표상일 뿐이거나, '음탕함', '갈망', '소망'으로서, 또는 마침내 '열정', '끌림'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이나 영을 열정적이고 죄악적인 쪽으로 부르고 유혹하지만, 마음이 그것들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매번 그것들과 싸워 결국 그것들을 몰아낼 때까지는 아직 악도 죄도 아니다. 이 싸움의 범위는 생각, 정욕, 열정, 끌림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것들이 사라지고 그 흔적이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이며, 이 싸움의 모든 규칙은 바로 그 목적을 향해 있다. 물론 세상도 사탄과 마찬가지로 작용하지만, 그들의 유혹적인 행동은 오직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통해서만 우리의 의식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흔들어 그들을 따르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교활한 계략은 이곳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수단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삶과 활동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해에서 사람의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평이나 절망, 혹은 덕을 저버리려는 생각이 목표이다. 이에 따라 영적 전쟁에 관해 단호히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죄악이 어디서, 어떻게 유발되든 간에, 모든 힘과 주의를 바로 그 죄악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부터 대적하여 싸워라. 이 법칙은 지극히 중요하다. 이는 사람을 내면적으로, 결과적으로 힘 있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들의 모든 규칙은 생각, 정욕,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들의 특성에 적용됩니다. 반면 원인은 언급되지 않거나, 설령 언급된다 해도 이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종종 구분 없이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악마도, 정욕도 똑같은 정욕을 자극할 수 있고 실제로 자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욕이 특별한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모든 주의는 자기 내면, 즉 생각과 소망, 정욕, 욕구, 특히 생각에 집중되어야 한다. 마음과 의지는 생각만큼 유동적이지 않으며, 정욕과 욕망은 드물게 따로 일어나는 법이 없고, 대부분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출된다. '생각을 끊어내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다.'

이 후로는 영적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매우 쉽게 그릴 수 있다. 이는 『기독교 생활에 관한 편지』에 충분히 묘사되어 있다. 거기서 발췌해 보겠다.

기독교인의 전투 기술을 구성하는 영적 전쟁의 규칙들 중, 어떤 것은 공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다른 것은 전쟁을 가장 가볍고 성공적으로 끝내는 데 기여하며, 또 다른 것은 승리의 열매를 가장 확고하게 확보하거나 패배의 결과를 가장 신속하게 제거하는 데 기여하므로, 자연스럽게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가) 전투 전에 지켜야 할 규칙, 나) 전투 도중의 규칙, 다) 전투 후의 규칙.

전투 전에 전사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 공격을 예방하거나,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심지어 승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그는 죄악된 움직임의 영역을 제한하고, 이를 한곳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동요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을 어디로 집중해야 할지도 더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 죄악의 영역에 대한 대략적인 외적 윤곽은 대체로 이렇다. 삶의 중심인 '마음'에 자리 잡은 죄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을 통해 스며들고, 그 후 인간의 모든 대외적 관계로 퍼져 나가며, 마침내 그를 둘러싼 모든 것에 그 그늘을 드리운다.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쫓겨났더라도, 죄는 여전히 그 주변을 맴돌며, 예전과 똑같은 것으로 양분을 얻고 있다. 얼굴, 사물, 사건들은 사람이 죄를 저지르던 시절 그들과 연결 지었던 것과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분별 있는 전사는 이제 이 적의 외부적 양분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가) 자신의 모든 외적 행동을 재구성하고, 모든 것에 새로운 모습, 새로운 동기, 새로운 시간 등을 새로운 삶의 정신에 따라 부여하는 것; 나) 마땅한 일 없이 지나는 시간이 단 한 시간도 남지 않도록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다. 필요한 활동으로 채워지지 않은 여유 시간은 아무 것으로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고 영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채워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언급된 성향과 정반대되는 어떤 육체적 수련이 얼마나 유익한지는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다; 가) 자신의 감정, 특히 눈, 귀, 혀를 통제해야 한다. 이들은 마음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바깥에서 마음으로 죄를 전달하는 가장 쉬운 통로이기 때문이다; d) 일반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모든 것—사물, 사람, 상황—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특히 자신이 항상 머무는 장소를 영혼에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것들로 채워서, 이렇게 하여 외적인 세상에서 살면서도 마치 어떤 신성한 학교에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모든 외적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 않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모든 걱정을 덜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뜻밖의 죄의 반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싹트는 새로운 삶을 양육하고 굳건히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죄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더 이상 이곳에서 양식과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2. 이제 사람이 내면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첫 번째 승리에서 벗어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려 한다면, 즉 그때 자신 안에서 되살아난 감정과 태도를 끊임없이 되살린다면, 죄는 이로써 내면에서도 차단될 것이며, 이곳에서 더 이상 버팀목이나 견고함을 얻지 못한 채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양식과 버팀목을 잃은 죄는, 갑자기 소멸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 후 죄와의 싸움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며, 모든 것이 (특히 새로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경향이 있는) 생각들과의 싸움에 집중될 것이며, 드물게는 정욕과 성향들과의 싸움에 집중될 뿐인데, 이 경우에는 오직 **세심하게** 경계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 두 가지, 즉 '맑은 정신'과 '분별력'이 그리스도의 전사가 항상 갖추어야 할 두 명의 경각심 있는 파수꾼이다. 전자는 내면을 향하고,

후자는 외부를 향한다. 전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움직임을 지켜보고, 후자는 외부 영향으로 인해 마음속에 일어날 움직임을 미리 간파한다. 첫 번째에 대한 법칙: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영혼에서 온갖 생각이 쫓겨난 후,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그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는 모든 것을 꼼꼼히 지켜보라. 특히 감정과 욕망이 행동을 앞서게 하지 말라. 모든 악은 거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법칙: 매일 아침 시작과 함께 앉아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만남과 상황,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움직임을 샅샅이 훑어보고, 예상치 못한 공격이 닥쳤을 때 당황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마음속에 적절한 방어 태세를 갖추어 두라. 그나저나, 실제 공격이 닥쳤을 때 더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도적으로 마음속에서 싸움을 벌이고, 마음속으로 자신을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 놓아보며, 이러저러한 감정과 이러저러한 욕망을 경험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그곳에서 자신을 마땅한 경계 안에 머물게 할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보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특히 도움이 되었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 훈련은 투지를 길러주며, 주저함 없이 적을 맞서고, 마치 경험으로 익힌 요령처럼 큰 어려움 없이 적을 물리치도록 훈련시킨다. 게다가, 전투에 착수하기 전에, 언제 공세적으로, 언제 방어적으로, 언제 후퇴해야 할지 미리 알아야 한다. 이러저러한 전투 방식의 사용이 영적 성숙의 단계에 부합한다는 점 외에도, 처음에는 후퇴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즉 주님의 보호 아래 숨어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미 경험을 통해 적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공격 방식을 연구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고의로 내면의 정욕이 불타오르게 내버려 두거나, 정욕이 온 힘을 다해 작용해야 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놓아, 싸움과 승리의 기회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정욕적 흥분은 오직 이 방법이나 저 방법 중 하나로만 이길 수 있다. 생각은 반드시 쫓아내야 하지만, 성향과 정욕, 특히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경우 모두 무지 하나 때문에 승리를 놓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코 승리를 이끄는 주된 생각 없이 싸움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는 마치 승리의 깃발과도 같다. 과거에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을 선의 편으로 결정지었던 것처럼, 지금도 영혼의 각 죄악적인 움직임과 싸울 때, 그 생각은 우리를 어려움 없이 승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 모든 적의 무리와 모든 악한 생각과 욕망이 흩어져야 한다. 그 생각은 사람을 고무시키고 자신을 초월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자주 그 생각을 의식 속에 불러일으키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나는 등불을 마음의 굳건한 터 위에 영원히 확고히 세워야 한다. 이 생각보다 죄를 근절하려는 열정을 더 강하게 불태우는 것은 없다. 그 열정은 마치 살아 있는 물의 빠른 흐름과 같아서, 파도를 일으키되 요동치지는 않으며, 유혹이라는 돌이 던져질 때 생기는 모든 파도를 눈에 띄지 않게 만든다.

이러한 주의사항과 규칙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전사여, 전투를 향해 나아가라. 그러나 전투가 한창일 때에도, 방어하는 입장이 되어 무질서하게 공격해 오는 적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종종 특별한 긴장감 없이 단 하나의 행동 원칙만으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적의 접근—즉, 생각이나 정욕, 또는 성향에서 비롯된 초기의 동요—을 감지하면,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적임을 깨닫도록 서둘러야 한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피와 살처럼 여기고, 마치 자기 자신처럼 지켜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큰 실수이며, 누구나 저지르는 실수이다. 모든 죄악은 우리에게 닥친 외부의 것이므로, 항상 그것을 우리 자신과 분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 안에 배신자가 생길 것이다. 자신과 싸우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자신'과 그 안에 숨어 있는 '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자신에게서 알려진 악한 움직임을 분리하여 그것을 적으로 인식한 다음, 그 인식을 감정으로 전달하고,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반감을 되살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를 몰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죄악된 움직임은 그로부터 오는 일종의 쾌감을 통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반감이 일면, 그것은 모든 버팀목을 잃고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쉬운 것도, 가능한 것도 아니다. 분노로 생각을 제압하는 것은 쉽지만, 욕망을 제압하는 것은 더 어렵고, 정욕을 제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들 자체가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적이 이런 식으로 싸움 없이 승리를 내주지 않을 때는, 용감하게 그러나 자만이나 오만함 없이 싸움에 나서라. 소심함은 영혼을 혼란과 일정한 불안정함, 그리고 이완 상태로 이끌며, 자기 확신이 없는 영혼은 쉽게 넘어질 수 있다. 자만과 오만은 그 자체로 싸워야 할 적들이다. 이를 방치한 자는 이미 넘어진

것이며, 새로운 넘어짐에 스스로를 노출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을 무기력함과 부주의함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솟아나는 감정들이 감정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영혼의 입구에서 바로 맞서며 그곳에서 타격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 혼란을 일으키는 생각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과 정반대되는 확신을 마음속에 서둘러 세워라. 이러한 반박은 마음의 싸움에서 방패일 뿐만 아니라 화살이기도 하여, 네 마음을 지키고 적의 심장 깊숙이 꽂아 넣는다. 그 이후로 싸움은, 솟아난 죄가 그것을 방어하는 생각과 관념들에 의해 끊임없이 보호받는 반면, 싸우는 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반대되는 생각과 관념들로 이러한 요새들을 파괴해 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싸움이 지속되는 기간은 온갖 다양한 상황에 달려 있으며, 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다만 조금이라도, 심지어 생각 속에서라도 약해져 적의 편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한다면 승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죄악적인 움직임은 우리 안에 확고한 발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곧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후에도, 비록 양심에 따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여전히 유령처럼 영혼 속에 머물며 자리를 내주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가 외부의 힘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이다; 그러므로 너도 외부, 즉 지상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도움을 구해야 한다. 즉, 네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과 모든 성인들, 특히 수호천사를 부르짖어야 한다. 하느님께 대한 헌신은 결코 수치스럽게 남지 않았다. 다만, 생각과의 싸움은 별개의 문제이고, 정욕과의 싸움은 또 다른 문제이며, 욕망과의 싸움은 또 다른 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생각은 생각마다, 욕망은 욕망마다, 정욕은 정욕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은 사전에 묵상을 통해, 혹은 수행자들의 경험과 가르침을 통해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엄격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단순한 경멸만으로도 원수를 쫓아낼 수 있지만, 저항은 오히려 원수를 증식시키고 자극할 뿐이다. 적은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쫓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에 남겨진 단순한 생각 하나조차도 악한 씨앗처럼, 영혼이 자신 쪽으로 미묘하게 기울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싸움이 한창일 때는 미래의 싸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때 만들어진 규칙들은 항상 매우 엄격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항상 그 규칙들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그토록 해롭고 전사에게 유혹적인 '실패의 경험'을 낳게 된다.

전투가 끝났다. 패배에서 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되, 구원의 기쁨에 지나치게 휩쓸리지 말고, 방심을 허용하지 말며, 열정을 늦추지 마라. 원수는 종종 단지 패배한 척할 뿐이며, 네가 안도감에 빠졌을 때 기습을 통해 더 쉽게 너를 타격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전투 무기를 벗지 말고, 예방 수칙을 잊지 마라. 언제나 기민하고 경계심 있는 전사가 되어라. 차라리 앉아서 전리품을 정리하라: 전투의 전 과정을 샅샅이 살펴보라 — 그 시작, 전개, 그리고 마침내 무엇이 그 계기를 제공했는지, 무엇이 특히 전투를 격화시켰는지, 무엇이 그 끝을 맺었는지. 이는 패배자들에게 바치는 일종의 공물로서, 향후 그들을 상대로 한 승리를 지극히 수월하게 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영적인 지혜와 수행자의 경험을 얻게 된다. 누구에게도 승리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이는 적을 크게 자극할 뿐만 아니라, 너를 기진맥진하게 만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허영심은 마음의 요새로 통하는 문을 열어줄 것이며, 한 적을 이긴 후에는 온 무리의 적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만일 패배하게 된다면, 슬퍼하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고집을 부리지 마라. 서둘러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회개로 이끄라.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은 가능하며 또 그래야만 한다. 서둘러 달리는 사람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재빨리 일어나 다시 목표를 향해 길을 달려간다. 그를 본받으라. 우리 주님은 마치 아이의 손을 잡고, 비록 아이가 아주 자주 걸려 넘어지더라도 결코 떠나지 않는 어머니와 같으시다. 무기력한 낙담 대신, 이번 넘어짐에서 겸손과 신중함의 교훈을 얻어 미끄러운 곳이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곳을 피하며 새로운 위업을 향해 용기를 내라. 진심 어린 회개로 죄를 씻어내지 않는다면, 죄는 네 안에서 어느 정도 힘을 얻어 필연적으로 너를 죄의 바다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되고, 너는 다시 첫 싸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나, 하나님만이 그것이 가능할지 아실 것이다. 어쩌면 지금 죄에 빠져버리면, 회개의 기한을 넘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후에는 네 마음을 찔러 깨울 만한 진리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너에게 은혜조차 허락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영원한 고통에 처해질 자들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의 규칙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모든 무기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모든 것을 묘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내적 투쟁의 일은 헤아릴 수 없고 심오하며, 그 상황은 지극히 다양하고, 싸우는 당사자들도 너무나 제각각이다. 어떤 이에게는 유혹인 것이 다른 이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으며, 어떤 이를 뒤흔드는 것에 대해 다른 이는 완전히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모두를 위한 단일한 규칙을 정립하는 것은 단연코 불가능하다. 전투 규칙을 가장 잘 고안해 낼 수 있는 이는 바로 각자가 스스로이다. 경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오직 자기 자신을 이기려는 열렬한 소망만 있으면 된다. 초기 수행자들은 책에서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규칙들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단지 겉모습만을 보여줄 뿐이다.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각자가 실제로 싸우게 될 때 비로소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서 그를 이끄는 것은 오직 자신의 분별력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뿐이다. 각 사람 안에서의 기독교적 삶의 내적 흐름은, 지극히 복잡하고 은밀한 고대의 지하 통로를 연상시킨다. 그곳에 들어서면, 시련을 겪는 이는 몇 가지 대략적인 지침을 받는다 — 저기서는 이것을, 저기서는 저것을, 여기서는 이런 표식을 따라, 저기서는 저런 표식을 따라, 그리고 나서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데, 때로는 희미한 등불 빛만 있을 뿐이다. 그에게 있어 모든 일은 정신의 집중, 분별력, 신중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도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은밀함은 내면의 기독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비록 수많은 규칙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홀로 나아간다. 오직 훈련된 마음의 감성과, 특히 은총의 속삭임만이 그에게 있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변함없고, 속이지 않으며, 결코 떠나지 않는 인도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를 떠난다.

이것이 바로 온갖 정욕, 욕망, 그리고 생각과의 싸움의 양상이다. 정욕, 욕망, 생각은 모두 동등하므로, 각 생각과의 투쟁을 개별적으로 다룰 특별한 필요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 보자:

1. **미묘하고** 가장 미묘한 생각도 있고, **거칠**고 가장 거친 생각도 있다. 후자는 누구나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전자는 마음에 머무는 동안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나중에야 — 행동을 통해, 게다가 자신보다는 타인을 통해 — 드러난다. 바로 자신의 평온함과 선함, 순수함을 조금도 믿지 말고 항상 의심하라는 충동이다. 일의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어떤 생각들이 그 과정을 동반하고 마무리하는지 살피고, 이를 통해 나중에 처음에 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다른 신뢰할 만한 사람을 두는 것이다. 익숙한 눈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즉시 지적해 줄 것이다. 가장 미묘한 생각에 대해 말할 때, 오직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육체와 영혼 양쪽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눈에 띄지 않고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점으로, 사람은 자신이 정결하게, 정욕의 섞임 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욕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 원인은 아직 확고해지지 않은 마음의 순수함, 혹은 더 정확히 말해, 본성과 외래적 요소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미묘하고 가장 미묘한 것들이 거칠고 가장 거친 것이 될 것이니, 그때가 되면 경험을 통해 주의력이 예리해지고, 마음의 감각이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생각과 소망, 정욕 중에는 돌발적으로 닥쳐오는 일시적인 동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날과 달, 해를 거듭하며 지속되는 것도 있다. 전자는 가볍지만, 그것도 경시해서는 안 되며,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순서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원수에게는 마치 법칙이 있는 듯하다. 곧바로 정욕으로 시작하지 않고, 먼저 생각으로 시작하여 그것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분노로 쫓아냈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더 관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러면 욕망과 정욕이 생겨나고, 여기서부터 동의와 행동까지는 한 걸음뿐이다. 지속되는 생각들은 무겁고 치명적이다; 주로 **'유혹하는 것'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이에 관해 알아야 할 점은, 그것들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비록 그 특성상 본성에 속하는 면이 있기는 해도), 항상 원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화를 위한 특별한 의도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이는 우리의 충성심과 믿음, 불변함, 그리고 내면의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시험하고 확고히 하기 위함이며, — 그러므로 비록 비방, 절망, 불신과 같이 새로워진 은혜로운 마음에 너무나 모욕적일지라도, 이를 기꺼이 참아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유혹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며, 생각과 믿음으로 그것들을 자신과 자신의 자유로부터 분리하여 마음을 그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하는 것이다.

3. 싸워야 할 생각들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며, 종종 겉보기에는 선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자주 무관심해 보이기도 한다. 나쁜 생각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법칙이 있다. 바로 즉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분별하거나 숙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떤 생각을 실행에 옮겨야 하고 어떤 생각을 버려야 할지 구별하는, 모두가 칭송하는 경험적 지혜가 포함된다. 이에 대한 규칙을 제시할 수는 없다. 각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방식이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정해진 일의 순서가 있다면 그 순서를 따르고, 새로 다가오는 모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내쫓아 버려라. 만약 어떤 생각이 그 자체로나 결과로나 나쁜 점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때조차도 갑자기 그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떤 이들은 5년이나 기다렸다가도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자신의 이성과 마음을 믿지 말고, 모든 생각을 지도자에게 상의하는 것이다. 이 규칙을 어기는 것은 언제나 큰 타락과 유혹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4. 나쁜 생각은 유혹하고, 겉보기 좋은 생각은 미혹한다. 전자를 따르는 자는 죄를 지은 자, 타락한 자로 여겨지지만, 후자를 따르는 자는 미혹에 빠진 자로 간주된다. 모든 미혹을 그 기원과 특성대로 묘사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속성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람이 자신이 실제로는 아닌 모습, 예를 들어 다른 이들을 깨우치도록 부름받은 자라거나, 비범한 삶을 살 능력이 있는 자라고 확신하며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다. 그 근원은 '나는 무언가 중요하며, 결코 사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가장 미묘한 생각이다… 하찮은 자도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상상한다. 바로 이 가장 은밀한 교만에 적(敵)이 매달려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모든 미묘하고 사악한 생각도 우리를 미혹 속에 가두는데, 우리가 선하고 경건한 생각에 이끌리고 있다고 믿을 때조차도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매 순간 미혹 속에 빠져 있으며, 마치 유령 속을 걷는 것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에 얽매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악이 아직 내면에 남아 사라지지 않았고, 선은 표면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는 마치 증기로 인한 안개처럼 흐릿하게 보인다.

5. 각 개인의 생각에 관해서는, 미리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으며, 즉 그 생각에 대한 개념과 그 발생 원인, 결과, 그리고 이를 떨쳐내는 방법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이는 전투가 벌어질 때, 즉 증오심만으로는 그 생각을 몰아내지 못해 그것이 번식하기 시작하며 유혹하고 설득할 때 매우 유용한 비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생각에 대항할 수 있는 반박할 만한 무언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 둔 생각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부들은 가장 중요한 **여덟** 가지 정욕을 선정하여 본보기로 기술해 두셨으니, 이를 통해 구하는 모든 이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싸움의 유일한 대상은 아니며, 단지 가장 중요한 것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저작들에서도 다른 정욕들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규칙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다리꾼의 저서에는 이에 관한 가장 풍부한 모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6. 육체적인 생각이 있고, 영혼적인 생각이 있으며, 영적인 생각이 있다. 누구에게나 명백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생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당연히 처음에는 육체적인 생각이 더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는 영혼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드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쟁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거나, 그 위치를 바꿔 나가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육체를 이긴 자가 안전하다는 느낌에 안주하여 방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을 통해 패배할 수 있고, 영혼을 다스린 자도 영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숨이 있는 한 싸움은 멈추지 않겠지만, 때로는 잠잠해지기도 하며, 때로는 오랫동안 그러할 수도 있다.

7. 성 도로테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동하는 정욕이 있고, 싸우는 정욕이 있으며, 이기는 정욕이 있다." 첫 번째는 죄를 짓고, 두 번째는 정화되기 시작하며, 세 번째는 무정욕에 가까워진다. 누구든지 정욕에 맞서 더 단호하게 저항하여, 욕망이나 쾌락은 물론이고 심지어 생각조차 양보하지 않거나, 설령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서둘러 마음속에서 뿌리째 뽑아내어 항상 정욕에 반하는

감정으로 자신을 이끄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순수함에 이르게 된다. 자신에게 더 유순하고 관대할수록, 그 과정은 멈춤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더 오래 지속된다. 이는 자기 연민이나, 자신을 정욕으로부터 분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마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듯이, 사람은 적을 품어 키우며 스스로에게 적대하게 된다.

8. 투쟁의 결과로 마음은 사념으로부터, 심장은 정욕으로부터, 의지는 성향으로부터 정화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무정(無情)의 경지에 이른다. 그의 내면은 영적인 대상들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된다.

9. 생각, 욕망, 정욕과의 정신적 투쟁은, 비록 그 결정적인 필요성과 불가피성, 그리고 승리의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의 더러움을 정화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어 다른 모든 수단을 배제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와 더불어**, 정욕을 적극적으로** 물리치거나,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통해 정욕을 근절하고, 소멸시키며, 분쇄(파괴 — *편집자 주)*하는 일이 끊임없이 연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정열이 우리의 힘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정열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스며들었던 것이다. 모든 정열적인 행위는 그 힘 속에 정열의 일부를 담았고, 모든 행위의 총합으로 인해 힘은 정열로 넘쳐흘렀으니,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거나 옷이 악취를 머금는 것과 같다. 반대로, 이 열정을 짜내기 위해서는 처음의 행위들과 정반대되는 행위들을 행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각 행위가 힘 속에 침전되면서 그 힘에서 상응하는 부분의 열정을 밀어내고, 자주 그리고 끊임없이 행해지는 수많은 그러한 행위들이 모든 열정을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단지 적절하게만 사용된다면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이를 실천하는 이들은 몇 번의 시도 후에 이미 정욕의 약화, 안도감과 자유, 그리고 영혼 속의 어느 정도의 빛을 느끼기 시작한다. 생각으로만 싸우는 것만으로는 정욕을 의식에서 쫓아낼 뿐, 정욕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단지 숨어 있을 뿐이다. 반대로, 정욕과 대립되는 행동은 이 뱀의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실천 중에 정신적 투쟁을 중단해도 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정신적 투쟁은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로 동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욕을 줄이는 대신 증폭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정욕에 대항하는 실천 중에 다른 정욕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식 중에는 허영심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실천에서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할 것이다. 실천과 연계된 정신적 투쟁은 정욕을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타격하여, 마치 적이 앞뒤로 포위되어 격파될 때처럼 순식간에 정욕을 근절해 버린다.

10. 이러한 실천적인 자기 수양에서는 정해진 순서와 체계를 지켜야 하며, 이를 구축할 때는 정욕의 일반적인 특성, 자신의 성격, 그리고 긍정적 활동에서 언급된 선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 번째 경우에는 가장 주요한 정욕들, 즉 쾌락 추구, 욕망, 자만심을 겨냥해야 하며, 따라서 주로 자기 혐오와 가혹함, 재산의 낭비와 물건의 파기, 타인에 대한 복종과 굴복, 혹은 자기 비하(바르소누피우스의 저서 참조)를 통해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성자들에게는 항상 이러한 종류의 행위가 최우선으로 드러난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주된 정욕이 드러난다. 이 주된 정욕은 회심할 때, 즉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서원할 때, 이 정욕이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 정욕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항해야 할 가장 가까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정욕은 다른 모든 정욕을 가리는 동시에, 그것들을 자기 주위로 묶어두거나, 자신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다른 정욕들은 오직 이 정욕이 약화되고 정복되었을 때에만 드러날 수 있으며, 이 정욕과 함께 쫓겨나(흩어지고, 산산조각 나게 됨 — *편집자 주)*게 된다. 처음부터 온 힘을 다해 이 정욕에 맞서야 하는데, 특히 이때는 이 정욕에 대한 강한 증오심이 생겨 저항할 힘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욕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초기 정욕들을 정복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세 번째 측면에서는 덕행의 순서가 저절로 드러난다. 즉, 먼저 지배적인 정욕에 대항하는 일을 시작하고, 다음으로 근원적인 정욕들에 대항하며, 그 후 이 둘이 가라앉으면, 덕행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더 정확히 말해 내면의 지시에 따라 적대적인 무리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할 자유를 갖게 된다. 어떤 정욕이 되살아나 드러나면, 바로 그 정욕을 겨냥하여 실천을 계획해야 한다. 이것이 투쟁적 행동의 목표이며, 정해진 법칙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한다. 제시된 순서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항 행위 자체에도 단계성과 균형이 있어야 하며, 산만해진 사람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다니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결실은 없을 것이며, 허영만

심어질 뿐이다. 더 단호하고, 더 끈질기게 행동할수록 결말과 평온에 더 가까워진다.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시작한 일을 인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말이 그 일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하는 이에게 경험이 보여주는 다른 점들도 관찰해야 한다. 일이 바로 그렇게 진행되는 듯하다: 태도 전환 직후에는 곧바로 정욕과의 적극적인 투쟁이 따르고, 그로부터 혹은 그와 함께 즉시 내적 투쟁이 일어나며, 그 후로는 서로를 보강하고 강화하는 관계로 발전한다. 내적인 것이 자라면 외적인 것도 자라고, 외적인 것이 자라면 내적인 것도 자란다; 마침내 어느 순간 둘 다 충분히 굳건해지면, 사람은 정욕을 단호히 소멸시키고 그 뿌리를 잘라버리기 위한 위업과 행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큰 위업과 행위는 스스로 시도해서도 안 되며, 타인에게 권해서도 안 된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힘을 키워가며 행동해야만 활기와 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낡은 옷에 새 보풀을 덧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위업을 향한 열망은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마치 병자에게 때때로 단호하고 치유력 있는 치료법이 본능과 직감을 일깨워주듯이 말이다.

11.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 정욕과 싸우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다른 이의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질 때 그 일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신속하고, 더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더 빨리 진행된다. 혼자서는 정신적 전투에서 적을 항상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고, 항상 그에 맞서 행동하며 그에 대한 열정과 결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 전쟁 전체를 이끌어갈 하나의 계획이나 사전 구상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을 자기 수정을 위한 최선이자 단호한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그는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동일한 수단—적극적인 정신적 투쟁—을 사용할 것이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자신의 판단과 구상에 따라 목표와 길, 그리고 갈림길을 분별하며 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정화를 원하고 찾는 자는 주님께 지도자이자 아버지이신 분을 구하고 간구하여 얻으라. 그분을 얻었으면, 네가 알고 있는 것과 네 안에서 보는 모든 것을 그분께 털어놓으라. 그런 다음 내면과 외면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그분께 맡겨라. 마치 가공되지 않은 재료처럼 맡겨서, 그분이 그것으로 주님을 위한 집, 즉 새로운 사람을 지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행한 뒤에는, 이제 자신에 대한 모든 걱정을 버리고 걱정 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원하시는 대로 이끌게 하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행하도록 하라. 우리 쪽에서는 그분께 —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순종,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양심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생각, 욕망, 정욕, 행동, 말 —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털어놓아야 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 볼 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 우리에게 조언을 해 주시고 할 일을 지시하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생각을 털어놓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정욕을 단호히 분쇄하고 악마를 물리치는 힘이다. 계시가 이루어지고 그 계시에 따라 지정된 일이 이행될 때마다, 그것은 마치 상처를 씻어내고 반창고를 갈아 끼우는 것과 같다. 긴급한 치료다! 마음을 연 사람은 모든 불결한 것을 내뱉고, 순종을 통해 그 후 깨끗한 것, 새로운 양식, 치유하는 음식, 맑은 즙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구토제를 복용한 후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욕의 뿌리, 즉 **'자아'가** 잘려나간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이끄는 자는 여전히 **스스로** 그 싸움을 이끌어가며, 이로 인해 ' '가 자아에 대항하여 작용하는 동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자아를 키우게 된다. 반면 지도자가 있을 때는 우리의 **'나'가** 그의 의지 속에서 단번에 단호하게 사라지며, 그와 함께 모든 정욕도 버팀목을 잃고, 이후에는 질서 없이 혼란 속에서 닥쳐와 작용하지만, 이 때에도 그들의 모든 교활함은 솔직함을 통해 간파되어 무력화된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정욕을 죽이고 신속히 순결로 나아가는 강력한 방법이다. 모든 성인들의 경험은 이 방향으로 향하며, 그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회개 후 가능한 한 빨리 지도자를 찾아 선택하면 할수록 더 좋다는 점을 덧붙여야 한다. 열정은 활기차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명한 지도자는 이를 통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특히 끈기, 불신, 반항, 수정 등을 부여하는 자기 수양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로 인해 고통받는 자는 지도자를 선출한 후, 먼저 그 고통에서 치유되어야만, 교육받을 수 있는 착한 아들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 영혼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이해와 뜻대로 하도록 익숙해질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12. 마지막으로, 우리 존재 전체에 대한 마치 최종적인 정화 작업과도 같은, 불 속에서 정화되는 것과 같은 과정은 주님께서 직접 이루신다. 바로 겉으로는 슬픔으로, 속으로는 눈물로 말이다. 이것들이 단지 마지막에 나타나고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니요, 그것들은 처음부터, 가장 초창기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불행과 마음의 상심이라는 형태로 사람을 따라다니며, 사람이 성장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외부와 내부의 평범한 일들의 흐름을 허락하시고 마치 축복하시듯이, 그것들을 우리 안에 이끌어 넣으십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바로잡으시며, 눈물을 주시고 슬픔을 일으키시는데, 때로는 함께, 때로는 차례로, 때로는 이 것이 먼저, 때로는 저 것이 먼저,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저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 슬픔은 불이고, 눈물은 물이다. 이것이 바로 물과 **불로 하는** 세례이다. 성 이삭 시리아인에 따르면,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힘, 즉 외적인 사람의 최종적인 십자가 처형으로 묘사된다. 이 순간은, 사람들이 말하듯, 가장 유혹이 심한 때로, 아들이를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이 겪었던 순간과 비슷하다: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슴 속에는 절망적인 고뇌가, 위에서는 분노가 닥칠까 두려움이, 아래에서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파멸하며 심연 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바라본다. 이곳에서 어떤 이들은 승리를 거두고 나오지만, 다른 이들은 쓰러져 뒤로 물러나 다시 이 산을 오르기 위해 되돌아간다. 이 단계를 통과한 자들은 마치 하늘에 오른 자들처럼 더 이상 세속적이지 않고 천상적이며, 신성한 영에 의해 들어 올려져 그 영에 실려 다니는데, 이는 에스겔의 환상 속 바퀴들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들의 상태는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다.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을 통과한 자들은 그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해로울 수도 있다.

이것은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이다. 그때까지 다른 방법들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정화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끊임없는 슬픔과 고난,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통회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한다. 그 힘은 인도자와 맞먹으며, 인도자가 부족할 때 이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고, 실제로 믿는 자이자 겸손한 사람에게는 대신해 준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이시며, 그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성 이삭 시리아인의 저서에는 주님께서 정화받는 자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점점 더 정화하는 슬픔 속으로 인도하시며, 그 안에서 어떻게 통회하는 영을 불태우시는지가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한 믿음과, 그분께서 보내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것이 부족하면 슬픔이 주는 정화력이 사라지고, 그 힘이 우리의 마음과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한다. 이것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이다. 반면 통회에 관해서는, 자기 자신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죄와 혼란을 주의 깊게 깨닫고, 그 후 진심 어린 회개와 깊은 슬픔을 동반한 잦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외적인 슬픔 없이는 사람이 교만과 자만심에 맞서 견디기 어렵고, 통회의 눈물 없이는 어떻게 내면의 이기주의와 바리새적인 자기 의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성 이삭 시리아인의 글 전체를 통해 외적인 슬픔, 눈물, 그리고 통회가 칭송되고 있다). 전자를 갖지 못한 자는 사도에게서 간음자로 여겨진다. 그것들은 우리의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자신의 힘에 대한 불신과 무지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를 두려워하여 과연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자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절반 이상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다. 그러니 가능한 모든 방법과 지혜를 동원하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통회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자비를 간구하라. 그 수고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끊임없는 통회와, 필요하다면 넘치는 눈물을 주실 것이며, 그 눈물로 마침내 영혼의 얼굴이 완전히 씻겨지고 정화될 것이다. 행복은 자만과 자화자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주님께서 이미 나를 필요 없는 존재로 버리신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마음의 통회를 향한 지극한 열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쁜 제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겉으로 슬퍼할 일이 없을 때라도 속으로 슬퍼하라.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하도록 부르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반면에, 겉으로 슬퍼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위로를 보내시니, 그것은 슬픔을 잊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황홀한 기쁨의 순간들로,

이때는 탄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때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뉘우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정욕을 근절하는 모든 방법이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지적인 노력으로, 때로는 지도자들을 통해, 때로는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마음속의 내적 투쟁 없이는 외적인 투쟁이 성공할 수 없다.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투쟁과 섭리에 의한 정화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내적 투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 자체만으로는 그리 강력하지 않지만, 그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무력해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하는 자와 고통받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와 순종하는 자 모두 내적 투쟁이나 마음의 수양이 부족하여 파멸했고, 지금도 파멸하고 있다. 이때 앞서 내적 긍정적 행위에 대해 말한 것, 즉 그 안에 외적 긍정적 행위의 목적과 힘이 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내적 행위의 모든 의미가 온전히 드러날 것이며, 그것이 모든 수행의 근원, 기초, 그리고 목적임이 누구에게나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내면으로 마음을 모아 영적 의식과 생명력을 일깨우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지도자나 섭리의 인도에 따라 정해진 외적 행위를 수행하되, 동시에 엄격하고 집중된 주의력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주시하라. 욕망의 반란이 솟아나면, 그것을 쫓아내고 타격하라. 마음속으로도, 행동으로도 그러하되, 자신의 죄로 인해 찢어지고 아파하는 영을 자신 안에서 따뜻하게 품는 것을 잊지 말라.

수행자의 모든 주의는 이곳에 집중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수행 중에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마치 자신의 생각의 허리에 묶여 있거나 허리띠를 맨 것처럼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머무름과 수호를 동반한 행보는 절제된 행보이며, 이에 대한 가르침은 절제의 가르침이다. 이제 왜 모든 수행자들이 수행의 미덕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절제의 미덕을 여겼고, 이를 갖추지 못한 이를 열매 없는 자로 여겼는지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이 점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된 바 있으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곳에서 이 미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자기 저항과 자기 강제의 행위에 나서는 것이 오직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더 정확히 말해 내면을 확고히 다진 후에 그 길을 걸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제 우리는 위로 올라가기 위해 바로 그 지점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목표이고, 외적인 것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수고하는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본질적인 끌림과, 그분께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거나, 더 정확히 말해 그럴 능력이 있는 상태를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접근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생생한 신과의 교감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내면에 확고히 자리 잡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불순물과 정욕으로부터 스스로를 정화하는 일, 자신의 힘을 해방시키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활동 속에서 그 힘을 강화하는 일에 쏟습니다. 이 작업은 그의 모든 주의력과 모든 노력, 그리고 모든 시간을 흡수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자신을 익숙하게 하고, 동시에 내적 상태를 정리하고 체계화해 나감에 따라, 그는 자연스럽게 점점 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면으로 집중하며, 그 안에서 끝없이 머무르는 삶의 시작을 마련한다. 이것이 초기 수행의 목표이자, 자기 내면으로의 진입이다. 동시에, 사람이 자기 안에서의 확고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 앞에 추구해야 할 주된 목표가 드러나는데, 이 목표는 이전에는 수많은 일들 뒤에 마치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욕의 영역에서 멀어짐에 따라, 우리 영혼의 주된 열망과 끌림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 모든 노력이 기울여지는 것이다. 이 목표와 열망은 지고의 선인 하느님을 향한 끌림이다. 이는 하느님 안에서 삶의 달콤함을 느끼거나, 하느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맛보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사람을 짓누릅니다. 그는 깨어남의 순간에 자각한 의무와 책임에 따라 노예처럼 섬깁니다. 그 후 두려움은 가라앉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면서도 주님을 위한 일에서 달콤함을 느끼게 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첫 번째 소생이자, 자신의 밝은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이 끌림이 나타나면, 그것은 태어난 것과 같은 순서대로 저절로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을 기다리며, 이를 위해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니, 사람은 이 끌림이 더 빨리 드러나도록 돕기 위해 스스로 알려진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전의 순서에 따라 주로 내적인 긍정적 행위가 지정되지만, 또한 모든 행위가, 그 수행 과정에서 내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끌림을 돕고, 되살리며, 강화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앞서 제시된 모든 행위의 정신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실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은 그 안에 주입된 이 내적 힘 없이는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전의 수고들은 하나님에 대한 끌림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동안 유지해야 할 특별한 내적 마음가짐으로 그 수고들을 이끌어가야 한다.

하나님께로의 상승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 즉 그분께 대한 끌림은 내적 행위가 공고해질수록 형성된다. 그것은 그 행위들 속에서 씨앗처럼 싹트고, 마치 흙 위에서 자라나듯 그 행위들 위에서 성숙해진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대한 끌림을 더 빨리 일깨우기 위해 이 내적 상태를 간직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편에 계신 분으로 바라보려 애쓰며, 자신이 하나님께 보이시는 존재라는 느낌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에 익숙해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며, 마음을 위한 하늘의 창이다.

2.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이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 이 영광이 모든 행위의 척도가 되어야 하며, 그 위에 자신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

3.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그 뜻 안에서 걸으며, 모든 일에서 그 뜻에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용하며, 그 뜻에 대한 복종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용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려고 애쓰라. 네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그것을 주님의 손에서 온 것으로 받아들여라. 사람, 사물, 사건, 기쁨, 슬픔 —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기꺼이, 평안히, 달콤함으로 순종하라. 비록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영적 실천을 통해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을 맑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뵙는 데 확고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하심을 바라보는 데 마음을 두는 데 익숙해질 것이다. 이 관조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 있는 동안 주어지며, 바로 이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 성숙해진다. 이는 살아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하나님을 뵙는 체험과 동시에, 영으로 드리는 경건한 하나님 숭배가 나타나고 완성되는데, 이는 영이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탄원을 드리며, 피조물로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를 낮추는 순간, 고통스러운 그러나 짓밟히고 배척당한다는 느낌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자비를 받으며, 용서받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다.

그 결과, 내면으로 향하는 억누를 수 없는 끌림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목표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이 단지 의도 속에만 존재하는, 추구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끌림처럼 실재적이고 생생하게, 달콤하고 자발적이며 억제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종류의 끌림만이 우리가 제자리에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심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철이 자석 쪽으로 끌려갈 때, 그것은 자석의 힘이 철에 닿았음을 의미한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오직 이 생생한 갈망이 있을 때, 즉 영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경외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닿으심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위한 것이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은 단지 생각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자신을 맛보게 하지 않으시며, 사람 또한 불결하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맛없이 섬깁니다. 그 후, 마음이 정화되고 바로잡혀 감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달콤함을 느끼기 시작하며, 사랑과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삶은 그에게 기쁨을 주는 본성이 됩니다. 영혼은 마치 추위로부터 벗어나듯 모든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며, 자신을 따뜻하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로 끌려갑니다. 이 끌림의 시작은 신성한 은총을 갈망하는 영 안에 있습니다. 그 은총의 감화와 인도하심으로, 이 끌림은 정해진 질서 속에서 성숙해 가며, 그 질서는 행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위 자체를 양분으로 삼습니다. 이 탄생의 징표는 다음과 같다. 즉, 경외심과 두려움, 기쁨 등의 감정이 동반되는, 자발적이고 고요하며 긴장되지 않은 내적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름이다. 이전에는 영이 자기 내면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리를 잡고 흔들림 없이 서 있다. 그에게는 다른 이들과 떨어져 있거나, 모든 외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기쁨이다. 그는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이다*(롬 14:17). 이러한 내면으로의 몰입, 즉 하나님 안으로의 몰입을 '지적인 침묵' 또는 '하나님께 대한 황홀경'이라고 부른다. 때로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이를 지속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는 단지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라, 살아 있고, 침묵하며, 모든 것에서 초월하여 하나님 안으로 깊이 잠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햇살이 이슬 한 방울을 휩쓸어 가듯이, 주님께서도 영을 만지시며 황홀경에 빠지게 하신다. *"그때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고* 선지자가 말하듯이(예레미야 3:12). 많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려 올라갔고, 어떤 이들에게는 영이 일시적이지만 자주 임하곤 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찾는 자 안에서, 신성한 은혜로 인해 그러한 끌림,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되고, 성숙해지며, 완성되어 간다.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은 마음을 정화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5:8). 그러므로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수련과 수행, 행위는 이를 위한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준비 과정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바로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영의 보금자리는 내면에 있습니다. 영적 수련과 수행, 행위가 내면에서 비롯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휘되며, 투쟁의 성공 또한 오직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갈망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면적인 실천이야말로 영적이며 참된 기독교적 삶의 중심적인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성부들은 이를 유일하게 여기며, 온전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제시한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경계하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베드로전서 5:8; 마가복음 14:38). 정신 차림, 즉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성부들에게 있어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으니,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곧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데 있어 단호한 한 걸음,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바로 그 문턱은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며, 그 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힘은 무엇에 있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되는 것, 마치 우리의 영을 입으신 것처럼, 그분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어, *우리 안의 뜻과 행동이 모두* 그분의 일이 되게 하고, 그분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되시며, 우리는 생각과 소망과 감정과 말과 행실 모든 면에서 그분의 도구, 즉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찾으시니, 오직 그분만이 피조물을 통해 피조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깨달은 영도 바로 이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 안에 신이 거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며, 곧 그분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피조물은 자신의 의식과 결정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스스로 행하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자유, 즉 자립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활동이 그분 앞에 무너지고, 사람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 안에서 행하소서. 저는 눈이 멀고 연약합니다"라는 단호한 간구가 터져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고집이 그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어 그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조건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단호하게 맡기는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 영의 가장 내면적이고 은밀한 행위로서, 모든 것이 그러하듯 순간적이지만, 순간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분별력에 따라 길거나 짧게 점차 성숙해 가는 것이다. 그 시작은 첫 회심에 놓여 있는데, 회개하는 자가 서원을 세우며 반드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겠나이다. 오직 주님, 주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저를 버리지 마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는 수행의 길에 들어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열심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초심자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뜻 모두에 따라 필연적인 일입니다. 시작하는 이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그분께 봉사하고자 하며, 실제로 수고한다. 이를 통해 그에게는 확고한 믿음과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솟아나는 열정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사람은 처음의 마음가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열정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들어가며, 그분의 속삭임과 이끄심에 따르는 법을 익혀야 한다.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이 점이 은연중에 암시되어 있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으면 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너를 묶어 이끄실 것이다"*(요한복음 21:18). 처음에는 사람이 스스로 열심을 내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정하신 운명에 따라 제 구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묶인 채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단호한 헌신의 행위이다. 첫 번째 유형의 활동은 그토록 훌륭하고 아름답다 —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그렇기에 그것은 사람을 영원히 자신에게 묶어둘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보답 없는 땅 위에서 땀을 흘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모래와 돌은 많으나 생명의 기운은 없다.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 첫 번째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그 헌신도 어느 정도는 저절로 자라날 수 있지만, 그 성장을 지켜보며 돕거나, 더 나아가 형성되고 자라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엄밀히 말해, 그때에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말한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원했고, 내가 수고했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한다. 원함과 선택, 수고 또한 선한 행위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은 분주함과 노력 뒤에 자신의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열심에서 열심 어린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의 전환은,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의 구원과 정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의식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모든 노력을 다해도 자주 실패하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뜻밖의 큰 성공을 거두며, 실수와 넘어짐, 특히 은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명백한 실수들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라는 생각과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는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만 가능하다.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일과 사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꿰뚫어 보는 것; 강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조건들을 깊이 탐구하여 *"주여, 그 운명으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 수없이 많은 원수들, 가려진 길, 눈앞의 어둠, 셀 수 없이 많은 갈림길,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함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준비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특별한 힘을 얻는데, 바로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광인의 모습으로) 온 세상의 조롱을 감수하며, 은둔과 사막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는 삶의 전환점으로서, 그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러한 모든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손에 곧바로 맡기며, 그분께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지도자의 도움은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하다. 지도자가 지도받는 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구해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줄 때 말이다. 고대 교부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련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씌워 주어야 한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느님께의 전적인 맡김이라는 이 감정은 끊임없는 슬픔, 특히 앞서 언급한 하느님께서 보내신 극심한 시련을 통해 가장 잘

형성된다.

자신을 하느님께 맡긴 자, 혹은 이 은총을 받은 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움직임을 받기 시작하며 그분 안에 머무르게 된다. 자유는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는데, 이는 자기 헌신이 최종적이고 확정된 행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면, 하느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혹은 그의 힘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의 참되고 신성한 삶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으로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연합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며, 온 존재—생각과 마음, 의지—로 그분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다. 이는 자기 헌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기 헌신이 점차 성장하고, 바로 첫 번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아들이심과 그 안에 거함 또한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본래 그러하며, 스스로 높아진다. 그러나 다시 말해, 우리 쪽에서도 이를 돕거나 더 빠른 성숙을 이끄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 즉 그것이 형성되고 작용하는 영역은 지적인 영적 기도이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무르시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 행위가 아니다. 이는 특별한 영적 활동으로, 지도받는 자와 지도하는 자 모두에게 있어 의도적으로 이끌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알 수 없이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 기도 안에는, 말하자면, 수행의 규칙이 이룰 수 있는 궁극의 경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시메온 신학자의 저술 참조). 왜냐하면 이 기도가 확립되고 굳건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칙들은 그 기도의 초보적인 단계에만 해당할 뿐, 수행이 완성되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숨겨져 보이지 않게 되는데, 마치 모세가 구름 뒤에 숨어 있던 것처럼 말이다.

생생한 신과의 교감은 침묵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무정(無情)으로 이끈다.

내면으로 향하는 이러한 저절로운 끌림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 특히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과 끊임없는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사람은 침묵의 경지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 오직 그만이 이 고행을 견뎌내고 결실을 맺으며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을 공동 생활과 타인과의 공존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이 아르세니우스 대성인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 안으로 향하는 그 끌림이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침묵의 수행자는,” 요한 사다리꾼이 말하길, “하나님의 달콤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열심히 가까워지듯이, 그들에게 미움을 품지 않은 채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다리』 제27편에서 침묵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인용해 보자:

“외적인 침묵이 있는데, 이는 누군가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홀로 사는 경우이며; 내적인 침묵이 있는데, 이는 누군가가 영 안에서 하나님과 홀로 머무르되, 긴장하지 않고 자유롭게, 마치 가슴이 자유롭게 숨 쉬고 눈이 자유롭게 보는 것처럼 머무르는 경우이다. 이 둘은 함께 가지만, 후자가 없이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침묵자는, 육체를 벗어난 존재인 자신의 영혼을 육신의 집 안에 머물게 하려고 애쓰는 자이다. 침묵자의 방이 그의 육신을 품고, 이 육신 안에는 이성의 성전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아직 하나님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한 자는 침묵에 이를 수 없으며, 정욕을 아직 이기지 못한 자는 그 달콤함을 맛볼 수 없다. 영적 정욕에 시달리면서도 침묵을 시도하는 자는 배에서 심연으로 뛰어내린 뒤, 널빤지 하나에 의지해 무사히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

성급함과 교만, 위선과 원한에 사로잡힌 자들 중 그 누구도,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침묵의 흔적조차 감히 엿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달콤함을 맛본 자는 침묵을 추구하여,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그 달콤함에 끝없이 만족하고,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불로 불을, 치유로 치유를, 갈망으로 갈망을 일으키려 한다. 그러므로 “침묵하는 자는 천사의 지상적 형상이다. 갈망의 종이 위에 정성의 필체로, 그는 자신의 기도를 나태와

게으름에서 해방시켰다… 침묵하는 자란, 영적으로 외치는 자이다: *'나의 마음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시 56:8). 침묵하는 자는 *'나는 자고 있으나 내 마음은 깨어 있도다*(아가 5:2)'라고 말하는 자이다."

이처럼, 침묵자의 모든 활동은 오직 한 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그는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 마치 왕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 왕의 귀에 속삭이듯 이야기한다. 이 마음의 행위는 또 다른 것, 즉 생각의 평온함을 지키는 일로 보호되고 지켜진다. 생각의 질서와 신성에 대한 훔쳐갈 수 없는 생각이 침묵의 본질을 이루며, 나아가 근심 없음을 가져다준다. 높은 곳에 앉아, 이를 안다면 지켜보라. 그러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들어와 포도송이를 훔치려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 파수꾼이 지치면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 앉아 새로운 용기를 내어 처음 하던 일에 매진한다.

복된 고요함을 사랑하는 이들은 영적 능력의 수련을 거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는다. 그들은 창조주를 찬양하며 영원토록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고요함의 하늘에 오른 자도 창조주를 찬양하며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 완전한 무염려가 미리 확립되지 않았다면, 게으름 없는 기도도, 도둑맞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일도 이룰 수 없다. 마지막 것을 얻지 못한 자는 처음 두 가지를 이성적으로 실천할 수 없으니, 마치 글자를 배우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작은 머리카락 하나가 눈을 흐리게 하고, 사소한 근심이 고요함을 망친다."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드리고자 하면서도 근심으로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는, 마치 자신의 발을 단단히 묶어 놓고 빨리 가려고 애쓰는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참된 침묵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마음 깊은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며, 그 달콤함에 이끌려 침묵과 하나가 된 자들만이 진정한 침묵의 수행자들이다. 이러한 이들은 침묵을 이성적으로 실천한다면, 곧 그 열매를 맛보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정화된 생각, 주님에 대한 경외심, 끝없이 이어지는 기도, 훔쳐갈 수 없는 경계, 끊임없는 눈물 등이 있다.

이처럼, 침묵으로 이끄는 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달콤하게 서 있는 상태에 대한 갈망이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모든 수행을 통해 정욕을 정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안의 선은 굳건해지고 악은 소진된다. 그 문턱 바로 앞은 근심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그 본질은 마음속에서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자세이며, 이를 통해 불이 불에 더해진다.

하나님의 접촉으로 인한 영의 불타오름은 사람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무정욕의 상태로 이끌어 올린다. 이 불 속에서 우리의 본성은 도가니 속의 정제되지 않은 금속처럼 재용해되어, 천상의 순결로 빛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준비된 거처가 된다.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길에는 피할 수 없는 침묵이 자리 잡고 있는데, 비록 항상 수도자의 삶에 대한 잘 알려진 모범과 같지는 않더라도, 내면으로 집중되고 심화된 영이 신성한 성령의 불로 세라핌의 순결에 이르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타오르는 상태로 승화되는 것은 언제나 그러하다.

이 불은 회심의 순간에 스며들어, 서원에 따라 사람이 수련에 들어서는 즉시 작용하기 시작하지만, 이는 때로는 나타나고 때로는 숨어드는 초기의 온기일 뿐이다. 이 온기는 마음의 정화를 위한 수련이 지속되는 내내 작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러한 수련을 견뎌낼 수 없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 안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정욕의 차가움 때문에 그 온열이 온 힘을 드러낼 수는 없다. 정욕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그 온열은 온 힘을 드러낸다. 첫 번째 온열은 젖고 축축한 장작이 타는 것과 같고, 두 번째 온열은 불이 그 장작을 말리고 그 구성 전체에 스며들었을 때 타는 것과 같다. 또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첫 번째 열기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 조각이 들어 있는 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열기는 있지만, 얼음 조각이 녹기 전까지는 물이 끓지 않으며 앞으로도 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얼음 조각이 녹으면, 열기가 물 전체에 스며들어 물을 점점 더 뜨겁게 달군다; 이로 인해 물은 끓어넘치고 정화된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열기와 닮았다. 마지막 두 가지 불의 작용은 기독교적 완전함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연소의

작용을 묘사하며, 이는 완전한 순결과 무정(無情)으로 이끈다.

"정욕의 실체는 신성한 불에 의해 소진되면서 소멸되고, 그 실체가 뿌리 뽑히고 영혼이 정화됨에 따라 정욕도 사라진다."

다음은 『사다리』 제29장에서 밝히고 있는 무정(無情)의 의미입니다. "무정이란 육체의 부활 이전에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다."

영혼의 부활이란 낡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바로 낡은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새로운 사람이 탄생할 때를 가리킨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리라"*(에스겔 36:26)는 말씀에 따라(이사악 시리아인 참조).

주님 안에서 완성된 자들이 지닌 이 완전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온전함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물질로부터 해방시켜, 종종 육체 속의 삶에서 황홀경에 빠져 하늘로 승천하여 환시를 보게 한다.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린도전서 2:16)라고 기록함으로써 무정심을 보여주었다. "주님의 은총의 파도를 나에게 약하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시리아의 수행자(성 에프렘) 또한 무정심을 보여주었다.

정욕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모든 대상에 대해 무감각해진 그는, 비록 그것들이 눈앞에 있더라도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해졌습니다. 이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도 정욕의 동요를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창녀를 순결하고 수행자다운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 자는, 아직 이 세상에 헐벗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그분은 그의 모든 말과 행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그를 인도하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는 내면의 깨달음으로 인해 마치 어떤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모든 인간의 가르침을 초월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날 때*(시 41:3), 이는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행위를 견딜 수 없으므로, 내가 썩어질 몸에 빠지기 전에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불멸의 선함을 찾기 위함이라." 그러나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무정욕자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 2:20).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경주를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딤후 4:7)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무정욕은 하늘 왕의 천상 궁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안에서의 거함—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곧, 영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뜻과 그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니, 곧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그분 안에 계시듯이, 모든 믿는 자도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심이라(요 17:21). 그분의 위로가 되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곧,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며, 그분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요 14:23). 사도들이 정욕을 버린 자들에 대해 내린 정의, 곧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골 3:3 참조). 이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며(고전 3:16),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롬 8:9).

이 경지에 이른 이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상태는 사도들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든 일에서 마치 어떤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각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시켜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은밀히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사랑의 불꽃으로 특징지어지며, 그 불꽃으로 인해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겠는가?"*(롬 8:35). 그리고 사랑은 예언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기적을 행하는 원인이시며, 깨달음의 심연이자, 신성한 불의 근원이시니, 그 불이 더 많이 흘러나올수록 갈망하는 자를 더욱 뜨겁게 달구어 줍니다.

이러한 상태는 침묵의 열매이므로, 이를 이성으로 실천할 때 모든 침묵 수행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침묵 속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을 통해 무정(無情)에 이르고, 이를 통해 지극히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안에서의 거주를 누리게 된 이들은, 그곳에서 나와 구원을 찾는 이들을 섬기며, 그들을 계몽하고 인도하며 기적을 행한다. 또한 안토니우스 대성인에게도, 광야의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침묵 속에서 음성이 들려와 그를 구원의 길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사역으로 이끌었으며, 그의 사역의 열매는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사도적 경지보다 더 높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질서에 대한 고찰의 끝입니다.